



강영봉 김순자 김미진

제주어 길라잡이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52
제주어총서 ①

제주어 길라잡이

지은이 강영봉 김순자 김미진

펴낸이 제주학연구센터

펴낸곳 도서출판 각 Ltd. 

초판 인쇄 2020년 12월 26일

초판 발행 2020년 12월 30일

도서출판 각 Ltd. 

주소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 17 2층

전화 064-725-4410

팩스 064-759-4410

등록번호 제651-2016-000013호

발간등록번호 11-8553921-000009-01

ISBN 979-11-974849-0-2 03000

비매품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52
제주어총서 ①

제주어 길라잡이

강영봉 김순자 김미진

책을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제주어 길라잡이 되길”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어가 외국어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5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국여지승람》(1481)의 ‘이어간삽’(俚語艱澁), 곧 ‘촌백성의 말이 간삽하다’고 한 표현이 잘 말해줍니다.

《동국여지승람》의 ‘간삽하다’는 ‘어렵고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제주어가 ‘독특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제주어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언어 등 고어가 살아있고, 제주의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어휘들이 삶의 언어로 팔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어가 2010년 12월 8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학계는 물론이고 예술작품, 방송과 신문, 유튜브, 상호, 상품명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어가 단순히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되어 그 말을 지켜야 할 소명의식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제주어가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에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학총서 19’로 《제줏말의 이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호응과 함께 너무 어렵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발간한 책자가 부족하고, 책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와 함께 쉽게 쓴 제주어 안내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점차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책이 《제주어 길라잡이》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주어 길라잡이》는 지역 방언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 완료상을 ‘-아시-(-아스-, -앗-)’로 하고 진행상을 ‘-엄시-(-엄스-)’로 표기한 점이 일전의 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개음화에서 ‘ㄱ, ㄴ, ㅋ’(참기름>참지름, 끼다>찌다, 내키다>내치다)과 ‘ㅎ’(내밀힘>내밀심)도 언급하고, ‘ㄱ트다, ㄱ뜨다’에서 온 ‘ㄱ치, ㄱ찌’ 등은 예외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장 표현에서도 ‘-ㄴ(-은, -는) 생이다’, ‘-ㄴ(-ㄹ) 거 닳다’, ‘-ㅁ직(-음직, -엄직)ㅎ다’ 등 짐작이나 추측의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어휘에서는 ‘물소중의’, ‘소라’, ‘연’(鳶)의 부분 명칭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제주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내용입니다.

용례를 입말에서 따오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격 조사 ‘가’가 모음 다음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거리 신 것이 고팡.”(안채 있는 것이 광.)에서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도 연결되고, 관형사형 어미 ‘-는’이 “숙쇄가 질 폐랍는 생이라.”(취소가 젤 폐로운 모양이야.)에서와 같이 형용사 어간에도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어 습득은 실제 발화를 통하여 익힐 때 가장 효용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현장 조사에서 녹취한 발화를 용례로 인용하였는데,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용례만으로도 제주어의 말맛은 물론이요, 독특한 제주문화를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각 장 앞에 시나 노랫말을 언급한 것은 언어 공부에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언어 공부도 흥미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언어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어 길라잡이》의 많은 부분의 원고를 맡아 집필해 준 강영봉 제주대학교 명예교

수님, 귀중한 사진 자료를 제공해 준 서재철 자연사랑 미술관 관장님, 삽화를 그려준 이강인 선생님, 교열을 함께해 준 김보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책임을 맡아 꾀은일을 도맡아한 우리 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위원과 현혜림·서수빈 선생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의 용례로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을 함께해 준 연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주어 채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제보자 삼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책의 품격을 더해주기 위해 애쓰신 도서출판 각 박경훈 대표님과 강경흠 선생님의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위해 필자들은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부디 이 책이 제주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제주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어총서 발간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0. 12. 20.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일러두기

1. 《제주어 길라잡이》는 제주어총서 1권으로, 6장과 〈부록〉 1, 2로 되어 있는 제주어 개론서다.
2. 이 책은 학교문법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문체로 기술하였다.
3. 용례는 필자들이 참여했던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지역어 조사’, ‘민족 생활어 조사’ 보고서 등에서 따왔다.
4.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역도 하였다.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에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그 뜻을 제시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대로 둔 경우도 있다.
예 새 보리낭에 불을 숨아가난 연기가 팡팡 나.
(새 보릿집에 불을 때어가니 연기가 팡팡 나.)
장밋딤선 푸지게로 돌 지어 날라.
(장지에서는 ‘푸지게’로 돌 저 날라.)
5. 시각 자료인 사진 29장과 삽화 19컷을 첨부하였다. 또한 참고하거나 보충한 내용은 별도의 상자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예 아래아 입력 방법, 물때 등

6. 제주어 연구 관련 단행본과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제주어 자료를 모은 ‘제주어 관련 문헌 목록’을 〈부록 1〉로 실었다. 또한 용례의 어휘를 모은 ‘《제주어 길라잡이》 작은 사전’을 〈부록 2〉로 꾸며 이용에 편의를 꾀하고자 하였다.

7. 이 책에서의 부호 쓰임은 다음과 같다.

(): 표준어 대역, 우리말과 원어 표기를 함께 적을 때

예 소분(掃墳), 하자갈(qaɟagar)

[]: 발음, 변한 한자음과 고유어에 해당하는 한자

예 폭낭[풍낭], 제[時]

{ }: 형태소 표시

예 피썰[피+썰]로 쏜 거는 헤영헌 곤죽[곤--+죽] 닳앙 더 맛이 좋곡.

(핍쌀로 쏜 거는 허연 흰죽 같아서 더 맛이 좋고.)

‘ ’: 대응 표준어가 없는 제주어

예 동지짐친 멜첫 들어사 맛 좋아.

(‘동지김치’는 멀치첫 들어야 맛 좋아.)

《 》: 책 이름

예 《동국여지승람》

〈 〉: 표, 사진, 그림 표시

예 〈표 1〉 품사 분류 기준

〈사진 1〉 석주명(1947)의 《제주도방언집》 12쪽

〈그림 1〉 구로시오해류

차례

책을 내며 | 4

일러두기 | 8

1. 제주 사람은 제주어를 쓰는 사람 **제주어** | 13

1.1. 제주어의 정의 | 16

1.2.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 | 22

1.3. 제주어에 대한 선인들의 평가 | 30

1.4. 제주어가 어려워진 이유 | 33

1.5. 제주어의 특징 | 38

2. 가지가 답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 **자음과 모음** | 43

2.1. 자음 | 46

2.2. 모음 | 51

2.3. 음운 변화 | 69

3. 빵집은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단어** | 99

3.1. 형태소와 단어 | 102

3.2. 단어 형성 | 108

3.3. 품사 | 129

4. 집을 치면,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문장** | 199

4.1. 문장 성분 | 202

4.2. 문장 종결 | 210

4.3. 높임 표현	217
4.4. 시간 표현	233
4.5. 상 표현	241
4.6.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246
4.7. 부정 표현	248
4.8. 추측·짐작 표현	254
5. 메친은 어깨끈게 어깨끈 어휘	261
5.1. ‘제주바당’을 건너온 문헌어	264
5.2. 선비 따라온 한자어	269
5.3. 국경을 넘어온 몽골어	274
5.4. 특이 어휘	280
5.5. 반복어와 흥내말	301
5.6. 잊히는 부분 명칭	307
6. 가거들랑 훈저 읍서에 의미와 담화	319
6.1. 의미	321
6.2. 담화	342
찾아보기	350
〈부록 1〉 제주어 관련 문헌 목록	372
〈부록 2〉 《제주어 길라잡이》 작은 사전	377

1. 제주 사람은 제주어를 쓰는 사람

제주어

- 1.1. 제주어의 정의
- 1.2.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
- 1.3. 제주어에 대한 선인들의 평가
- 1.4. 제주어가 어려워진 이유
- 1.5. 제주어의 특징

제주어
길라잡이

제주국제공항에라도 나가 출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보라. 얼굴이나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 손에 들고 있는 물건으로 제주 사람임을 알 수 있을까. 모두 엇비슷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주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제주 사람이 쓰는 말이 곧 제주어다.

1. 제주 사람은 제주어를 쓰는 사람 제주어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 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幼年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하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濟州의
겨울을 빛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 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제주바다》(문학과지성사, 1978:36~37)

문충성(1938~2018) 시인의 대표작 〈제주바다 · 1〉의 3연이다. 그는 《제주바다》(1978)를 비롯하여 《자청비》(1980), 《설문대할망》(1983), 《그때 제주 바람》(2003) 등의 시집을 통하여 제주도의 토속적인 정서를 노래한다. 전달의 효과를 위하여 제주어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의 시 〈제주바다 · 1〉 가운데 유독 관심을 끄는 시구는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다. 시인의 말을 빌리면, ‘진짜 제주 바다’를 알려면 ‘제주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 사람’의 징표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제주 사람임을 구분해 낼 것인가.

1.1. 제주어의 정의

제주국제공항에라도 나가 출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보라. 열굴이나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 손에 들고 있는 물건으로 제주 사람임을 알 수 있을까. 모두 엇비슷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주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제주 사람이 쓰는 말이 곧 제주어다. 정의하면 (1)과 같다.

(1) 제주어 정의: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

여기서 ‘제주도’라 함은 한자로 섬 도(島)를 쓴 ‘제주도’(濟州島)를 말한다. 그래야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전라 문화권에 속하는 추자도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주도’는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본섬과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뜻한다. 제주 본섬과 그 북쪽 추자도 사이에 있는 ‘제주바당’이라는 제주 해협이 경계가 된다. ‘제주바당’ 북쪽은 전라 문화권에 속하고, 그 남쪽은 제주 문화권에 속한다.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나 감정에 속한다. 그러니 제주어는 표준어에 있든 없든, 다른 지역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이 예전에서부터 써 오는 언어를 말한다.

(2) ㄱ. 감저 파는 건 **놉** 빌영 골쟁이로 파사주.

(**고구마** 파는 건 **놉** 빌려서 **호미**로 **파야지**.)

ㄴ. 고무줄험시몬 그 고무줄 빼앗아 분다 허멍 막 **몽니**를 부려나서.

(**고무줄**놀이하고 있으면 그 고무줄 빼앗아 버린다 하며 아주 **몽니**를 부렸었어.)

ㄷ. **성님** **성님** **수춘** **성님** **씨집살**이가 어떡디가?

(**형님** **형님** **사춘** **형님** **씨집살**이가 어떡디까?)

(2ㄱ)의 ‘놉’과 (2ㄴ)의 ‘몽니’는 표준어이자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하는 품팔이 일꾼’을 ‘놉’,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 하였다. ‘놉’과 ‘몽니’는 표준어이지만 제주 사람들도 예전부터 써 온 말이다. (2ㄷ)은 씨집살이 노래의 한 구절로, 노랫말의 ‘성님’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등지에서도 쓰이고 있는 말이다. 이 ‘성님’은 제주 사람들도 예전부터 써 오는 말로, 이 또한 제주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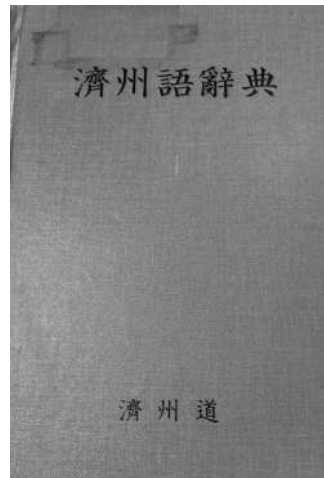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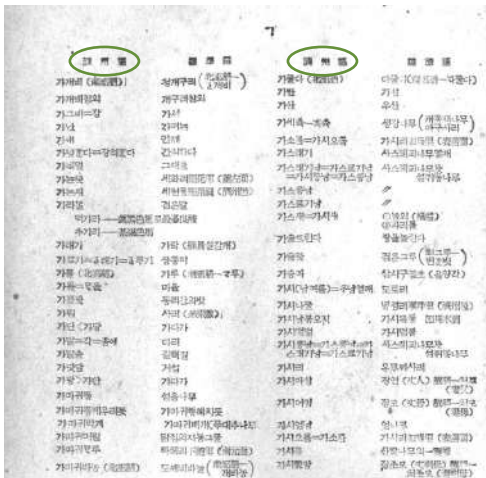
‘제주어’를 ‘전래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부터라고 해야 할까. 방언을 조사할 때 80대 중후반의 제보자를 선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충의 시기는 짐작이 될 것이다.

‘제주어’라는 용어는 일본인 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처음 썼다. 그의 <제주도방언>(2)(1913, 《조선급만주》69호, 58)의 일부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3) 제주도에는 조선의 옛말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섬나라로 수백 년 전의 옛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다. 아직 자세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경성어의 ‘오다’라고 하는 말은 ‘오와’, ‘오시고’ 등이 되면서 ‘오’ 어간에 어떤 형태가 없지만 명령법이 되면 ‘오나라’처럼 ‘ㄴ’이 갑자기 삽입된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런데 제주어에서는 ‘오람수다’, ‘오람서’, ‘오람저’처럼 대부분의 경우 ‘ㄹ’이 들어간다. 즉 이 ‘ㄹ’이 경성어의 ‘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어는 오히려 조선어의 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잘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문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

(3)의 인용에 밑줄 친 것처럼 ‘제주어’가 두 번 언급되었는데, ‘경성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이후 석주명은 1947년 《제주도 방언집》을 출간할 때 <사진 1>에서처럼 ‘제주어’, ‘표준어’를 제시하고 그 아래로 해당 어휘를 늘어놓고 있다. <참고문헌>에 앞에서 인용한 오구라 신편이의 논문이 언급된 것을 보면 석주명의 ‘제주어’라는 명칭 사용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는 1995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참여자: 현병호 김종철 김영돈 강영봉 고광민 오창명]에 의뢰하여 《제주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후 ‘제주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사진 1> 석주명(1947)의 《제주도방언집》 12면. 제주어와 ‘표준어’ 밑으로 해당 어휘를 늘어놓고 있다. <사진 2> 1995년 제주도 발간의 《제주어사전》 표지

제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제주어’라고 한다면 ‘제주방언’은 사

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어’나 ‘제주방언’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한국의 방언 구획은 대체로 여섯 개 대방언권으로 나눈다. 동남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제주방언이 그것이다.

(4) ㄱ. 동남방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ㄴ. 동북방언: 함경남도의 영흥 이남 지역을 제외한, 함남 정평 이북의 함경도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ㄷ. 서남방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ㄹ. 서북방언: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ㄴ. 중부방언: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충청남북도, 황해도 재령 이남, 함남 영흥 이남 및 강원도 지역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ㅂ. 제주방언: 제주도 지역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4)는 여섯 개 대방언권 명칭과 그에 따른 지역을 제시한 것이다. 동남방언은 경상도, 동북방언은 함경도, 서남방언은 전라도, 서북방언은 평안도, 중부방언은 서울·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 제주방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언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방언권에 따라 ‘동남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제주방언’을 열거할 때 ‘제주방언’ 대신에 ‘제주어’로 바꾸어 ‘동남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제주어’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주방언을 달리 ‘제주어’, ‘제주 지역어’, ‘제주말’, ‘제줏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5) ㄱ. 제주방언: 제주도 지역에서 쓰이는, 국어 대방언권의 하나.

ㄴ. 제주어: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이 쓰는, 전래적인 언어.

ㄷ. 제주 지역어: 제주 지역에서 쓰는 언어.

ㄹ. 제주말 · 제줏말: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

‘제주방언’은 방언학 또는 국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써 오는 명칭이다. ‘제주어’라는 용어 사용은 일본인 학자 오구라 신페이로부터 시작해서 석주명, 제주도(1995)의 《제주어사전》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어’는 국립국어원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추진한 〈지역어 조사 사업〉, ‘제주말’은 송상조(2007)의 《제주말큰사전》, ‘제줏말’은 제주학연구센터(2015)가 펴낸 《제줏말의 이해》를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런 일들을 고려하면, ‘제주방언, 제주어, 제주 지역어, 제주말, 제줏말’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용어라 할 수 있다.

1.2.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

방언학에서 방언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눈다. 지역 방언은 언어 분화가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분화된 것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지역 방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주로 고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사 지역도 시골, 제보자 또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대개 80대 이상, 기억력이 분명하고, 청력이나 시력이 좋은 건강한 제보자를 택해서 조사한다.

반면 사회 방언은 언어 분화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방언 분화 요인을 사회계급, 연령, 성별, 종교, 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둔다. 제보자도 무작위로 선정하고, 조사된 내용도 사회 조사 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한다. 조사 내용은 계량적으로 처리하며, 조사 지역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주를 이룬다.

지역 방언으로서 제주어 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방언 조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이 그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83년 1차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두 곳에서 조사했으며, 2차는 1992년과 1994년 성산읍 신양리, 제주시 도남동과 오등동에서 조사해 1995년 《한국방언자료집》(9, 제주도 편)으로 출간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언 조사는 음운, 문

법, 어휘 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는 2004년부터 10년에 걸친 조사이나 실제 지역어 조사는 일곱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한경면 조수2리, 2006년 서귀포시 호근동, 2007년 표선면 가시리, 2008년 구좌읍 동복리, 2009년 서귀포시 색달동, 2010년 제주시 건입동, 2011년 대정읍 가파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9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립국어원의 조사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 항목인 음운, 문법, 어휘는 물론 자연스런 상황에서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자연발화를 추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전역에 걸쳐 36개 마을을 선정해 조사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우도면 한 곳, 구좌읍 두 곳을 제외하면 읍면별로 3개 마을씩 조사한 셈이다. 조사 내용은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보고서》(36권)로 발간하였다.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어휘 부분과 자연발화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자연발화 부분은 조사 내용 가운데 10시간씩 전사하였다. 이 구술 자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어 대역 작업을 하고 4년에 걸쳐 《제주어 구술 자료집》(36권)으로 발간해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사회 방언으로서 제주어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표 1〉 연도별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마을 일람

2014년		2015년		2016년	
1	제주시 도련1동	13	제주시 외도동	25	제주시 노형동
2	조천읍 선흘리	14	조천읍 함덕리	26	조천읍 신촌리
3	구좌읍 송당리	15	구좌읍 한동리	27	우도면
4	성산읍 고성리	16	성산읍 삼달1리	28	성산읍 온평리
5	표선면 표선리	17	표선면 성읍1리	29	표선면 세화리
6	남원읍 남원리	18	남원읍 수망리	30	남원읍 태흥리
7	서귀포시 보목동	19	서귀포시 하원동	31	서귀포시 토평동
8	안덕면 동광리	20	안덕면 대평리	32	안덕면 덕수리
9	대정읍 구역리	21	대정읍 신도리	33	대정읍 인성리
10	한경면 고산리	22	한경면 청수리	34	한경면 신창리
11	한림읍 월령리	23	한림읍 대림리	35	한림읍 옹포리
12	애월읍 봉성리	24	애월읍 고내리	36	애월읍 구엄리



〈사진 3〉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 자네가 경찰 수 신가?

(자네가 그럴 수 있는가?)

(2) ㄱ. 무사 차 안 시켰?

(왜 차 안 시켰니?)

ㄴ. 언니 오면 주문하젠 기냥 이서.

(언니 오면 주문하려고 그냥 있어.)

ㄷ. 기? 차 주문허게.

(그래? 차 주문하자.)

(1)의 ‘자네’는 40, 50대 남자에 대해서만 주로 쓸 수 있는 말이다. 여성을 ‘자네’라고 하지는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자네’는 “처 부모가 사위를 부르거나 이를 때, 또는 결혼한 남자가 처남을 부르거나 이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는 찻집에서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다. ‘언니’라는 단어는 여성들이 쓰는 어휘로, 남성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는 여성, 남성에 따라 선택하는 어휘가 다름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언니’는 사회 방언에 속한다.

‘깍두기’를 조사한다고 가정하자. (3)은 80대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조사된 내용이다.

(3) 조사자: 깍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제보자: 무.

조사자: 옛날에도 ‘무’렌 हे수까?

제보자: 아니, 옛날은 ‘무수’나 ‘놈삐’렌 헤서.

(4) 조사자: 깍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제보자: 무요.

조사자: 예전에도 ‘무’라고 했나요?

제보자: 네, 옛날에도 ‘무’라고 했어요.

(3)이나 (4)의 첫 번째 질문인 “깍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에 대한 응답은 무의식 중에 나온 대답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의 응답은 다르다. 조사자의 두 번째 질문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생각을 정리하여 답하게 된다. 조사 결과 (3)에서는 ‘무수, 농삐’, (4)에서는 ‘무’로 갈리고 있다. 만약 《제주어사전》을 만든다고 하면 이들의 어휘 중 어느 형태를 표제어로 택할 것인가. 아마도 ‘무수, 농삐’를 표제어로 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방언형 ‘무수’는 옛말 ‘무수’가 ‘무수>무수’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표준어에서는 ‘무수>무우>무’로 변화한다. ‘무수’와 ‘무’로 갈리는 것은 제주어에서는 ‘△>ㅅ’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며, 표준어에서는 ‘△>탈락’ 과정을 거친 어휘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8일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제4단계 ‘심각하게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였다. 즉 제주어를 소멸 직전의 언어로 분류한 것인데, 이는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를 인식한 결과다.

(3)에서처럼 ‘무수’와 ‘늬삐’ 등 방언의 여러 변이형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표준어 규정〉 제25항과 제26항은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에 대한 규정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제25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6항)라 하여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가는허리·잔허리’, ‘가뭇·가뭇’, ‘감감무소식·감감소식’ 등은 두 개의 어휘를 복수 표준어로,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등은 세 개 어휘를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다.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은 무려 다섯 개 어휘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여 국어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어의 여러 방언형들도 복수의 제주어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어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5) ㄱ. 물자리: 수산(성산) 온평 삼달 가시 남원 수망 태흥

ㄴ. 물젤: 조천 선흘 송당

ㄷ. 밤부리: 인성 동광 덕수 구억 노형

ㄹ. 밥주리: 표선 서흥 하원 화순 대평 인성 조수 어도 고내 노형 삼양

ㅁ. 밥주어리: 봉성

ㅂ. 산태: 신도 고산 신창 월령

- ㄱ. 산태비: 청수 산양
- ㅇ. 안진방석: 서흥
- ㄷ. 오쟁이자리: 고성(성산)
- ㅈ. 오중예: 남원
- ㅋ. 왕놈: 용당
- ㅌ. 잘: 신촌 함덕 동북 우도
- ㅍ. 존자리: 세화(표선)
- ㅎ. 한다바리: 삼양

(5)는 ‘잠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다. (5ㄱ)의 ‘물자리’부터 (5ㅎ)의 ‘한다바리’까지는 지역에 따라 조사된 방언형이다. 방언형 다음은 조사 지역으로, (5ㄱ)의 ‘수산(성산)’은 ‘성산을 수산리’, (5ㄷ)의 ‘고



〈사진 4〉 잠자리(사진 서재철)

성(성산)’은 ‘성산을 고성리’, (5ㅍ)의 ‘세화(표선)’는 ‘표선면 세화리’를 말한다.

(5ㄱ)부터 (5ㅎ)까지 조사된 14개 방언형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고” 있으면 하는 규정처럼 모두를 제주어로 인정하면 된다. 어느 방언형 하나 또는 몇 개 어휘만을 취하여 대표형으로 할 수

는 없다.

(6) ㄱ. 기름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져낸 후 거기에 무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ㄴ. 멍석떡: 한림

ㄷ. 빈: 인성 비양도

ㄹ. 빈떡: 하원 화순 덕수 구억 조수 한림 비양도

ㅁ. 빙: 세화(구좌) 우도 가파도 청수

ㅂ. 빙떡: 신촌 조천 한동 화순 동광 인성 봉성 고내 외도 노형 삼양

ㅅ. 영빈: 색달

ㅇ. 전기: 수산(성산) 온평 남원 수망 토평

ㅈ. 전기떡: 수산(성산) 표선 세화(표선) 성읍 서홍

(6ㄱ)은 질문 내용이고, (6ㄴ) ‘멍석떡’부터 (6ㄲ) ‘전기떡’까지는
조사된 8개 방언형이다. 대체적
으로 제주시 지역은 ‘빙떡’, 서귀
포시 서부 지역은 ‘빈, 빈떡’, 서
귀포시 동부 지역은 ‘전기, 전기
떡’이 쓰인다. (6ㄴ)의 ‘멍석떡’은
멍석처럼 말아서 만든 떡이라는
뜻이고, (6ㄷ~ㅂ)의 ‘빈’ 또는 ‘빙’



〈사진 5〉 빙떡 (사진 강영봉)

은 ‘떡’을 뜻하는 한자어 ‘병’(餅)의 제주어식 발음이다. 특히 (6ㄷ)의 ‘빈떡’이나 (6ㄴ)의 ‘빙떡’은 ‘한자어+고유어’ 구성으로, 의미가 중첩된 경우다. 이는 ‘고목(古木)나무’, ‘초가(草家)집’처럼 ‘한자어+고유어’ 구성과 같이 되어 있다. (6ㅇ) ‘전기’와 (6ㅈ) ‘전기떡’의 ‘전기’는 ‘전’(煎)을 뜻하는 ‘전지’가 ‘전기’로 바뀐 것이다. 결국 조사된 방언형은 모두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1.3. 제주어에 대한 선인들의 평가

‘제주어’에 대한 옛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1) 지방 말이 어렵다○촌백성의 말은 어렵고, 앞이 높고 뒤가 낮다.《동국여지승람》, 1481, 38권, 〈제주 풍속〉)

(1)은 제주어에 대한 맨 처음 평가다.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도 제주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540년 전에도 제주어가 어려웠던 것이다. 《동국여지승람》(1481) 가운데 언어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고 보면 제주어가 540년 전부터 특이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 말이 간삽하다. 촌백성의 말이 간삽하고, 앞이 높고 뒤가 낮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높은 게 바늘과 같고, 또한 많은 말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주기에는 특이한 어휘가 많아 ‘서울’을 ‘서나’라 하고 ‘숲’을 ‘고지’, ‘오름’을 ‘오름’, ‘툽’을 ‘콰’, ‘입’을 ‘굴레’, ‘굴레’를 ‘녹대’, ‘재갈’을 ‘가달’이라 하는데 그 말소리는 이와 같다 하였다.(이원진(李元鎭), 《탐라지》, 1653. <풍속>)

(2)는 제주 목사를 지낸 이원진의 《탐라지》 ‘풍속’ 중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어는 어렵다’는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인용하고 구체적인 어휘 7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대, 가달’이라는 몽골 차용어까지 예로 들어서 제주어가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언급한 어휘는 <표 2>와 같다.

<표 2> 《탐라지》의 제주어 어휘

표준어	제주어	비고
서울[京]	서나	서울
숲[藪]	고지, 꽃	숲, 꽃
오름[岳]	오름	오르[登]-+-口
툽[爪]	콰	손콰(손툽), 발콰(발툽)
입[口]	굴레	훈굴레(한입)
굴레[草羈]	녹대	몽골어 차용
재갈[鐵銜]	가달	몽골어 차용

‘서나’는 신라의 수도 ‘서라벌’과 비슷하고, ‘고지, 꽃’은 ‘숲, 꽃’, ‘오

름’은 ‘오름’이다. 옛 어휘들이지만 이제는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다. ‘콧’은 ‘손콧’(손톱), ‘발콧’(발톱)의 ‘콧’으로, ‘나눔’ 또는 ‘나누어진 것’, ‘경계’의 뜻으로도 쓰이는 말이다. 이 ‘콧’의 뜻은 ‘콧대산이’의 ‘콧’에서 찾을 수 있다. 마늘의 비늘껍질을 벗기다 보면 6~9개의 날개 마늘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때 나누어진 각각이 쪽이니 ‘콧대산이’는 곧 ‘쪽마늘’이 된다. ‘콧’은 ‘갑’(굴 혼 갑), ‘굽’(굽엇이), ‘굽찢다’(분별하다) 등의 ‘갑’, ‘굽’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녹대’와 ‘가달’은 몽골어 차용으로, 각각 몽골어 ‘nogto’와 ‘hajaɣal’(qajagar)에서 온 말이다. ‘하자갈’에서 ‘ㅎ’과 ‘ㄱ’은 서로 넘나든다. ‘징기스칸’ 하는 사람도 있고, ‘징기스한’ 하는 사람도 있다. ‘징기스칸’이든 ‘징기스한’이든 같은 사람이니 ‘하자갈’이 ‘가달’이 됨은 자연스럽다.

(3) 또 주호국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정검은 주호가 지금의 제주가 아닌가 한다 하였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언어는 한과 같지 않다.(言語不與韓同) 모두 머리를 깎는데 선비족과 같다. 옷은 오직 가죽옷을 입으며, 소와 돼지 키우기를 좋아한다. 옷은 상의만 있고 하의는 없다. 배를 타 왕래하며 중한에 물건을 사고판다.《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권30)

(3)은 중국의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의 ‘주호’에 대한 내용으로, ‘마한’ 꼬트머리에 언급하여 “주호(州胡)의 언어가 마한과 다

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주호’가 제주도임을 상정하면 ‘제주도의 언어는 한반도 마한 지역의 언어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주어는 마한(한반도)과 다르다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중국인명대사전》에 따르면 내주에 나오는 ‘정겸’(丁謙)은 남당(937~975) 때 강소성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1520),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1601),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1704) 등에서도 제주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어는 어렵다.”로 귀결된다.

1.4. 제주어가 어려워진 이유

언어는 유기체와 같아서 신생, 성장, 사멸의 길을 걷는다. 곧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를 ‘개신’이라고 한다. ‘개신’은 기존의 언어 현상에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를 말한다. 이런 언어의 변화 과정을 파문에 비유하기도 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점 멀리, 넓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번지어 나간다. 이때 돌이 떨어진 곳을 방사(放射)의 중심이라 하고, 호수의 가장자리와 같이 파문이 나중에도달하는 곳을 잔재지역이라 한다. 이때 호수에 아무 장애물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번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

다. 나무토막이 떠 있기도 하고 퇴적층이 발달한 곳이 있기도 한데, 이때 나무토막이나 퇴적층은 장애물이 되어 파문의 번짐을 가로막는다.

전국적으로 ‘가’가 쓰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서울의 젊은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 대신에 새로 생긴 ‘ㄱ’을 더 즐겨 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게 된다. 강원도를 향해 서울을 출발한 ‘ㄱ’은 대관령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도달한다. 그러나 ‘대관령’에 이르면 문제가 생긴다. 고개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고개를 넘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 만다. 그 결과 대관령을 기준으로 그 서쪽에서는 새로운 ‘ㄱ’을 쓰는 반면 대관령 동쪽에서는 ‘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전부터 써 오던 ‘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 말인 ‘가’를 쓰는 지역의 언어를 ‘영동방언’, 새로운 말인 ‘ㄱ’을 사용하는 지역의 언어를 ‘영서방언’이라 하여 두 지역의 언어를 구분하여 부른다.

제주도를 향해 떠난 ‘ㄱ’은 어떠한가. ‘ㄱ’은 한강을 지나 드넓은 평야 지대를 손쉽게 지난다. 영산강, 만경강, 금강을 지나며 한 고비를 넘겨 강진이나 마량 포구에 도착한다. 배를 타 추자도까지는 그리 큰 장애를 받지 않고 도달하지만 ‘추자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거센보름’(앞바람)이 불면 배가 나아갈 수 없으니 꼼짝없이 추자도에 갇히고 만다. 기다렸다가 북풍이 불면 그때야 비로소 배를 띄워 제주도로 향해하는 것이다.

(1) 김방경(金方慶)이 몽고 혼도(忻都)와 더불어 추자도에 머물러 바람을 기다리는데, 밤중에 바람이 급하여 지향할 곳을 알지 못하였더니, 새벽에 보니 이미 탐라에 가까워졌는데 바람과 큰 파도가 세차서 오도가도 못하였다. 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국가가 편안하고 위태함이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는데, 오늘의 일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니, 조금 뒤에 풍랑이 그쳐 마침내 진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탐라 사람들이 그 공을 생각하여 후풍도(候風島)라고 이름하였다.

(2) 돛을 달아 출발하여 100여 리쯤 가니 바람 사납고 파도 거치니 큰 물결이 하늘로 치솟고 위태로운 돛대는 공중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뜬구름은 서로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태반이다. 나 또한 뱃장에 들어가 누우니 그네 위에 있는 것 같았다.

(3) 이 섬(제주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서북풍이러야 하고, 나올 때는 동남풍이러야 한다. 만일 순풍을 만나면 한 조각의 배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건널 수 있으나, 동남풍을 만나지 못하면 매나 송골매의 날개가 있다고 하나 일 년의 세월이 바뀔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4) 끝없는 너른 바다는 하늘과 한 색깔이요 성난 파도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일어 동서남북이 아득하여 끝이 없는데 집채 같은 큰 물결이 돌바위를 광광 부수어 내며 바람을 따라 여기서도 우르릉 팔팔 저기서도 왈랑왈랑 창나무 꺾어져 용총졸 마룻대 동강 고물이 번듯 이물로 숙어지고 이물이 번듯 고물로 기울어져 덩빙뒤뚱 조리질하니 무인절도에 난파선이 가례없다.



〈그림 1〉 제주바당의 성난 파도에 조리질하는 배

(1)은 《동국여지승람》(38권, 〈제주목〉 ‘산천’)의 내용으로, 추자도를 ‘바람을 기다리는 섬’이라 하여 “후풍도”라 하였다. 추자도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북풍이 불면 배를 내어놓아 제주도로 들어온

다는 것이다. 만일 북풍이 불지 않으면 추자도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2)는 임제(林梯)의 《남명소승》(1577) 내용이다. 임제는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로 시작되는 시조를 쓴 사람이다. 임제가 아버지 임진(林晋)이 제주 목사로 있을 때인 1577년 11월부터 1578년 3월까지 제주도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이 《남명소승》이다. 배를 타고 제주해협을 건너는 대목이 바로 (2)로, 멀미가 심해 뱃장에 들어가 누우니 마치 그네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3)은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1628) 내용으로, 바람을 잘 만나면 하루에 ‘제주바당’을 건널 수 있으나 바람을 만나지 못하면 일년이 지나도 건널 수 없다는 것이다. (4)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유일한 고전소설인 <배비장전>의 내용이다.[신해진(1999:253)의 《역주 조선 후기 세태소설》 인용] 집채 같은 큰 물결이 일어나니 창나무가 꺾어지고, 용총출 마룻대가 동강나고, 고물이 번듯 위로 들리니 이물은 바닷물 속으로 숙어지고, 이물이 번듯 들리면 고물로 물속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마치 “조리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1), (2), (3), (4)는 모두 ‘제주바당’이라는 제주해협을 사나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원하는 구로시오[黑潮]해류는 제주도 서남쪽에서 세 개의 지류로 나뉘어 흐른다. 그 하나는 황해로 흘러들어 가는데, 막다른 길로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일본 열도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막힘이 없어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나 제주도를 경유하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로 흐르는 물길은 그 폭이 좁기 때문에 물



<그림 2> 구로시오해류

결이 셀 수밖에 없다. 서귀포 지역 해안에 특히 벼랑이 많은 것도 이 구로시오해류 때문이며, 선인장과 문주란과 뉴질랜드삼이 들어온 것 또한 구로시오해류의 영향이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를 통과하는 거센 물살 또한 제주 항해를 가로막는다. 한반도와 추자도 사이는 섬이 많은 다도해여서 물결이 비교적 잔잔한 데 비하면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인 제주해협은 물살이 거세다. 제주해협의 거센 물살이 끝내 언어 이동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 추자도를 기준으로 그 북쪽을 전라방언, 그 남쪽을 제주방언이라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어는 ‘바람과 물결이 가른 언어’다.

1.5. 제주어의 특징

제주어의 특징 가운데 음운 부문의 특징으로 우선 모음 체계를 들 수 있다. 제주어 모음은 ‘ㅣ, ㅐ, ㅙ, ㅡ, ㅓ, ㅗ, ㅜ, ㅛ, ㅝ’가 3(ㅣ, ㅐ, ㅙ) : 3(ㅡ, ㅓ, ㅗ) : 3(ㅜ, ㅛ, ㅝ)이라는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소위 ‘아래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아’를 발음하지 못하는 젊은층에서는 3:3:2라는 일그러진 모양을 바로 세우려고 전설 모음의 ‘ㅐ, ㅙ’를 하나로 해서 2:3:2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ㅣ’와 ‘ㅝ’의 합음인 ‘쌍아래’(ㅟ)가 존재하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쌍아래아는 어두에 나타난다는 위치 제약이 있다.

음운 변화 가운데 ‘ㅎ’ 첨가 현상은 두드러지다. 이 ‘ㅎ’ 첨가 현상은 옛말의 영향을 받은 ‘무실카다(무실ㅎ+가다), 조팍(조ㅎ+밥)’ 등을 비롯하여 ‘처가집(처갓집), 땔첫(땔치젓), 뭍국(모자반국)’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농, 마농, 바당, 어멍, 아방’ 등 비음인 ‘ㅇ’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다는 것도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생이, 골갱이, 임텡이’ 등 ‘ㅇ’ 계통의 접미사도 많다.

‘ㄷ, ㅌ’이 ‘ㅣ’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발음의 문제이나 제주어에서는 표기에 적용되기도 한다. ‘ㄱ찌, ㄱ치(갈이)’와 ‘부치다(붙이다)’ 계열의 ‘내다부찌다 · 내다부치다(내붙이다), 메다부찌다 · 메다부치다(메다붙이다)’ 등 어휘들은 발음대로 적는다.

문법 부문에서는 ‘깎다, 꺾다, 깊다’ 등이 ‘가프다, 꺾끄다, 지프다’ 등이 나타나는 점과, ‘걸다 · 걸다’[步], ‘엇다 · 웃다’[無], ‘질다 · 걸다’[長] 등 어간이 둘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잇다[連], 짓다[作]’ 등은 활용할 때 ‘잇어, 잇으난’, ‘짓어, 짓으난’처럼 어간 끝소리 ‘ㅈ’을 유지한다. 이는 제주어에는 ‘ㅈ’ 불규칙 용언이 없다는 말과 같다.

격 조사 가운데 주격 조사 ‘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것, 그것’ 등에 연결되어 ‘것가, 그것가’로 실현되기도 하며, 여격 조사로 ‘신디, 아피, 안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처격 조사 또한 ‘의, 디, 레’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조사로 ‘아올라’(마저), ‘이랑마랑’(커녕), ‘이사’(이야) 등도 특이 형태인데, ‘이사’는 옛말 ‘이사’에서 온 것이다.

종결 어미도 상대 높임의 ‘하라체(허라체)’, ‘하여체(허여체)’, ‘흡서체(협서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디 감순?”의 ‘-순’, “이레 들어오심.”의 ‘-심’은 여성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어미며, “큰아덜이 큰아덜이다.”의 ‘-인다’, “막 곱나.”의 ‘-나’도 특이 형태의 어미다. 의문형 어미도 “우리 췌가?”처럼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 ‘-나가’가 쓰이고, “뭇 설고?”에서처럼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 ‘-노고’가 연결되어 쓰인다.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어미가 갈리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에만 연결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는 생이다.” 구성에서는 형용사에도 연결되기도 한다. “산디찍이 질기는 생이라.”(밭벗짚이 질긴 모양이야.), “속췌가 폐랍는 생이라.”(침소가 폐로운 모양이야.), “감저 꿀이 부드러운 생이라.”(고구마줄기가 부드러운 모양이야.) 등에서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되어 쓰인 경우다. 이는 ‘생’이 표준어 ‘모양’에 대응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진행상의 ‘-암시-’도 동사는 물론 형용사에도 연결되는데, “얻어먹지 못헿 족암젠”(얻어먹지 못해서 작다고), “좋암젠 곱아난.”(좋다고 말했었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수-’는 “성복제 후제 허는 게 맞수다.”(성복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걷는 건 아방 닥수다게.”(걷는 건 아버지 닥습니다.) 등 동사에 연결되기도 하고, “성님은 머리도 좋수다.”(형님은 머리도 좋습니다.), “이제 고맙수텐 혜영 할마님 신디 치성메 허영 올려.”(이제 고맙습니다고 해서 삼신할머니한테

삼신메 해서 올려.)처럼 형용사에 연결되기도 한다.

또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우-’는 “사람이 천지우다.”(사람이 천지입니다.), “세 가지가 뉘우다.”(세 가지가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우다.”(보통 일이 아닙니다.) 등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 ‘아니다’ 등에 연결된다. 특히 형용사 ‘하다’[多]인 경우는 ‘-우-’ 또는 ‘-수-’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런 남은 내창에 하우다.”(그런 나무는 내에 많습니다.), “경훈 께야 하수다.”(그런 굴 많습니다.) 등이 그런 경우다.

완료상의 ‘-아시-’, 진행상의 ‘-암-’이나 ‘-암시-’, 시간 표현으로 과거의 ‘-ㄴ’과 미래의 ‘-ㅇ’, 피동사로서의 ‘-어지다’는 자주 쓰이는 표현 가운데 하나다. 추측이나 짐작은 “비 올 생이여.”, “비 올 거 닻다.”, “비 오람직허다.”, “비 오키여.”처럼 ‘-ㄴ/-ㄹ 생이다’, ‘-ㄴ/-ㄹ 거 닻다’, ‘-엄직허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 ‘-크-’에 의해서 표현된다.

지역에 따라 접미사를 달리하여 새로운 어형을 만들기도 하는데, ‘굽--+엥이(글쟁이), 굽--+악지(글각지), 굽--+에(글게), 굽--+에기(글게기)’가 그 예다.

‘장평’의 ‘장-’, ‘겹술’의 ‘겹-’, ‘상아털’의 ‘상-’ 등 특이한 접두사가 있는가 하면, ‘폐랍다’의 ‘-랍-’, ‘조랍다’의 ‘-랍-’ 등의 접미사도 있다. ‘-ㄱ직+-ㅎ-, -음직+-ㅎ- · -엄직+-ㅎ- · -암직+-ㅎ-’ 접미사는 많은 어휘를 만들어 낸다. “(날이) 궂엄직허다.”, “(구신) 나왓직허다.”, “(큰일) 남직허다.”, “(이젠) 살암직허다.”, “(이제사) 알아점직허다.”, “(비) 오람직허다.”, “(나 발엔) 족암직허다.” 등이 그것이다.

어휘 부문에서는 ‘지실, 감저, 식, 골쟁이, 글쟁이, 늬삔, 비바리, 신사라, 속다, 듣다[問]’처럼 특이 어휘가 많고, ‘ㄱ새(궁애), 보미다(보미다), 느쟁이(느정이), 돌마기(돌마기), 도[梁], 부섭(브섭)’ 등 옛말에 연원을 둔 어휘도 많다.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들어 맞는다. 털 색깔에 따른 말 이름 ‘가라, 고라, 구렁, 부루, 적다’를 비롯하여 ‘늬대, 가달, 도곰, 마, 수룩, 우룩, 지달’ 등은 아직도 사용하는 몽골어 차용어이다.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것도 제주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화제(和劑), 미선(尾扇), 소분(掃墳)’처럼 한자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골충(古→골), 빙떡(餅→빙), 승시(凶→승)’처럼 변형하여 쓰기도 한다. 또 방언과 표준어 사이에서도 동음 관계에 놓여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방언형 ‘새’[茅]는 표준어 ‘새’[鳥]와, 텃마루 뜻의 ‘난간’은 한자어 ‘난간’[欄干]과 동음 관계를 이룬다.

‘제주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법도 문법이지만 어휘가 다름에서 비롯된다고 할 만큼 제주어 어휘가 특이하다.

2.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 **자음과 모음**

- 2.1. 자음
- 2.2. 모음
- 2.3. 음운 변화

제주에
길리잡이

‘도박’과 ‘도반’이 각각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과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갈리는 것은 ‘도박’의 끝소리 ‘ㄱ’과 ‘도반’의 끝소리 ‘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뜻 구별에 작용하는 ‘ㄱ’과 ‘ㄴ’ 따위를 자음이라 하고, ‘도박’이나 ‘도반’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ㄷ’과 ‘ㅍ’도 뜻을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모음이라 한다.

2.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 자음과 모음

정끝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의 제3연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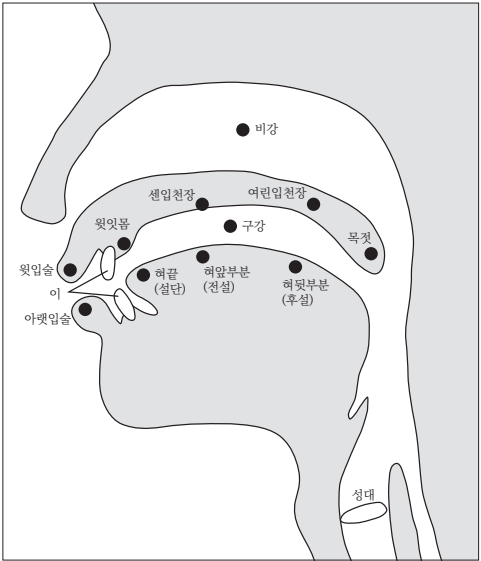
《삼천갑자 복사빛》(민음사, 2005:64~65)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하기 마련이다. 시인은 이를 ‘도박’과 ‘도반’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박’과 ‘도반’이 각각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과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갈리는 것은 ‘도박’의 끝소리 ‘ㄱ’과 ‘도반’의 끝소리 ‘ㄴ’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뜻 구별에 작용하는 ‘ㄱ’과 ‘ㄴ’ 따위를 자음이라 하고, ‘도박’이나 ‘도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오’와 ‘ㅏ’도 뜻을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모음이라 한다.

2.1. 자음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는 음으로,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 어디에선가 방해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홀로 발음할 수 없으니 독립적으로 음절을 이루지도 못한다. 자음은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뉜다.



〈그림 3〉 발음기관

(1) ㄱ. 양순음: 위입술+아랫입술

ㄴ. 치조음: 위잇몸+혀끝

ㄷ. 경구개음: 센입천장+혀 앞부분

ㄹ.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 뒷부분

ㅁ. 후음: 성문

(1ㄱ)의 양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며, (1ㄴ)의 치조음은 윗잇몸과 혀끝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치조음’의 ‘치조’는 ‘잇몸’이고, 혀끝은 ‘설단’이라 하므로 치조음을 설단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1ㄷ)의 경구개음은 입천장의 앞부분인 센입천장과 혀의 앞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며, (1ㄹ)의 연구개음은 입천장의 뒷부분인 여린입천장과 혀의 뒷부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건드려 보면 앞쪽은 딱딱하고, 뒤쪽은 말랑말랑하다. 딱딱한 입천장을 경구개(硬口蓋), 말랑말랑한 입천장을 연구개(軟口蓋)라 한다.

(1ㅁ)의 후음은 공기가 성문을 통과하며 내는 소리를 말한다.

자음은 또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그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2) ㄱ. 파열음: 입술, 잇몸, 여린입천장에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ㄴ.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으로 내는 소리

- ㄷ. 마찰음: 발음 기관의 좁은 사이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 ㄹ. 비음: 공기를 코안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ㄴ. 유음: 공기를 혀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2ㄱ)의 파열음은 터뜨리는 소리란 뜻이다. 터뜨리기 위해서는 막힘이 필요하다. 즉 성문에서 나오는 공기를 발음 기관이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다. 막히는 부분은 두 입술 사이, 혀 끝과 윗잇몸 사이,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가 된다. 파열음은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놓이게 되면 파열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들을 향하여 “입, 입, 입” 하고 몇 번 따라하게 하고 나면 교실 안이 조용해졌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다.

(2ㄴ)의 파찰음은 공기 흐름을 막은 후 발음 기관을 조금만 열고 그 사이로 공기를 보내어서 내는 소리다. 파찰음이란 파열음과 마찰음 두 음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2ㄷ)의 마찰음은 발음 기관의 사이를 좁게 한 후에 그 사이로 공기를 보내면서 내는 소리며, (2ㄹ)의 비음은 목젖을 내려서 입안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안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2ㄴ)의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흘러’를 발음해 보라. [흘] 하고 소리 내 보면 ‘ㄹ’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발음되며, [리] 하면 ‘ㄹ’이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가 얼른 떴면서 발음된다. 유음은 공기 흐름이 자연스럽고, 발음 기관의 방해가 거의 받지 않으며 내는 소리다. [홀], [러]를 대괄호 []로 묶은 것은 발음임을 표시한 것이다.

〈표 3〉 자음 체계

구분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4) ㅈ ㅉ ㅊ		(3ㄱ)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ㄴ	(3ㄴ)	ㅇ	
유음		ㄹ			

〈표 3〉에서 치조음이 ‘ㄷ, ㄸ, ㅌ, ㅅ, ㅆ, ㄴ, ㄹ’ 등 여러 개의 자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혀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다. 후음에 유독 ‘ㅎ’ 하나만 있는 것은 성문의 주된 기능이 공기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후음 ‘ㅎ’이 ‘ㄱ, ㄷ, ㅂ, ㅈ’과 만나면 축약되어서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되고, ‘좋아’[조아]처럼 모음을 만나면 ‘ㅎ’이 탈락한다.

또 양순음 ‘ㅂ, ㅃ, ㅍ’, 치조음 ‘ㄷ, ㄸ, ㅌ’, 경구개음 ‘ㅈ, ㅉ, ㅊ’, 연구개음 ‘ㄱ, ㄲ, ㅋ’은 각각 ‘ㅂ, ㄷ, ㅈ, ㄱ’의 예사소리, ‘ㅃ, ㅌ, ㅊ, ㅋ’의 된소리, ‘ㅍ, ㅌ, ㅊ, ㅋ’의 거센소리 등 세 계열의 음으로 짝을 이룬다.

이 자음 체계는 음운 변화의 길이다. 세로면 세로의 길을 따라 변화하고, 가로면 가로의 길을 따라 변화한다. 마치 열차가 철길의 궤도를 따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지다.

(3) ㄱ. 무사 폭낭[풍낭] 잇인 동네도 있어?

(왜 팽나무 없는 동네도 있어?)

ㄴ. 보말 잡으레 갓당 문게[문계] 후나라도 심어지믄 막 기분 좋아.

(고동 잡으러 갔다가 문어 하나라도 잡으면 아주 기분 좋아.)

(3ㄱ)에서 ‘폭낭’의 ‘ㄱ’이 비음 ‘ㄴ’을 만나면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ㄱ’이 속한 연구개음 가운데 비음은 ‘ㅇ’이니 세로의 길을 따라 ‘ㄱ’이 ‘ㅇ’으로 바뀐 것이다. (3ㄴ)의 ‘문게’는 치조음 ‘ㄴ’이 연구개음 ‘ㄱ’ 때문에 가로의 길을 따라 조음 위치가 연구개음에서의 비음 ‘ㅇ’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진 6> 폭낭. ‘폭’이라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폭낭, 폭남’이라 한다.(사진 강영봉)

구개음화는 음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ㅣ’모음이기 때문에 ‘ㅣ’모음이 지닌 경구개음의 속성에 따라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변화의 궤도를 이탈하게 한다.

(4) 물떡은 굳이[구지] 뭐 하영 사용은 안해나고.

(‘물떡’은 굳이 뭐 많이 사용은 않았었고.)

(4)의 ‘굳이’는 <표 3>에서 보듯, 받침 ‘ㄷ’이 그다음에 연결된 접사 ‘-이’ 모음의 영향으로 치조음에서 대각선 방향의 경구개음으로 바뀌어서 궤도를 벗어난 경우다.

(4)에서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접고 그 안에 무채 따위를 넣고 크고 기름하게 만들어서 삶은 떡’을 말한다. ‘세미떡’은 ‘물떡’보다 작게 만들고,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재료로 쓴다.

2.2. 모음

모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는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입이 벌어진 정도에 따라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뉜다.

(1) ㄱ. 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경구개 부근인 앞쪽에서 발음하는 모음

ㄴ. 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인 뒤쪽에서 발음하는 모음

ㄷ. 고모음: 입을 조금 벌리고 혀의 위치를 높은 상태에서 발음하는 모음

ㄹ. 중모음: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혀의 높이를 중간 정도인 상태에서 발음하는 모음

ㅁ. 저모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발음하는 모음

ㅂ. 원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는 모음

ㅅ. 평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지 않는 모음

(1ㄱ)의 전설 모음과 (1ㄴ)의 후설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구분이고, (1ㄷ~ㅁ)의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입의 벌어짐의 정도, (1ㅂ)의 원순 모음과 (1ㅅ)의 평순 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다.

(1ㄱ)의 전설 모음은 ‘ㅣ’를 발음할 때처럼 혀의 최고점이 경구개 부근인 앞쪽에 놓이며, (1ㄴ)의 후설 모음은 ‘ㅡ’나 ‘ㅜ’를 발음할 때처럼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인 뒤쪽에 놓인다.

(1ㄷ)의 고모음은 ‘ㅡ’를 발음할 때처럼 혀의 최고점 위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입이 벌어짐 정도가 가장 작으며, (1ㄹ)의 중모음은 ‘ㅓ’를 발음할 때처럼 혀의 최고점 위치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입의 벌어짐 정도 또한 중간쯤이다. (1ㅁ)의 저모음은 ‘ㅓ’를 발음할 때처럼 혀의 최고점 위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입이 벌어짐 정도가 가장 크다.

(1ㅂ)의 원순 모음은 ‘ㅜ, ㅠ’를 발음할 때처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며, (1ㅅ)의 평순 모음은 ‘ㅣ, ㅡ’를 발음할 때처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말한다.

〈표 4〉 단모음 체계

구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ㅡ	ㅓ
중모음	ㅕ	ㅗ	ㅜ
저모음	ㅙ	ㅛ	ㅝ

80대 이상 어른들은 이들 9개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전설 모음 ‘ㅣ, ㅕ, ㅙ’, 후설 평순 모음 ‘ㅡ, ㅗ, ㅛ’, 후설 원순 모음 ‘ㅓ, ㅜ, ㅝ’가 3:3:3의 안정된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50~60대 아래로 내려오면 후설 저모음인 ‘ㅝ’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니 결국 3:3:2의 불균형의 상태가 된다. 불균형의 모음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전설 모음 세 개를 둘로 줄이게 된다. 곧 ‘ㅕ’와 ‘ㅙ’를 하나로 통합하여 2:3:2가 되어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 결과 ‘ㅕ’와 ‘ㅙ’가 서로 혼동하게 된다.

① ‘ㅝ’

‘ㅝ’(아래아)는 훈민정음 창제 때 하늘을 본떠서 만든 모음이다. 《훈민정음》〈용자례〉에서 ‘ㅝ’의 예로 든 ‘툑, 푯, 두리’ 등의 어휘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2) ㄱ. 아인 톱 바투는 거 아니여.

(아이는 턱 받치는 거 아니야.)

ㄴ. 큰일 땀 쫓 서껍 풋밥을 허여.

(큰일 땀 팔 섞어서 팔밥을 해.)

ㄷ. 드리도 돌드리, 남드리 경 허여.

(다리도 돌다리, 나무다리 그렇게 해.)

(2)의 ‘툼, 풋, ㄷ리’는 ‘아래아’가 쓰인 용례다. (2ㄷ)의 ‘ㄷ리’는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이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말한다. “ㄷ리 손당 큰애기덜 피 방에 지듯 돌아가라”(교래 송당 큰아이들 피 방아 찰듯 돌아가라)는 민요 노랫말에 나오는 ‘ㄷ리’와 같은 어휘다. 민요의 ‘ㄷ리’는 ‘삼다수 마을’로 알려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橋來里)의 옛 이름으로, ‘ㄷ리’는 이에 해당하는 한자 ‘교’(橋)로 바뀌었다. 물론 ‘손당’은 제주시 조천읍 ‘송당리’(松堂里)를 말한다.

‘아래아’

1. 명칭

‘아래아’라는 명칭은 최현배(崔鉉培)의 《한글갈》(1942)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오른 것은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이 처음이며, “옛홀소리 ‘ㆍ’의 잘못된 이름.”이라 설명하였다. 이 《큰사전》을 이은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1991)에서는 “옛 한글의 홀소리 글자

‘·’의 통속적인 이름.”이라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희승(李熙昇)의 《국어대사전》(1961)에는 “옛 모음 ‘·’의 이름.”이라 한 이래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한국어대사전》(고려대, 2009)에도 “·’의 이름”이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74)에는 표제어로는 올라 있지 않으나, 모음자 설명에서 [·]를 ‘아래아’라 하고 있다.

2. 입력

아래아가 들어 있는 어휘를 입력하려면 우선 ‘훈글’ ‘문서창’에서 ‘도구-글자판-글자판 바꾸기’로 들어가서 ‘한국어 두벌식 옛글’로 설정해야 한다. 설정한 후 글자판의 ‘ㅓ’를 두 번 누르거나 ‘shift+ㅓ’를 누르면 ‘·’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를 어떻게 발음할까?

(3) ㄱ. 뭍 삼서, 뭍!

(모자반 사세요, 모자반!)

ㄴ. 뭍 막 실허다이.

(뭍 아주 실하다.)

(4) ㄱ. 독집 틀어졌저.

(닭장 뜯어졌다.)

ㄴ. 독집 앓아오라.

(주독 가져와라.)

(5) ㄱ. 돌도 뵤다.

(달도 밝다.)

ㄴ. 돌도 하다.

(돌도 많다.)

(3ㄱ), (4ㄱ), (5ㄱ)의 ‘뵤, 독집, 돌’은 (3ㄴ), (4ㄴ), (5ㄴ)의 ‘뵤, 독집, 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면 된다. 그러니 ‘훈글 2020’은 [한글 2020]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훈글 2020]으로 읽어야 한다.

(3ㄱ)에서 ‘뵤’은 ‘모자반’, (4ㄱ)의 ‘독집’은 ‘닭의장’ 또는 ‘닭장’을 뜻하며, (4ㄴ)의 ‘독집’은 ‘신주를 모셔 두는 궤’나 ‘제사 때 지방을 붙이는 나무로 만든 물건’ 즉, ‘주독’(主櫝)을 말한다. (5ㄱ)의 ‘돌’은 하늘의 ‘달’이요, (5ㄴ)의 ‘돌’은 제주의 삼다 가운데 하나인 돌[石]이다.

이 ‘·’는 ‘ㄱ’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사 ‘ㅎ다’와 접미사 ‘-ㅎ-’다.

(6) ㄱ. 허물 난 사름덜은 그되 강 공들이곡 뭐 호는 되랴.

(종기 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들이고 뭐 하는 데야.)

ㄴ. 떡 달루젠 허민 낭도고리 그것에서 주로 헛주게.

(떡 이기려고 하면 함지박 그것에서 주로 했지.)

(7) ㄱ. 질멘 둘리가 고찌 상 시꺼야 호여.

(길마는 둘이가 같이 서서 실어야 해.)

ㄴ. 둠비 허젠 허은 바당물, 쫄물 질어당 허여.

(두부 하려고 하면 바닷물, 쫄물 길어다가 해.)

(8) ㄱ. 젤 말을 안 듣는 게 숙쉐우다, 숙쉐. 고양이 닮은 거, 감시룩한 거.

(젤 말을 안 듣는 게 찹소입니다, 찹소. 고양이 닮은 거, 가무스름한 거.)

ㄴ 이거 다 여산허멍 밧도 마련을 허는 거라.

(이거 다 예산하며 밧도 마련을 하는 거야.)

(6)과 (7)은 ‘허다’와 ‘허다’가 활용하여 쓰인 용례다. 특히 (8)은 접미사 ‘-허-’와 ‘-허-’가 연결되어 쓰인 경우다.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와 ‘ㄴ’ 구별하여 적기

㉠ ‘·’로 발음되면 ‘·’로, ‘ㄴ’로 발음되면 ‘ㄴ’로 적는다.

㉡ 표준어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으면 ‘·’로, 그렇지 않으면 ‘ㄴ’로 적는다.

[두세기(×)/도세기(○)]>돼지

[기늘다(○)/고늘다(×)]>기늘다

[기새(○)/고새(×)]>기위

[나물(○)/노물(×)]>나물

[죽다(×)/죽다(○)]>조금(← 죽--+옴)

(※표준어의 ‘작다’는 옛말 ‘작다’, ‘적다’는 ‘적다’에서 온 말이다.)

㉢ 옛말 사전 등에서 확인하여 ‘·’면 ‘·’로 적는다.

‘허다’보다는 ‘허다’를 많이 쓰는 편이다.

(6ㄴ)에서 ‘낭도고리’는 ‘나무 함지박’의 뜻으로, 돌로 만든 그릇인 ‘돌도고리’와 구분하기 위해 ‘낭’이 더 들어간 말이다.

② ‘ㄴ’과 ‘ㄷ’

‘ㄴ’과 ‘ㄷ’는 전설 모음으로, 첫음절과 단음절 어휘에서는 구분되어 쓰인다. 이는 후설 원순 저모음인 ‘·’를 발음하는 사람은 9개의 단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9) ㄱ. 보릿낭불은 네 낭 못 써. 똥도 팡팡 뀌곡.

(‘보릿짚 불’은 내 나서 못 써. 방귀도 팡팡 뀌고.)

ㄴ. 이 내도 큰비 와나은 내터정 볼침었어.

(이 내도 큰비 와 나면 시위해서 볼품었어.)

(10) ㄱ. 우리 어머닌 배우지 못해도 다 잘 알아마씀.

(우리 어머닌 배우지 못해도 다 잘 알아요.)

ㄴ. 아무거나 냄살 마타가은 먹지 못하여.

(아무거나 냄새 마타가면 먹지 못해.)

(9)는 단음절에서 ‘ㄴ’과 ‘ㄷ’의 용례이며, (10)은 첫음절에서의 ‘ㄴ’과 ‘ㄷ’의 용례이다. 이처럼 단음절과 첫 음절에서 ‘ㄴ’과 ‘ㄷ’가 구분되는 것은 옛말과 관계가 깊다. 옛말에서 ‘ㄴ’나 ‘ㄷ’음과 관련이 있

으면 ‘ㄸ’로 나타나고, 아래아가 들어 있는 ‘이’와 관련이 있으면 ‘ㄱ’로 나타난다. (9ㄱ)의 ‘네’는 옛말이 ‘니’이고, (9ㄴ)의 ‘내’는 옛말도 ‘내’로 나타난다. (10ㄱ)의 ‘베우다’의 옛말은 ‘비호다’고, (10ㄴ)의 ‘내움살’의 ‘내’는 옛말도 ‘내’로 나타난다. 이들 어휘들을 포함하여 몇 가지 예를 더 보이면 <표 5, 6>과 같다.

<표 5> ‘ㄸ’로 쓰이는 어휘

제주어	옛말	제주어	옛말
네	니 연(煙)	네외	안 니(內)
냉수	출 링(冷)	데답	디답 디(對)
떼	삐 구(拵)	베	비 선(船)
베다	비다[姪]	베우다	비호다[學]
생각	싱각 스(思)	제	지 회(灰)
채소	노물 치(菜)	채집	킬 치(採)
헤	히돌[日月]	행동	널 횡(行)

<표 6> ‘ㄴ’로 쓰이는 어휘

제주어	옛말	제주어	옛말
개긔	개 보(浦)	개다	갭 청(晴)
개판	두플 개(蓋)	내	내 천(川)
내	나 아(我)	내움살	내 취(臭)
대	대 독(竹)	때	뉘뻬[酉時]
매	매 응(鷹)	매	매스자곡[鞭根痕]
새	새 조(鳥)	새백	새배 신(晨)
새움후다	새움 질(嫉)	하다	할 다(多)

다음 용례들은 ‘ㄱ’와 ‘ㄷ’을 구분해 쓰이는 경우다.

(11) ㄱ. 때가 닳 질은 해서라.

(때가 닳 길은 했더라.)

ㄴ. 때 뒤편 밥은 먹어서 후여.

(때 되면 밥은 먹어야 해.)

(12) ㄱ. 해도 갓 쌀 때가 싣나.

(해도 갓 쌀 때가 있다.)

ㄴ. 먹단 보난 해 먹어져서라.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더라.)

(13) ㄱ. 한 데 한 데 후당 보민 삼대가 뉘 거고.

(한 대 한 대 하다 보면 삼대가 될 거고.)

ㄴ. 대밭된 맨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여.

(대밭엔 맨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14) ㄱ. 집은 상 살곡, 벤 짓엉 타렌 해서.

(집은 사서 살고, 벤 지어서 타라고 했어.)

ㄴ. 바 부판에 지지 못허키여.

(바 밟아서 지지 못하겠어.)

(15) ㄱ. 비 센덴 행 집가지 잊지 아녀.

(비 샌다고 해서 처마 잊지 않아.)

ㄴ. 날 다 새에 와시냐?

(날 다 새어서 왔느냐?)

(11ㄱ)의 ‘때’는 옛말 ‘뵤’, (11ㄴ)의 ‘때’는 옛말 ‘뵤’, (12ㄱ)의 ‘해’는 옛말 ‘히’, (12ㄴ)의 ‘해’는 옛말 ‘하다’에서 온 말이다. (13ㄱ)의 ‘데’[代]는 옛말 ‘디’, (13ㄴ)의 ‘대’는 옛말 ‘대’, (14ㄱ)의 ‘배’는 옛말 ‘비’, (14ㄴ)의 ‘배’는 옛말 ‘바’, (15ㄱ)의 ‘세다’는 옛말 ‘시다’, (15ㄴ)의 ‘새다’는 옛말 ‘새다’에서 온 말들이다. (12ㄱ)에서 ‘해도 갓 썰 때가 쏜다.’는 ‘햇무리가 지다.’는 뜻이다.

제2음절부터는 ‘ㄱ’과 ‘ㄴ’이 혼동되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는 ‘ㄱ’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두 음이 서로 이웃해 있고, 중모음인 ‘ㄱ’이 입을 크게 벌리는 저모음인 ‘ㄴ’보다 발음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16) ㄱ. 붉은혹 올레로 일로 벌겔게 뿌려 오주게.

(붉은혹 오래로 이리로 벌겔게 뿌려 오지.)

ㄴ. 사라호 태풍 막 컨. 우리 올레에 먹구실낭 큰 건디 그 낭이 딱 거꺼전.

(사라호 태풍 아주 컸어. 우리 오래에 멀구슬나무 큰 건데 그 나무가 딱 꺾어졌어.)

(17) ㄱ. 짐 지영 가멍 놀레도 불럼꾸나이.

(짐 져서 가면서 노래도 부르는구나.)

ㄴ. 성읍선 봉지가 진다는 놀레 지금도 불러.

(‘성읍’선 ‘봉지’가 ‘진다’는 노래 지금도 불러.)

(16)의 ‘올래’는 [올레]로 발음되면 ‘올레’, [올래]로 발음되면 ‘올래’로 쓰면 된다. 물론 ‘올래’는 《훈몽자회》의 “門 오래”와 관련이 있다. (17)의 ‘노래’도 [놀레]로 발음되면 ‘놀레’로, [놀래]로 발음되면 ‘놀래’로 적으면 된다.

(16ㄴ)에서 ‘사라호’는 1959년 9월 16일 추석 전날 제주도를 휩쓸고 간 태풍 이름이며, (17ㄴ)의 ‘성읍’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봉지가 진다’는 성읍리서 불리는 창민요인 <봉지가>를 뜻하며, ‘봉지가 진다’는 ‘꽃봉오리가 맺히다’는 뜻이다.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9개를 단모음이라고 한다. 이들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ㅗ, ㅛ, ㅜ, ㅠ’ 등을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이 바뀌는데, 이를 발음 기호로 표기하면 [ja, jə, jo, ju] 등이 된다. 이는 이중 모음임을 보인 것으로, 두 개의 음소 곧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 준다. 이중 모음은 ‘ㅗ, ㅛ, ㅜ, ㅠ’처럼 ‘j’로 시작되거나 ‘ㅡ’처럼 ‘j’로 끝나는 ‘j’계 이중 모음과 ‘ㅘ, ㅙ, ㅚ, ㅛ, ㅜ’처럼 ‘w’로 시작되는 ‘w’계 이중 모음이 있다.

〈표 7〉 이중 모음

‘j’계 이중 모음	ㅗ ㅛ ㅜ ㅠ ㅘ ㅙ ㅚ ㅛ ㅜ
‘w’계 이중 모음	ㅘ ㅙ ㅚ ㅛ ㅜ ㅜ(ㅜ)

③ ‘..’

‘..’(쌍아래아)는 ‘ㅣ’와 ‘·’의 합음으로, 어두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옴든(여든), 옴둡(여덥), 옴망지다(야무지고 똑똑하다), 옴숯(여섯), 옥다(어린이가 지능적, 육체적으로 좀 자라다), 옥삭다(약삭빠르다), 옥옥ㅎ다(사람이 약고 미련하지 아니하다), 옴다(여물다, 야물다), 옴의(염의), 옴통(염통), 옴세(엿새), 옴가슴(앙가슴의 양쪽 옆), 옴끄다(여다), 옴남은(여남은), 옴드레(여드레), 옴라(여러), 옴보룩수보룩(남상남상, 야금야금), 옴름(여름), 옴물(여물), 옴다(열다), 옴치웃다(염치없다)’ 등등의 어휘에서 확인된다. ‘ㄱ롭다(가렵다)’는 ‘..’가 제2음절에 쓰인 경우다.

(18) ㄱ. 그런 말랑 옴의에 담아 두지 마셔.

(그런 말랑 염의에 담아 두지 마세요.)

ㄴ. 막 옴망진 사람인디 심어단 오꼴 죽여 불언.

(아주 야무진 사람인데 잡아다가 그만 죽여 버렸어.)

ㄷ. 아방 님은 옴은임텅이난 머리 영리허키여.

(아버지 님은 난간이마니까 머리 영리하겠어.)

ㄹ. 이딴 왕 옴라 해 살아도 영 비 온 건 처음이우다.

(여기 와서 여러 해 살아도 이렇게 비 온 건 처음입니다.)

(18ㄱ)의 ‘옴의’는 한자어 ‘염의(念意)’이며, (18ㄴ)의 ‘옴망지다’는

‘미련하지 아니하여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뜻은 지닌 어휘로, 한자어 ‘요망(妖妄)과는 구별된다. ‘요망’은 ‘간사하고 영악함’이란 뜻을 지닌 말이다. (18ㄷ)의 ‘옴은임텡이’는 ‘옴-+-은+임텡이’ 구성으로 ‘난간이마’에 대응하는 어휘다. (18ㄹ)의 ‘옹라’는 관형사로, ‘여러’로 나타나기도 한다.

‘..’(쌍아래아)

‘..’는 ‘아래아’를 나란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쌍아래아’라 해 둔다. 이는 ㄱ, ㄲ, ㅅ, ㅆ, ㅈ 등의 이름을 ‘쌍기역, 쌍디근,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고 하고, 받침에서도 ‘ㄹ, ㅍ, ㅊ’ 등을 ‘겹받침’이라 하는데 비해 ‘ㄲ’ 등을 ‘쌍받침’이라 하는 데서 빌린 이름이다.

훈글 문서에서 ‘쌍아래아’ 입력은 ‘.’ 상태에서 ‘ㅏ’를 한번 더 누르면 된다.

④ ‘ㄴ’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모음이다.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놓이면 상승적 이중 모음이라 하고, 반모음이 모음 뒤에 놓이면 하강적 이중 모음이라 한다. 뒤가 올라가는 상승적 이중 모음은 발음하기가 쉽지만 뒤가 내려가는 하강적 이중 모음은 발음하기가 어렵다. 이는 산을 오를 때보다는 내려오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연상하면 이해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이중 모음 가운데 하강적 이중 모음 ‘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적 이중 모음이다. 하

강적 이중 모음 ‘ㄴ’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예]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9) ㄱ. 검질 짓곡 굴 너른 밧딤 사데로나 우경 메게, 경.

(김 짓고 골 넓은 밭에 ‘사데’로나 우겨서 매자, 그렇게.)

ㄴ. 콩도 다 꺼끄믜 집의 설러 왕 도께로 두드령 장만허곡.

(콩도 다 꺾으면 집에 옮겨 와서 도리깨로 타작해서 장만하고.)

(20) ㄱ. 얼룩얼룩행은에 흰 털허곡 검은 털 박아진 건 청총이.

(얼룩얼룩해서 흰 털하고 검은 털 박힌 건 청총이.)

ㄴ. 뒤로게 희딱 갈라지믜 머리 까지주, 안 까져?

(뒤로 희뚝 거꾸러지면 머리 깨지지, 안 깨져?)

(19ㄱ) ‘밧딤’의 ‘딤’과 (19
ㄴ) ‘집의’의 ‘의’는 처격으로 쓰인 경우다. 처격 ‘딤’은 ‘ㄷ’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처격 ‘의’ 또한 주격 ‘이’와 다른 모습이어야 이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19ㄱ)에서 ‘사데’는 밭맬 때 부르는 노동요를 말하고, ‘우기다’는 ‘힘쓰다’는 의미다.



〈그림 4〉 뒤로 희딱 갈라지다

(20ㄱ)의 ‘힌’은 [힌]으로 발음된다. ‘힌’으로 적으면 ‘희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표준어에서도 [히어], [히니]라 발음되어도 표기는 ‘희어’, ‘희니’로 하고 있다. 또 (20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희딱’이 [히딱]으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희딱’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 또한 ‘희뜩’이다. 만일 ‘히딱’으로 표기한다면 그 대역은 ‘히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희딱’의 기본 의미는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자빠지는 모양’이고, ‘히뜩’은 ‘언뜻 휘돌아보는 모양’으로 그 뜻에 차이가 난다.

⑤ ‘ㄴㅞ(ㄴㅝ)’

이중 모음 가운데 ‘ㄴㅞ(ㄴㅝ)’ 형태로 제시한 것은 이중 모음 ‘ㄴㅞ’와 이중 모음 ‘ㄴㅝ’의 발음 [ㄴㅞ]를 모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조치는 이중 모음 ‘ㄴㅝ’가 어김없이 [ㄴㅞ]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ㄴㅞ’와 ‘ㄴㅝ’는 분리될 수도 있다.

(21) ㄴㅞ 잘사는 집은 굴무기로 멘들곡, 보통은 물कु실낭, 소남, 폭남으
로도 멘들아.

(ㄴㅞ는 잘사는 집은 느티나무로 만들고, 보통은 멀구슬나무, 소나무, 팽나무로도 만들어.)

(22) ㄱ. ㄴㅞ기 솟앙 익으면 건져내곡 허는 것이 같고리.

(고기 삶아서 익으면 건져내고 하는 것이 같고리.)

ㄴ. 대개 가막창신은 가메에 부떠 있어. 창에 썰 박고.

(대개 검정가죽신은 가마에 붙어 있어. 창에 쇠 박고.)

(23) 두건은 권당덜 다 주는 사름도 있고, 동네 사름덜 주는 사름도 있어.

(두건은 권당들 다 주는 사름도 있고, 동네 사름들 주는 사름도 있어.)

(21)의 ‘궤’는 본래부터 이중 모음 ‘궐’인 경우다. (22ㄱ, ㄴ)의 ‘궤기’와 ‘궤’는 이중 모음 ‘궐’의 발음을 반영하여 ‘궐’로 표기한 것이고, (23)의 ‘궤당’은 한자어 ‘권당’의 모음 ‘궐’이 ‘궐’로 변한 것을 표기한 것이다. (22ㄴ)에서 ‘가막창신’은 주로 결혼식 때 새색시가 신거나 부잣집 여자들이 신었던 검정가죽신을 말한다.

모음은 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개 양성 모음은 작고 밝고 산뜻한 말맛이 느껴지는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 크고 어둡고 우중충한 말맛을 느끼게 하는 모음이다. 전통적으로 ‘ㅏ, ㅑ, ㅗ’는 양성 모음, ‘ㅓ, ㅕ, ㅛ’는 음성 모음이다. 또 ‘ㅏ, ㅑ, ㅗ’와 관련된 ‘ㅘ, ㅙ, ㅚ, ㅜ, ㅠ, ㅡ’ 등은 양성 모음, ‘ㅓ, ㅕ, ㅛ’와 관련된 ‘ㅖ, ㅗ, ㅛ, ㅜ, ㅠ, ㅡ’ 등은 음성 모음이다. ‘ㅣ’는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모음이다.

(24) ㄱ. 밧 불리젠 허믄 밥 먹거든. 밥 먹엿 불리거든.

(밭 밟으려고 하면 밥 먹거든. 밥 먹어서 밟거든.)

ㄴ. 고망 요만이 톨라근에 출단이나 그런 거 해당 팍 막얏 내부는 거라.

(구멍 요만큼 뚫어서 꿀단지나 그런 거 해다가 꽉 막아서 내버리는 거야.)

(25) ㄱ. 경후여도 죽지덜토 아년 오골오골 크난게, 그게 보람.

(그래도 죽지들도 않아서 오골오골 크니까, 그게 보람.)

ㄴ. 베염 우글우글 나오는 초가집이난 알아본 거 아니.

(뱀 우글우글 나오는 초가집이니까 알아본 거 아니.)

(24ㄱ)에서 알 수 있듯이 ‘떡-’의 ‘ㄷ’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미 또한 음성 모음으로 시작되는 ‘-영’이 연결되고, (24ㄴ)의 ‘막-’의 ‘ㅌ’는 양성 모음이니 양성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앙’이 연결된 것이다. 이들 모음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짝을 이루는 이른바 모음 조화를 이룬다. (24ㄴ)은 숯가마 구멍을 꿀단지로 막았다는 이야기다.

(25)는 흥내말의 쓰임이다. (25ㄱ)의 ‘오골오골’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양성 모음이 쓰여서 작고 밝은 말맛을 느낄 수 있다면, (25ㄴ)의 ‘우글우글’은 뱀이 많이 나와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음성 모음이 쓰여 어쩐지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든다.

2.3. 음운 변화

음운 변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음운 변화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이 있다.

가. 교체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자음이 교체되는 경우와 모음이 교체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자음 교체

자음 교체에는 ㉠ 음절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 조음 위치 동화 등이 있다.

㉠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소리가 ‘ㄴ, ㄷ, ㄱ’과 비음 ‘ㄹ, ㄴ, ㅇ’ 그리고 유음 ‘ㄹ’ 등 7개뿐이라는 제약이다.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 이 셋을 묶어서 장애음이라 하는데,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장애음들은 <표 8>에서 보듯 양순음 ‘ㅍ’은 ‘ㅂ’으로, 치조

음 ‘ㅌ, ㅍ’과 경구개음 ‘ㅈ, ㅊ’, 후음 ‘ㅎ’은 ‘ㄷ’으로, 연구개음 ‘ㄱ’은 ‘ㄴ’으로 소리 난다. (ㅂ), (ㄷ), (ㄱ)을 괄호로 묶은 것은 그 소리가 그대로 발음됨을 뜻한다. <표 8> 가운데 ‘ㅃ, ㅌ, ㅍ, ㅍ, ㅍ’이 빠진 것은 이들이 받침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표 8> 장애음 목록과 음절 끝소리화

구분	양순음	치조음·경구개음·후음	연구개음
장애음	(ㅂ) ㅃ ↓	(ㄷ) ㅌ ㅍ ㅍ ㅍ ㅍ ↓	(ㄱ) ㄲ ↓
	ㅂ	ㄷ	ㄴ

(1) ㄱ. 돌아가며 진줄 앞뒤로[압뒤로] 두 개, 짜른줄 좌우로 두 개 경 허
 명 닌 번을 해여.

(돌아가며 ‘긴줄’ 앞뒤로 두 개, ‘짧은줄’ 좌우로 두 개 그렇게 하
 며 네 번을 해.)

ㄴ. 옛날은 갈물로 웃도[온또] 물들영 입곡, 주낙술도[주낙썰도] 물
 들영 씨곡 호엿쥬.[호엿쭈]

(옛날은 갈물로 웃도 물들여서 입고, 주낙술도 물들여서 쓰고 하
 였지.)

ㄷ. 뭐 물른 때사게 낮도체비처록[날또체비처록] 낱따 뎡기곡 험데
 뎡기곡.

(뭐 모른 때야 낮도깨비처럼 낱따 다니고 노닥여 다니고.)

ㄹ. 개자리 케어다근에 거 놔근에 쌀 호꿈 놀논[놀논>논논] 책허여

근에 그걸로 때 살곡.

(개자리 캐어다가 거 낚서 쌀 조금 놓는 척해서 그걸로 때 살고.)

ㄱ. 낚시에[낙씨에] 알록달록 옷 입져야 오징어가 바짝바짝 부떠.

(낚시에 알록달록 옷 입혀야 오징어가 바짝바짝 붙어.)

(1ㄱ~ㄱ)에서는 각각 장애음의 대표음인 ‘ㅂ, ㄷ, ㄱ’으로 변화하고 있다. (1ㄱ)의 ‘ㅍ’은 ‘ㅂ’으로, (1ㄴ)의 ‘ㅅ’은 ‘ㄷ’으로, (1ㄷ)의 ‘ㅈ’도 ‘ㄷ’으로 변화하고 있다. (1ㄷ)의 ‘ㅎ’도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비음 ‘ㄴ’을 만나서 ‘ㄴ+ㄴ’으로 변한 것이다. (1ㄱ)의 ‘ㄱ’은 ‘ㄱ’으로 소리가 난다. (1ㄱ)에서 ‘진줄’과 ‘쫘른줄’은 각각 ‘긴줄’과 ‘짧은줄’의 뜻으로, 초가지붕을 묶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의미한다. ‘진줄’은 둥그렇게 사리고, ‘쫘른줄’은 짜배기 모양의 8자 형태로 사려 구분한다.

㉠ 비음화

비음화는 받침 ‘ㄱ, ㄷ, ㅂ’이 비음인 ‘ㄴ, ㄱ’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ㄱ’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2) ㄱ. 먹술은게 먹통 안에 먹물[멍물] 묻혀 가지고는 수평 찰 거 아니게.

(먹줄은 먹통 안에 먹물 묻혀 가지고는 수평 찰 거 아니.)

ㄴ. 요즘 사름덜 보든 제멋대로덜 곤는[곤는] 거 닳아.

(요즘 사람들 보면 제멋대로들 말하는 거 같아.)

- ㄷ. 겹녕은[검녕은] 쓸 일이 하. 비눗곽도 허곡, 푸래도 북북 굶곡.
(전복갑은 쓸 일이 많아. 비눗갑도 하고, 파래도 박박 굶고.)

(2ㄱ) ‘떡물’의 ‘ㄱ+ㅁ’은 ‘ㅇ+ㅁ’으로 교체되어 [멍물]이 되고, (2ㄴ) ‘곶는’의 ‘ㄷ+ㄴ’은 ‘ㄴ+ㄴ’으로 교체되어 [곤는], (2ㄷ) ‘겹녕’의 ‘ㅂ+ㄴ’은 ‘ㅁ+ㄴ’으로 교체되어 [검녕]이 된 것이다.

㉔ 유음화

유음화는 유음인 ‘ㄹ’에 인접하고 있는 ‘ㄴ’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유음화는 치조음이라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두고 소리 내는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치조음에서의 비음은 ‘ㄴ’ 하나뿐이므로 ‘ㄴ’만 유음화가 이루어진다. 곧 유음화는 ‘ㄴ+ㄹ’ 또는 ‘ㄹ+ㄴ’이 ‘ㄹ+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 (3) ㄱ. 날냥[날랑] 훈 짐은 무른냥 두어 짐광 맞먹주.
(날나무 한 짐은 마른나무 두어 짐과 맞먹지.)
ㄴ. 발눈[발룬] 트문 머릿니 심엉 놓으민 좋아.
(까치눈 뜨면 머릿니 잡아서 놓으면 좋아.)
ㄷ. 맹질 돌아오젠 허민 옷 출림이 난리췌[날리췌].
(맹질 돌아오려고 하면 옷 차리기가 난리지.)
ㄹ. 신랑이나[실랑이나] 신부나 밥을 다 먹지 아녕양.)

(신랑이나 신부나 밥을 다 먹지 않아서요.)

(3ㄱ)의 ‘놀^ㄴ랑’과 (3ㄴ)의 ‘발^ㄴ눈’은 ‘ㄴ+ㄴ’이 ‘ㄴ+ㄹ’로 유음화한 것이며, (3ㄷ)의 ‘난^ㄴ리’와 (3ㄹ)의 ‘신^ㄴ랑’은 ‘ㄴ+ㄹ’이 ‘ㄹ+ㄹ’로 유음화한 경우다. (3ㄴ)의 용례는 민간요법 가운데 하나로, 발가락 살이 터지고 갈라지는 ‘까치^ㄴ눈’이 생기면 그곳에 머릿니를 놓으면 낫는다는 의미다.

㉔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치조음 ‘ㄷ, ㅌ’이 ‘ㄴ’ 모음으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와 결합할 때 각각 ‘ㄲ, ㅋ’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ㄴ’모음이 경구개 쪽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ㄷ, ㅌ’이 경구개음 ‘ㄲ, ㅋ’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법 형태소란 접사 따위를 말하며, <한글 맞춤법>에서도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개음화는 그 변화의 길이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대각선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49쪽 <표 3> 참조)

(4) ㄱ. 그땡게 일만 일만 할 때니까, 나가 젤 몹이로[무지로] 나 부니깐
고생만, 고생만.

(그땡 일만 일만 할 때니까, 내가 젤 몹이로 나 버리니까 고생만,

고생만.)

ㄴ. 애긴 때 다 톡받이[톡바지] 헤낀주. 여름엔 베부레기도 허곡게.

(아긴 때 다 턱받이 했었지. 여름엔 배두렁이도 하고.)

(4ㄱ, ㄴ)은 ‘ㄷ’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한 경우다. (4ㄱ)의 ‘믄이’는 옛말인 명사 ‘믄’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것으로, 표준어 ‘말이’와는 그 어휘 구조가 다르다. 곧 ‘말이’는 접두사 ‘말-’과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푯내기’도 ‘말이’처럼 접두사와 접미사가 결합되어 명사를 형성한 경우다.

구개음화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5) ㄱ. 제마라고 두 발로 걷는 식으로 앞뒤 다리가 고치 가.

(제마라고 두 발로 걷는 식으로 앞뒤 다리가 같이 가.)

ㄴ. 싣밥 국이영 고찌 누물이영 끌린 것이 국죽, 국죽 헤난 것 닮아.

(싣밥 국이랑 같이 나물이랑 끓인 것이 ‘국죽’, ‘국죽’ 했던 것 같아.)

ㄷ. 툇깍신은 깍을 멘들아 낱 그걸 후나후나 보찌멍 나가는 거고.

(땀총박이는 총을 만들어 놔서 그걸 하나하나 붙이면서 나가는 거고.)

(5ㄱ)의 ‘고치’는 ‘고트다’, (5ㄴ)의 ‘고찌’는 ‘고뜨다’에서 파생한 것이어서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곧 ‘고트--+이> 고티’, ‘고뜨--+이> 고

띠'가 되어야 하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ㄱ치', 'ㄱ찌'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ㄱ찌]라고 발음하고 'ㄱ띠'라고 쓰기에는 너무 어렵다. 'ㅣ' 모음 앞에서 'ㅌ'이 구개음화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5ㄷ)의 '부찌다'는 '부뜨--+이다' 구성으로 '부띠다'가 되어야 하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구개음화된 '부찌다'로 보편화하여 또한 예외로 처리한다. '갈라부찌다 · 갈라부치다(갈라붙이다), 내다부찌다 · 내다부치다 · 내부찌다 · 내부치다(내붙이다), 메다부찌다 · 메다부치다(메다붙이다), 붙부찌다 · 붙부치다(붙붙이다), 손부찌다 · 손부치다(손붙이다)' 등도 마찬가지다.

(5ㄱ)에서 '제마'는 한 편짝 다리를 나란하게 옮기며 걷거나 달리는 말이다. 이는 몽골의 '말, 노새 따위가 한쪽 앞뒤 다리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여 걷는 걸음'인 '조로 주법'에 해당한다. 출렁이는 반동이 거의 없다. 어떤 제보자는 “네 발로 출출출출 가든 말 탄 사람이 아주 편해.”(네 발로 ‘출출출출’ 가면 말 탄 사람이 아주 편해.)라 말하기도 하였다. ‘출출출출’이 네 발이 각기 움직이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5ㄴ)의 ‘국죽’은 표준어 ‘갱죽’에 대응하는 어휘인데, 용례에서는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국죽’이라 하였다.

(5ㄷ)에서 ‘툰깅신’은 ‘따로 총을 댄 신’이라는 뜻이다. ‘툰깅신’이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이니 표준어 ‘땀총박이’에 대응한다. 반면, 총을 따로 대지 아니하고 걸어 나가면서 총을 꼬아 삼은 짚신을 ‘붙깅신’이라 하는데, 표준어 ‘제총박이’에 대응한다.

구개음화는 ‘ㄱ, ㅋ, ㆁ’이나 ‘ㅎ’이 ‘ㅣ’ 모음 또는 반모음 ‘ㅑ’ 앞에서 ‘ㄱ>ㅈ, ㅋ>ㅊ, ㆁ>ㅉ’ 또는 ‘ㅎ>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6) ㄱ. 고지에 꿩엿 참기름 불르멍 귀.

(꼬치에 꿩어서 참기름 바르면서 구워.)

ㄴ. 아이덜사 다 수의 내침 입곡 해서.

(아이들이야 다 소매 내켜서 입고 했어.)

ㄷ. 우린 장갑도 아이 찢 비어나고.

(우린 장갑도 아니 꺼서 베었었고.)

ㄹ. 내불라, 내밀심 엇인 놈이 출씩거린다게.

(내버려라, 내밀힘 없는 놈이 출씩거린다.)

ㅁ. 성님, 빨리 읊서 행 간 보난 각록이 싸암서.

(형님, 빨리 오십시오 해서 가서 보니 수노루가 싸우고 있어.)

ㅂ. 세 안 꼬부령은에 시건방지덴 욱 듣주게.

(혀 안 꼬부려서 시건방지다고 욱 듣지.)

ㅅ. 꿈에 선몽허니 혼번 좇아나 가보자 헛 거라.

(꿈에 현몽하니 한번 찾아나 가보자 헛 거야.)

(6)에서 밑줄 친 어휘들은 ‘참기름>참지름, 내키다>내치다, 끼다>찌다, 내밀힘>내밀심, 형님>성님, 혀>세, 현몽하다>선몽허다’로 변한 것이다. 이들은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ㅑ’ 앞에서 ‘ㄱ’이 ‘ㅈ’, ‘ㅋ’이

‘츠’, ‘ㄱ’이 ‘ㅈ’, ‘ㅎ’이 ‘ㅅ’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6ㄹ~ㅅ)에서는 모음 ‘ㅣ’와 반모음 ‘ㅍ’로 말미암아 ‘ㅎ’이 ‘ㅅ’으로 바뀐 경우다. ‘ㅎ’ 구개음화는 표준어에서도 ‘발힘, 손힘’ 등은 ‘힘’으로 적는데 반해, ‘팔심, 입심, 뱃심, 뒷심’ 등은 ‘ㅎ’이 ‘ㅅ’으로 구개음화한 형태로 적기도 한다.

㊤ 경음화

경음화는 달리 된소리되기라고도 한다.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성적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보통 아래 세 경우가 경음화하는 음성적 환경이다.

첫째, 받침 ‘ㄱ, ㄷ, ㅂ’ 다음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바뀐다. 이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7) ㄱ. 국죽[국쭈쭈], 막 송키 담아 놓고 아무 쌀이라도 낱 췌.

(갱죽, 막 푸성귀 담아 놓고 아무 쌀이라도 놔서 췌.)

ㄴ. 우린 숯문지[숯문찌] 아녀고 사당만 써시난게.

(우리는 ‘숯문지’ 않고 사다만 썼으니까.)

ㄷ. 늙신네 옴서[옴써] 갑서[갑써] 하는 거 아녀이.

(늙으신네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거 아니야.)

(7ㄱ) ‘국죽’의 ‘ㄱ+ㅈ’이 [ㄱ+ㅈ], (7ㄴ) ‘숯문지’의 ‘ㄷ+ㅈ’이 [ㄷ+



〈그림 5〉숯문영 풀곡

ㅈ], (7ㄷ) ‘옴서, 갑서’의 ‘ㅈ+ㅅ’이 [ㅈ+ㅈ]으로 된 소리 ‘ㅈ, ㅈ’으로 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는 않는다. 발음의 문제일 뿐이다. (7ㄴ)에서 ‘숯문다’는 ‘숯

을 굽다.’는 뜻이다.

둘째, 용언의 어간 끝이 비음 ‘ㄴ, ㄹ’으로 끝나고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뀐다. 이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만 적용된다.

(8) ㄱ. 욕심으론 다 안젠[안젠] 해도 못 안아.

(욕심으로는 다 안으려고 해도 못 안아.)

ㄴ. 가레기 돌리멍 손으로 감주게[감쭈게].

(가락 돌리며 손으로 감지.)

(8ㄱ)은 ‘안-+-젠’으로 어미 ‘-젠’이 된소리 [-젠]으로, (8ㄴ)은 ‘감-+-주+게’로, 어미 ‘-주’가 된소리 [-쭈]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 또한 발음의 문제다.

셋째,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다음에 예사소리가 올 경우

도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다.

(9) ㄱ. 연 일러불언 을큰해도 홀 수[홀 쑤] 잇는 거.

(연 잃어버려서 서운해도 할 수 없는 거.)

ㄴ. 지레 큰 보리라고 아마 대맥이라고 헐 거우다[헐 꺼우다].

(키 큰 보리라고 아마 대맥이라고 할 겁니다.)

ㄷ. 이제사 경헐 중[경헐 쫘] 몰랐젠 골든 무신 소용 잇어게.

(이제야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 있어.)

(9ㄱ~ㄷ)은 관형사형 어미 ‘-ㄴ’ 다음에 ‘수, 거, 중’이 된소리 [쑤], [꺼], [쫘]로 발음되는데, ‘-ㄴ’ 다음에 모두 의존 명사가 연결된 경우다.

㉮ 조음 위치 동화

조음 위치 동화는 앞 음절 끝소리 자음과 뒤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이어질 때 빨리 발음하려고 두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 앞의 자음이 뒤 음절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진다. ‘ㄴ+ㄱ’이 [ㅇ+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10) ㄱ. 우리 그치록 무신거[무싱거] 허명은 안 살아 부난 건 몰라.

(우리 것처럼 무엇 하면서 안 살아 버리니까 건 몰라.)

ㄴ. 우린 전기[정기], 전기떡이라[정기떡기라]. 빙떡 경 곤진 아녀
나고.

(우린 ‘전기’, ‘전기떡’이야. ‘빙떡’ 그렇게 말하진 않았었고.)

ㄷ. 니 흔글엀은[흥그렁은] 아무것도 씹도 못허여.

(이 흔들어서는 아무것도 씹지도 못해.)

(10)의 밑줄 친 부분은 치조음 ‘ㄴ’이 연구개음 ‘ㄱ’의 영향으로 조음 위치를 연구개음인 ‘ㅇ’으로 이동한 경우다. 이는 발음의 문제로, 표기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10ㄱ)의 ‘무신거’는 붙여 써야 한다. ‘무신거’에 대응하는 표준어 ‘무엇’이 ‘므스+것>므섯>므엇>무엇’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어휘이기 때문이다. (10ㄴ)에서 ‘전기’, ‘전기떡’, ‘빙떡’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기름을 찐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을 말한다.

② 모음 교체

모음 교체에는 ㉠ 반모음화, ㉡ 모음 조화가 있다.

㉠ 반모음화

반모음화는 ‘-이’나 ‘-우’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어/-아’

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11) ㄱ. 시릿마개 바바바바 허는 거 지게 점(지영) 왕 절허민 엇어져.

(시릿번 바바바바 하는 거 지게 저 와서 절하면 없어져.)

ㄴ. 뭇 죽 못허는 거 엇어. 밀죽도 썸(쑤영) 먹곡.

(뭇 죽 못하는 거 없어. 밀죽도 썸서 먹고.)

(11ㄱ)은 어간 ‘지-’ 다음에 ‘어’로 시작되는 어미 ‘-영’이 연결된 경우다. 어간 ‘ㅣ’모음이 어미 ‘ㅣ’모음 앞에서 반모음 ‘j’로 바뀐 것이다(ㅣ[ij]+ㅣ[ə]→ㅣ[jə]). (11ㄴ)은 어간 ‘쑤-’ 다음에 어미 ‘-영’이 연결된 경우로, 어간 ‘ㅏ’모음이 어미 ‘ㅣ’모음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뀌었다(ㅏ[u]+ㅣ[ə]→ㅣ[wə]). 이들은 각각 ‘ㅣ’가 반모음 [j]로, ‘ㅏ’가 반모음 [w]로 바뀌었으니 반모음화라 한다.

㉠ 모음 조화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잘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나 모양이나 움직임을 본뜬 의태어에서 볼 수 있다.

(12) ㄱ. 어떤 사름은 쫓 못 먹넌 후멍 겁덕만 먹영 내불어.

(어떤 사람은 팔 못 먹는다고 하며 껌데기만 먹어서 내버려.)

ㄴ. 창곰은 아무걸로라도 짹 막앙 내부는 거라. 게난 고팡에 들어
가민 콤콤허주게.

(‘창곰’은 아무걸로라도 짹 막아서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
방에 들어가면 캄캄하지.)

(13) ㄱ. 모밀국수에 서경 먹어. 오막오막 먹어지난 오막떡.

(메밀국수에 섞어서 먹어. 오물오물 먹어지니까 ‘오막떡’.)

ㄴ. 밥직을 무룩이 싼에 한입에 담안 오막오막 먹어.

(밥술을 그득히 싸서 한입에 담아서 움쑹움쑹 먹어.)

(12)는 ‘먹다, 막다’ 용언의 활용인 경우다. (12ㄱ)의 ‘먹엉’은 음성
모음 ‘ㄷ’와 음성 모음 ‘ㄷ’, (12ㄴ)의 ‘막앙’은 양성 모음 ‘ㅏ’와 양성
모음 ‘ㅏ’의 연결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다. (12ㄴ)에서 ‘창곰’은
‘창 구멍’의 뜻으로, ‘부엌이나 고방에 빛을 들이고 바람이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벽을 뚫어서 만든 작은 구멍’을 말한다.

(13)은 의태어인 경우다. (13ㄱ)의 ‘오막오막’은 양성 모음끼리의
결합으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3ㄴ)의 ‘우막우막’은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에 어그러진 경우다. (13ㄱ)
에서 ‘오막떡’은 ‘새알심 비슷한 떡’을 말한다.

나. 탈락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다.

① 자음 탈락

자음 탈락에는 ㉠ 자음군 단순화, ㉡ ‘ㄹ’ 탈락, ㉢ ‘ㅎ’ 탈락 등이 있다.

㉠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ㄹ’, ‘ㅁ’ 등 겹받침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이는 모음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많아야 둘이라는 제약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단어 내부나 용언이 활용할 때도 나타난다.

(14) ㄱ. 그땐 불바리[북바리] 하영 잇어나서. 이젠 씨가 전 없어.

(그땐 불바리 많이 있었었어. 이젠 씨가 져서 없어.)

ㄴ. 동네에 늪신네[늑싸네] 시믄 반을 따로 가정 가.

(동네에 늪으신네 있으면 반기를 따로 가져 가.)

(15) ㄱ. 메주 쏘젠[솜젠] 해도 날밤 좋은날 해영 쏘아[솔마].

(메주 삶으려고 해도 택일해서 좋은날 해서 삶아.)

ㄴ. 늙지[늑찌] 말젠 행 안 늙어지느[늘거지느] 거라게.

(늙지 말려고 해서 안 늙는 거야.)

ㄷ. 얼룩썬, 황썬 순합니다. 다른 거 뉘지[담찌] 안헤영.

(얼룩소, 황소는 순합니다. 다른 거 같지 않아서.)

(14)는 한 단어에서, (15)는 용언의 활용에서 자음군이 단순화하는 경우다.

(14ㄱ)의 ‘붙바리’는 모음 사이에 자음 ‘ㄷ+ㄱ+ㅂ’ 셋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겹받침 ‘ㄷ’을 단순화하여 ‘ㄱ’을 남겨 두는 것이다. (14ㄴ)의 ‘늙신네’도 자음 ‘ㄷ+ㄱ+ㅅ’ 셋이 이어져서 겹받침 ‘ㄷ’을 단순화하여 ‘ㄱ’을 남겨두는 것이다. 모음 사이에 자음은 많아야 둘밖에 올 수 없다는 음절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15ㄱ)의 ‘썰젠’은 모음 사이에 자음 ‘ㄷ+ㅁ+ㅅ’ 셋이 연결되어 겹받침 ‘ㅁ’ 가운데 ‘ㅁ’으로 단순화하는 반면 ‘썰아’에서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둘이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5ㄴ)도 마찬가지로 ‘늙지’는 자음 ‘ㄷ+ㄱ+ㅅ’이 이어져서 겹받침 ‘ㄷ’을 ‘ㄱ’으로 단순화하고, ‘늙어지느’에서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둘이기 때문에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5ㄷ)의 ‘뉘지’는 모음 사이에 자음 ‘ㄷ+ㅁ+ㅅ’ 셋이 있어서 겹받침 ‘ㅁ’을 ‘ㅁ’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㉔ ‘ㄹ’ 탈락

‘ㄹ’ 탈락 현상은 ‘ㄹ’로 끝나는 어근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또는 받침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어미와 연결할 때, ‘ㄹ’이 ‘ㄴ, ㅅ, ㅈ’ 앞에 나서지 못하고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ㄹ’ 탈락 현상은 수의적인 변화로 (16)처럼 탈락하기도 하지만 (17)처럼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16) ㄱ. 마릿널은 소날(솔+날) 막 큰 거 허영 허고, 굴무긴 막 잘사는
사람이나 허주.

(마릿널은 소나무 아주 큰 거 해서 하고, 느티나무는 아주 잘사는
사람이나 하지.)

ㄴ. 장은 주로 모날(몰+날)이나 개날 담아마씨. 쉼날이나 베엌날은
안 담곡.

(장은 주로 말날이나 개날 담가요. 소날이나 뱀날은 안 담고고.)

ㄷ. 장밋디선 푸지게(풀+지게)로 돌 지어 날라.

(장지에서는 ‘푸지게’로 돌 저 날라.)

ㄹ. 그때 노는(놀+-는) 거엔 헌 건 공기허곡, 고무줄허곡.

(그때 노는 거라고 하는 건 공기하고, 고무줄놀이하고.)

(17) ㄱ. 물장우리 쫓앙 갓어. 둘은 흰한 밤인디 그 소날까진 갓거든.

(‘물장우리’ 찾아서 갓어. 달은 흰한 밤인데 그 소나무까진 갓거든.)

ㄴ. 메주콩 삶는 거나 담는 거는 몰날이나 독날.

(메주콩 삶는 거나 담그는 거는 말날이나 닭날.)

ㄷ. 훈 말지기 식 바리 든덴 허민 닷 말지긴 열다섯 바리 들어.

(한 마지기 세 바리 든다고 하면 닷 마지긴 열다섯 바리 들어.)

(16)은 ‘ㄹ’이 ‘ㄴ, ㅈ’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이고, (17)은 ‘ㄹ’이 ‘ㄴ, ㅈ’ 앞에 연결되어도 탈락하지 않는 경우다. 동일한 음성적 환경이 면서도 어떤 경우는 탈락하고, 어떤 경우는 탈락하지 않는 것은 ‘ㄹ’ 탈락 현상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음운 변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곧 ‘ㄹ’ 탈락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의적 변화다. (16), (17)의 용례 가운데 (16ㄹ)만 용언 어간 ‘-눌-’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모두 어근에서 ‘ㄹ’이 탈락한 경우다.

(16ㄷ)에서 ‘푸지게’는 ‘돌 따위를 운반하기 위하여 짚이나 띠로 등받이를 만들고 밑배만 단 지게’를 말하며, (17ㄱ)의 ‘물장우리’는 ‘물장오리’라고도 하는데,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해발 937m의 오름



〈사진 7〉 푸지게(사진 강영봉)

을 말한다.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전설 속 인물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고 전해지는 ‘창터진물’이라는 산정 호수가 있는 오름이다. ‘창터진물’은 산정 호수 바닥이 터져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8〉 물장오리 산정 호수인 '창터진물'(사진 서재철)

㉡ ‘ㅎ’ 탈락

‘ㅎ’ 탈락은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경우 어간의 ‘ㅎ’ 소리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이 ‘ㅎ’ 탈락은 어간 끝소리가 ‘ㅎ’으로 끝나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18) ㄱ. 노랑곰생이가 제일 좋은[조은] 거.

(노란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

ㄴ. 냉국도 그거 마찬가지. 장 놓았[노앙] 메역 놓았[노앙] 허는 사람, 이제 오이 썰어근엿이 장에 허는 사람.

(냉국도 그거 마찬가지. 된장 넣고 미역 넣고 하는 사람, 이제 오이 썰어서 된장에 하는 사람.)

ㄷ. 이디 영 상 초려 놓안에[노아네] 집례가 영 험서, 정 험서 후지.

(여기 이렇게 상 차려 놔서 집례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
십시오 하지.)

(18)은 용언에서의 ‘ㅎ’ 탈락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ㅎ’ 탈락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후음에 ‘ㅎ’ 하나만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②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바로 인접해 있을 때, 그 어느 하
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간 끝 모음 ‘ㅡ’가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하기도 하고, 어간 끝 모음이 어미 첫 모음과 같을 때, ‘ㄹ, ㄴ’로 끝
나는 어간 뒤에 어미 ‘-어’가 탈락하기도 한다.

(19) ㄱ. 옛날도 입춘대길 그런 거 썸{쓰--+영} 부편.

(옛날도 입춘대길 그런 거 써서 붙였어.)

ㄴ. 날은 어딜로 감썸{가--+암ㅅ--+어}? 들어.

(내일은 어디로 가니? 물어.)

ㄷ. 멩에라고 해서 낭으로 해서 끈 메썸{메--+어ㅅ} 단련시경 꺾
는 거 하고.

(멩에라고 해서 나무로 해서 끈 매어서 단련시켜서 꺾는 거 하고.)

(19ㄱ)은 어간 끝소리 ‘ㄱ’가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한 경우다. (19ㄴ)의 ‘감서’는 ‘가--ㅅ-ㅅ-ㅅ-어’ 구성으로, 어간 끝 모음 ‘ㅅ’와 어미 첫 모음 ‘ㅅ’가 같은 모음이어서 하나가 탈락한 경우다. (19ㄷ)은 어간 끝소리 ‘ㄱ’ 다음의 어미 ‘-어서’에서 어미 ‘-어’가 탈락한 경우다.

다. 첨가

첨가는 한 음운이 새로 덧붙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와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자음 첨가

자음 첨가는 ㉠ ‘ㅎ’ 첨가, ㉡ ‘ㅂ’ 첨가, ㉢ ‘ㄷ’ 첨가, ㉣ ‘ㅇ’ 첨가 등이 있다.

㉠ ‘ㅎ’ 첨가

‘ㅎ’ 첨가는 합성어를 이룰 때 ‘ㅎ’이 덧붙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옛말의 ‘ㅎ’음이 숨어 있다가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그냥 ‘ㅎ’이 첨가되는 경우다. (20)은 옛말의 ‘ㅎ’음이 나타나는 용례이고, (21)은 까닭 없이 ‘ㅎ’이 덧붙는 경우다.

(20) ㄱ. 조팍{조ㅎ+밥}은 감저 놔도 야게걸어.

(조밥은 고구마 넣어도 묵메어.)

ㄴ. 돌감{돌ㅎ+감}은 후콤 졸곡 씨가 하.

(돌감은 조금 잘고 씨가 많아.)

ㄷ. 밧딕 강도 그늘치개{그늘ㅎ+지개} 행 애기 녹지고.

(밭에 가서도 그늘지게 해서 아기 눕히고.)

(20ㄱ)의 ‘조’는 옛말에서도 ‘조히, 조홀, 조과, 조토’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끝소리로 ‘ㅎ’을 지니고 있다. 이 ‘ㅎ’이 ‘조+밥’처럼 합성어를 이룰 때 ‘조ㅎ+밥’이 되어 ‘조팍’처럼 거센소리로 바뀌는 것이다. (20ㄴ)의 ‘돌감’도 끝소리로 ‘ㅎ’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돌ㅎ+감’이 ‘돌감’으로, (20ㄷ)의 ‘그늘’도 끝소리로 ‘ㅎ’음이 있어서 ‘그늘ㅎ+지다’가 ‘그늘치다’로 바뀌는 것이다.

‘조팍, 돌감, 그늘치다’와 표준어 대역인 ‘조밥, 돌감, 그늘지다’와 비교할 때 ‘ㅎ’ 첨가 현상은 표준어와 다른 점이다.

(21) ㄱ. 고모분 갈치라도 하영 나까지든 우리 집의 가져와. 처갓집{처가+ㅎ+집}이난게.

(고모부는 갈치라도 많이 낚으면 우리 집에 가져와. 처갓집이니까.)

ㄴ. 동지집친 멜쳐{멜+ㅎ+젓} 들어서 맛 좋아.

(‘동지김치’는 멸치젓 들어야 맛 좋아.)

ㄷ. 대문은 안 증가도 고팍{고+ㅎ+방}은 똑 통췌로 증가.

(마루문은 안 잠가도 고방은 꼭 자물쇠로 잠가.)

(21ㄱ)의 ‘처가침’, (21ㄴ)의 ‘멜
첫’, (21ㄷ)의 ‘고팍’은 까닭 없이 ‘ㅎ’
음이 첨가된 경우다. 이 ‘ㅎ’ 첨가 현
상은 ‘빵침’ 등 외래어에서 온 어휘
에까지도 넓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
데 하나다. (21ㄴ)에서 ‘동지짐치’는
‘봄에 배추에서 돌아난 연한 장다리
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동지김치’
는 멸치젓과, 풋내를 없애거나 발효
를 돕기 위하여 보릿가루 따위로 풀
을 섞 넣기도 한다.



〈그림 6〉 고팡문은 똑 통췌로 증가

㉠ ‘ㅂ’ 첨가

‘ㅂ’ 첨가는 합성어를 이룰 때 ‘ㅂ’이 덧붙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
상은 옛말 가운데 ‘ㅂ’으로 시작하는 ‘ㅃ’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의
‘ㅂ’이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다.

(22) 좁쌀{조+쌀}엔 흐린 거 잇고, 모인 거 잇고 경.

(좁쌀엔 차진 거 있고, 메진 거 있고 그렇게.)

(22)의 ‘좁쌀’은 ‘조+쌀’ 구성으로, ‘쌀’의 옛말인 ‘쌀’의 ‘ㅅ’이 마치 유전인자처럼 숨어 있다가 합성어를 이룰 때 나타난 경우다.

어두 자음군

‘어두 자음군’이란 단어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나란하게 놓인 것을 말한다. ‘ㅅ’으로 시작되는 ‘ㅅ’계 자음군(쑤다>꾸다 등)과 ‘ㅂ’으로 시작되는 ‘ㅂ’계 자음군(뿌다>뽀다 등)이 있다. 이 두 계열의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 오면 된소리로 바뀌는데, ‘ㅂ’계 자음군은 표준어와 달리 제주어에서는 대부분 거센소리로 변한다.

옛말	표준어	제주어	용례
떨다	떨다	털다	저실엔 물질허당 나오면 박박 털어져. (겨울엔 물질하다 나오면 박박 떨게 돼.)
뜨다	뜨다	트다	눈 버롱이 턴 봐도 못 봐. (눈 뵈히 떠서 봐도 못 봐.)
뜯다	뜯다	툇다	이젠 다 툇어 부난 초집은 었어. (이젠 다 뜯어 버리니 초가는 없어.)
찌다	찌다	치다	보통은 침떡 쳐 제물로 올려. (보통은 시루떡 찌서 제물로 올려.)
뵈	때	테	주식 턴 벗지 못흔덴 헤서. (자식 땀 벗지 못한다고 했어.)
빻	짹	착	나 신착 었어졌저게. (내 신짹 없어졌다.)
뽀다	찌다	초다	이레 들어왕 불이나 초심 . (이리 들어와서 불이나 찌게.)

옛말	표준어	제주어	용례
뿌다	짜다	춸다	춸게 먹으믄 물썬다. (짜게 먹으면 물컹다.)
삐다	째다	체다	물 숨 잘 쉬렌 코 체어. (말 숨 잘 쉬라고 코 째어.)

㉡ ‘ㄹ’ 첨가

‘ㄹ’ 첨가는 ‘ㄹ’이 덧붙는 현상을 말한다.

(23) ㄱ. 옛날은 다 일쥔 잔치라.

(옛날은 다 이레 잔치야.)

ㄴ. 멀리도 타당 먹고. 어린 땡 못 먹는 거 없어.

(머루도 따다 먹고. 어릴 땡 못 먹는 거 없어.)

ㄷ. 오래 진 집은 부제침이라.

(오래 긴 집은 부잣집이야.)

ㄹ. 물을 사당 들어 부난 난 몰르지.

(물감을 사다가 들어 버리니 난 모르지.)

ㄴ. 기신샌 집 일젠 저 후꿈 노픈 거 영 ㄴ리운 거 그거.

(씩은샌 집 이려고 저 조금 높은 거 이렇게 내리운 거 그거.)

(23)의 용례들에서 제주어와 표준어 대역을 비교해 보면 제주어

에 ‘ㄹ’이 덧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3ㄱ, ㄴ, ㄷ, ㄹ)에서 ‘이레’의 옛말 ‘닐웨’, ‘머루’의 옛말 ‘멀위’, ‘올래’의 옛말 ‘오래’, ‘몰르다’의 옛말 ‘모르다’와 비교하거나 표준어 대역과 비교하게 되면 ‘ㄹ’ 첨가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23ㄱ)의 ‘일젠’은 ‘일다’의 어간 ‘일-’에 연결어미 ‘-젠’이 연결된 형태로, 옛말 ‘니다’가 ‘니다’이다’로 변한 어휘다. 이 ‘이다’의 방언형은 ‘일다’로 나타나는데, ‘일다’를 ‘이다’와 견줄 때 ‘ㄹ’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ㄱ)에서 ‘기신새’는 ‘그신새, 그스새’라고도 하는데,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㉔ ‘ㅇ’ 첨가

‘ㅇ’ 첨가는 ‘ㅇ’이 덧붙는 현상을 말한다.

(24) ㄱ. 우리 어멩도 막 부제로 살앗수다게.

(우리 어머니도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ㄴ. 속곳 입은 땐 바당에 오래 못 살아. 잘 살아사 훈 시간.

(속곳 입은 땐 바다에 오래 못 살아. 잘 살아야 한 시간.)

(24ㄱ)의 ‘어멩’은 ‘어미’와 관련 있는 어휘로, ‘ㅇ’이 첨가되었다. ‘아방(아버지), 할망(할머니), 하르방(할아버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ㄴ)의 ‘바당’은 ‘바다’의 옛말이 ‘바당’ 또는 ‘바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체나 첨가로 설명이 가능하다. 곧 ‘바당’의 끝소리 ‘ㅎ’이

‘ㅇ’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거나, ‘바다’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15세기 당시에도 ‘바닷’과 ‘바다’ 두 어휘가 있으며 여기서는 ‘바다’에 ‘ㅇ’이 첨가된 것으로 본다.

②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다음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경우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이는 단모음이 연이어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5) ㄱ. 창문은 장마 넘어나민 다른 문 닻질 안허여. 다 곰생이 피엌[피영] 다시 불라사.

(창문은 장마 지나면 다른 문 같질 앓아. 다 곰팡이 피어서 다시 발라야.)

ㄴ. 누계가 두턱서 막 아시야[아시+아}, 아시야 불러.

(누가 뒤에서 막 아우야, 아우야 불러.)

(25ㄱ)은 ‘ㅣ’ 모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 ‘-영’이 연결될 때 그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영]이 된 경우이고, (25ㄴ)의 ‘아시야’도 ‘ㅣ’ 모음 다음에 호격 조사 ‘아’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야’가 된 경우다. (25ㄱ)은 발음의 문제이고, (25ㄴ)은 표기의 문제다.

라. 축약

‘축약’은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탈락’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나 제3의 음운으로 바뀌지만 그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ㅎ+ㄱ’이 만나서 ‘ㄱ’으로 바뀌는데, ‘ㄱ’을 발음 기호 [k^h]로 표기하므로 ‘ㄱ’과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축약에는 ① 자음 축약과 ② 모음 축약이 있다.

①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은 ‘ㅎ’과 ‘ㄱ, ㄷ, ㄴ, ㄹ’이 만나서 각각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자음 축약은 두 개의 음소가 합쳐져서 제3의 음소로 줄어드는 경우다.

(26) ㄱ. 다려도 좨ㅅ[조곡] 그자 영 막 몰라 불지 아년 때 개어 놔근에
 ㅅㅅ 발로 불라도 좨아.

(다려도 좨고 그저 이렇게 아주 말라 버리지 않을 때 개어 놔서
 ㅅㅅ 발로 밟아도 좨아.)

ㄴ. 족제빈 이런 곱은데기에 잘 걸려. 게난 그런 되 강 덧을 놉주게
 [노추게].

(족제비는 이런 곱팡이에 잘 걸려. 그러니 그런 데 가서 덧을

놓지.)

(26ㄱ)의 ‘종곡’은 ‘ㅎ+ㄱ’이 만나서 제3의 음소인 거센소리 ‘ㄱ’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26ㄴ)의 ‘놓주’는 ‘ㅎ+ㅈ’이 결합하여 제3의 음소인 거센소리 ‘ㅈ’으로 바뀌어서 줄어드는 경우다. ‘ㅎ’이 앞선 경우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에 한정된다.

‘ㅎ’이 ‘ㄱ, ㄷ, ㅂ, ㅈ’ 뒤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27) ㄱ. 생이가 기가 멕히게[멕키게] 아는데 말이야.

(새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말이야.)

ㄴ. 흑 올령 받는 거, 손으로 받았주. 원래는 받흄대[바툼대]엔 허주.

(흄 올려서 받는 거, 손으로 받았지. 원래는 ‘받흄대’라고 하지.)

ㄷ. 빈손으로 기냥 갈 수 엇이난 아무거라도 하나 맞형[마침] 가겐 골아.

(빈손으로 그냥 갈 수 없으니 아무거라도 하나 맞혀서 가자고 말해.)

(27)은 ‘ㅎ’이 ‘ㄱ, ㄷ, ㅈ’ 뒤에 있는 경우다. (27ㄱ)의 ‘멕히게’는 ‘ㄱ’과 ‘ㅎ’이 만나서 ‘ㄱ’으로 줄어드는 경우이고, (27ㄴ)의 ‘받흄대’는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27ㄷ)의 ‘맞형’은 ‘ㅈ’과 ‘ㅎ’이 만나서 ‘ㅈ’으로 줄어드는 경우다. ‘ㅎ’이 뒤에 올 때는 용언과 체언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27ㄴ)에서 ‘받흙대’는 흙손질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흙받기’를 말한다.

②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이어지는 두 모음이 합해져서 제3의 단모음으로 줄어들거나, 이중 모음을 이루는 단모음과 반모음이 제3의 단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28) ㄱ. 옥허젠 보난 어느 쉼(수이) 천장만장 돌아나 불언게.

(옥하려고 보니 어느 사이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어.)

ㄴ. 거 코 몇 번 흙트난에 아, 앗(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라.

(거 코 몇 번 흙으니까 아, 애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ㄷ. 이딴 씨집은 후제까지도 돌팡에서 골아다가 송편을 멘들아서.

(여기 씨집은 후에까지도 연자매에서 갈아다가 송편을 만들었어.)

(28ㄱ)과 (28ㄴ)은 두 단모음 ‘으’와 ‘이’, ‘아’와 ‘이’가 합해져서 각각 ‘에’와 ‘애’로 줄어드는 경우이고, (28ㄷ)에서는 ‘송편’의 이중 모음 ‘ㅅㅑ(ㅣ+ㅣ)’가 단모음 ‘ㅑ’로 줄어드는 경우다.

(28ㄱ)에서 ‘세’로 적은 것은 ‘세’가 옛말 ‘수시’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또 (28ㄷ)에서 ‘돌팡에’는 ‘돌ㅎ+방에’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다.

3. 빵집은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단어

- 3.1. 형태소와 단어
- 3.2. 단어 형성
- 3.3. 품사



‘빵집’을 ‘빵’과 ‘집’으로 분석하는 것을 형태소 분석이라 한다. ‘빵집’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로, 이를 합성어라 한다. 3행의 ‘누나님’은 접미사 ‘-님’이 연결된 파생어이며, 7행의 ‘달콤하고’, 8행의 ‘걱정하는’은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다.

3. 빵집은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단어

아래는 이면우 시인의 <빵집>이란 시 작품 1연이다.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때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선 버스 안에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가 웃게요”라는 빵집에 붙은 글을 보고 쓴 작품이다.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뼀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 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창작과비평사, 2001:49)

이 시구에서 눈이 가는 것은 ‘빵집’에는 빵만 있는 게 아니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다는 발견과 함께 ‘빵집’을 ‘빵과 집으로 나눌 수 있다’는 첫 행의 내용 때문이다. ‘빵집’을 ‘빵’과 ‘집’으로 분석하는 것을 형태소 분석이라 한다. ‘빵집’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로, 이를 합성어라 한다. 3행의 ‘누나님’은 접미사 ‘-님’이 연결된 파생어이며, 7행의 ‘달콤하고’, 8행의 ‘걱정하는’은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다.

3.1. 형태소와 단어

가.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뜻을 지닌’의 ‘뜻’은 개념적 의미와 더불어 문법적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형태소는 중괄호 { } 속에 표시한다.

(1) ㄱ. 아무 밧디도 걸름 날르는 사름 지쳐게.

(아무 밧에도 거름 나르는 사람 지쳐.)

ㄴ. 아무, 밧+딴+도, 걸름, 날르+--는, 사름, 지치+--어+게

(1ㄴ)은 (1ㄱ)의 용례를 형태소로 분석한 결과다. 이들 형태소를

개념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와 문법적 기능의 형태소로 구분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른 형태소 종류

개념적 의미(실질 형태소)	아무, 밭, 걸름, 날르-, 사름, 지치-
문법적 기능(문법 형태소)	디, 도, -는, -어, 게

‘아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로, 관형사이다. ‘밭’, ‘걸름’, ‘사름’은 명사로, 각각 ‘채소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날르-’와 ‘지치-’는 동사의 어간으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져서 부치다.’는 뜻이 있다. 이들은 ‘말, 땅, 물질, 옮기다, 부치다’ 등 개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개념적 의미를 달리 실질 형태소라 부른다.

반면 ‘디’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는’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어’는 하여 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종결 어미이다. ‘게’는 서술어 뒤에서 강조, 확인, 친절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들

은 모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문법적 기능을 달리 문법 형태소라 한다.

이 <표 9>에서 눈여겨 볼 일은 붙임표(-)라는 문장부호다. 붙임표가 붙은 것도 있고, 붙지 않은 것도 있다. 붙임표가 없는 형태소는 홀로 설 수 있다는 뜻이며, 붙임표가 붙은 형태소는 홀로 설 수 없어 붙임표 자리에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특히 ‘디, 도, 게’는 그 앞에 어떤 형태소가 있어야 하지만 붙임표가 없는데, 이는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 한다. 반면 홀로 설 수 없어서 붙임표가 붙은 형태소와 ‘디, 도, 게’ 등의 조사를 의존 형태소라 한다. 개념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자립 형태소가 된다. 다만 ‘날르-’, ‘지치-’는 동사 어간으로 붙임표가 붙어 있으나 ‘옮기다’, ‘부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 실질 형태소이다. 그러나 어간은 붙임표가 붙어 있어서 의존 형태소가 된다. 또 ‘디, 도, 게’는 붙임표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어떤 형태소가 와야만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처리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자립 유무에 따른 형태소 종류

자립 형태소	아무, 밧, 걸름, 사름
의존 형태소	디, 도, 게
	날르-, 지치-, -는, -어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단어는 띄어쓰기할 수 없으며, 다른 단어를 넣어서 분리할 수도 없다. 다만 자립할 수 없는 단어로 조사가 있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체언이 자립할 수 있는 단 어이기 때문이다.

(2) 겹덩에 자리젓이나 멜젓 지전 먹었주.

(전복갑에 자리젓이나 멸치젓 지져서 먹었지.)

(2)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단어는 ‘겹덩, 자리젓, 멜젓’이며, 동사 ‘지 지-’와 ‘먹-’은 그 뒤에 어미 ‘-다’를 연결하여 단어를 만든다. ‘에’와 ‘이나’는 각각 체언 ‘겹덩’과 ‘자리젓’ 뒤에 연결된 조사이며, ‘지지-+-언’의 ‘-언’과 ‘먹-+-엇-+-주’의 ‘-엇-’과 ‘-주’는 어미다. 조사는 독립된 품사여서 단어로 인정하며, 어미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단어는 품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용언은 어간에 어미 ‘-다’가 연결된 형태가 단어가 되는 셈이다.

또 ‘자리젓’은 단어인 ‘자리’와 ‘젓’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멜젓’ 또한 단어



〈그림 7〉 겹덩에 지지는 자리젓

‘멜’과 ‘젓’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겹텅’은 더 분석할 수 없어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다. 결국은 형태소와 단어와의 관계는 ‘형태소 ≤ 단어’로 표시할 수 있다. 곧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형태소 둘 이상이 모여서 단어가 된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 또는 합성어라 한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나. 어근과 접사

어근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뜻하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접사는 어근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있다.

(3) ㄱ. 피썰{피+썰}로 썬 거는 헤영헌 곤죽{곤+죽} 닳앙 더 맛이 죵곡.

(핍쌀로 썬 거는 허연 흰죽 같아서 더 맛이 죵고.)

ㄴ. 우리 성님{성+님}은 일허지{일+허지} 아녀믄 삐벗앙{삐+벗+앙} 못 살아.

(우리 형님은 일하지 않으면 ‘삐벗아서’ 못 살아.)

ㄷ. 감긴 오장을 따뜻하게만{따뜻--+허--+게+만} 해야 낮이니까.

(감긴 오장을 따뜻하게만 해야 나오니까.)

(3ㄱ)의 ‘피쫄’은 어근 ‘피’와 어근 ‘쫄’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곤죽’은 접두사 ‘곤-’과 어근 ‘죽’이 연결되어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다. (3ㄴ)의 ‘성님’은 어근 ‘성’과 접미사 ‘-님’이, ‘일허다’는 어근 ‘일’과 접미사 ‘-허-’가, ‘빼벗다’는 어근 ‘빼’와 어근 ‘벗다’가 연결되어 형성된 합성어다.

(3ㄱ)의 접두사 ‘곤-’은 ‘고운’ 또는 ‘흰쌀로 만든’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로, 뜻만을 더하는 기능을 할 뿐 품사 변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ㄴ) ‘성님’의 접미사 ‘-님’은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또한 품사 변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3ㄴ) ‘일허지’의 접미사 ‘-허-’는 명사 ‘일’을 동사 ‘일허다’로 그 품사를 바뀌게 하고 있다. 접두사는 뜻을 덧붙이는 기능만 하며, 접미사는 접두사처럼 뜻을 덧붙이기도 하고, 품사를 바뀌게도 한다. (3ㄴ)에서 ‘빼벗다’는 ‘좀이 쏘시어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3ㄷ)의 ‘따뜻하다’의 어근은 앞에서 본 (3ㄱ, ㄴ)과는 다르다. (3ㄱ)의 어근인 ‘피, 쫄, 죽’과 (3ㄴ)의 ‘성, 일, 빼, 벗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며, 품사도 명사, 동사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따뜻하다’인 경우 ‘따뜻-’이 어간이긴 하지만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으니 품사가 무엇인지, 뜻은 어떤지도 모른다. 이처럼 뜻과 품사가 불분명한 어근을 불완전 어근이라 한다.

어근과 어간

‘어근’은 단어 형성에 관련한 용어다. 곧 단어를 분석할 때에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위의 용례 (3) 가운데 밑줄 친 부분에서 ‘피, 쏘, 죽, 성, 일, 빼, 뺏-’ 등이 어근에 해당한다.

한편 ‘어간’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할 때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중심 요소를 말한다. (3)의 용례에서 ‘쫘’의 ‘쫘-’, ‘종곡’의 ‘종-’, ‘일허지’의 ‘일허-’, ‘아녀믄’의 ‘아녀-’, ‘빼벗앙’의 ‘빼벗-’, ‘살아’의 ‘살-’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 어간은 변하지 않으나 용언에 따라 어간이 변하기도 한다. ‘굳다[ㄷ]’는 “굳지 말라.”, “굳꼭 말꼭.” 할 때는 어간이 변하지 않지만 “굳안 보난 이상허다.”, “건 굴으나 마나 아니라.” 등에서는 어간 끝소리 ‘ㄷ’이 ‘ㄹ’로 변했다. 위의 용례 (3ㄷ)의 ‘낫다’는 표준어 대역과 비교할 때 제주어 용례에서는 어간 끝소리 ‘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표준어 대역에서는 ‘ㅅ’이 탈락하고 있다. 제주어에서는 규칙 용언인데 비하여 표준어에서는 ‘ㅅ’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이다.

3.2. 단어 형성

단어 형성은 어근끼리 연결되거나 어근과 접사가 연결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단어 형성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가 된다.

(1) ㄱ. 단일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모살, 바당, 굴무기
……)

ㄴ.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폭+남, 고팡+문, 널
+마리 ……)

ㄷ. 파생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곤--+밥, 덜--+익다, 귀막
--+쉬 ……)

(1)은 단어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1ㄱ)의 단일어는 ‘형태소=단어’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단어 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로 든 ‘모살’은 ‘모래’, ‘바당’은 ‘바다’, ‘굴무기’는 ‘느티나무’로,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일어들이다.

(1ㄴ)의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 곧 어근끼리 연결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예로 든 ‘폭+남’은 ‘팽나무’, ‘고팡+문’은 ‘광문’, ‘널+마리’는 ‘널마루’에 대응하는 합성어들이다. (1ㄷ)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접사는 어근 앞에 연결되면 접두사가 되고, 어근 뒤에 연결되면 접미사가 된다. 예로 든 ‘곤--+밥’과 ‘덜--+익다’는 접두사가 연결된 경우로, 각각 ‘흰밥’과 ‘데익다’에 대응하는 파생어다. 한편 ‘귀막--+쉬’는 접미사가 어근 뒤에 연결된 경우로, ‘귀머거리’에 대응하는 파생어다.

(2) ㄱ. 뉘신{남+신}은 낭으로 멘든 거계.

(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

ㄴ. 감저 눌엇당 저슬내낭{저슬+-내낭} 파멍 쳐 먹어.

(고구마 가리엿다가 겨우내 파며 찌 먹어.)

(2ㄱ)의 ‘남신’은 어근끼리 결합에 의한 합성어로, 이렇게 어근끼리 연결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합성법이라 한다. (2ㄴ)의 ‘저슬내낭’은 명사 ‘저슬’에 접미사 ‘-내낭’이 연결된 파생어로, 접사가 연결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한다.

가. 파생법, 파생어

파생법은 접사에 의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 한다.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와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개 접두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오로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만 할 뿐 품사가 바뀌는 일은 없다. 반면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어는 접두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파생어처럼 품사 변동 없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과 동시에 다른 품사로 바뀌게 하기도 한다.

① 접두 파생법

접두 파생법이란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에 의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3) ㄱ. 겹술 먹으면 재기 취하여.

(‘겹술’ 먹으면 재우 취해.)

ㄴ. 넛하르방은게 하르바지 사촌 동생계.

(넛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사촌 동생.)

ㄷ. 떡도 송봐. 경허믄 덜익는 되가 셔.

(떡도 흥봐. 그러면 데익는 데가 있어.)

ㄹ. 무신 베? 자라 베. 무신 자라? 똥자라.

(무슨 배? 자라 배. 무슨 자라? ‘똥자라’.)

ㅁ. 상아덜에 메누리 드난 방엿권덜 날 아니 주랴.

(만아들에 며느리 드니 방앗공인들 날 아니 주랴.)

ㅂ. 장꿔은 아주 멋있거든. 짓 해서 물려근에 장식도 허고 헤나서.

(장끼는 아주 멋있거든. 짓 해서 말려서 장식도 하고 했었어.)

ㅅ. 밥 처먹곡 줌 퍼자문 먹은 거 다 솔러레 갑주, 어디로 갑니깁게?

(밥 처먹고 잠 ‘퍼자면’ 먹은 거 다 살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ㅇ. 다랑쉬 동편의 신 게 아곤다랑쉬.

(‘다랑쉬’ 동편에 있는 게 ‘아곤다랑쉬’.)

(3)의 밑줄 친 단어들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들이다. (3ㄱ) ‘겹술’의 ‘겹-’은 ‘갑자기, 겹이 나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겹똥’(겹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깔기는 똥), ‘겹비’(겹이 날 정도로 세차게 쏟아

지는 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ㄴ) ‘넋하르방’의 ‘넋-’은 ‘할아버지 사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사촌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2대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아래로 2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항렬이나 손자 항렬에만 적용된다. 표준어에서 접두사 ‘넋-’은 사전에 따라, “아버지의 외숙이나 외숙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할머니 쪽 피붙이인’의 뜻을 더하는 말, ‘누이 쪽 피붙이인’의 뜻을 더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접두사 ‘넋-’은 ‘두서넋’, ‘서넋’의 ‘넋’으로, ‘四’의 뜻을 지닌다. ‘넋할망’(넋할머니), ‘넋손지’(넋손자) 등에서 접두사 ‘넋-’이 확인되는데, ‘넋할망’은 옛말 ‘넋할미’에서 온 말이다. (3ㄷ) ‘덜익는’의 ‘덜-’은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 하는 뜻을 지닌 접두사다. 표준어 ‘데-’에 해당하는데, ‘덜생기다’(데생기다), ‘덜쏘다’(데쏘다) 등에서 확인된다.

(3ㄹ)은 동요에서 따온 용례이다. ‘돛자라’의 ‘돛-’은 ‘색깔이 검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접두사 ‘돛-’은 명사 ‘돛’(돛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돛거미’(검은 빛깔의 거미) 등에서 확인된다. (3ㅁ) ‘상-’은 한자어 ‘上’에서 온 접두사로, ‘맡이, 크고 긴, 반듯한’이라는 뜻을 지닌다. ‘상빔’(가운데로 자른 직사각형의 시루떡), ‘상손가락’(가운뎃손가락), ‘상방’(대청) 등에서 확인된다. (3ㅂ) ‘장뽕’의 ‘장-’은 ‘새끼를 배지 아니하는’의 뜻을 지닌 접두사로, ‘장독’(수탉), ‘장비에기’(수평아리) 등에서 확인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어 ‘장끼’도 ‘장-+끼’로 분석하고 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다. (3ㅅ) ‘퍼자몬’의 ‘퍼-’는 ‘마구, 함부로, 많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로, ‘퍼싸다’(많이 싸다), ‘퍼

씨다’(마구 쓰다) 등에서도 확인된다. (30) ‘아끈다랑쉬’의 ‘아끈-’은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아끈쨌기’(아츠조금), ‘아끈천’(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내 이름) 등에서 확인된다. ‘다랑쉬’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



〈사진 9〉 장평(사진 서재철)

한 해발 382m의 오름이고, ‘아끈다랑쉬’는 ‘다랑쉬’ 동편에 야트막하게 자리한 오름을 말한다. 무가에서는 ‘다랑쉬’와 ‘아끈다랑쉬’를 ‘한드랑쉬’, ‘아끈드랑쉬’ 또는 ‘웃드랑쉬’, ‘알드랑쉬’라 한다. ‘큰 다랑쉬’,



〈사진 10〉 훈다랑쉬(앞쪽)와 아끈다랑쉬(뒤쪽)(사진 서재철)

‘작은 다랑쉬’, ‘위 다랑쉬’, ‘아래 다랑쉬’라는 뜻이다.

(3ㄱ~ㅇ)의 접두사들은 품사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만 그 뜻을 한정하고 있다. (3ㄱ)의 ‘겹술’은 ‘술’이고, (3ㄴ)의 ‘넋하르방’은 ‘하르방’이고, (3ㄷ)의 ‘털익다’는 ‘익다’이니 ‘겹-’, ‘넋-’, ‘털-’ 등의 접두사는 뒤에 위치하는 어근인 ‘술, 하르방, 익다’를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뜻을 한정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한다. 모든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다.

접두사는 이밖에도 ‘갈-’(갈증의, 갈독지-감물을 들인 소매가 짧은 적삼), ‘개-’(개비늬-개비름), ‘난-’(난드르·난케-난들), ‘도-’(도나다-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 도치다-찬밥이나 떡 따위를 도로 익히거나 데우다), ‘뉘-’(뉘살다-되살다), ‘떡-’(떡돌-아주 판판하고 미끈한 검은 돌, 떡사옥이-사옥이의 한 종류), ‘물-’(물게염지-왕개미), ‘불-’(불더위), ‘왕-’(왕돌-큰돌, 왕재열-말매미), ‘출-’(출떡-찰떡) 등이 있다.

② 접미 파생법

접미 파생법이란 어근 뒤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접미 파생에는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등이 있다.

㉠ 명사 파생

명사 파생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에 접미사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

(4) ㄱ. 옛날 우리 어머니네{어머니+-네} 시절엔 그자 쉐집으로 옛날 어른덜 다 헤여.

(옛날 우리 어머니네 시절엔 그저 ‘소집’으로 옛날 어른들 다 했어.)

ㄴ. 귀막으믄 귀막쟁이{귀막+-쟁이}, 눈 터도 못 보믄 튼봉스, 말 못허믄 버버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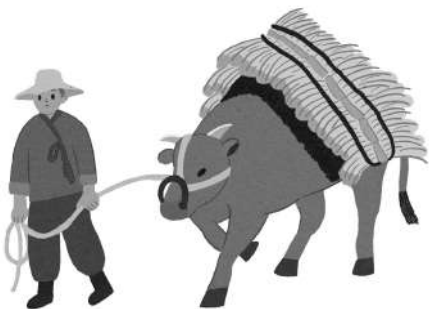
(귀먹으면 귀머거리, 눈 떠도 못 보면 눈뜯장님, 말 못하면 병어리 그렇게.)

ㄷ. 이 꿔 저 꿔 허멍 일만 안 허젠 허는 사름이 역쉬라{역+-쉬}.

(이 꺾 저 꺾 하며 일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약동이야.)

(4ㄱ)의 ‘어머니네’는 ‘그러한 부류 또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족 따위의 무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네’가 연결되어 파생어를 만든 경우이고, (4ㄴ)의 ‘귀막쟁이’는 동사 ‘귀막다’에 접미사 ‘-쟁이’가 연결되어 명사를 파생한 경우, (4ㄷ)의 ‘역쉬’는 형용사 ‘역다’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쉬’가 연결되어 명사를 파생한 경우다.

(4ㄱ)에서 ‘쉐집’은 ‘소등에 얹은 짐’을 말한다.



〈그림 8〉 우리 어머니네는 그자 세집으로

명사 파생 접미사에는 ‘-내기’(곱을내기-숨바꼭질), ‘-데기’(손콥데기-‘손’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바리’(비바리), ‘-바치’(침바치-침쟁이), ‘-애/에’(ㄱ새-가위, ㄱ레-맷돌), ‘-악지’(굴각지-호미) ‘-에기’(빙에기-병아리), ‘-앵이’(글쟁이-글경이, 굴쟁이-호미), ‘-와치’(씨와치-씨뿌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질’(섬비질-콩게질) 등이 있다.

㉠ 동사 파생

동사 파생은 명사, 동사, 부사 등에 접미사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

(5) ㄱ. 우린 그땐 어린 때난에 일허레{일+-허+-레} 가는 목적이 아이라. 얻어먹기 위행 따라갔단 말야.

(우린 그땐 어릴 때니까 일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야.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갔단 말이야.)

ㄴ. 에이구, 산 생각을 후민 참 기가 막히고{막+-히+-고}, 웬장도 엇어근에 소곰에도 밥 먹어나고.

(에이구, 산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히고. 된장도 없어서 소금에도 밥 먹었었고.)

ㄷ. 아침에 강 곳내근에 잘허민{잘+-허-+-민} 조반 얻어먹고 술이나 혼잔 얻어먹곡.

(아침에 가서 끝내서 잘하면 조반 얻어먹고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5ㄱ)의 ‘일허다’는 명사 ‘일’에 접미사 ‘-허-’, (5ㄴ)의 ‘막히다’는 동사 어간 ‘막-’에 접미사 ‘-히-’, (5ㄷ)의 ‘잘허다’는 부사 ‘잘’에 접미사 ‘-허-’가 연결되어서 동사를 파생한 경우다.

동사 파생 접미사에는 ‘-허-(허다)’를 비롯하여 ‘-지-’(입지다-입히다), ‘-이-’(멕이다-떡이다), ‘-리-’(울리다), ‘-거리-’(출썩거리다) 등이 있다.

㉔ 형용사 파생

형용사 파생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에 접미사가 연결되어서만 들어진다.

(6) ㄱ. 폐라운{폐+-랍-+-ㄴ} 사람은 어디 강도 첫숴가락에 머을 들어.

(폐로운 사람은 어디 가셔도 첫술에 돌 들어.)

ㄴ. 일 하영 허여도 조랍나{줄-+-압-+-나}.

(일 많이 해도 즐린다.)

ㄷ. 하늘 노프곡 땅 ㄴ자운{ㄴ--+--압--+ㄴ} 중 알아사 ㅎ여.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알아야 해.)

ㄹ. 출도 비어사 허난 영 방 후곰 쉼 먹엄직헌{먹--+--엄직+-허--+--
ㄴ} 뒤 시은 말목 박양은에 멕이곡.

(꼴도 비어야 하니까 이렇게 봐서 조금 소 먹음직한 데 있으면
말목 박아서 먹이고.)

ㄱ. 날 좋암직헌{좋--+--암직+-허--+ㄴ} 때 밧을 가는 거라.

(날 좋음직할 때 밧을 가는 거야.)

(6ㄱ)의 ‘폐랴다’는 명사 ‘폐’(弊)에 접미사 ‘-랴-’, (6ㄴ)의 ‘조랴다’는 동사 ‘줄다’ 어간 ‘줄-’에 접미사 ‘-압-’, (6ㄷ)의 ‘ㄴ잡다’는 형용사 ‘늦다’의 어간 ‘늦-’에 접미사 ‘-압-’, (6ㄹ)의 ‘먹엄직허다’는 동사 ‘먹다’ 어간 ‘먹-’에 접미사 ‘-엄직’과 접미사 ‘-허-’, (6ㅁ)의 ‘좋암직허다’는 형용사 ‘좋다’ 어간 ‘좋-’에 접미사 ‘-암직’과 접미사 ‘-허-’가 연결되어서 형용사를 파생한 경우다. 특히 접미사가 겹치어 연결되는 (6ㄹ)의 ‘-엄직+-허-’와 (6ㅁ)의 ‘-암직+-허-’는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2009:1939, 4894)의 ‘-ㅁ직’, ‘-음직’을 접미사로 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접미사 ‘-ㅁ직’, ‘-음직’과 접미사 ‘-ㅎ-’가 연결된 ‘듬직하다, 들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바람직하다, 보암직하다, 큼직하다, 하염직하다’ 등은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먹음직하다’는 《첩해신어》(중간본 2:17)의 ‘먹엄즉이’, ‘보암직하다’는 《여사서언해》(2:33)의 ‘보암즉 ㅎ니논’,

‘하염직하다’는 《남명집언해》(하:44)의 ‘하얌직디’에서 온 말이다. 접미사가 겹친 ‘-ㅁ직허-, -엄직허-, -암직허-’ 등의 형태는 ‘(날이) 굿엄직하다, (구신) 나왓직하다, (큰일) 남직하다, (이젠) 살암직하다, (이젠) 알암직하다, (비) 오람직하다, (발에) 족암직하다, 험직하다(하염직하다)’ 등 많은 어휘를 만들기도 한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는 ‘-답-’(사름답다-사람답다), ‘-스럽-’(구체스럽다-구차스럽다), ‘-지랑허-’(흙지랑하다-굼다랗다) 등이 있다. ‘-랍-, -압-, -답-, -스럽-’ 등 ‘-ㅁ-’ 계통의 접미사는 대체적으로 형용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㉔ 부사 파생

부사 파생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에 접미사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

(7) ㄱ. 이때까⁷장 살멍 훈껏{훈+-껏} 먹어본 기억은 멧 번 엇어.

(이때까지 살면서 한껏 먹어본 기억은 몇 번 없어.)

ㄴ. 사는 게 어반당헤사 조쥬{쥬+-+우} 가게도 똬고 친해지는 거쥬.
차이 나믄 잘 가질 못허여.

(사는 게 엇비슷해야 자주 가게도 되고 친해지는 거지. 차이 나면 잘 가질 못해.)

ㄷ. 울려주썩흔 대우린 재기{재+-+기} 뵙아 불어사 허여.

(‘올려주썩한’ 귀리는 재우 뽑아 버려야 해.)

(7ㄱ)의 ‘흔썩’은 명사 ‘흔’(限)에 접미사 ‘-썩’, (7ㄴ)의 ‘조썩’은 동사 어간 ‘조-’에 접미사 ‘-우’, (7ㄷ)의 ‘재기’는 형용사 어간 ‘재-’에 접미사 ‘-기’가 연결되어서 부사를 파생한 경우다. (7ㄷ)에서 ‘올려주썩하다’는 ‘여럿 가운데 유독 하나만 아주 높게 우뚝 솟아 있다.’는 뜻을 지닌 어휘다.

부사 파생 접미사에는 ‘-내낭’(ᄃ슬내낭-가으내), ‘-이’(별리-빨리, 너나없이-너나없이) 등이 있다.

한편 (4ㄱ) ‘어머니네’의 접미사 ‘-네’는 품사 변동 없이 그 뜻만을 한정하고 있어서 한정적 접사라 한다. 반면 (4ㄴ)의 ‘-쟁이’와 (4ㄷ)의 ‘-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에서 명사로 그 품사가 바뀌었다. 이런 접미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즉, 뜻을 한정하는 접사는 한정적 접사가 되고, 품사를 바뀌게 하는 접사는 지배적 접사라 한다.

(5ㄱ)의 ‘일허레’와 (5ㄷ)의 ‘잘허민’의 ‘-허-’, (6ㄱ)의 ‘페라운’의 ‘-랍-’, (6ㄴ) ‘조랍나’의 ‘-압-’, (7ㄱ) ‘흔썩’의 ‘-썩’, (7ㄴ) ‘조썩’의 ‘-우’, (7ㄷ) ‘재기’의 ‘-기’ 등은 품사를 바뀌게 하고 있으니 지배적 접사다. 결국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만 있는데 비하여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가 있는 셈이다.

나. 합성법, 합성어

합성법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합성법의 연결 방법은 어근끼리 바로 연결하는 방법, 사잇소리로 연결하는 방법, 어미를 매개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8) ㄱ. 보릿눌, 조눌, 콩눌, 출눌 뭐 눌이 곡식에 메주 뭐.

(보릿가리, 조 가리, 콩 가리, 꿀 가리 뭐 가리가 곡식에 매지 뭐.)

ㄴ. 벼룩 한 똥 이불 내널엇당 흰하민 튀는 벼룩을 잡아.

(벼룩 많은 똥 이불 ‘내’널었다가’ 흰하면 튀는 벼룩을 잡아.)

ㄷ. 소살은 메운대로 하여근에 후곡.

(작살은 굵은대로 해서 하고.)

ㄹ. 이 구뭇 넘어사른 지는 겉로 하다 하여.

(이 금 넘어서면 지는 겉로 한다 해.)

ㅁ. 거심손이 군손질게. 게난 군손질 잘못 하당은 매 맞는 거.

(‘거심손’이 군손질. 그러니 군손질 잘못 하다가는 매 맞는 거.)

(8ㄱ)의 ‘보릿눌’은 ‘보리+ㅅ+눌’ 구성으로, 어근과 어근이 ‘사잇소리’로 연결한 경우고, ‘조눌, 콩눌, 출눌’은 어근끼리 직접 연결된 경우다.

(8ㄴ)의 ‘내널다’는 ‘내-+널다’ 구성으로, 어간끼리 직접 연결된 경

우다. ‘내널다’는 ‘빨래나 곡식 따위를 말리기 위하여 집안에서 밖으로 꺼내어 널다.’는 뜻이다.

(8ㄷ)의 ‘메운대’는 ‘메우(멤)-+-ㄴ+대’ 구성으로, 어간과 어근을 관형사형 어미 ‘-(으)ㄴ’로 연결한 경우이고, (8ㄹ)의 ‘넘어사문’은 ‘넘-+-어+사-+-문’ 구성으로, 어간과 어간을 보조적 연결어미 ‘-어’로 연결한 경우다. (8ㅁ)의 ‘거심손’은 ‘거시-+-ㅁ+손’으로, 어간과 어근을 명사형 어미 ‘-ㅁ’으로 연결된 경우다. ‘거심손’은 ‘아이들이 서로 손으로 건드리며 장난하는 짓’을 말한다.

합성어 형성은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합성 등이 있다.

㉠ 명사 합성

명사 합성은 명사+명사, 수사+수사, 관형사+명사, 용언+명사, 부사+부사, 명사+용언+명사 등으로 만들어진다.

(9) ㄱ. 고팡문{고팡+문}은 건 남문{남+문}이주.

(광문은 건 나무문이지.)

ㄴ. 물덜은 훈집의 일고요답{일고+요답} 머리씩, 열 머리씩 하고.

(말들은 한집에 일고여덜 마리씩, 열 마리씩 하고.)

ㄷ. 새서방{새+서방}이 올래에 오민 중방이 상 영 영 영 세 번 허민 새서방이 들어와.

(새신랑이 오래오래 오면 중방이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번
하면 새신랑이 들어와.)

ㄹ. 나가 부지런이 산 건 우리 큰딸{크--+ㄴ+딸}은 알주.

(내가 부지런히 산 건 우리 큰딸은 알지.)

ㄱ. 잘못{잘+못}이나 잇엉 죽어시든 덜 을큰협주마씨.

(잘못이나 있어서 죽었으면 덜 서운하지요.)

ㄴ. 아이몰른눈{아이+몰르--+ㄴ+눈} 오민 풍년 든덴 헤서.

(도둑눈 오면 풍년 든다고 했어.)

(9ㄱ)의 ‘고팡문’은 명사 ‘고팡’과 명사 ‘문’, ‘남문’은 명사 ‘남’과 명사 ‘문’, (9ㄴ)의 ‘일고요답’은 수사 ‘일곱’과 수사 ‘요답’, (9ㄷ)의 ‘새서방’은 관형사 ‘새’와 명사 ‘서방’, (9ㄹ)의 ‘큰딸’은 형용사 ‘크다’의 활용형 ‘큰’과 명사 ‘딸’, (9ㄱ)의 ‘잘못’은 부사 ‘잘’과 부사 ‘못’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합성 명사들이다.

(9ㄹ)에서 ‘큰딸’은 딸 중에 제일 먼저 낳은 딸을 말한다. ‘큰딸’은 ‘큰-’을 접두사로 본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따라 파생어로 다루기도 하였으나, “‘큰’이 결합한 미등재 친족어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로 쓰이므로 뒷말에 붙여 쓴다.”는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합성어로 처리하였다.

한편 (9ㄴ)의 ‘아이몰른눈’은 명사 ‘아이’, 용언의 활용형 ‘몰른’, 명사 ‘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굽+돋--+은+접시’(굽

친족어의 차례

‘큰딸’처럼 친족어의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다. 고유어 ‘크다, 작다, 옥다’를 비롯하여 ‘말’(末)이라는 한자어까지 동원되기 때문이다. ‘큰딸, 셋딸, 족은딸, 옥은딸, 말젧딸’ 구성은 각각 ‘크-+-ㄴ+딸’, ‘셋-+딸’, ‘족-+-은+딸’, ‘옥-+-은+딸’, ‘말젧-+딸’ 구성이다. 차례를 나타내는 친족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셋째까지는 단순하고 지역적 차이가 없으나 넷부터 다섯까지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된다. 여섯부터는 조사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셋-’과 ‘말젧-’은 접두사이다.

‘호상딸’은 ‘호상 곧 수의를 마련해 줄 딸’의 뜻으로, 표준어 ‘고명딸, 외동딸’에 대응한다.

명수	순서	지역
1	단딸·웨딸·호상딸	전 지역
2	큰딸-족은딸	전 지역
3	큰딸-셋딸-족은딸	전 지역
4	큰딸-셋딸-큰족은딸-족은딸	구좌읍 동북리
	큰딸-셋딸-옥은딸-족은딸	표선면 표선리
	큰딸-셋딸-족은딸-말젧딸	대정읍 가파리
	큰딸-셋딸-말젧딸-족은딸	구좌읍 세화리, 표선면 가시리 남원면 수망리, 대정읍 구역리 한경면 조수리, 제주시 도련동
5	큰딸-셋딸-큰족은딸-말젧딸-족은딸	구좌읍 동북리
	큰딸-셋딸-말젧딸-큰족은딸-족은딸	구좌읍 세화리
	큰딸-셋딸-말젧딸-큰말젧딸-족은딸	표선면 가시리
	큰딸-셋딸-말젧딸-큰족은딸-족은족은딸	남원면 수망리
	큰딸-셋딸-족은딸-말젧딸-족은말젧딸	서귀포시 하원동

명수	순서	지역
	큰똥-셋똥-죽은똥-큰말젖똥-죽은말젖똥	대정읍 가파리
	큰똥-셋똥-말젖똥-죽은똥-죽은죽은똥	대정읍 구역리
	큰똥-셋똥-큰말젖똥-죽은말젖똥-죽은똥	한경면 조수리
	큰똥-셋똥-말젖똥-죽은말젖똥-죽은똥	제주시 도련동

돋은접시-굽달이), ‘강알+터지-+-ㄴ+바지’(강알터진바지-개구멍바지), ‘꽝+볼르-+-ㄴ+궤기’(꽝볼른궤기-뼈뜯이), ‘동+못-+-이-+-ㄴ+거’(동못인거-꽃맺이), ‘툑+싹-+-은+거’(툑싹은거-턱찌꺼기) 등에서도 이런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㉔ 동사 합성

동사 합성은 명사+동사, 부사+동사, 동사+동사, 형용사+동사 등으로 만들어진다.

(10) ㄱ. 밤질 걸을 때 밧갈쉐랑 앞쌔곡{앞+쌔-+-곡}, 몰랑 앞쌔지{앞+쌔-+-지} 말렌 헤서.

(밤길 걸을 때 ‘밧갈소’는 앞세우고, 말은 앞세우지 말라고 했어.)

ㄴ. 우리 동세덜은 막 잘살아{잘+살-+-아}.

(우리 동서들은 아주 잘살아.)

ㄷ. 가당 보은 개가 우리 알아듣지{알--+아+듣--+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 불어.

(가다 보면 개가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 버려.)

ㄹ. 아무거나도 좋아허주{좋--+아+허--+주}, 아무거나도. 엉엉 못 먹어.

(아무거나도 좋아하지, 아무거나도. 없어서 못 먹어.)

(10ㄱ)의 ‘앞썰곡, 앞썰지’는 명사 ‘앞’과 동사 ‘썰다’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다. 여기서 ‘맛갈썰’는 ‘농가에서 주로 밭을 가는 데 부리는 황소’를 말한다.

(10ㄴ)의 ‘잘살아’는 부사 ‘잘’과 동사 ‘살다’로, (10ㄷ)의 ‘알아듣지’는 동사 ‘알다’와 동사 ‘듣다’로, (10ㄹ)의 ‘좋아허주’는 형용사 ‘좋다’와 동사 ‘허다’로 만들어진 합성 동사다.

㉔ 형용사 합성

형용사 합성은 명사+용언, 부사+용언, 형용사+형용사, 용언+용언 등으로 만들어진단.

(11) ㄱ. 초나룩쌀로 흰 밥은 헤끔만 먹어도 배불러{배+불르--+어} 불어.

(참쌀로 한 밥은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버려.)

ㄴ. 젼통인 막 죽고 못난{못+나--+ㄴ} 거주게.

(‘젠통이’는 아주 작고 못난 거지.)

ㄷ. 먹보린 검붉어{검--+붉--+어}. 밥하른 흐리고.

(‘먹보리’는 검붉어. 밥하면 차지고.)

(11ㄱ)의 ‘베불러’는 명사 ‘베’와 동사 ‘불르다’로, (11ㄴ)의 ‘못난’은 부사 ‘못’과 동사 ‘나다’로, (11ㄷ)의 ‘검붉어’는 형용사 ‘검다’와 형용사 ‘붉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 형용사이다.

(11ㄱ)에서 ‘베불러’로 적은 것은 옛말 ‘비브르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며, (11ㄴ)에서 ‘젠통이’는 ‘마소의 새끼 가운데 제일 작고 못난 것’을 이르는 말이다. (11ㄷ)의 ‘먹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쌀 색깔이 검어서 붉은 이름이다.

㉔ 관형사 합성

관형사 합성은 수 관형사+수 관형사, 수사+동사 등으로 만들어진다.

(12) ㄱ. 감저도 서너{서+너} 가지나 돼어. 붉은감저하고 흰감저.

(고구마도 서너 가지나 되어. 붉은고구마하고 흰고구마.)

ㄴ. 그 양푼이 닳은 거에 상웨떡 쏘무남은{썬+무--+은} 개 낱식게 먹으레 가.

(그 양푼이 닳은 것에 상화떡 스무남은 개 낱서 ‘식게 먹으리’가.)

(12ㄱ)의 ‘서너’는 수 관형사 ‘서’와 수 관형사 ‘너’로, (12ㄴ)의 ‘쭈무남은’은 수사 ‘쭈물’과 동사 ‘남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 관형사이다. ‘쭈무’는 ‘쭈물’이 ‘남은’의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다. (12ㄴ)의 ‘식게 먹다’는 관용 표현으로, ‘기제사에 참여하여 배례하고 음복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 부사 합성

부사 합성은 명사+명사, 동사+동사, 부사+부사 등으로 만들어진다.

(13) ㄱ. 강 보은 마리고 구들이고 갈산절산{갈산+절산} 총말로 불침었나.

(가서 보면 마루고 방이고 가리산지리산 참말로 볼품없다.)

ㄴ. 웨삼촌 오멍가멍{오--+멍+가--+멍} 들린다. 취헤지은 조케
덜신디 돈도 주곡게.

(외삼촌 오면가면 들른다. 취하면 조카들한테 돈도 주고.)

ㄷ. 밧 갈 때 췌가 잘못{잘+못} 가가민 영 동겨. 이레 가가민 영 동
기곡.

(밭 갈 때 소가 잘못 가면 이렇게 당겨. 이리 가면 이렇게 당기고.)

(13ㄱ)의 ‘갈산절산’은 명사 ‘갈산’과 명사 ‘절산’으로, (13ㄴ)의 ‘오멍가멍’은 동사 ‘오다’와 동사 ‘가다’로, (13ㄷ)의 ‘잘못’은 부사 ‘잘’과 부사 ‘못’으로 만들어진 합성 부사다. (13ㄱ)에서 ‘갈산절산’은 ‘물건

이 어지럽게 널어진 모양’을 이르는 말로, 표준어 ‘가리산지리산’에 대응한다. 김민수 편 의 《우리말 어원사전》(1997)에 따르면, ‘가리산지리산’은 “가리산은 강원도 홍천군과 춘성군 사이에 있고, 지리



〈그림 9〉 마리고 구들이고 갈산절산

산은 소백산맥 남쪽에 있다. 그 음이 비슷한 두 산을 결합시킨 말로 가리산인지 지리산인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다.” 하여 산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였다. ‘가리산지리산’은 (고유) 명사와 (고유) 명사의 결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갈산절산’도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본 것이다.

3.3. 품사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말한다. 곧 형태, 기능, 의미가 단어 분류의 기준이다. 형태 기준은 활용하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로 나누고, 기능 기준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그리고 용언으로 나누게 된다.

의미 기준은 분류 전체의 의미를 뜻한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동작을 나타내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 등으로 나눈다.

불변어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를 말한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말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적 조사 ‘이다’가 있다.

체언이란 문장의 몸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수식언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독립언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를 이른다. 관계언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말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 11〉 품사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계언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이다. 특히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연결되면서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 명사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이는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나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눈다. 또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인 관형어가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눈다.

(1) ㄱ. 줄 놓는 사람은 익숙은 사람이라야.

(줄 놓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어야.)

ㄴ. 양에 숯양 그냥 된장에 먹고, 지시 허는 사람은 지시도 허고.

(양하 삶아서 그냥 된장에 먹고, 장아찌 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하고.)

ㄷ. 관덕정 물도 먹어난 놈이 먹나 해서.

(관덕정 물도 먹었던 놈이 먹는다 했어.)

ㄹ. 할로산에 가근에 허민 밤 장 그 들을 탕 느려오주게.

(한라산에 가서 하면 밤 자서 그 산딸을 따서 내려오지.)

ㄱ. 영 웰 출 알아시른 오지나 말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지나 말걸.)

ㄴ. 후르 아정 두 거리 일젠 허믄 바빠.

(하루 가지고 두 채 이려고 하면 바빠.)

(1ㄱ)의 ‘사름’과 (1ㄴ)의 ‘양에’는 사물 이름으로 보통 명사, (1ㄷ)의 ‘관덕청’과 (1ㄹ)의 ‘할로산’은 특정한 사물에 붙은 이름으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관덕청’은 제주시 중심에 위치한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건물이며, ‘할로산’은 제주도 중심에 자리한 1950m의 산으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1ㄹ)의 ‘틀’은 ‘산딸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1ㄱ)의 ‘충’과 (1ㄴ)의 ‘거리’는 그 앞에 놓이는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한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특히 ‘거리’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수 관형사의 도움을 받는다. 몇 개의 단위성 의존 명사를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사진 11> ‘양에’(양하, 왼쪽)와 ‘틀’(산딸나무 열매)(사진 김순자)

〈표 12〉 단위성 의존 명사

제주어	의미	표준어
거리	집을 세는 단위	채
냥	마른 미역을 세는 단위	장
넙	초석을 세는 단위	뉘
뉘	곡식, 가루 따위의 부피를 세는 단위	되
말	곡식, 가루 따위의 부피를 세는 단위	말
말지기	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단위	마지기
바리	말이나 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바리
베	신발, 버선 따위의 두 짝을 한 벌로 하여 세는 단위	켈레
자리	무덤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	장
질	명석을 세는 단위	뉘
참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참

(2) ㄱ. 식 거리 집은 어려워. 잘사는 집이나.

(세 채 집은 어려워. 잘사는 집이나.)

ㄴ. 메역 열 냥이문게 한 뭇 경 골아.

(미역 열 장이면 한 뭇 그렇게 말해.)

ㄷ. 초석 한 넙은 열 뉘.

(초석 한 동은 열 뉘.)

ㄹ. 한 말은게 너 뉘. 한 뉘, 닷 뉘, 한 말 경.

(한 말은 넉 되. 한 되, 두 되, 한 말 그렇게.)

ㅁ. 우리 너 뉘가 한 말. 경헨 소두 한 말 경 곤주.

(우리 넉 되가 한 말. 그래서 소두 한 말 그렇게 말하지.)

ㄴ. 품은 그 밧 말지기로 허여. 멧 말지기 허은 얼마?

(샷은 그 밧 마지기로 해. 멧 마지기 하면 얼마?)

ㄷ. 저 좀호미로 빈 것은 마흔 뭇이 훈 바리고, 낫으론 서른 뭇이 훈 바리라.

(저 낫으로 벤 것은 마흔 뭇이 한 바리고, 벌낫으로는 서른 뭇이 한 바리야.)

ㄹ. 신 두 베로 골메들이멍 신으은 오래 신어.

(신 두 컬레로 갈마들이며 신으면 오래 신어.)

ㅈ. 오라방 일본 가 부난 친정 식게 다후곡, 산담 후고, 비석 다섯 잔 리 후엇젠 허여.

(오라버니 일본 가 버리니까 친정 제사 다하고, ‘산담’ 하고, 비석 다섯 장 하였다고 해.)

ㅊ. 훈 저슬이은 멍석 훈 짚은 줄아.

(한 겨울이면 멍석 한 뉘은 걸어.)

ㅋ. 우리 집까지 훈 참이난게 거 알아본 거 아니?

(우리 집까지 한 참이니 거 알아본 거 아니?)

(2)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쓰인 용례들로, 밑줄 친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수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다.

단위성 의존 명사 가운데 (2ㄱ)의 ‘말’, (2ㄴ)의 ‘말지기’, (2ㄷ)의 ‘바리’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 말이 녀 되라는 점이 육지의 다섯 되와 다르다. 이때의 말은 ‘소

두’(小斗)를 말한다. ‘말가
 옷’하면 제주에서는 되로
 여섯 개가 되는데, 육지에
 서는 일곱 되 반이 된다.
 열 되들이 되도 ‘말’이라고
 한다. 이때의 ‘말’은 ‘대
 두’(大斗)라고 한다. 술의
 크키는 ‘두말치-말치-다
 도테기-서도테기-옹조리’



〈그림 10〉 낫으로 빈 건 서른 몫이 훈 바리

순이 되는데, ‘두말치’는 두 말들이 술을, ‘말치’는 한 말들이 술을 말
 한다. ‘다도테기’는 ‘식되’로 다섯 개, 즉 두 되들이 술이고, ‘서도테기’
 는 ‘식되’로 세 개 들이 술을 말한다. ‘식되’로 두 개 반이면 한 되 분
 량이다. 그래서 (2ㄷ)의 ‘닷 뉘’를 표준어로 ‘두 되’로 대역한 것이다.

‘말지기’는 보리씨 한 말을 뿌릴 수 있을 만한 밭의 넓이다. 토질에
 따라 보리씨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지기’는 지역에 따라 100평에
 서 400평까지 차이를 보인다. 대개 150평을 한 ‘말지기’로 삼으나
 성산을 삼달리와 온평리, 표선면 성읍리, 안덕면 동광리 등에서는
 100평,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400평을 한 ‘말지기’라 한다.

또 ‘바리’는 소길마나 말길마에 잔뜩 싣는 짐의 양이다. 짐의 종류
 와 지역에 따라 짐의 분량이 다르다. 보리는 12몫(표선읍 가시리)에
 서 30몫(구좌읍 하도리), 이삭이 붙어 있는 조는 6몫(애월읍 고내
 리)에서 12몫(대정읍 인성리), 쫄은 30몫(구좌읍 하도리)에서 60몫

〈표 13〉 지역별 ‘말지기’에 따른 평수

평수	마을
100평	성산 삼달리·온평리, 표선 성읍리, 중문 색달리, 안덕 동광리
120평	안덕 대평리·덕수리, 한림 옹포리·대림리, 애월 봉성리·고내리
130평	안덕 사계리, 대정 인성리
150평	조천 신촌리·와흘리·선흘리, 남원 태흥리·남원리·수망리·위미리, 표선 가시리, 서귀 토평동·보목동, 중문 하원동, 한경 신창리·조수리, 제주 외도동·노형동·도련동
200평	표선 세화리
300평	구좌 한동리·하도리, 성산 고성리, 우도, 애월 구엄리
400평	조천 함덕리

(애월읍 고내리), 집줄의 재료인 ‘각단’은 12뭇(대정읍 인성리)에서 40뭇(한경면 조수리), 띠는 6뭇(조천읍 와흘리)에서 40뭇(한경면 조수리)으로 차이가 있다. (2스)처럼 꼴은 베는 도구에 따라 뭇의 크기가 다르다. 앞서서 ‘죤호미’로 베 꼴은 뭇의 크기가 작고, 자루가 긴 ‘낫’(별낫)으로 베 꼴은 뭇이 크다. 대체로 제주도 동쪽은 ‘낫’으로 베고, 서쪽은 ‘죤호미’로 베다. 동쪽 지역인 구좌읍 하도리는 ‘낫’으로 베기 때문에 한 바리가 30뭇이고, 서쪽 지역인 애월읍 고내리는 ‘죤호미’로 베니 뭇이 작아 60뭇을 한 바리도 친다. 이삭이 붙은 조를 짚을 때는 이삭이 위로 가게 해야만 소나 말이 이삭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는 이삭을 위로 가게 해서 짐을 짚는다.

(2스)의 ‘산담’은 ‘무덤 주위를 타원형이나 장방형으로 에워싸 두른 담’을 말한다. ‘웨담’(홀담)인 경우는 타원형으로 하고, ‘접담’(겹

담)인 경우는 장방형으로 두른다. ‘산담’은 육지부의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둘러싼 토성인 사성(莎城)이나 무덤 뒤에 둘러쌓은 나지막한 담인 곡장(曲牆)과는 다르다. 이응호(李膺鎬)의 《탁라국서》(1931)에 따르면, 들불이 무덤으로 번지는 것, 마소가 무덤을 파헤치는 것, 경작지가 차츰 무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산담을 둘렀다고 한다.

(2ㄴ)의 ‘흔 참’은 5리로, 약 2km 정도의 거리다.

명사의 복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덜’이라는 복수화 접미사를 쓴다.

(3) ㄱ. 베로도 멘들민게 남조덜 중의적삼도 멘들곡 여자덜토 치메도 헤영 입곡 옛날은.

(베로도 만들면 남자들 중의적삼도 만들고 여자들도 치마도 해서 입고 옛날은.)

ㄴ. 자리젓도 옛날 어른덜 담은 자리젓이 맛있어.

(자리젓도 옛날 어른들 담근 자리젓이 맛있어.)



〈사진 12〉 웨담(왼쪽)과 접담(사진 강영봉)

(3)은 복수화 접미사 ‘-덜’이 쓰인 용례다. (3ㄱ) ‘여자덜토’에서 보조사 ‘도’가 ‘토’로 나타나는 것은 복수화 접미사 ‘-덜’의 옛말은 ‘-똥’로,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ㅎ’이 ‘도’의 ‘ㄷ’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변한 것이다.

나. 대명사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거나 가리키는 말로, 대명사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 따위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가 있다.

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말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가 있다.

〈표 14〉 인칭 대명사

1인칭	나, 우리
2인칭	너, 느, 니
	이녁, 지녁
3인칭	일미, 글미, 절미
	(야의, 가의, 자의)

〈표 14〉는 인칭 대명사 목록이다. 3인칭 ‘일미, 글미, 절미’는 관형사 ‘이, 그, 저’에서 온 말로, 각각 ‘이이, 그이, 저이’에 대응한다. ‘야의, 가의, 자의’를 소괄호로 묶은 것은 ‘이 아이, 그 아이, 저 아이’의 줄임말로 대명사 기능을 담당할 뿐 품사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의 (4), (5), (6)은 각각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른 용례다.

(4) ㄱ.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ㄴ. 우리 어린 땐 비료 훈 포만 구해지민 어디 강은에 금이나 구한 거만이.

(우리 어릴 땐 비료 한 포만 구하면 어디 가서 금이나 구한 것만큼.)

(5) ㄱ. 동세덜토, 는 물질 잘해 부난 호강 받았저. 경 골야.

(동서들도, 넌 물질 잘해 버리니 호강 받았어. 그렇게 말해.)

ㄴ. 넌은 네가 번이여 허곡, 또 모린 네가 번이여 허멍 돌아가.

(넌은 너네가 번이야 하고, 또 모레는 너네가 번이야 하며 돌아가.)

ㄷ. 이런 디 이녁 혼차 싯젠 허난 무습지 아녀냐?

(이런 데 이녁 혼자 있으려고 하니 무섭지 않니?)

ㄹ. 이 일은 나가 할 거난 그걸랑 지녁이 알앙 헤 불어.

(이 일은 내가 할 거니 그것은 지녁이 알아서 해 버려.)

(6) ㄱ. 경 골악골악허던 사람이 일미라서?

(그렇게 말하고 말하던 사람이 이이었어?)

ㄴ. 어땡ㅎ느니게, 글미도 오랜 ㅎ라게.

(어떡하니, 그이도 오라고 해라.)

ㄷ. 절미신되라도 한번 부탁하여 보라.

(저이한테라도 한번 부탁해 보라.)

ㄹ. 야의가 경 골아냐? 들어.

(애가 그렇게 말하더냐? 물어.)

ㅁ. 또 가의가 가르친 다시 또 한 사람이 대상 받았어.

(또 개가 가르쳐서 다시 또 한 사람이 대상 받았어.)

ㅂ. 애그 자의, 기냥 모든 거 허젠 허난 얼먹었저게.

(애그 재, 그냥 모든 거 하려고 하니 언걸먹었지.)

(4)는 1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다. (4ㄴ)의 ‘우리’는 복수를 나타낸다.

(5)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다. (5ㄱ)은 ‘느’가, (5ㄴ) ‘느네’는 ‘그 사람이 속한 가족 따위의 무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네’가 연결되어 복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다. ‘느’ 대신에 ‘니’가 쓰이기도 한다.

(6ㄱ)의 ‘일미’, (6ㄴ)의 ‘글미’, (6ㄷ)의 ‘절미’는 각각 ‘이+ㄹ+미’, ‘그+ㄹ+미’, ‘저+ㄹ+미’ 구성이다. 이때 ‘미’는 ‘새미’(농악에서 중으로 꾸미고 춤을 추는 사람), ‘그미’(주로 소설에서 ‘그녀’를 멋스럽게 이르는 말), ‘소미’(쉬운 곳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기능을 지닌 심방) 등의 ‘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6ㄹ)의 ‘야의’, (6ㅁ)의 ‘가의’, (6ㅂ)의 ‘자의’를 ‘야의, 가의, 자의’

로 적은 것은 ‘아이’의 옛말이 ‘아히’이기 때문이다. ‘야의, 가의, 자의’를 발음 나는 대로 ‘아이, 가이, 자이’로 적어도 된다.

또 ‘일미, 야의’는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절미, 자의’는 말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글미, 가의’는 그리 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5ㄷ)의 ‘이녁’과 (5ㄹ)의 ‘지녁’은 ‘자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7) ㄱ. 오죽 숫하르방가게? 이녁 할망도 몰란.

(오죽 ‘숫하르방’인가? 자기 부인도 몰라서.)

ㄴ. 그딴 그냥 알안덜 살아가난 지녁 살 디 살렌 내 불주. 오라 가라 안허주게.

(거기 그냥 알아서들 살아가니까 자기 살 데 살라고 내 버리지. 오라 가라 않지.)

(7)은 ‘이녁’, ‘지녁’이 ‘자기’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다. 결국 ‘이녁’과 ‘지녁’은 문장에 따라서 ‘너’ 또는 ‘자기’ 의미로도 쓰인다.

(7ㄱ)에서 ‘숫하르방’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수룩한 할아버지’를 말하며, ‘할망’은 ‘할머니’의 뜻이나 여기에서는 ‘부인’의 의미로 쓰였다.

(8) ㄱ. 결혼해서 학교에 다녀도 일체 아무도 몰라서.

(결혼해서 학교에 다녀도 일절 아무도 몰랐어.)

ㄴ. 어떻 웁데강? 누게우광? 영은 해도 문 안 여는 버릇이 사삼사건 후에 나서.

(어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는 해도 문 안 여는 버릇이 사삼사건 후에 났어.)

ㄷ. 그 사람은 지 말만 지 말이엔 곧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저 말만 저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8ㄱ)의 ‘아무’는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사람’, (8ㄴ)의 ‘누게’는 ‘잘 모르는 사람’, (8ㄷ)의 ‘지’는 ‘자기 자신’의 뜻으로 쓰였다. (8ㄴ)의 ‘사삼사건’은 ‘제주 4·3 사건’을 말한다.

②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한다.

(9) ㄱ. 이거는 통치메지.

(이거는 통치마지.)

ㄴ. 부섭, 그거 우리 동넨 없어.

(‘부섭’, 그거 우리 동넨 없어.)

ㄷ. 이 감태가 저거 옥도 원료로 썼주게.

(이 감태가 저거 옥도 원료로 썼지.)

(10) ㄱ. 하르비군벗은 까망허곡 이딴 털이 돌아아.

(털군부는 까망고 여기 털이 돌아.)

ㄴ. 광목이영 미녕이영 그딴 또 후곰 거세기 허민 멩지도 잇곡.

(광목이랑 무녕이랑 거기 또 조금 거시기 하면 멩지도 있고.)

ㄷ. 저딴 올래 아이덜 강 보민 마농텡가리 하나씩 들렁 이서. 그것
이 간식이라이.

(저기 오래 아이들 가서 보면 마늘통 하나씩 들고 있어. 그것이
간식이야.)

(9)는 사물, (10)은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들이다.

(9ㄱ)의 ‘이거’는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물이어서 ‘근칭’, (9
ㄴ)의 ‘그거’는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 중간 정도에 있는 사물
이어서 ‘중칭’, (9ㄷ)의 ‘저거’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이어서 ‘원칭’이라 한다. (9ㄴ)의 ‘부섭’은 ‘마루방이나 부
엍에 박아서 불을 피우게 된 돌화로’를 말한다. (9ㄷ)에서 ‘옥도’는
원소의 하나로, 바닷말에 많이
들어 있다. 의약품이나 화학 공
업에 널리 쓰이는데, 옥도정기라
는 의약품을 만들기도 한다.



(10ㄱ)의 ‘이딴’, (10ㄴ)의 ‘그
딴’, (10ㄷ)의 ‘저딴’은 각각 ‘이+
딴, 그+딴, 저+딴’ 구성으로, ‘딴’

〈사진 13〉 부섭(사진 김순자)

는 옛말 ‘디’에서 온 것이다. ‘이디’는 근칭, ‘그디’는 중칭, ‘저디’는 원칭이다.

(11) ㄱ. 꿩이 놀민 어디 강 앓는 거 보곡.

(꿩이 날면 어디 가서 앓는 거 보고.)

ㄴ. 구식으로 결혼헐. 사진 엇이난 찍어신디 무신거 헤신디 건 몰르고.

(구식으로 결혼했어. 사진 없으니까 찍었는지 무엇 했는지 건 모르고.)

ㄷ. 걸름힐 게 엇주게. 비료도 엇고 아무거도 엇이니까.

(거름할 게 없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1ㄱ)의 ‘어디’와 (11ㄴ)의 ‘무신거’는 알지 못하는 장소나 사물을, (11ㄷ) ‘아무거’는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물을 나타낸다.

다. 수사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다.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① 양수사

양수사는 사물의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를 말한다.

(12) ㄱ. 자리젓 흐나민 밥 한 낱 먹었주게.

(자리젓 하나면 밥 한 낱 먹었지.)

ㄴ. 한 물에 서너이 타았으민 못써. 물이 멜락 드러앗아 불어.

(한 말에 서넛이 타고 앉으면 못써. 말이 털씩 주저앉아 버려.)

ㄷ. 고데 올리곡 허는 날은 여남은은 들어서 허여. 물 질저, 흑 꺾
저, 고데 올리저, 집 일저, 뭐 하든 더 좋주.

(알매 올리고 하는 날은 여남은은 들어야 해. 물 길랴, 흑 이기
랴, 알매 올리랴, 집 이랴, 뭐 많으면 더 좋지.)

ㄹ. 창신 헤영 신지는 사름이 멧이나 허여?

(가죽신 해서 신기는 사름이 멧이나 해?)

(12ㄱ)의 ‘흐나’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정수라 한다. (12
ㄴ)의 ‘서너’는 ‘셋 또는 넷’, (12ㄷ)의 ‘여남은’은 ‘열이 조금 넘는 수’,
(12ㄹ)의 ‘멧’은 ‘막연한 수’를 말하는 것으로 수가 정하여 있지 않
고 해서 부정수라 한다.

② 서수사

서수사는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말한다. 대개는 양수사 다음에 접미사 ‘-차’나 ‘-째’를 붙여서 만든다.

(13) ㄱ. 집 짓젠 허먼 우선은 젤 첫째가 곱은자고, 그다음은 먹통.

(집 지으려고 하면 우선은 젤 첫째가 곱자고, 그다음은 먹통.)

ㄴ. 우이로 성님이 다섯 뒤편, 나가 요섯차우다게.

(위로 형님이 다섯 되고, 내가 여섯째입니다.)

(13ㄱ)의 ‘첫째’와 (13ㄴ)의 ‘요섯차’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수사는 아니다.

(14) ㄱ. 족제비 돌아댁기민 호르 이틀 안네 비 오켜, 경.

(족제비 돌아다니면 하루 이틀 안에 비 오겠어, 그렇게.)

ㄴ. 삼월 보름 물찌엔 집에 앓지 아녀.

(삼월 보름 무수기엔 집에 앓지 않아.)

ㄷ. 쉼 다간에 못 그리쳐. 사름 아니믄 나릅 나사.

(소는 이듬에 못 가르쳐. 사름 아니면 나릅 나야.)

ㄹ. 우린 보름 요섯물, 그믐 요섯물 험니께.

(우린 보름 여섯무날, 그믐 여섯무날 합니다.)

(14ㄱ)의 ‘흐르, 이틀’은 날수, (14ㄴ)의 ‘삼월’은 달수, (14ㄷ)의 ‘다간, 사름, 나름’은 짐승의 나이, (14ㄹ)의 ‘요숫물’은 무수기를 나타낸다. (14ㄹ)은 제주도 서쪽 마을에서 하는 말이다. 동쪽 마을에서는 “보름 일곱 그믐(그믐) 일곱”이라 하여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14)의 용례들은 모두 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품사로는 명사다.

짐승의 나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소	금승	다간	사름	나름	다습	요습	일곱	요답	아홉	열
말	금승(마)	이수(매)	삼수(매)	소수(매)	오수(매)	육수(매)	칠수(매)	팔수(매)	구수(매)	십수(매)
표준어	하룻 한습	두습 이덥	사름	나름	다습	여습	이름	여덥	아홉 구름	열름 담불

제주도 동서부 지역에 따른 물때

동부 지역		서부 지역		표준어
훈물	9일, 24일	훈물	10일, 25일	한무날, 한물
두물	10일, 25일	두물	11일, 26일	두무날, 두물
서물	11일, 26일	서물	12일, 27일	서무날, 서물
너물	12일, 27일	너물	13일, 28일	너무날, 너물
다섯물	13일, 28일	다섯물	14일, 29일	다섯무날, 다섯물
요숫물	14일, 29일	요숫물	15일, 30일	여섯무날, 여섯물
일곱물	15일, 30일	일곱물	16일, 1일	일곱무날, 일곱물
요덥물	16일, 1일	요덥물	17일, 2일	여덟무날, 여덟물
아홉물	17일, 2일	아홉물	18일, 3일	아홉무날, 아홉물
열물	18일, 3일	열물	19일, 4일	열무날, 열물
열hun물	19일, 4일	열hun물	20일, 5일	열한무날, 열한물

동부 지역		서부 지역		표준어
열두물	20일, 5일	열두물	21일, 6일	열두무날, 열두물
막물	21일, 6일	아끈쨌기	22일, 7일	아츠조금
아끈쨌기	22일, 7일	한쨌기	23일, 8일	한조금
한쨌기	23일, 8일	부날, 게무심	24일, 9일	무쉬

※동부 지역 ‘막물’의 대응 표준어는 ‘열두무날’ 또는 ‘열두물’이 된다. 표준어 ‘열두무날, 열두물’은 음력 5일, 6일과 20일, 21일의 물때이기 때문이다. ‘아끈쨌기’와 ‘한쨌기’ 대응 표준어는 각각 ‘아츠조금’과 ‘한조금’이다.

단위 명사 앞에 그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수 관형사로 다룬다.

(15) ㄱ. 너 뉘가 혼 말.

(넉 되가 한 말.)

ㄴ. 밧이 혼 이만 평 농사지멍 헤나난 뉘 누게네 멧 천 평 잇저 해도 후나 부러운 거 엇어.

(밭이 한 이만 평 농사지으면서 했었으니까 뉘 누구네 몇 천 평 있다 해도 하나 부러운 거 없어.)

(15ㄱ)의 ‘너’와 ‘혼’은 각각 ‘사(四)’와 ‘일(一)’, (15ㄴ)의 ‘이만’은 ‘이만(二萬)’, ‘멧’은 ‘막연한 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단위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 관형사로 쓰인 경우다.

라. 동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동사로 나눈다.

(16) ㄱ. 꿩 사냥허젠 허민 훈 댓 사름 가야주.

(꿩 사냥하려고 하면 한 댓 사람 가야지.)

ㄴ. 요센 오는 사름 가는 사름 다 들어왕 놀당 가.

(요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들어와서 놀다가 가.)

ㄷ. 감저떡은 허영 그자 먹젠.

(고구마떡은 해서 그저 먹으려고.)

ㄹ. 보리도 해당 눌고 뭐든지 해당 눌었으니까.

(보리도 해다가 가리고 뭐든지 해다가 가렸으니까.)

(16ㄱ)의 ‘가다’와 (16ㄴ)의 ‘오다’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자동사이고, (16ㄷ)의 ‘먹다’와 (16ㄹ)의 ‘눌다’는 각각 ‘감저떡’, ‘보리’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동사 가운데는 본동사와 함께 쓰여서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는 동사도 있는데, 이를 보조 동사라 한다.

(17) ㄱ. 우리 옛말로 글아 봣자 누게 알아들어? 몰리지.

(우리 옛말로 말해 봐도 누가 알아들어? 모르지.)

ㄴ. 쉼 7리치는 것도 초담 새송에기에 질메 지우민 막 들력키어.

경허당 그것도 알아 먹엉 초초초초 해 가민 안 허여.

(소 가르치는 것도 처음 새송아지에 길마 지우면 막 날뛰어. 그

려다가 그것도 알아 먹어서 차차차차 해 가면 안 해.)

(17ㄱ)의 ‘굴아 봤자’는 본동사 ‘곤다’와 보조 동사 ‘보다’로, (17ㄴ)의 ‘알아 먹엉’ 또한 본동사 ‘알다’와 보조 동사 ‘먹다’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보조 동사 ‘보다’, ‘먹다’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의미 [시(視)], [식(食)]과는 거리가 있고, ‘-어/-아’ 등 연결어미로 이어진다. 국어사전에는 보조 동사 ‘보다’는 “-어 보다” 구성으로,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 동사 ‘먹다’는 “-어 먹다”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로 설명되어 있다.

‘보다’, ‘먹다’ 외에도 주요 보조 동사는 <표 15>와 같다.

<표 15> 보조 동사 일람

보조 동사	어미	문법적 의미	대응 표준어
가다	-어	진행	가다
뉘다	-게	이루어짐	되다
두다	-어	결과 유지	두다
말다	-지 -고·-고야	금지 의지	말다
불다·비다	-어	완료	버리다
아니하다·안하다·아녀다	-지	부정	아니하다
오다	-어	진행, 가까워짐	오다

보조 동사	어미	문법적 의미	대응 표준어
주다	-어	행위가 미침	주다
지다	-어	이루어지게 됨	지다

동사는 품사 분류 기준인 형태로 볼 때 가변어에 속한다.

(18) ㄱ. 그건 느쟁이엔 굳는 거.

(그건 ‘느쟁이’라고 말하는 거.)

ㄴ. 대개 우리가 굳을 때는 이걸 족뎃이엔 허주게.

(대개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걸 ‘족뎃’이라고 하지.)

(18ㄱ)의 ‘굳는’과 (18ㄴ)의 ‘굳을’의 기본형은 ‘굳다’이다. 이 ‘굳다’가 활용할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18ㄱ)처럼 어간이 ‘굳-’이 되는데 반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끝 소리 ‘ㄷ’이 ‘ㄹ’로 변하여 (18ㄴ)처럼 활용한다. 이를 ‘ㄷ’ 불규칙 동사라 한다. ‘돋다(달다), 듣다’ 등이 ‘ㄷ’ 불규칙 동사들이다. (18ㄱ)에서 ‘느쟁이’를 ‘나깨’로 대역하지 않은 것은 인용이기 때문에 ‘느쟁이’로 그대로 옮긴 것이고, (18ㄴ)의 ‘족뎃’은 ‘족제비를 잡기 위한 뎃’이다.

(19) ㄱ. 안택이 집안에서 허는 거. 그때 굳지{굳-+-지} 안헉디가게.

(안택이 집안에서 하는 거.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까.)

ㄴ. 내미린 낭에 눈 걸린덴 굳지{굳-+-지} 아녀게? 그게 하시보는

거라.

(나무란 나무에 눈 걸린다고 말하지 않아? 그게 하시하는 거야.)

(19)의 ‘곧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19ㄱ)처럼 ‘곧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곧으난, 곧아라’처럼 ‘곧-’로 나타난다. 그런데 (19ㄴ)의 ‘곧지’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었지만 어간 끝소리는 ‘ㄷ’이 아니라 ‘ㄹ’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곧다’와 ‘곧다’는 다같이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기본형 정하기

용언의 기본형은 보조적 연결어미 ‘-지, -곡(고)’을 붙여서 확인할 수 있다. 어미 ‘-지, -곡(고)’은 어간 끝이 모음이나 자음이나에 관계없이 어간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 어미를 연결하여 말이 되면 어미 앞 형태를 어간으로 하고 종결 어미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

¶하영 꺼끄지 안혀여. 제스에 쓸 거나 꺼경.

(많이 꺾지 않아. 제사에 쓸 거나 꺾어서.)

¶호미로 보리 비곡, 조 비곡, 콩 꺼끄곡.

⇒ 꺼끄--다

(낮으로 보리 베고, 조 베고, 콩 꺾고.)

¶무시거 깔지 아녀고 더프지 아녀도 빨리 식지도 아녀.

(무엇 깔지 않고 덮지 않아도 빨리 식지도 않아.)

¶진을켜허고 그 우론 새로 더프고.

⇒ 더프--다

(빨갳하고 그 위론 띠로 덮고.)

¶뭘 더끄지 아녀민 이제 갈라져 부는 수가 있어.

(뭘 덮지 않으면 이제 갈라져 버리는 수가 있어.).

¶노람지 돌렀다근에 우의 주쟁기 향여근에 톡 더끄꼭. ⇒ 더끄--+다

(이영 돌렀다가 위에 주저리 해서 톡 덮고.)

(20) ㄱ. 메밀묵 고치에 께어 가지고 촘지를 볼르멍 궂{궂--+어}.

(메밀묵 고치에 께어 가지고 참기름 바르면서 구워.)

ㄴ. 모밀 ㄱ을 솟디 놔서 젓으멍 풀닥풀닥허게만 젓엉 또 뒷에 궂

{궂--+엉} 놔두민 땀땀허민 그건 쏜 묵.

(메밀가루 술에 놔서 저으면서 풀닥풀닥허게만 저어서 또 뒷에

퍼서 놔두면 땀땀하면 그건 쏜 묵.)

ㄷ. 도빈 일 년에 허여{허--+어}.

(도배는 일 년에 한번 해.)

(20ㄱ)의 ‘궂’는 ‘궂--+어’로, 어간 끝소리 ‘ㅂ’이 ‘우’로 변하여 ‘구우--+어>구워>궂’가 되었고, (20ㄴ)의 ‘궂’은 ‘궂--+엉’으로 어간 끝소리 ‘ㄴ’이 탈락한 경우이고, (20ㄷ)의 ‘허여’는 ‘허--+어’로, 어미 ‘-어’가 ‘-여’로 바뀌었다. 이들 각각을 ‘ㅂ’ 불규칙 동사, ‘ㄴ’ 불규칙 동사, ‘여’ 불규칙 동사라 한다. ‘ㅂ’ 불규칙 동사로는 ‘눅다, 뚱다, 줍다 (깎다)’ 등이 있고, ‘ㄴ’ 불규칙 동사는 ‘푸다’가 유일하다. ‘여’ 불규칙



〈그림 11〉 돌화리에서 적갈 굽국

동사는 ‘ㅎ다’ 동사를 비롯하여 ‘-ㅎ-’ 접미사가 붙어서 된 동사는 모두 불규칙 동사에 속한다. (20ㄴ)에서 ‘폴닥폴닥허다’는 ‘큰 거품을 내며 끓다.’는 뜻은 지닌 어휘다.

(21) ㄱ. 불칫막이라도 짚엿{짚-+-엿} 살젠 해도 힘들어서.

(젓간이라도 지어서 살려고 해도 힘들었어.)

ㄴ. 집가지 잇엿은{잇-+-엿은} 못써.

(처마 이어서는 못써.)

(21ㄱ)과 (21ㄴ)에서 표준어 대역과 비교해 보면 어간 끝소리 ‘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드러난다. 곧 표준어에서는 어간 끝소리 ‘ㅅ’이 탈락하는데 반해 제주어에서는 어간 끝소리 ‘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어에는 ‘ㅅ’ 불규칙 용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긋다, 낫다, 젓다’ 등도 활용할 때 어간 끝소리 ‘ㅅ’이 탈락하지 않는다.

마. 형용사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다. 형용사는 성

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가 있다. 성상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지시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낸다.

(22) ㄱ. 물룻에 넓패 낚 삶아 가민 이게 막 돌아.

(무룻에 넓패 낚서 삶아 가면 이게 아주 달아.)

ㄴ. 행상 멜 사람은 지레가 어느 정도 고타사 좋아.

(상여 멜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 같아야 좋아.)

ㄷ. 수정이 하덴 다 좋은 거 아니라고.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

ㄹ. 모시웃은 잘사는 사름덜 헛주, 못사는 사름덜은 그거 입영 앓
양 혈 시간이 잇엇수가게?

(모시웃은 잘사는 사람들 헛지, 못사는 사람들은 그거 입고 앓
아서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22ㄱ)의 ‘돌다’는 미각, (22ㄴ)의 ‘고타다’는 비교, (22ㄷ)의 ‘하다’
는 수량, (22ㄹ)의 ‘잇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동사에 보조 동사가 있듯, 형용사에도 보조 형용사가 있다.

(23) ㄱ. 배 우의 올랑 마음에 든 거 요거 사고 시프다 허민 다 메다 줘,
집까장.

(배 위에 올라서 마음에 든 거 요거 사고 싶다 하면 다 메다 줘,

집까지.)

ㄴ. 감춘덴 허는 건 영 꼬부려 낵 영 영 풀어지지 아녀게 허는 거고.

(감친다고 하는 건 이렇게 꼬부려 낵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

(23ㄱ)의 ‘-고 시프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욕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고, (23ㄴ)의 ‘-지 아녀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다. 보조 형용사는 보조 동사에 비해 그 수가 적다. (23ㄱ)은 욕지에서 질그릇을 싣고 온 돛단배에 올라서 항아리를 고르면 집까지 운반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구술이다.

(24) ㄱ. 걸랑 기영호서 허는 말 막 좋은 말이라. 싹진 아널 거난게.

(거는 그러하십시오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야. 싸우진 않을 거니까.)

ㄴ. 해걸음허는 거 보난 어명호 일이 이서도 이신 모양이여게.

(‘해걸음하는’ 거 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는 모양이야.)

(24ㄱ)의 ‘기영호다’, (24ㄴ)의 ‘어명호다’ 등은 지시 형용사다. (24ㄴ)에서 ‘해걸음’은 ‘활개 치며 바삐 걷는 걸음’을 말한다.

형용사도 활용할 때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형용사가 있다. 곧 ‘ㅂ’ 불규칙 형용사와 ‘여’ 불규칙 형용사가 그것이다.

(25) ㄱ. 고운{곱-+-은} 사람은 맥 써도 곱덴 해서.

(고운 사람은 맥 써도 곱다고 했어.)

ㄴ. 막 폐라운{폐랍-+-은} 사람쯤은 예상 고쳐서 오라고 막 울르주.

(아주 폐로운 사람쯤은 예상 고쳐서 오라고 막 외치지.)

ㄷ. 감옷도 오래 입어가든 거멍허여{거멍허-+-어}.

(‘감옷’도 오래 입어가면 거매.)

ㄹ. 푸린콩은 훅고 퍼렁허주, 퍼렁허여{퍼렁허-+-어}.

(푸르대콩은 굵고 퍼렁지, 퍼레.)

(25ㄱ)의 ‘고운’은 ‘곱다’의 어간 ‘곱-’의 끝소리 ‘ㅂ’이 ‘ㄴ’로 바뀐 것이며, (25ㄴ)의 ‘폐라운’ 또한 ‘폐랍-’의 어간 끝소리 ‘ㅂ’이 ‘ㄴ’로 바뀐 것이어서 이를 ‘ㅂ’ 불규칙 형용사라 한다. (25ㄷ)과 (25ㄹ)의 ‘거멍허-+-여’, ‘퍼렁허-+-여’는 어미 ‘-어’가 ‘-여’로 바뀐 것이니 ‘여’ 불규칙 형용사다. (25ㄷ)에서 ‘감옷’은 ‘감줍을 먹인 옷’으로, 달리 ‘갈옷’이라 한다.

동사와 형용사를 아울러 용언이라 한다.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어 변화하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를 활용이라 한다. 어간은 활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중심 요소를 말한다. 반면 어미는 어간에 연결되어 활용하며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 어미에는 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에 앞서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전성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말한다. 선어말 어미는 말 뜻 그대로 어말 어미 앞에 놓이는 어미를 말한다.

(26) ㄱ. 톨 무청 먹게, 톨 허영 먹게, 영 허주.

(톳 무쳐서 먹자, 톳 해서 먹자, 이렇게 하지.)

ㄴ. 톱그르엔도 허곡 톱밥이엔도 허곡.

(‘톱그르’라고도 하고 ‘톱밥’이라고도 하고.)

ㄷ. 모살에서 잡은 거난 모살 있지.

(모래에서 잡은 거니까 모래 있지.)

ㄹ. 뭐 나는 펑 심어오크라, 야의 남도 낫져.

(뭐 나는 펑 잡아오겠다고, 애 나기도 낫다.)

ㅁ. 돛게기도양 기름 엇인 건 우리 마룻걸레 씹는 맛이라. 알암 수광?

(돼지고기도요 기름 없는 건 우리 마룻걸레 씹는 맛이야. 알고 있습니까?)

(26ㄱ)의 밑줄 친 ‘-게, -주’는 종결 어미로 쓰인 경우이고, (26ㄴ)의 ‘-곡’과 (26ㄷ)의 ‘-난’은 연결 어미이다. (26ㄴ)에서 ‘톱그르’, ‘톱밥’은 인용이기 때문에 ‘톱밥’이라 대역하지 않고 ‘톱그르’, ‘톱밥’이라 하였다. (26ㄷ)의 ‘남도’는 ‘나다’ 동사에 보조사 ‘도’를 연결시키려

고 하니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품사를 잠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게 하고 있다. 품사를 바뀌게 하고 있으니 이를 전성 어미라 한다. (26ㅁ)의 ‘알암수광’은 ‘알-+-암ㅅ-+-우-+-광’ 구성이다. 곧 ‘어간+선어말 어미+선어말 어미+어말 어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암ㅅ-’은 진행상의 선어말 어미, ‘-우-’는 상대 존대의 선어말 어미이다.

종결 어미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평서형 어미(-다, -저 등),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형 어미(-네, -구나 등),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형 어미(-가, -고 등), 명령이나 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어미(-라, -어 등),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미(-게, -주 등) 등이 있다.

연결 어미는 어간에 연결되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를 말한다. 연결 관계에 따라서 일대일로 대등하게 연결시켜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곡, -명 등)와 주종 관계로 이어지는 종속적 연결 어미(-난, -언 등) 그리고 본용언에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아, -지 등)가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ㅁ, -기, -지)나 관형사(-ㄴ, -ㄷ)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말한다.

선어말 어미는 형태 앞뒤로 붙임표(-)가 붙는데, 그 앞이나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어말 어미는 동작의 양상, 회상, 상대 존대 등의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를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어미 일람

어미	선어말 어미	-어-, -어시/아시-, -엄시/암시-, -이우-, -우-, -수-, -크- ……		
	어말 어미	종결 어미	평서형 어미: -다, -저, -주, -게 ……	
				감탄형 어미: -네, -구나, -고나
			의문형 어미: -가, -고, -ㄴ다, -냐, -순, -강, -꽈 ……	
			명령형 어미: -(으)라, -어, -심, -(으)ㅂ서 ……	
			청유형 어미: -게, -자, -주, -(으)ㅂ주 ……	
		비종결 어미	연결 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 -곡, -명 ……
				종속적 연결 어미: -난, -언, -영 ……
				보조적 연결 어미: -아, -지, -곡, -게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지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바. 관형사

관형사란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품사를 말한다. 관형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 특정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로 구분한다.

(27) ㄱ. 이젠 흰 옷 주워 입는 사람 없어.

(이젠 흰 옷 기워서 입는 사람 없어.)

ㄴ. 수삼사태 때 애무현 사람 하영 죽어서.

(사삼사태 때 애먼 사람 많이 죽었어.)

ㄷ. 그 사람신의 한번 들어보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

ㄹ. 이런 바진 대소간 누비지 아녀곡 저구린 누비영 입어.

(이런 바진 대소간 누비지 않고 저고린 누벼서 입어.)

ㅁ. 두어 개만 더 셔시믄 좋쿠다.

(두어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ㅂ. 어떻게뎡 살아 보젠 오만 가지 일 다 후여봐수다.

(어찌어찌 살아 보려고 오만 가지 일 다 해봤습니다.)

(27ㄱ)의 ‘헌’, (27ㄴ)의 ‘에무헌’은 성상 관형사, (27ㄷ)의 ‘그’와 (27ㄹ)의 ‘이런’은 지시 관형사, (27ㅁ)의 ‘두어’와 (27ㅂ)의 ‘오만’은 수 관형사들이다. (27ㄴ)에서 ‘스삼스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성상 관형사로는 ‘헌, 에무헌’ 외에 ‘새, 진진(긴긴), 먼먼훈(먼먼), 벨아벨(별의별), 오직, 온’ 등이 있으며, 지시 관형사는 ‘그, 이런’ 외에 ‘그런, 다른, 툇 · 툃(탄), 아모 · 아무(아무), 어느, 웬, 이, 저, 저런’ 등이 있다. ‘이, 그, 저’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각각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말 듣는 사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대

상을 가리킬 때'에 쓰여서 지시 관형사가 된다.

또 수 관형사는 '두어, 오만' 외에 '흔두어(한두), 두, 서, 석, 서너, 두서너, 너대엿, 예실곱 · 예슬곱(예닐곱), 여남은 · ㅁ남은(여남은), 하간 · 하근(여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너대엿'은 수량이 넷이나 다섯 또는 여섯임을 나타낸다.

이밖에 '설룬, 작산, 제라흔, 족헌' 등도 자주 쓰이는 관형사이다.

(28) ㄱ. 이내 가심 설룬 중은 어느 누게 알아 주코?

(이내 가슴 서러운 줄은 어느 누가 알아 줄꼬?)

ㄴ. 나 설룬 말 놈 들어 심상, 놈 설룬 말 나 들어 심상.

(내 서러운 말 놈 들어 심상, 놈 서러운 말 내 들어 심상.)

ㄷ. 아이구, 이 설룬 얘기야, 조쿠쟁이 잡는 거 아니여게.

(아이구, 이 '설룬 얘기'야, '조쿠쟁이'는 잡는 거 아니야.)

(28ㄱ)과 (28ㄴ)의 '설룬'은 다같이 '원통하고 서러운'의 뜻으로 쓰인 경우다. (28ㄷ) '설룬 얘기'는 '설룬 어멍' 등과 더불어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다. 이때 '설룬'은 '애처롭고 안타까운'의 뜻을 지닌다. (28ㄷ)은 자살하고 어린 소라를 잡는 어린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니 잡히는 소라도 애처로운 입장이고, 잡는 아이 또한 애처롭게 여기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조쿠쟁이'는 크기가 작은 어린 소라를 말한다.

또 '작산'은 '나이가 많은, 수량이나 분량이 많은, 짐작이나 생각보

다 정도가 심한'의 뜻으로 쓰이는 관형사다.

(29) ㄱ. 조작벤티 그 작산 검질을 메젠 해 봅서, 앞이 왁웁합주.

(땡별에 그 엄청난 김을 매려고 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지요.)

ㄴ. 그 작산 돈 다 어떻 후여신고?

(그 많은 돈 다 어찌 했을까?)

ㄷ. 거 작산 놈이 그거 후나도 못 들럼서?

(거 작산 놈이 그것 하나도 못 들고 있어?)

(29ㄱ)과 (29ㄴ)의 '작산'은 '수량이나 분량이 많은, 짐작이나 생각 보다는 정도가 심한'의 뜻으로 쓰인 경우다. (29ㄷ) '작산 놈'은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작산 놈'처럼 '놈'이나 '거, 아의, 어른, 사름' 등 사람과 관련 있는 말과 연결될 때가 그러하다. '작산 놈'은 '작산 거'와 더불어 '나이든 사람이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무라며 하는 말'이고, '작산 아의'는 '다 자란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무라며 하는 말'이다. '작산 어른'과 '작산 사름'은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무라며 하는 말'이다.



〈그림 12〉 조작벤티 작산 검질

(30)의 ‘제라흔’은 ‘정말의, 진짜의, 온전한, 제대로의’ 뜻을 지닌 관형사이다.

(30) ㄱ. 거 제라흔 걸로 멧 개만 더 줍서.

(거 온전한 걸로 멧 개만 더 주십시오.)

ㄴ. 담제까지 넘어서 제라흔 구신이 뉘언에 제사허고 멧질허여.

(담제까지 넘어야 온전한 귀신이 되어서 제사하고 멧질해.)

ㄷ. 갈적삼, 갈중의 그게 제라흔 거주게.

(‘갈적삼’, ‘갈중의’ 그게 제대로인 거지.)

(30ㄷ)의 ‘갈적삼’과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적삼과 중의’를 말한다. 또 (31)처럼 ‘죽헌’도 자주 쓰이는 관형사다. 이 ‘죽헌’은 ‘죽허다’ 또는 ‘죽허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한없을 정도의 가련한, 안타까운, 애처로운’ 등의 뜻을 담고 있다. (31)의 용례에서 보듯 ‘사름’이나 ‘거’ 앞에 쓰이는 특징을 지닌다. (31ㄴ)은 뒤로 걸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뒤로 걷는데 한 할머니가 지나가며 한 말이다.

(31) ㄱ. 그 죽헌 사름 죽엇덴 훈 말이 온말가?

(그 죽한 사람 죽었다고 한 말이 참말인가?)

ㄴ. 썩썩, 아이고 죽헌 사름이.

(썩썩, 아이고 죽한 사람이.)

ㄷ. 아이구, 이 죽헌 거 어떻허코게?

(아이고, 이 족한 거 어찌할꼬?)

사.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나 다른 말 또는 문장 앞에 놓여 그 말이나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품사를 말한다. 부사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눈다. 성분 부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제한하는 부사를 말하며,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제한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① 성분 부사

성분 부사는 문장 안에서 특정한 성분을 제한하는 부사를 말한다. 성분 부사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로 나눈다. 성상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제한하는 부사를 말하며, 지시 부사는 시간이나 장소를 한정하거나 앞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고, 부정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를 말한다.

(32) ㄱ. 게난 벌써 다 먹어서.

(그러니까 벌써 다 먹었어.)

ㄴ. 재기 가는 사람 시몬 초초이 가는 사람 싯곡 훈 게 식상이여.

(재우 가는 사람 있으면 천천히 가는 사람 있고 한 게 세상이야.)

ㄷ. 간 보난 세간 보수 들러데끼멍 싸암서.

(가서 보니까 세간 마구 드던지며 싸우고 있어.)

ㄹ. 곱은제기허멍 눌에 강 무사 안 놀 말이라게.

(숨바꼭질하면서 가리에 가서 왜 안 놀 말인가.)

ㄹ. 발랑발랑 궂난 건 다 익은 거.

(발랑발랑 끓으니까 건 다 익은 거.)

ㅂ. 문 올안 보난 힘박눈이 팡팡 오람서.

(문 열어서 보니 힘박눈이 팡팡 오고 있어.)

(32ㄱ)의 ‘볼써’, (32ㄴ)의 ‘재기’, ‘춘춘이’, (32ㄷ)의 ‘부수’, (32ㄹ)의 ‘무사’ 등은 성상 부사이다. (32ㄹ)의 ‘발랑발랑’은 물이 끓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 (32ㅂ)의 ‘팡팡’은 눈이 내리는 모양을 흉내낸 의태어로 이 또한 성상 부사에 속한다.

성상 부사로는, ‘ㄱ슬내낭 · 가을내낭(가으네), ㄱ장(가장), 마구 · 부수 · 막(마구), ㄱ사 · ㄱ세(방금), ㄱ내 · ㄱ시(끝내), ㄱ뽕(담뽕), 메딱 · 멘딱 · 멘작 · 몬딱 · 몬작 · 문딱 · 문작 · 문 · 문딱 · 문작(몽땅), 먼저 · 무녀 · 무네 · 문저 · 문처 · 문침(먼저), 자주 · 주조 · 주주(자주), 천상 · 천성(천생), 바싹 · 파싹(몹시), 만이 · 만히 · 하영 · 해(많이)’ 등이 있다.

(33) ㄱ. 앞장상 그레 감시은 나 미청 가키여.

(앞장서서 그리 가고 있으면 내 미쳐 가겠어.)

ㄴ. 우리 하르버지가 요레 한번 돌려, 저레 한번 돌려 허멍 막 걸어
덴겨사 헌덴.

(우리 할아버지가 요리 한번 돌려, 저리 한번 돌려 하며 막 걸어 다녀야 한다고.)

(33ㄱ)의 ‘그레’, (33ㄴ)의 ‘요레, 저레’는 지시 부사로 사용된 경우다. 이외에 지시 부사로는 ‘일로(이리로), 글로(그리로), 절로(저리로)’ 등이 있다.

한편 (34ㄱ)의 ‘뭇’, (34ㄴ)의 ‘안’과 (34ㄷ)의 ‘아니’는 부정 부사들로 부정 표현에 쓰인다.

(34) ㄱ. 뭇로 영 나가는 거 뭇 나가게 뭇쳐야 뭇니까.

(따로 이렇게 나가는 거 뭇 나가게 뭇쳐야 되니까.)

ㄴ. 놀 놀어근에 비 안 들어가게 주쟁이 더꺼사 허여.

(가리 가리어서 비 안 들어가게 주저리 덮어야 해.)

ㄷ. 아니 본 건 곧지 말아사.

(아니 본 건 말하지 말아야.)

표준어로 대역하기 어려운 성분 부사도 있다.

(35) ㄱ. 어른덜 앞의랑 곁엇이 나상 낯뜨지 마라.

(어른들 앞에랑 ‘굽엇이’ 나셔서 냅뜨지 마라.)

ㄴ. 주켄 허건 훈 짐 도끈 지영 와 불라.

(주겠다고 하거든 한 짐 ‘도끈’ 저서 와 버려라.)

ㄷ. 춤단 춤단 버치난에 눈물이 도록 알려레 떨어져.

(참다 참다 부치니까 눈물이 ‘도록’ 아래로 떨어져.)

ㄹ. 비 오람시메 우정 갈 거 동고렝이 출령 갑서.

(비 오고 있으니 가지고 갈 것 ‘동고렝이’ 차려서 가십시오.)

ㄹ. 윤노리낭으로 잠질 몰록 후리난 멜락하게 드러앉아 불어.

(윤노리나무로 불기를 ‘몰록’ 후리니까 털썩하게 주저앉아 버려.)

ㅂ. 오닐랑 버데 오름에 가게마썸.

(오늘랑 ‘버데’ 오름에 가세요.)

ㅅ. 거시지도 아녜디 살락 씨러져라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살락’ 쓰러지더라.)

ㅇ. 뒤로 간 자락 밀리믄 떨어지는 거주.

(뒤로 가서 ‘자락’ 밀면 떨어지는 거지.)

ㅈ. 웃단 보난 나도 몰르게 오죤이 줄락 나와.

(웃다가 보니 나도 몰르게 오죤이 ‘줄락’ 나와.)

ㅊ. 누게신딕 손 주왁 내밀어!

(누구한테 손 ‘주왁’ 내밀어!)

ㅋ. 어평사 지깅 데며신디 심영 흔들어도 ㄱ딱을 아녀.

(어떻게야 ‘지깅’ 더미었는지 잡아 흔들어도 까딱을 았아.)

ㅌ. 걸사 부텃는지 술을 줍아등기믄 징곳징곳 춤대만 휘어져.

(‘걸’에야 붙었는지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징긱징긱’ 낚싯대만 휘어져.)

ㅍ. 놈의 집의 가도 이레 **화르** 저레 **화르** 7만이 맞지 아년다게.

(남의 집에 가도 이리 ‘화르’ 저리 ‘화르’ 가만히 맞지 않는다.)

ㅎ. 말도 아년 **홀터** 입에 좇어담아.

(말도 않고 ‘홀터’ 입에 주워담아.)

(35ㄱ)의 ‘굽엇이’는 ‘사물에 대한 분별 능력이 모자란 채로, 분별 없이’, (35ㄴ)의 ‘도끈’은 ‘주어진 한보다 많게 또는 가득’, (35ㄷ)의 ‘도록’은 ‘물방울이나 눈물 따위가 이따금씩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낸다.

또 (35ㄹ)의 ‘동고렝이’는 ‘빠짐없이 채비하여’의 뜻으로, ‘똥고렝이’로도 나타나며, (35ㅁ)의 ‘물록’은 ‘회초리 따위를 힘차게 내리치는 모양’, (35ㅂ)의 ‘버데’는 ‘함께, 같이, 벗하여’로, ‘벗’[友]에 접미사 ‘-에’가 연결된 형태이다. (35ㅅ)의 ‘살락’은 ‘쨍은 물건이 갑자기 사르르 쓰러지는 모양’, (35ㅇ)의 ‘자락’은 ‘갑자기 힘있게 미는 모양’, (35ㅈ)의 ‘줄락’은 ‘오줌 따위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모양’, (35ㅊ)의 ‘주왁’은 ‘주먹 따위를 갑자기 내미는 모양’, (35ㅋ)의 ‘지각’은 ‘짜인 물체나 담긴 물건이 탄탄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달리 ‘데각, 디각, 제각’ 등으로 나타난다. (35ㅌ)의 ‘징긱’은 ‘줄 따위가 무엇에 걸리어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용례에서 ‘걸’은 ‘바닷속의 돌’의 의미로 쓰인 것

이다. (35㉔)의 ‘화특’은 ‘일이 매우 급한 모양’, (35ㅎ)의 ‘홀터’는 ‘앞 뒤를 헤아리지 않고 계속해서 또는 몹시 바빠’의 뜻으로, 옛말 ‘훔다’와 관련이 있다.

② 문장 부사

문장 부사란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부사를 말한다. 문장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로 나눈다.

(36) ㄱ. 낮 허는 놉을 빌젠 허민 정말 잘 멕이곡, 돈도 하영 주곡.

(벌낮 하는 놉을 빌려고 하면 정말 잘 먹이고, 돈도 많이 주고.)

ㄴ. 제발 수술허지 말앙 이제랑 나이도 들고 헤시메 기냥 잠자멍 놀멍 살당 가주.

(제발 수술하지 말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했으매 그냥 잠자며 놀며 살다가 가지.)

(36ㄱ)의 ‘정말’은 말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할 때, (36ㄴ)의 ‘제발’은 희망 사항을 표현하고 있다. ‘정말’, ‘제발’ 따위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이를 양태 부사라 한다.

(37) ㄱ. 게난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려보질 아녀난 수명은 몰르커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려보질 않았으니까 수명은 모르겠어.)

ㄴ. 걸 콩국이라고 해여. 게민 감저 쳐 놓곡 그거 혼 직 거려먹고.
(걸 ‘콩국’이라고 해. 그러면 고구마 찌 놓고 그거 한 술 떠먹고.)

(37ㄱ)은 소가 몇 살까지 사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게난’이 쓰여 다음 문장을 말하고 있다. (37ㄴ)의 ‘게민’은 문장 ‘걸 콩국이라고 해여.’와 문장 ‘감저 쳐 놓곡 그거 혼 직 거려먹고.’를 잇고 있다. (37ㄴ)에서 ‘콩국’은 ‘콩가루에 배추 또는 무를 썰어 넣어서 함께 끓인 국’을 말한다. 주로 겨울철에 끓여 먹는 별식으로, 여름철 국수에 말아 먹는 육지부의 ‘삶은 콩을 땃돌에 갈아 짜낸 물’과는 다르다.

문장 부사는 (36ㄴ), (37ㄱ, 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문장 앞에 놓인다.

아. 감탄사

감탄사란 말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 부름과 대답, 입버릇, 머뭇거림 등이 포함된다.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문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 (38) ㄱ. 아이고, 말 말아. 후꿈 시난 틀 타먹은 하르방처럼 말을 굴아
가는데 참, 말 들엄직헤라게.
(아이고, 말 말아. 조금 있으니 산딸 따먹은 할아버지처럼 말을
해 가는데 참, 말 들음직하더라.)
- ㄴ. 마, 이거라도 마트라.
(옐다, 이거라도 받아라.)
- ㄷ. 뽀서, 말 좀 들어보쿠다.
(여보세요, 말 좀 물어보겠습니다.)
- ㄹ. 저, 그딴 사름 셔?
(저, 거기 사람 있어?)
- ㅁ. 그만잇자, 다른 때 생각나면 전화행 굴아주믄 안 될 거?
(가만잇자, 다른 때 생각나면 전화해서 말해주면 안 될 거?)

(38ㄱ)의 ‘아이고’는 감정을, (38ㄴ)의 ‘마’는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면서 하는 말로, 의지를 나타낸다. 이 ‘마’는 몽골어에서 온 말이다. 몽골에서는 ‘마’가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나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반해, 제주에서는 언제나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점이 다르다. (38ㄷ)의 ‘뽀서’는 부름, (38ㄹ)의 ‘저’는 입버릇, (38ㅁ)의 ‘그만잇자’는 머뭇거림에 해당한다. (38ㅁ)에서 ‘생각’으로 적은 것은 ‘생각’이 옛말 ‘싱각’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 (39) ㄱ. 기여, 건 나가 허마. 걱정 말라.
 (그래, 건 내가 하마. 걱정 마라.)
- ㄴ. 게게, 나가 멘든 거주게.
 (그래그래, 내가 만든 거지.)
- ㄷ. 말다, 난 안 가키여.
 (아니, 난 안 가겠어.)
- ㄹ. 메록, 약올르지!
 (메롱, 약오르지!)
- ㅁ. 일름 나 거느린 다음 보, 보, 보 식 번 후여.
 (이름 나이 들먹인 다음 복, 복, 복 세 번 해.)
- ㅂ. 아가기여게, 좁아틀루지 말라이.
 (아야, 꼬집지 마라.)
- ㅅ. 허쑹언, 어른이 말곤느디 시끄럽다고.
 (예끼, 어른이 말하는데 시끄럽다고.)

(39ㄱ)의 ‘기여’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39ㄴ)의 ‘게게’는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39ㄷ)의 ‘말다’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 사이에서 묻는 말에 대하여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말다’ 대신에 ‘웃다’를 쓰기도 한다. (39ㄹ)의 ‘메록’은 어린아이들이 혀를 내밀어 상대방을 놀릴 때, (39ㅁ)의 ‘보’는 초상나서 복부를 때 돌아간 사람 이름 다음에 붙여 혼을 부르는 소리다. ‘보’는 한자 ‘복’(復)에 해당한다. (39ㅂ)의 ‘아가기여’는 갑자기 아픔을 느낄 때,

(39ㅅ)의 ‘허쑹언’은 아랫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다.

이 밖의 감탄사를 더 보이면 아래와 같다.

(40) ㄱ. 나아더리 · 네야더리: 제기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는 말.

ㄴ. 떠바 · 떠불라: 어린아이가 불이나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하여 내는 소리.

ㄷ. 또봐: 어린아이가 말리는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에 못하게 내는 소리.

ㄹ. 매기독닥: 어린아이에게 빈 그릇 따위를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릴 때 쓰는 말.

ㅁ. 메 · 메께 · 메께라: 어머.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ㅂ. 쑤어나라 · 쑤나라: 굶할 때 심방이 악귀 따위를 쫓아내려고 지르는 소리.

ㅅ. 아따 · 으따 · 하따: 아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ㅇ. 아마뎡어리 · 어마뎡어리 · 아마떠리: 일이 잘못되었을 때나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내는 소리.

ㅈ. 어마넉덜라 · 어마넉들라 · 아마넉덜라 · 아마넉들라: 쁘쁘. 어린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위로하는 말.

ㅊ. 으까: 어린아이에게 일어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 ㄱ. 음매: 어린아이에게 물 따위를 먹여라 하는 뜻으로 하는 말.
- ㄷ. 잘관다리 · 잘관이: 잘코사니. 미운 사람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길 때에 내는 소리.
- ㅍ. 코 · 쿠: 쉼쉼. 어린애가 다쳐 아파할 때 다친 자리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소리.
- ㅎ. 허썩 · 어치나 · 어취나: 개치네썩.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

자. 조사

조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 홀로 쓰이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를 말한다. 조사는 격 조사와 보조사로 나눈다. 격 조사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결정하는 기능 곧 성분을 결정하는 구실을 하고,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① 격 조사

격 조사란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를 말한다. 일정한 자격은 7개 성분에 해당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어 기능을 말한다. 격 조사 목록은 (41)과 같다.

(41) ㄱ. 주격: 이, 가, 에서, 라, 레

ㄴ. 목적격: 을, 를, ㄹ

ㄷ. 보격: 이, 가

ㄹ. 서술격: 이다

ㅁ. 관형격: 의

ㅂ. 부사격

처소: 에, 의, ㄷ, 더레, 레, 레레

향진: 으로, 레, 더레, 레레

시발: 의서

여격: 안티, 아피, ㄱ라, 신디, 신더레

도구 · 자격 · 변성: 로

비교: 광, 왕, 초록, 추록, 만이, 보담, ㄱ치

공동: 광, 왕, 영, 이영

인용: 엔, ㄴ

ㅅ. 호격: 아, 야

㉠ 주격 조사

주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격을 말한다. 주격 조사에는 ‘이, 가, 에서, 라, 레’ 등이 있다.

(42) ㄱ. 출이 성해도 빌 사름 엇언에 못 비엄서.

(꿀이 성해도 벌 사람 없어서 못 베고 있어.)

ㄴ. 모쉬가 밭 안트레 들어가지 못하게 도 막아 불었주.

(마소가 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 막아 버렸지.)

ㄷ. 이번 참도 또 우리 모을에서 도와사 홀 건디.

(이번 참도 또 우리 마을에서 도와야 할 건데.)

ㄹ. 손지란 서월 간덴 후여라.

(손자가 서울 간다고 하더라.)

ㄹ. 아시레 이 집의 살암찌.

(아우가 이 집에 살고 있어.)

(42ㄱ)의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 쓰이는 주격이며, (42ㄴ)의 ‘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 쓰이는 주격 조사다. (42ㄷ)의 ‘에서’는 이른바 단체에 붙는 주격 조사다. (42ㄹ, ㄹ)의 ‘라’와 ‘레’는 빈번하게 쓰이지는 않는데 주격 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독 체언 ‘것’ 다음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연결되는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43) ㄱ. 고팡은 이 안거리 신 것가 고팡. 거 곳간, 곳간인디.

(고방은 이 안채 있는 것이 고팡. 거 곳간, 곳간인데.)

ㄴ. 그 난간이 이제 이 마당, 이것가 마당이면 요만은 노프게 해근
에 대문하고 쿵쨍하게 해근에 쪽 허게 난간이 있어나서.

(그 뒷마루가 이제 이 마당, 이것이 마당이면 요만큼 높게 해서
마루문하고 나란하게 해서 쪽 하게 뒷마루가 있었어.)

ㄷ. 성복이 똥인디 몰라. 이젠 구신이 똥다 허는 거 닳아. 나 이치
로는 그것가 성복이고.

(성복이 똥지 몰라. 이젠 귀신이 똥다 하는 거 같아. 내 이치로
는 그것이 성복이고.)

ㄹ. 그똥 무시것가 이서?
(거긴 무엇이 있어?)

(43)에서 ‘것, 이것, 그것, 무시것’ 다음에 모음 뒤에 연결되는 ‘가’
가 쓰이고 있다.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나 강조의 뜻이 들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거+가’, ‘것+이’처럼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44) ㄱ. 반치가 우리 우잣에는 이만은 솔진 거가 몇 개씩 막 이성.

(파초가 우리 터알에는 이만한 굵은 것이 몇 개씩 많이 있어서.)

ㄴ. 무얼크르 카 가지고 뜨박뜨박 손가락으로 거려 놔근에 허는 거
가 궁둥저베기고.

(메밀가루 타 가지고 뜨박뜨박 손가락으로 떠 놔서 하는 것이
‘궁둥저베기’고.)

ㄷ. 돌포말 씨우릉해도 것이 질로 좋덴.

(눈알고등 씹쓰레해도 것이 젤로 좋다고.)

ㄹ. 겉보리엔 헛 것이 또 있어.

(겉보리라고 한 것이 또 있어.)

(44ㄱ, ㄴ)에서는 모음 뒤에 ‘가’가, (44ㄷ, ㄹ)에서는 자음 뒤에 ‘이’가 연결되었다. (44ㄷ)에서의 ‘궁둥저베기’는 ‘반죽한 메밀가루를 끓는 물에 넣어서 주걱 따위로 듬성듬성 잘라 만든 수제비’를 말한다.

주걱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림 13〉 우잣떡 반치

(45) ㄱ. 문전제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어.

(‘문전제’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어.)

ㄴ. 그신새는 흙 잘 부트지 아녀.

(씩은새는 흙 잘 붙지 않아.)

ㄷ. 두 줄만 이신 거는 줄우리, 녁 줄 이신 건 솔우리.

(두 줄만 있는 거는 맥주보리, 녁 줄 있는 건 쌀보리.)

(45)에서는 각각 밑줄 친 체언 ‘집’과 ‘흙’, ‘줄’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다. (45ㄱ)에서 ‘문전제’는 달리 ‘문제, 문우제’라 하는데, ‘제사 때 마루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㉔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체언이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격을 말한다. 목적격 조사에는 ‘을, 를, ㄹ’이 있다.

(46) ㄱ. 콩, 팥 하여간 곡식 명칭 부튼 건 전부 죽을 만들 수 있어.

(콩, 팥 하여간 곡식 명칭 붙은 건 전부 죽을 만들 수 있어.)

ㄴ. 감저 훑게 썰민 이제 감저를 무녀 놓고 줄게 썰민 ㄱ찌 농곡.

(고구마 굵게 썰면 이제 고구마를 먼저 넣고 잘게 썰면 같이 넣고.)

ㄷ. 산디찍 혼 가달이나 니 가달에 영 벌령 메주 덩어릴 낱 무꺼.

(밭벼짚 한 가닥이나 네 가닥에 이렇게 벌려서 메주 덩어리를 낱서 묶어.)

ㄹ. 아방 죽으민 일곱 무작 왕대 막뎡일 지프곡, 어멍 죽으민 속 구린 머귀낭 방장대 지프곡.

(아버지 죽으면 일곱 마디 왕대 막대길 짚고, 어머니 죽으면 속 궁근 머귀나무 상장 짚곡.)

(46ㄱ)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을’이 연결된 경우다. (46ㄴ)은 모음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붙는 ‘를’이 연결된 경우고, (46ㄷ, 46ㄹ)은 모음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ㄹ’이 연결된 경우다.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47) ㄱ. 보로 톨아당 먹젠 보난 진쉬가 지각.

(상추 뜯어다가 먹으려고 보니 진딧물이 잔뜩.)

ㄴ. 정초에 과세 온 분덜안티 골감주 데접후주.

(정초에 과세 온 분들한테 감주 대접하지.)

ㄷ. 그땐 너나엇이 다 보리밥. 쌀밥 먹는 집 경 엇어난.

(그땐 너나없이 다 보리밥. 쌀밥 먹는 집 그렇게 없었어.)

ㄹ. 심방말촉 심영 춤추라, 춤추라 험주게. 경허은 까딱까닥허여마씨.

(방아깨비 잡아서 춤추라, 춤추라 하지요. 그러면 까딱까딱해요.)

(47ㄱ)의 ‘부루’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를’, (47ㄴ)의 ‘골감주’ 다음에 ‘를’, (47ㄷ) ‘쌀밥’ 다음에 ‘을’, (47ㄹ)의 ‘심방말촉’ 다음에 ‘을’이 생략되었다.

(47ㄴ)에서 ‘골감주’는 엇기름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감주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㉔ 보격 조사

보격 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보어임을 표시하는 격을 말한다. 주격 조사와 같은 형태인 ‘이’와 ‘가’가 쓰이며, 서술어는 ‘아니다, 뭐다’가 된다. 곧 ‘아니다, 뭐다’ 앞에 나타나는 ‘이, 가’가 보격 조사가 된다.

(48) ㄱ. 소가 밧되서 밤 자며 똥도 싸곡 오줌도 싸곡 하면 거름이 되는 거라.

(소가 밧에서 밤 자며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면 거름이 되는 거야.)

ㄴ. 검질 어느 정도 메어 불어야. 거 잡초가 엇어서 농사가 돼지.

(김 어느 정도 매어 버려야. 거 잡초가 없어야 농사가 되지.)

ㄷ. 게운 전복 똥이 아니라.

(‘게우’는 전복 똥이 아니야.)

ㄹ. 이젠 굴부리가 옛날 굴보리가 아니라.

(이젠 분화구가 옛날 분화구가 아니야.)

(48ㄱ)과 (48ㄴ)은 ‘돼다’ 앞에 ‘이, 가’가 보격 조사로 쓰인 경우고, (48ㄷ)과 (48ㄹ)은 ‘아니다’ 앞의 ‘이, 가’가 보격 조사로 쓰인 경우다.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는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는 ‘가’가 연결됨은 주격 조사와 같다. (48ㄷ)에서 ‘게우’는 전복의 내장을 포함한 생식소를 말한다.

보격 조사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49) ㄱ. 흐린쫄쌀로 밥후영 골그를 놔근에 삭으은 물 즈질앙 솟디 놓 딸리은 감조 돼는 거.

(차좁쌀로 밥해서 엇기름가루 놔서 삭으면 물 짜서 솥에 놔서 달이면 감주 되는 거.)



〈사진 14〉 구작읍 송당리에 위치한 아부오름의 굴부리. 1980년대 굴부리 모습이다. (사진 서재철)

ㄴ. 먼문간이 대개 삼 칸, 삼 칸 되는 집이 하주.

(문간채가 대개 삼 칸, 삼 칸 되는 집이 많지.)

(49ㄱ)에서는 ‘감주’ 다음에 보격 조사 ‘가’가, (49ㄴ)에서는 ‘칸’ 다음에 보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다.

㊤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를 말한다. 서술격 조사로는 ‘이다’가 있다.

(50) ㄱ. 옛날은 방돌이 요즘 ㄱ치록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했던
말이여.

(옛날은 구들장이 요즘같이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했던
말이야.)

ㄴ. 모가 일등이라. 모 나민 잠지 탁 치멍 잘 낫젠 허곡.

(모가 일등이야. 모 나면 볼기 탁 치면서 잘 낫다고 하고.)

ㄷ. 저 훈 바리엔 훈 게 뭇이나 후면 소 후나에 시끄는 양이라.

(저 한 바리라고 한 게 뭇이나 하면 소 하나에 싣는 양이야.)

(50ㄱ)의 ‘말이여’의 ‘이여’, (50ㄴ)의 ‘일등이라’의 ‘이라’, (50ㄷ)의 ‘뭇이나’의 ‘이나’가 서술격 조사 ‘이다’의 쓰임이다. ‘이여, 이라, 이냐’는 마치 ‘이-’가 어간처럼 고정되어 있는 반면 ‘-여, -라, -냐’는 어미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가끔 ‘이’가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51) 선모눈숏 입낙허른 모다 숏이다 싹지 못허주게.

(‘선모눈숏’ 인낙하면 모다 옷이다 싸우지 못하지.)

(51)에서 ‘모다’는 ‘모+이다’에서 ‘이’가 생략된 형태이나 ‘숏+이다’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그대로 쓰인 경우다. 옷판에서 ‘선모눈숏’을 인낙 곧 인정하기로 하면 다투지 못한다는 말이다. ‘선모눈숏’은 옷놀이에서 확실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옷가락이 서 있는

건 모로 치고, 누워 있는
건 옷으로 셈하는 일종의
불문율을 말한다.

㉔ 관형격 조사



〈그림 14〉 선모눈썹 입낙허믄 씹지 못허주

관형격 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위치하여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
임을 표시하는 격을 말한다. 관형격 조사에는 ‘의’가 있다.

(52) ㄱ. 뺏지치긴 **놈의** 걸 뒤흔민 이기는 거라.

(뺏지치긴 **남의** 걸 뒤집으면 이기는 거야.)

ㄴ. **집의** 발은 어디라?

(집의 발은 어디야?)

ㄷ. 새철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놈의** 집의 사름덜 안 가.

(입춘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남의** 집에 사름들 안 가.)

관형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53) 어떻 **나** 거만 엇어졌저게.

(어째 **내** 거만 없어졌어.)

(53)의 ‘나’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격을 말한다. 부사격 조사는 그 의미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 도구, 자격, 비교, 인용 등이 있다.

부사격 조사 ‘에, 의, 더, 더레, 드레, 레레, 레’ 등은 처소나 시간, 지향점을 나타낸다.

(54) ㄱ. 보리 물 적지멍 잘 더평 놔두민 삼 일 만에 수염이 뵈족뵈족 나.

(보리 물 적시며 잘 덮어서 놔두면 삼 일 만에 수염이 뵈족뵈족 나.)

ㄴ. 집의 시난 팡팡 허는 소리가 나. 놀 다 불언에 옥상에 가보난 향이 지네끼리 둥글어 가멍 부닥치멍 다 깨져 분 거라.

(집에 있으니 팡팡 하는 소리가 나. ‘놀’ 다 불어서 옥상에 가보니 향아리가 자기네끼리 둥글어 가며 부딪치며 다 깨져 버린 거야.)

ㄷ. 그땐 다 힘들었주게. 뭐 이녁 밧딤 신 것도 아니고 허난 아무 밧딤 거라도 हु나씩 좇어 와야 हु거든.

(그땐 다 힘들었지. 뭐 이녁 밧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아무 밧의 거라도 하나씩 주워 와야 하거든.)

- ㄹ. 집더레 오단 보난 큰큰헌 베염이 질레 신 거라게.
 (집으로 오다가 보니 커다란 뱀이 길에 있는 거야.)
- ㅁ. 힘이 장사난게 호르레 홀 일을 낫전이든 무까.
 (힘이 장사니까 하루에 할 일을 낫전이면 마쳐.)

(54ㄱ)의 ‘삼 일 만에’의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54ㄴ)의 ‘집의’는 ‘집에’의 뜻으로 장소를 나타낸다. 이 ‘의’는 고어 문법의 ‘의’에 따라 ‘의’로 표기한 것으로, [이]로 발음되면 ‘이’로 표기하여도 된다. (54ㄷ)의 ‘딴’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땃’을 비롯하여 ‘우(위), 밋(밑), 뒤, 갓(갯가), 곳(가), 땃겇(바깥)’ 등의 체언 다음에 연결된다. (54ㄴ)에서 ‘놀’은 ‘갑자기 일어난 모진 바람’의 뜻을 지닌 어휘다.

(54ㄹ)의 ‘집더레’는 ‘집으로’의 뜻으로, ‘더레’는 지향점을 나타낸다. 이 ‘더레’는 ‘드레, 트레, 러레, 르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다, 오다’ 동사와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4ㅁ)의 ‘호르레’는 ‘하루에’의 뜻으로, 시간을 나타낸다. ‘레’는 ‘호르’를 비롯하여 ‘그르’, ‘화리’(화로), ‘시리’(시루), ‘찰리’(자루) 등에 연결된다.

부사격 조사 가운데 ‘안퉁, 아피, 그라, 신딴, 신더레’ 등은 사람이 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에 무엇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격으로, 보통 여격 조사라 부른다.

(55) ㄱ. 나 어멍 아방안퉁 옥 들어보지 아년 살아서.

(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 들어보지 않고 살았어.)

ㄴ. 지실 평아피 일러볼까 부덴 구물도 치며 별짓을 다해.

(감자 평한테 잃어버릴까 봐 그물도 치며 별짓을 다해.)

ㄷ. 마리고라 상방. 상방에 가라. 상방에 글라.

(마루보고 대청. 대청에 가라. 대청에 가자.)

ㄹ. 애기 체한 거 닳으민 업엉 그걸 누리우레만 뎡겨놔주게. 그 손보는 할망신디.

(아기 체한 거 같으면 업어서 그걸 내리러만 다녔었지. 그 손보는 할머니한테.)

ㄹ. 헌관은 절만 허고 집산 양쪽에 사둬서 이레 수저도 놓고 잔도 골고. 제관신더레 잔도 앓다 드리고 하는 거주.

(헌관은 절만 하고 집사는 양쪽에 서 있으면서 이리 수저도 놓고 잔도 같고. 제관한테 잔도 갖다 드리고 하는 거지.)

(55ㄱ)부터 (55ㄹ)까지 밑줄 친 ‘안퉁, 아피, ㄱ라, 신디, 신더레’ 등은 표준어 ‘한테’ 또는 ‘에게’로, 부사격 조사 가운데서도 여격으로 쓰인 경우다. (55ㄷ)에서 ‘글라’는 ‘가자’의 뜻으로, 기본형은 ‘글다’이다. ‘글다’는 ‘가다’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다.

(56)의 ‘광, 보담, 추룩, ㄱ치’ 등은 비교격 조사로 쓰인 경우다.

(56) ㄱ. 반친 톱 바나나낭광 ㄱ튼 거.

(파초는 꼭 바나나나무와 같은 거.)

ㄴ. 경해도 우리 사는 거보담 낫알 테주.

(그래도 우리 사는 거보다 나을 테지.)

ㄷ. 적은 이제처럼 변화허게 안 허여. 다섯 점씩 세 고지 행 올려.

(적은 이제처럼 변화하게 안 해. 다섯 점씩 세 꼬치 해서 올려.)

ㄹ. 어른덜이 불쌍허주게. 요세 ㄱ치 무신 간식 먹을 게 시냐게?

(어른들이 불쌍하지. 요새같이 무슨 간식 먹을 게 있었니?)

(56ㄱ)의 ‘광’은 ‘반치’와 ‘바나나’, (56ㄴ)의 ‘보담’은 ‘지금 사는 것’과 ‘예전 살았던 것’, (56ㄷ)의 ‘추록’은 ‘이제 적(炙)’과 ‘예전 적(炙)’을, (56ㄹ)의 ‘ㄱ치’는 ‘어른들’과 ‘요즘 사람들’이 배교 대상이다. 또 서술어도 비교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ㄱ트다, 낫다, 변화허다’ 등이 연결되었다. (56ㄷ)에서 ‘변화허다’는 한자어 ‘번화’(繁華) 곧 번성하고 화려하다는 뜻이다.

(57)의 ‘광, 이영, 영’은 공동격 조사로 쓰인 경우다. 공동격 조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다른 체언과 ‘서로’ 또는 ‘함께’의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격을 말한다.

(57) ㄱ. 나광 살젠 말양은에 확 씨집가렌 해도 안 감쩌게.

(나와 살려고 말고 확 시집가라고 해도 안 가네.)

ㄴ. 먹는 것도 궁합 있어이. 감전 침치영 먹어서 연치지 아녀고.

(먹는 것도 궁합 있어. 고구마는 김치와 먹어야 얹히지 않고.)

ㄷ. 아까 그분덜토 나영 혼 해에 ㄱ튼 동갑덜이라.

(아까 그분들도 나와 한 해에 같은 동갑들이야.)

(57ㄱ) ‘나광’의 ‘광’, (57ㄴ) ‘짐치영’의 ‘이영’, (57ㄷ) ‘나영’의 ‘영’이 공동격 조사로 쓰인 경우다. 다같이 ‘함께’나 ‘같이’를 넣어서 대역하게 되면 공동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57ㄴ)의 ‘짐치영’은 ‘짐치+이영’ 구성인데 ‘짐치’의 ‘ㅣ’ 모음 때문에 ‘이영’의 ‘이’가 생략된 것이며, (57ㄷ)의 ‘그분덜토’는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이 옛말에서는 ‘-똥’로 나타나기 때문에 끝소리 ‘ㅎ’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여 거센소리로 변해 ‘토’가 된 것이다.

인용격 조사는 간접 인용에 쓰이는 ‘엔’과 ‘엔’의 축약형 ‘ㄴ’이 쓰인다. 인용하는 말이나 문장의 종결 어미에 따라 인용격 조사 ‘엔’과 결합하면 그 형태는 다양하게 변하기도 하다. 축약형 ‘ㄴ’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 다음에 연결된다. 인용격 조사 다음에는 반드시 (말)허다, 곤다, 묻다, 듣다[問] 등 단어가 뒤따른다.

(58) ㄱ. 우리 ㄱ뜨민 골쟁이엔 허는 거.

(우리 같으면 ‘골쟁이’라고 하는 거.)

ㄴ. 혼 치가 얼마곤 허민 성냥쌀 혼나가 혼 치라.

(한 치가 얼마나고 하면 성냥개비 하나가 한 치야.)

(58ㄱ)의 ‘골쟁이엔’은 ‘골쟁이’에 인용격 ‘엔’이 결합된 것이며, (58ㄴ) ‘얼마곤’은 ‘얼마고’에 축약된 인용격 조사 ‘ㄴ’이 연결된 형태다.

㉔ 호격 조사

호격 조사는 문장 속에서, 체언이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하는 격이다. ‘아’와 ‘야’가 있다. 사람이나 짐승 또는 사물을 사람처럼 여겨서 부를 경우에도 쓰인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야’가 쓰인다.

(59) ㄱ. 아이고, 이 아방아. 그 작산 돈 들러 강 노름헛데강게.

(아이고, 이 남편아, 그 많은 돈 들고 가서 노름헛디까?)

ㄴ. 이 쇠야, 재기재기 글라게 허멍 가린석으로 후리고.

(이 소야, 재우재우 가자 하며 ‘가린석’으로 후리고.)

ㄷ. 밥주리야, 밥주리야. 앓아난 방석에 앓이라.

(잠자리야, 잠자리야. 앓았던 방석에 앓아라.)

(59ㄱ)의 ‘아방아’는 자음 다음의 호격 조사 ‘아’, (59ㄴ, 59ㄷ)은 모음 다음의 호격 조사 ‘야’가 연결된 경우다. (59ㄴ)과 (59ㄷ)은 소와 잠자리를 사람처럼 부르고 있다. (59ㄱ)의 ‘아방’은 ‘아버지’의 뜻이나 여기서는 남편의 의미로 쓰였고, (59ㄴ)의 ‘가린석’은 ‘소로 밭갈이할 때 좌우 뿔에 잡아매어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까지 닿는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을 뜻한다. 이 줄로 소의 방향과 빠르기를 조정하게 된다.

② 보조사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말한다. 격 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보조사는 어떤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이다. 문장에서의 역할은 문장마다 다르다.

(60) ㄱ. 마, 이 떡도 마탕 먹으라.

(였다, 이 떡도 받아서 먹어라.)

ㄴ. 떡도양, 하영 먹으난 술치는 겁디다게.

(떡도요,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겁디다.)

ㄷ. 떡도 하영 남앗저게.

(떡도 많이 남았다.)

보조사 ‘도’는 체언 다음에 붙어서,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사다. (60ㄱ)에서 (60ㄷ)까지 보조사 ‘도’는 뜻은 같으나 문장 성분이 다르다. (60ㄱ)은 목적어, (60ㄴ)은 독립어, (60ㄷ)은 주어로, 그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1)은 보조사 일람이다.

(61) 보조사 일람

차이: 은, 는, 랑, 란

동일: 도

단독: 만

강조: 랑

시작: 부떠, 부땀, 부터, 부툼

미침: 꺾장, 꺾지, 꺼장, 꺼지

첨가: 아올라

선택: 이나

특별: 이사

커녕: 이랑마랑

차이 보조사로 ‘은, 는, 랑, 란’ 등이 있다. 차이 보조사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 대조한 결과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이 보조사라 한다.

(62) ㄱ. 베는 주로 여름에 입주.

(베는 주로 여름에 입지.)

ㄴ. 할아버지가 오늘랑 장 담지 말렌 곶아. 날을 봐사 헌덴 허멍.

(할아버지가 오늘은 장 담그지 말라고 해. 날을 봐야 한다고 하며.)

(62)는 차이 보조사 ‘은, 랑’이 쓰인 경우다. (62ㄱ)의 ‘는’은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다음에 연결된다. 만일 자음으로 끝난 단어가 올 때는 ‘은’이 연결된다. (62ㄴ)의 ‘랑’은 받침이 없는 체언이나 ‘ㄴ’ 받

침의 체언에 붙어서 ‘는’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조사로 ‘아울라’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표준어 ‘마저’에 해당한다. 보조사 ‘아울라’는 ‘드리다’(두 가닥 이상을 하나로 땡거나 꼬다)의 방언형 ‘어울리다’와 관련이 있다.

(63) ㄱ. 무녀 시경 내 불민 쉼 앞의 가가민 조름에 짐 아니 시곤 췌아울
라 ㄱ찌 가젠 허주게.

(먼저 실어서 내 버리면 소 앞에 가가면 뒤에 짐 아니 실은 소
마저 같이 가려고 하지.)

ㄴ. 한 솔박 남은 것사 너네 먹으라 허여도 좋을 거주만은 그거아
울라 갈라 가 붙어.

(한 ‘솔박’ 남은 것이야 너네 먹어라 해도 좋을 거주만 그거마저
갈라 가 버려.)

ㄷ. 아이고, 벌경훈 베렝이가양 난간에, 집의, 밥숯되아울라 다 들
어가.

(아이고, 벌건 벌레가요 툇마루에, 집에, 밥숯에마저 다 들어가.)

(63)은 보조사 ‘아울라’가 쓰인 경우다. (63ㄱ)의 ‘조름’은 꿈무늬의 뜻이나 여기서는 ‘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3ㄴ)은 밭 병작에 관한 내용으로, 밭 주인이 한 ‘솔박’ 남은 것까지 나누어 가져가 버린 서운함을 말하고 있다. ‘솔박’은 ‘나무를 나부죽하게 파서 만든 바

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하는데, 주로 곡식을 퍼 담거나 곡식을 바람에 불릴 때 쓴다. (63ㄷ)은 벌건 벌레가 집안에 피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사진 15〉 솔박(사진 김보향)

보조사 '이사'는 표준어 '이야'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64) ㄱ. 돈이사 시믄 좋주.

(돈이야 있으면 좋지.)

ㄴ. 옛날이사 무신 오리발이 있어 뭐가 있어.

(옛날이야 무슨 오리발이 있어 뭐가 있어.)

ㄷ. 옛날이사 비 오는 날 개역 행 먹었주게.

(옛날이야 비 오는 날 미숫가루 해서 먹었지.)

(64)는 보조사 '이사'가 쓰인 경우다. 이 '이사'는 옛말 '이사'가 '이사'이사의 변화 과정을 거친 방언형이다. 제주어에서 '△>ㅅ'으로의 변화는 '아ㅅ>아시', '브ㅅ>부ㅅ' 등에서 확인된다. (64ㄴ)의 '오리발'은 사람이 해엄치기 쉽게 발에 끼는, 고무로 오리발 모양으로 만든 물건을 말한다.

보조사 '이랑마랑'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

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65) ㄱ. 사진 찍음이랑마랑 그때 사진 찍는 사름 멧 사름 었어서.

(사진 찍기는커녕 그때 사진 찍는 사람 멧 사람 없었어.)

ㄴ. 무신 선물 보냄이랑마랑 돈이라도 더 할타먹젠 허주.

(무슨 선물 보내기는커녕 돈이라도 더 훔아먹으려고 하지.)

(65)의 ‘이랑마랑’은 표준어 ‘커녕’에 대응한다.

(66) ㄱ. 물망은 방울 툇툇 씹는 맛도 나곡.

(모자반은 ‘방울’ 툇툇 씹는 맛도 나고.)

ㄴ. 밥이라도 쉬어가면 노룩만 궤어가민 순다리 뉘 불어.

(밥이라도 쉬어가면 누룩만 궤어가면 ‘순다리’ 되어 버려.)

ㄷ. 너부툼 거짓말을 허는디 나렌 허지 말란 법은 엇지 아녀냐게?

(너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ㄹ. 안 젓이민 솟디 막 눌러 부는 때문에 익을 때궂장 젓어서.

(안 저으면 술에 막 눌러 버리는 때문에 익을 때까지 저어야.)

ㅁ. 술이나 뭐이던지 정성도 해야 뉘고.

(술이나 뭐이든지 정성도 해야 되고.)

(66ㄱ)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

내는 보조사이며, (66ㄴ)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며, (66ㄷ)의 ‘부텨’는 시작의 뜻을, (66ㄹ)의 ‘?장’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끝임을 나타낸다. (66ㅁ)의 ‘이나’는 여러 가능한 대상 가운데 더 나은 것이 선택되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것이 선택됨을 나타내거나 여러 가능한 일 가운데에 최소한의 일을 나타내거나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66ㄱ)에서 ‘방울’은 모자반의 기포(氣胞), 곧 공기주머니다.

③ 접속 조사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말한다. 접속 조사에는 ‘이영, 영’ 등이 있다.

(67) ㄱ. 베영게 광목이영 미녕이영 그딴 또 후곰 거세기 허민 멩지도 잇곡.

(베랑 광목이랑 무명이랑 거기 또 조금 거시기 하면 명주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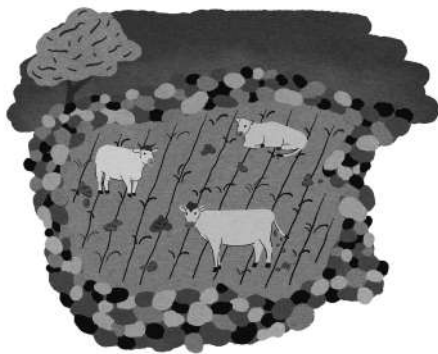
ㄴ. 영장날은 술이영 밥이영 피력이영 잘 맥여.

(장삿날은 술이랑 밥이랑 ‘필역’이랑 잘 먹여.)

ㄷ. 바령이엔 헌 게 밤에 췌영 몰 가두와 두는 거라.

(‘바령’이라고 한 것이 밤에 소랑 말 가두어 두는 거야.)

(67ㄱ)의 ‘이영’은 옷감의 종류인 ‘베, 광목, 미녕’ 등 늘어놓은 것을



〈그림 15〉바령은 밤에 쉼영 몰 가두와 두는 거라

이어주고 있으며, (67ㄴ)의 ‘이영’ 또한 ‘술, 밥, 피력(떡)’을 이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67ㄷ)의 ‘영’도 소와 말을 잇고 있다.

(67ㄴ)에서 ‘피력’은 한자어 ‘필역’(畢役)으로, ‘장지에서 일을 끝내고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누어주는 떡’이나 물건을 말한다. 또 (67ㄷ)의 ‘바령’은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이 거름이 되게 하여 땅심을 돋우는 일’을 말한다.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1704, ‘지속’)에 따르면, “마소를 담을 두른 안에 가두어 밤낮 밭에 똥을 싸게 하는 것을 ‘바령’[八陽]이라 한다.”고 하였다.

4. 집을 치면,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문장

- 4.1. 문장 성분
- 4.2. 문장 종결
- 4.3. 높임 표현
- 4.4. 시간 표현
- 4.5. 상 표현
- 4.6.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 4.7. 부정 표현
- 4.8. 추측 · 짐작 표현

세주에
길리잡이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다. 문장 성분은 주 성분과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으로 나눈다. 주 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여기에 속한다. 부속 성분은 주 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독립 성분은 주 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을 말하는데, 독립어가 여기에 속한다.

4. 집을 치면,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문장

다음은 박재삼(1933~1997) 시인의 〈수정가〉 1연이다. 첫 구절에서 밑줄 친 ‘집을’의 문장 성분을 고른다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가운데 어느 것일까.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갈단들 어느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수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
니었을레.

《춘향이 마음》(신구문화사, 1965:6)

밑줄 친 ‘집을’에 연결된 동사는 ‘치다’이다. ‘치다’의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고려한다면 첫 구절은, “(춘향이 마음은) 집으로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정도로 읽게

된다. 밑줄 친 ‘집을’을 ‘집으로’ 읽게 되니 답은 ‘부사어’다. 이처럼 문장에서의 단어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 한다.

4.1.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다. 문장 성분은 주 성분과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으로 나눈다. 주 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여기에 속한다. 부속 성분은 주 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독립 성분은 주 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을 말하는데, 독립어가 여기에 속한다.

가. 주어

주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주어는 체언이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며, 보조사와 조사가 생략되어 주어가 되기도 한다.

(1) ㄱ. 밥이 일헌덴 허는 말 있어.

(밥이 일한다고 하는 말 있어.)

ㄴ. 드르에 가민 모시가 하.

(들에 가면 모시풀이 많아.)

ㄷ. 콩씨도 으라 가지. 콩^ㄴ물콩도 잇곡, 장콩도 잇곡.

(콩도 여러 가지. 기름콩도 있고, 장콩도 있고.)

ㄹ. 모시웃은 산 사람은 입곡 죽은 사람은 안 입넌 허여.

(모시웃은 산 사람은 입고 죽은 사람은 안 입는다고 해.)

ㅁ. 돈만 돈만 허멍 샤름 귀헌 중을 몰르는 거 닐아.

(돈만 돈만 하며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거 같아.)

(1ㄱ)의 ‘밥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밥’에 주격 조사 ‘이’, (1ㄴ)의 ‘모시가’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주격 조사 ‘가’, (1ㄷ)의 ‘장콩도’는 보조사 ‘도’, (1ㄹ)의 ‘모시웃은’은 보조사 ‘은’에 의해서 주어가 된 경우다. (1ㅁ)은 ‘샤름’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으나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목적어

목적어는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목적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를 결합하여 나타내며, 보조사 또는 조사가 생략되어 목적어가 되기도 한다.

(2) ㄱ. 이제 반엿귀를 들르지 못힐 정도로 찢득찢득하게 허멍, 그 메주

허영 돌아메어.

(이제 방앗공이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찢득찢득하게 하며, 그 메주
해서 달아메어.)

ㄴ. פותב은 행 먹주마는 거 아무 상 것이 못 먹었주.

(팔밥은 해서 먹지만 거 아무 상 없이 못 먹었지.)

ㄷ. 옛날에사 여름은 나민 보리밥이고 가을은 들민 조팝이고. 무신
별다른 쌀밥 먹영 살아졌수과?

(옛날에야 여름은 되면 보리밥이고 가을은 들면 조밥이고. 무슨
별다른 쌀밥 먹어서 살아졌습니까?)

(2ㄱ)은 체언 ‘방앗귀’에 목적격 조사 ‘를’, (2ㄴ)은 체언 ‘פותב’에 보
조사 ‘은’이 쓰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2ㄷ)은 ‘쌀밥’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었으나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 보어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대개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 ‘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보격 조사가 연결되지 않고도 보어가 되기도 한다.

(3) ㄱ. 소도 얼룩소여, 황소여, 숙쉐여 영 해서 훈 갠지가 뉘우다.

(소도 얼룩소야, 황소야, 침소야 이렇게 해서 한 뭇 가지가 됩니다.)

ㄴ.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돼 부는 거라.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돼 버리는 거야.)

ㄷ. 쇠다리 할 정도가 아니면 씻어근에 그 누물이영 넣은에 고찌 쑤면은 그게 국죽이라.

(‘쇠다리’ 할 정도가 아니면 씻어서 그 누물이랑 넣어서 같이 쑤면 그게 갱죽이야.)

ㄹ.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보리 불리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보리 밟는 것도.)

ㅁ. 고름풀 매여서 돌담 우의 놔둬도 한 달 돼도 죽지 아녀.

(땅빈대 매어서 돌담 위에 놔둬도 한 달 되어도 죽지 않아.)

(3ㄱ)과 (3ㄴ)은 ‘뒹다’ 동사 앞에 보격 조사 ‘가’와 ‘이’, (3ㄷ)과 (3ㄹ)은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와 ‘가’가 결합하고 있다. (3ㅁ)은 ‘뒹다’ 앞에 보격 조사가 생략되어 보어가 된 경우다.

(3ㄴ)에서 ‘쇠다리’는 ‘쇠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를 말한다.

라. 서술어

서술어는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연결되어 나타난다.

(4) ㄱ. 어떤 땐 산파엔 허영 작작 삐영 갈고.

(어떤 땐 산파라고 해서 작작 부려서 갈고.)

ㄴ. 우리 시어머닌 막 좋아나고, 좋은 어른이라.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좋았었고, 좋은 어른이야.)

ㄷ. 그 돌쳐귀로 돌고, 쌀문 허영 지게문 이제 하고. 창문도 쌀문이라.

(그 돌쳐귀로 달고, 살문 해서 지게문 이제 하고. 창문도 살문이야.)

(4ㄱ)은 동사 ‘갈다’, (4ㄴ)은 형용사 ‘좋다’, (4ㄷ)은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 ‘이라’가 쓰여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마. 관형어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관형어는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또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5) ㄱ. 일할 때 아니믄 헛 옷 입은 사름 잘 못 봐.

(일할 때 아니면 헛 옷 입은 사람 잘 못 봐.)

ㄴ. 동창들 때문에, 동창 권유에 출마헨에 당선뻘주.

(동창들 덕분에, 동창 권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지.)

ㄷ. 입춘날엔 높의 집의 가지 아녀.

(입춘엔 남의 집에 가지 않아.)

ㄹ. 먹을 물도 엇엇 물통에 강 질어 와사.

(먹을 물도 없어서 우물에 가서 길어 와야.)

ㅁ. 덕석은 멍석보담은 족은 거라.

(덕석은 멍석보다는 작은 거야.)

(5ㄱ)은 관형사 ‘헌’, (5ㄴ)의 ‘동창’은 ‘체언+체언’ 연결에서 앞 체언이 수식어 구실을 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5ㄷ)은 관형격 ‘의’, (5ㄹ)은 동사 ‘떡다’의 어간 ‘떡-’에 관형사형 어미 ‘-을’, (5ㅁ)은 형용사 ‘족다’의 어간 ‘족-’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연결되어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

바. 부사어

부사어는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이다. 부사어는 부사,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6) ㄱ. 요건 보선뒤치기, 요건 고사 골아도 잊어불언.

(요건 버선꿈치, 요건 방금 말해도 잊어버렸어.)

ㄴ. 무물⁷르로 주로 범벅을 허영 먹었주. 경허곡 밀⁷르에도 범벅을 헐 수가 있주.

(메밀가루로 주로 범벅을 해서 먹었지. 그러고 밀가루에도 범벅

을 할 수가 있지.)

ㄷ. 넘어가단 보난 낭 오티 걸터앉안 신 거라.

(지나가다 보니 나무 위에 걸터앉아 있는 거야.)

(6ㄱ)은 부사 ‘곳사’, (6ㄴ)은 접속 부사 ‘경허곡’, (6ㄷ)은 ‘우’에 ‘티’라는 장소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우티’가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사어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속 성분인데도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를 필수 부사어라 한다.

(7) ㄱ. 딸은 아방 닳아신게마씨.

(딸은 아버지 닳았는데요.)

ㄴ. 성격이 남허고 싸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입주.

(성격이 남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지요.)

ㄷ. 근디 존 건 풋, 풋 비슷한 건 돔비고.

(근데 자잘한 건 팔, 팔 비슷한 건 돔부고.)

(7ㄱ)의 ‘닳다’는 ‘무엇과 무엇이 닳다’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곧 ‘딸’과 ‘아방’이 닳은 것으로, ‘아방’ 다음에 부사격 ‘과’가 생략되어 있지만 부사어가 되며, (7ㄴ)의 ‘싸우다’도 싸우는 사람과 싸움의 상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허고’라는 부사격 조사가 연결된 부사어로 필수 부사어가 된다. 또 (7ㄷ)의 ‘비슷하다’도 비교의 대상

인 ‘뜻’과 ‘뚝뚝’이 있어야만 한다. 비교격 조사가 생략된 ‘뜻’이 부사어로, ‘뜻’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 독립어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독립어는 감탄사, 호격 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대답하는 말 따위로 나타난다.

(8) ㄱ. 게메, 옛날 고사리 하영 거꺼질 땐 반찬도 허영 먹곡게.

(글쎄, 옛날 고사리 많이 꺾어질 땐 반찬도 해서 먹고.)

ㄴ.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밭디 물 골람쩌.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통밭’에 물 고인다.)

ㄷ. 토롱, 여점 허는 것?라 토롱.

(토롱, 임시 하는 것보고 토롱.)

ㄹ. 나봍서, 말 후꿈 들어봍주.

(저봐요, 말 조금 물어봍시다.)

ㅁ. 예, 잘 알아들어수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8ㄱ)은 감탄사 ‘게메’, (8ㄴ)은 호격 ‘야’가 연결된 ‘비야’, (8ㄷ)은 제시어 ‘토롱’, (8ㄹ)은 부르는 말인 ‘나봍서’, (8ㅁ)에서는 대답하는

말 ‘예’가 독립어가 된 경우다. 독립어는 대체로 문장 맨 앞에 놓이지만 문장의 중간, 끝 어디에도 올 수 있다.

(8ㄴ)에서 ‘장통뱃’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잘 고이는 밭’을 말하고, (8ㄷ)의 ‘토룽’(土壟)은 ‘흙을 모아 쌓아서 임시로 간략히 만든 무덤’을 말한다.

4.2. 문장 종결

문장 종결은 이른바 종결 어미에 의해서 문장을 끝마치는 표현을 말한다.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뉜다.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문장이며,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요구하는 문장이며, 청유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제약이 있다.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말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청유문의 주어는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명령문과 청유문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동사

여야 한다.

가. 진술 종결: 평서문

진술 종결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이런 문장을 평서문이라 하며, 평서형 어미가 연결된다. 평서형 어미로는 ‘-다, -저, -나, -네, -어, -주, -네다, -니께, -우다, -수다’ 등이 있다.

(1) ㄱ. 명절옷 입으난 잘도 곱다, 경 곤곡.

(명절옷 입으니까 잘도 곱다, 그렇게 말하고.)

ㄴ. 서 오누인디 막 공부덜 잘허멍 살암서.

(서 오누이인데 아주 공부들 잘하면서 살고 있어.)

ㄷ. 그 정돈 나도 잘 알아집네다.

(그 정돈은 나도 잘 압니다.)

(1ㄱ)은 손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1ㄴ)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게 하는 말이며, (1ㄷ)은 손윗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문장들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감탄 종결: 감탄문

감탄 종결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 표현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감탄 종결은 감탄문이라 하는데,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의 느낌을 혼잣말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등급이 낮은 ‘후라체’(허라체) 어미로만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로는 ‘-네, -고나, -구나’가 있으며, 문장부호 느낌표(!)가 붙는다.

(2) ㄱ. 송애기가 밧도 잘 갈암네!

(송아지가 밧도 잘 가는구나!)

ㄴ. 짐을커덜은 다 알암꾸나게!

(땡감들은 다 알고 있구나!)

ㄷ. 놈은 일 버청 죽어지는데 갈라정 잘도 잠꼬나!

(남은 일 부쳐 죽겠는데 드러누워서 잘도 자는구나!)

(2)는 감탄형 어미, ‘-네, -구나, -고나’가 연결된 경우다. (2ㄴ)은 ‘알-+-암ㅅ+-구나+게’, (2ㄷ)은 ‘자-+-암ㅅ+고나’ 구성으로 각각 ‘-구나’와 ‘-고나’가 연결되었다.

(2ㄴ)에서 ‘짐을커’는 ‘불이 꺼지지 않게 연이어 장작 따위를 집어 넣다.’는 뜻을 지닌 ‘진다’에서 온 말로, ‘땡감’을 뜻한다. (2ㄷ)의 ‘갈라지다’는 달리 ‘걸러지다’라 하는데, ‘드러눕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다. 의문 종결: 의문문

의문 종결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의문 종결은 의문문이라 하는데, 의문형 어미를 연결시켜 의문문을 만든다.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아니오”를 요구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 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 한다. 설명 의문문인 경우는 의문사가 온다. 의문문은 물음표(?)가 붙는다. 의문형 어미로는 ‘-가, -고, -ㄴ가, -ㄴ고, -냐, -디, -언, -순, -ㄴ네까, -ㄴ디가, -수까, -우까’ 등이 있다.

(3) ㄱ. 저거 틀낭 아니가?

(저거 산딸나무 아니냐?)

ㄴ. 저것도 무시거, 무시것고?

(저것도 무엇, 무엇이니?)

ㄷ. 저레 가는 사람 노겐고?

(저리 가는 사람 누군고?)

ㄹ. 느 멧 설 먹었디?

(너 멧 살 먹었니?)

(3ㄱ)은 의문형 어미 ‘-가’가 연결된 판정 의문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틀냥이우다, 틀냥 아니우다”나 “틀냥 맞수다”라 대답하면 된다.

(3ㄴ)은 의문형 어미 ‘-고’, (3ㄷ)은 의문형 어미 ‘-ㄴ고’가 결합된 문장으로 설명 의문문이 된다. 설명 의문문에 연결된 ‘-고’와 ‘-ㄴ고’는 ‘무시거(무엇), 누게(누구), 어느제(언제), 어딴(어디), 무사(왜), 열매(얼마), 땃(땃)’ 등에 연결되는 특징을 지닌다. 무시거고?, 누게고?, 어느제고?, 어딴고?, 무사고?, 열매고?, 땃고? 등의 연결은 자연스러우나 판정 의문문에 쓰인 어미 ‘-가’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이는 ‘-고’, ‘-ㄴ고’는 설명 의문문에, ‘-가’와 ‘-ㄴ가’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이기 때문이다. (3ㄹ)의 의문형 어미 ‘-언디’는 2인칭에만 쓰인다.

(4) ㄱ. 밥 하영 먹언?

(밥 많이 먹었어?)

ㄴ. 경 양활치멍 어딴 감순?

(그렇게 활갯짓하며 어디 가?)

ㄷ. 건 무시거엔 골읍네까? 일름이.

(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4ㄱ)과 (4ㄴ)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게 묻는 말이며, (4ㄷ)은 손윗사람에게 묻는 말이다. 특히 (4ㄴ)의 ‘-순’은 여성에 의해서만 쓰이는 의문형 어미다.

라. 명령 종결: 명령문

명령 종결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시키는 표현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명령 종결은 명령문이라 하는데, 명령형 어미를 연결해서 표현한다. 명령형 어미로는 ‘-(으)라, -여, -어, -게, -(으)ㅂ서’ 등이 있다.

(5) ㄱ. 야야, 졸바로 걸으라게.

(야야, 똑바로 걸어라.)

ㄴ. 혼자 먹으 가게.

(어서 먹고 가자.)

ㄷ. 호박잎 후춧가루 갑서.

(호박잎 조금 뜯어서 가십시오.)

(5ㄱ)은 손아랫사람에게 시키는 말이며, (5ㄴ)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게 시키는 말이다. (5ㄷ)은 손윗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미 ‘-ㅂ서’는 발음이 [-ㅂ써]이고, 표기할 때는 ‘-ㅂ서’로 적는다.

마. 청유 종결: 청유문

청유 종결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표현으로 끝맺는 문장 형식을 말한다. 청유 종결을

청유문이라 하는데, 청유형 어미는 ‘-자, -게, -주, -심, -어, -(으)ㄴ
주’ 등이 있다.

(6) ㄱ. 영장 다 끝나면 오늘은 누구 모성 강 술 한잔 얻어먹자, 경.

(장사 다 끝나면 오늘은 누구 모시고 가서 술 한잔 얻어먹자, 그
렇게.)

ㄴ. 다 먹어시난 이제랑 집의 가게.

(다 먹었으니 이제는 집에 가자.)

ㄷ. 먹을 거 먹어졌시메 반이나 마탕 가조.

(먹을 거 먹어졌으니 반기나 받아서 가자.)

ㄹ. 이레 들어왕 밥 먹으심.

(이리 들어와서 밥 먹게.)

ㅁ. 그 일이랑 우리가 나상 처리협조.

(그 일이랑 우리가 나서서 처리하지요.)

(6ㄱ)은 아랫사람에게 요청하는 말이며, (6ㄴ), (6ㄷ), (6ㄹ)은 나
이가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 요청하는 말이다. 특히 (6ㄹ)의 ‘-심’은
여성에 의해서만 쓰이는 어미다. (6ㅁ)은 손윗사람에게 요청하는 말
이다.

4.3.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에 따라 높고 낮음의 정도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버님께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동생한테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친구와 주고받는 말이 다르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다.

(1) ㄱ.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선어말어미 ‘-시-’로 표현.

ㄴ. 상대 높임: 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종결 어미와 ‘마씀’으로 표현.

ㄷ. 객체 높임: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특수 어휘로 표현.

(1ㄱ)의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 곧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표준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다. 제주 사람들도 “잘 가십서.”처럼 말하기도 하나 이는 표준어 영향이다. 대개는 “잘 갑서.”를 즐겨 쓴다.

(1ㄴ)의 상대 높임은 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말한다. ‘높임’이라고 해서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낮추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상대 높임은 문장 종결에 쓰이는 종결 어미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장 유형과도 관련이 깊다. 또 상대 높임은 보조사 ‘마씀’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상대 높임은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된

형식이다.

(1ㄷ)의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특수 어휘로 표현된다. ‘안네다’(드리다), ‘슬우다’(사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어에서 높임 표현은 (1ㄴ)에 해당하는 상대 높임이 주로 쓰인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2) ㄱ. 말하는 사람<말 듣는 사람: 손윗사람에게 하는 표현.

흡서체(협서체)

ㄴ. 말하는 사람=말 듣는 사람: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게 하는 표현.

ㅎ여체(허여체)

ㄷ. 말하는 사람>말 듣는 사람: 손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

ㅎ라체(허라체)

(2ㄱ)의 상황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보다 아래인 경우다. 말 듣는 사람은 손윗사람으로,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 흡서”라고 해야 하므로 ‘흡서체’라 한다. 괄호 속에 ‘협서체’라 한 것은 ‘흡서’할 자리에 ‘협서’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서체’라 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이는 ‘ㅎ여체’, ‘ㅎ라체’에도 해당한다.

(2ㄴ)의 상황은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나이가 비슷한 또

래인 경우다. 동년배인 상대에게 말할 때는 “~ 하여”라 하니 ‘하여체’라 하며, (2ㄷ)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다.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은 손아랫사람에게 “~ 하라”라 하므로 ‘하라체’라 한다.

단어 ‘가다’를 예로 들어 문장 유형에 따른 상대 높임을 보이면 <표 17>과 같다.

<표 17> ‘가다’ 동사의 상대 높임

구분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하라체(하라체)	간다	가네!	가냐?	가라	가게
하여체(하여체)	가네	-	간?	가게	가주
흡서체(흡서체)	가수다	-	가수까?	갑서	갑주

<표 17>에서 감탄문에 ‘하여체’나 ‘흡서체’가 없는 것은 감탄문이 말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을 혼잣말처럼 표현하는 것이므로 가장 낮은 등급인 ‘하라체’ 어미만을 쓰기 때문이다.

가.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어미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평서문에서의 상대 높임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문장 형식으로, 평서형 어미가 연결됨으로써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3) ㄱ. 허라체: -다, -저, -ㄴ다, -라, -나, -네

ㄴ. 허여체: -네, -네, -어, -ㄴ게, -주, -메

ㄷ. 흡서체: -(으)비네다, -(으)비네께, -(으)비데다, -우다, -수다

(3)은 평서형 어미 목록이다. (3ㄱ)은 ‘허라체’, (3ㄴ)은 ‘허여체’, (3ㄷ)은 ‘흡서체’ 종결 어미다.

(4) ㄱ. 일본서도 연락 온덴 허난 막 좋다게.

(일본에서도 연락 온다고 하니 아주 좋다.)

ㄴ. 뭇엔 확 곤젠 허난 잊어불어졌저.

(뭇라고 얼른 말하려고 하니 잊어버렸어.)

ㄷ. 옛 허젠 허민 기냥 쌀은 모인 걸로는 안 웁다.

(옛 하려고 하면 그냥 쌀은 메진 걸로는 안 된다.)

ㄹ. 큰아덜이 큰아덜인다.

(큰아들이 큰아들이다.)

ㅁ. 마릿널 다끄곡 허민 막 곱나.

(마루청 닭고 하면 아주 곱다.)

ㄴ. 그때가 우린 어린 때라.

(그때가 우린 어릴 때야.)

(4)는 ‘후라체’ 어미가 쓰인 경우다. (4ㄱ)은 ‘-다’, (4ㄴ)은 ‘-저’, (4ㄷ)은 ‘-나다’, (4ㄹ)은 서술격 조사 ‘이’에 ‘-나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4ㅁ)은 ‘-나’, (4ㅂ)은 ‘-라’가 연결되었다. (4ㄱ)의 ‘좋다게’의 ‘게’는 ‘확인,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4ㅁ)의 ‘-나’는 반복이나 습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5) ㄱ. 그디 강 보난 독계길 손콰로 북북 찾이멍 먹엄서.

(거기 가 보니 닭고기를 손톱으로 박박 찢으며 먹고 있어.)

ㄴ. 막떡은 막뉘 할망이나 먹쥬.

(‘막떡’은 막된 할머니나 먹지.)

ㄷ. 췌딱지 입은 군벗은 아무 바당에 가도 하영 잇언게.

(‘췌딱지’ 입은 군부는 아무 바다에 가도 많이 있던데.)

(5)는 ‘후여체’ 어미가 쓰인 경우다. (5ㄱ)의 ‘먹엄서’는 ‘먹-+-엄ㅅ-+-어’ 구성으로, 종결 어미 ‘-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5ㄷ)의 ‘잇언게’는 ‘잇-+-어-+-ㄴ게’ 구성으로 어미 ‘-ㄴ게’가 쓰였다.

(5ㄱ)에서 ‘찾다’는 ‘찢다’의 옛말 ‘찢다’에서 온 말이다. (5ㄴ)의 ‘막떡’은 ‘떡을 만들 때 남은 재료를 모아 맨 마지막으로 만든 떡’을 말

하며, (5ㄷ)의 ‘쨌딱지’는 ‘쇠처럼 탄탄한 껍데기’라는 뜻이다.

다음의 (6), (7), (8)은 ‘홉서체’ 어미가 연결된 경우다.

(6) ㄱ. 쨌 올린 사름이라 부난 아명 바빠도 산더레 올랑 돌아봄네다.

(소 올린 사름이어 버리니까 아무리 바빠도 산에 올라 돌아봅니다.)

ㄴ. 어촌계장이 딱 들어상 관리협네께.

(어촌계장이 딱 들어서서 관리합니다.)

ㄷ. 비닐루 걷지 안헛당 열 받으면 것도 죽어 불네다.

(비닐 걷지 않았다가 열 받으면 것도 죽어 버립니다.)

(6)은 ‘홉서체’ 어미가 쓰인 경우로, 각각 ‘돌아보--ㅁ네다’, ‘관리
허--ㅁ네께’, ‘죽어 불--ㅁ네다’ 구성이다.

(7) ㄱ. 성복제 후제 하는 게 맞수다.

(성복제 후제 하는 게 맞습니다.)

ㄴ. 지렌 족아도 걷는 건 아방 뉘수다께.

(키는 작아도 걷는 건 아버지 뉘습니다.)

ㄷ. 그런 걸 다 아는 거 보문 성님은 머리도 좋수다.

(그런 걸 다 아는 거 보면 형님은 머리도 좋습니다.)

ㄹ. 할망상이 애기 곱 나민 이제 고맙수덴 헤영 할마님신디 치성
메 허영 올려.

(삼신상은 아기 곱 넣으면 이제 고맙습니다고 해서 삼신할머님

한테 삼신메 해서 올려.)

(7)은 ‘흡서체’ 어미 ‘-수다’가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연결된 경우다. (7ㄱ)과 (7ㄴ)은 동사에, (7ㄷ)과 (7ㄹ)은 형용사에 연결되었다. 어미 ‘-수다’가 동사에 연결되는 경우는 ‘맞다’와 ‘났다’ 이외로는 찾기 어렵다.

(8) ㄱ. 뭐이든지 간세허믄 망조우다.

(무엇이든지 게으르면 망조입니다.)

ㄴ. 그 당시 국민학교도 안 시킨 사람이 천지우다.

(그 당시 초등학교도 안 시킨 사람이 천집입니다.)

ㄷ. 누물도 한 세 가지나 뉘우다. 세 가지.

(나물도 한 세 가지나 됩니다. 세 가지.)

ㄹ. 각녹 싸움허는 거 심언 헌디 그냥 저 가슴 부려전 뭐 허우다.

(수노루 싸움하는 거 잡아서 했는데 그냥 저 가슴 찢어져서 뭐 합니다.)

ㅁ. 쉼 질루젠 허민 그 출 해 들이는 거양,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우다.

(소 기르려고 하면 그 꼴 해 들이는 거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8)은 어미 ‘-우다’가 연결된 경우다. (8ㄱ)과 (8ㄴ)은 서술격 조사 ‘이’ 다음에 ‘-우다’가 연결된 경우로, (8ㄱ) ‘망조우다’는 ‘망조+이+-

우다’, (8ㄴ) ‘천지우다’도 ‘천지+이+-우다’로 분석된다. (8ㄷ)과 (8ㄹ)은 동사, (8ㅁ)은 형용사에 연결되었다. 어미 ‘-우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다음에 연결된다. (8ㄴ)에서 ‘천지’(天地)는 ‘대단히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9) ㄱ. 그런 냥은 내창에 막 하우다.

(그런 나무는 내에 아주 많습니다.)

ㄴ. 김치 종류도 하우다게.

(김치 종류도 많습니다.)

ㄷ. 사람 기자 앓아시믄 혼 대으숯 사람씩, 경혼 궤야 하수다.

(사람 그저 앓는다면 한 대여섯 사람씩, 그런 굴 많습니다.)

ㄹ. 대오살 하수다게.

(거북손 많습니다.)

(9)는 형용사 ‘하다’[多] 어간에 ‘-우다’ 또는 ‘-수다’가 연결된 용례다. (9ㄱ)과 (9ㄴ)은 (8)의 용례에서 보았듯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우다’가 연결된 경우고, (9ㄷ)과 (9ㄹ)은 모음으로 끝난 어간임에도 ‘-수다’가 연결되었다. ‘-우다’가 연결된 ‘하우다’나 ‘-수다’가 연결된 ‘하수다’는 다같이 ‘많습니다’로 대역되는 것으로 보면 의미에 차이는 없어 보인다.

② 감탄문에서의 상대 높임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형식으로, 감탄형 어미가 연결됨으로써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감탄형 어미는 ‘하라체’ 어미로 ‘-네, -고나, -구나’가 있다. 감탄형 어미가 ‘하라체’ 어미만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가장 낮은 높임이 쓰이기 때문이다.

(10) ㄱ. 씨름도 잘하네!

(씨름도 잘하는구나!)

ㄴ. 오름 꼭대기에 강 딱 앉앙 쌍안경으로 영 보민 아, 우리 물은
저디 있구나!

(오름 꼭대기에 가서 딱 앉아서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면 아, 우리
말은 저기 있구나!)

ㄷ. 보선뒤치기 우애가 애톡, 애톡 잘 돌라졌고나!

(버선꿈치 위가 ‘애톡’, ‘애톡’ 잘 도려졌구나!)

(10)은 감탄형 어미가 쓰인 경우다. (10ㄱ)은 ‘-네’, (10ㄴ)은 ‘-구나’, (10ㄷ)은 어미 ‘-고나’가 연결되었다. (10ㄷ)에서 ‘애톡’은 버선꿈치 위에 턱진 곳으로, ‘애톡’이 있어서 버선을 신었을 때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③ 의문문에서의 상대 높임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형식으로, 의문형 어미가 연결됨으로써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11) ㄱ. 허라체: -가, -고, -ㄴ가, -ㄴ고, -냐, -ㄴ디, -ㄴ디야,
-ㄴ레, -지, -코

ㄴ. 허여체: -ㄴ로고, -라, -멘, -어, -언, -순

ㄷ. 흡서체: -ㅂ네까, -ㅂ디가, -수까, -우까

(11)은 의문형 어미 목록이다. (11ㄱ)은 ‘허라체’ 어미, (11ㄴ)은 ‘허여체’ 어미, (11ㄷ)은 ‘흡서체’ 어미들이다.

(12) ㄱ. 건 우리 것가?

(건 우리 것이냐?)

ㄴ. 놈의 호에 강 놉 분 거라. 몽니로 놉 분 건가이?

(남의 호적에 가서 놉 버린 거야. 몽니로 놉 버린 건가?)

ㄷ. 누룩 들어가지. 누룩도 밀누룩. 또 무신거고?

(누룩 들어가지. 누룩도 밀누룩. 또 무엇이니?)

ㄹ. 삼수세긴 거 뉘엔 곤는고?

(‘삼수세기’는 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ㅁ. 옛날은 병원이 엇어 부난 어디 믿을 곳이 엇지 안허냐게?

(옛날은 병원이 없으니까 어디 믿을 곳이 없지 않니?)

ㄴ. 안네 누게 신디야?

(안에 누구 있니?)

(12)는 ‘허라체’ 의문형 어미가 쓰인 경우다. (12ㄱ)은 ‘-가’, (12ㄴ)은 ‘-ㄴ가’, (12ㄷ)은 ‘-고’, (12ㄹ)은 ‘-는고’, (12ㅁ)은 ‘-냐’, (12ㅂ)은 ‘-ㄴ디야’가 연결되었다.

(12ㄴ)의 ‘건가이’는 ‘거+-ㄴ가+이’ 구성으로, ‘이’는 확인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12ㅁ)의 ‘안허냐게’도 ‘안허+-냐+게’로, 확인이나 강조의 보조사 ‘게’가 연결되었다. (12ㄷ)과 (12ㄹ)은 의문사 ‘무신거’, ‘뭘’가 연결되어 있어서 설명 의문문으로 쓰인 경우다.

(12ㄹ)에서 ‘삼수세기’를 그냥 인용한 것은 ‘삼수세기’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무엇이나 묻는 말이기 때문이다. ‘삼수세기’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한삼덩굴’이다.

(13) ㄱ. 오널도 고사리 하영 거쨌?

(오늘도 고사리 많이 꺾었니?)

ㄴ. 어드레 감순?

(어디로 ‘감순’?)

(13)은 ‘허여체’ 어미가 쓰인 경우다. 특히 (13ㄱ)은 ‘거ㅅㅌ+-언’ 구성으로 의문형 어미 ‘-언’, (13ㄴ)은 의문형 어미 ‘-순’이 쓰였는데

의문형 어미 ‘-순’은 여성들에 의해서만 쓰인다.

(14) ㄱ. 나만 무녀 먹읍네까?

(나만 먼저 먹습니까?)

ㄴ. 그 자리 장시 빌영 담은 건 뭐 맛 좋읍디까?

(그 자리돔 장수 빌려 담근 건 뭐 맛 좋습니까?)

ㄷ. 게난 이 밤의 어디 감이우까?

(그러니까 이 밤에 어디 가십니까?)

ㄹ. 나신디 새각시 곱수까? 들어.

(나한테 새색시 곱습니까? 물어.)

(14)는 ‘흡서체’ 의문형 어미가 쓰인 경우다. (14ㄴ)의 ‘-ㅂ디가’는 ‘-ㅂ데가, -ㅂ데강’이 나타나기도 하며, (14ㄷ)의 ‘-우까’는 ‘-우강, -우과, -우꽈, -우꽈’ 등으로, (14ㄹ)의 ‘-수까’는 ‘-수가, -수강, -수과, -수꽈’ 등으로 달리 쓰이기도 한다.

④ 명령문에서의 상대 높임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요구하는 문장 형식으로, 명령형 어미가 연결됨으로써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15) ㄱ. 후라체: -(으)라

ㄴ. 후여체: -게, -어, -여

ㄷ. 흡서체: -(으)ㅂ서

(15)는 명령형 어미 목록이다. (15ㄱ)은 ‘후라체’ 어미, (15ㄴ)은 ‘후여체’ 어미, (15ㄷ)은 ‘흡서체’ 어미다.

(16) ㄱ. 쉐똥 좇어다근에 그 굴묵도 막으라.

(소똥 주워다가 그 ‘굴묵’ 입구 막아라.)

ㄴ. 경 사지 말앙 이 난간더레 올라와.

(그렇게 서지 말고 이 뒷마루로 올라와.)

ㄷ. 헌번 똥 무을에 강도 들어봅서.

(한번 똥 마을에 가셔도 물어보십시오.)

(16)은 명령형 어미가 쓰인 경우다. (16ㄱ)은 ‘후라체’ 어미 ‘-(으)라’, (16ㄴ)은 ‘후여체’ 어미 ‘-아’로, ‘올라오-+-아’ 구성이다. (16ㄷ)은 ‘흡서체’ 어미 ‘-ㅂ서’가 쓰였다.

(16ㄱ)에서 ‘굴묵도’는 ‘구들방 아궁이 입구’를 뜻한다.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바깥 공간’을 말하고, ‘도’는 ‘입구, 출입구’를 뜻하는 말이다. (16ㄷ)의 ‘들어보다’는 ‘들다+보다’ 구성의 합성어로, ‘물어보다’의 의미를 지닌다.

⑤ 청유문에서의 상대 높임

청유문은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문장 형식으로, 청유형 어미로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자, -게, -주, -어, -심, -(으)ㅂ주’ 등이 있다.

(17) ㄱ. 후라체: -자, -게

ㄴ. 후여체: -어, -심, -주

ㄷ. 흡서체: -(으)ㅂ주

(17)은 청유형 어미 목록으로, (17ㄱ)은 ‘후라체’ 어미, (17ㄴ)은 ‘후여체’ 어미, (17ㄷ)은 ‘흡서체’ 어미다.

(18) ㄱ. 웃드르 강 모멸 병뎡이영 바깥 오자.

(‘웃드르’ 가서 메밀 덩어리랑 바뀌서 오자.)

ㄴ. 톨 허영 냉국 행 먹게는 안허여. 톨 무청 먹게, 허주.

(툄 해서 냉국 해서 ‘먹게’는 앓아. 톄 무쳐서 ‘먹게’, 하지.)

ㄷ. 이 안자리레 들어오심.

(이 아랫목으로 들어오게.)

ㄹ. 놀 만이 놀아시난 이제랑 일어사쥬.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는 일어서지.)

ㅁ. 잔치 먹으레 ㄱ찌 값쥬.

(잔치 먹으러 같이 가지요.)

(18ㄱ)과 (18ㄴ)은 ‘허라체’ 어미 ‘-자’와 ‘-게’가, (18ㄷ)은 ‘허라체’ 어미 ‘-심’이, (18ㄹ)은 ‘허여체’ 어미 ‘-주’가, (18ㅁ)은 ‘흡서체’ 어미 ‘-ㅂ주’가 쓰인 경우다. 특히 (18ㄷ)의 ‘-심’은 여성에 의해서만 쓰이는 어미다. (18ㄱ)에서 ‘웃드르’는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들이나 마을’을 뜻하며, (18ㄴ)에서 ‘먹게는’, ‘먹게’라 말한 부분을 표준어로 바꿀 때 그대로 쓴 것은 인용이기 때문이다. 표준어로는 ‘먹자’로 옮길 수 있다. (18ㄴ)에서 ‘냉국’으로 적은 것은 한자 ‘冷(냉)’이 예전에는 [팅]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18ㅁ)에서 ‘잔치 먹다’는 ‘친척이나 동네 잔치에 참여하여 축하하고 차린 음식을 먹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상대 높임은 ‘마썸’ 등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19) ㄱ. 우리 어린 때난 잘 몰라마썸.

(우리 어릴 때니까 잘 몰라요.)

ㄴ. 십 년 전의만 해도 놈 허는 건 다 해나신디 이젠양 버쳐마썸.

(십 년 전에만 해도 남 하는 건 다 했었는데 이젠 부쳐요.)

ㄷ. 세상이 뭇해 갈수록 벌거지도 더 일엄서마썸.

(세상이 뭇해 갈수록 벌거지도 더 일어요.)

ㄹ. 우리 무을이 젤 큘주마썸.

(우리 마을이 젤 크지요.)

(19)는 보조사 ‘마씀’이 쓰인 경우다. (19ㄱ)은 ‘몰르-+-아+마씀’, (19ㄴ)은 ‘버치-+-어+마씀’, (19ㄷ)은 ‘일-+-엄스-+-어+마씀’, (19ㄹ)은 ‘크-+-ㅂ주+마씀’ 구성이다. ‘마씀’은 ‘마씨, 마썸, 마시, 마심, 마슴’ 등으로 나타난다.

나.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접하여 표현하는 높임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습, 줍, 습-’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한 높임말인 ‘봔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어에서도 ‘주다’, ‘말하다’ 대신에 ‘안네다’, ‘솔우다’를 써서 표현한다.

(20) ㄱ. 큰하르바님신의 잘 안네 텅 오라.

(큰할아버지한테 잘 드려 두고 와라.)

ㄴ. 하르방신의 솔와 불켄 후난 그냥 수시미악후여.

(할아버지한테 아뢰 버리겠다고 하니 그냥 무춤해.)

(20ㄱ)의 ‘안네다’는 ‘주다’의 높임말이고, (20ㄴ)의 ‘솔우다’는 ‘말

하다’의 높임말이다. ‘솔우다’는 옛말 ‘솔다’에서 온 말로, ‘솔오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준어처럼 특별한 단어에 의한 높임 표현도 있다. “춘부장은 잘 계신가?”(춘부장은 잘 계신가?), “장인, 장모님 오십시오.”(장인, 장모님 오십시오.) 따위에 쓰인 한자어들은 높임 표현이다. 한자어에 의한 높임은 표준어와 같다.

4.4.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일이 일어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시간 표현은 문법적 장치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어휘에 의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법적 장치는 어미에 의해 표현되며, 어휘는 시간 부사어나 명사 등으로 표현된다.

시간은 대개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중심으로 일이 일어난 사건시의 전후로 결정된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면 미래,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가 된다.

과거는 어말 어미 ‘-ㄴ’과 ‘-ㅁ’,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으로 표현된다.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는 선어말 어미 ‘-어-, -라-, -데-, -과-’ 등으로 나타내며, 아주 오래된 과거는 보조 용언 ‘-어나다’로 표현된다. 과거를 나타내는 어말 어미 ‘-ㅁ’은 미래의 ‘-ㅇ’과는 서로

〈표 18〉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목록

구분	사건시 발화시	사건시=발화시	사건시<발화시
	과거	현재	미래
어말 어미	-ㄴ -오	(-ㅁ)	-ㅇ
종결 어미		-다, -ㄴ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 -단	-는, -(으)ㄴ	-(으)ㄹ
선어말 어미	-어-, -라-, -데-, -과-		
보조 용언	-어나다		

혼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주로 종결 어미 ‘-다’와 ‘-ㄴ다’, 관형사형 어미 ‘-는’과 ‘-(으)ㄴ’으로 표현된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 ‘-(으)ㄴ’은 형용사에 연결된다. 현재의 어말 어미 가운데 ‘-ㅁ’을 괄호로 묶은 것은 ‘-ㅁ’이 지속의 뜻을 지녀 상(相)의 하나인 진행상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어말 어미 ‘-ㅇ’과 관형사형 어미 ‘-(으)ㄹ’로 표현된다.

어말 어미 ‘-ㄴ, -오’은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결합하여 ‘-언, -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 과거

과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앞선 때를 말한

다. 과거는 어말 어미 ‘-ㄴ’, ‘-ㅇ’,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나 ‘-단’으로 표현한다. 옛날 일을 회상할 때는 선어말 어미 ‘-어-, -라-, -데-, -과-’를 쓰며, 아주 오래된 과거는 보조 용언 ‘-어나다’로 표현한다.

(1ㄱ) ㄱ. 떡도 하엿 먹엿 가수다.

(떡도 많이 먹고 갔습니다.)

ㄴ. 밥 다 먹엿 잇언게.

(밥 다 먹어서 있던데.)

ㄷ. 섯떡 먹은 간후여 그냥 ㄱ만이 잇저.

(섯떡 먹은 듯하여 그냥 가만히 있다.)

ㄹ. 들어오멍서라 먹단 밥이라도 내어놓음센 곶아.

(들어오면서 먹던 밥이라도 내어놓으십시오고 말해.)

(1ㄱ)과 (1ㄴ)은 어말 어미 ‘-ㄴ’과 ‘-ㅇ’에 의한 과거 시간의 표현이며, (1ㄷ)과 (1ㄹ)은 관형사형 어미 ‘-은’, ‘-단’에 의한 과거 표현이다. (1ㄱ)의 ‘먹엿’의 ‘-엿’과 (1ㄴ)의 ‘먹엿’의 ‘-엿’은 보조적 연결 어미 ‘-어’에 ‘-ㄴ’과 ‘-ㅇ’이 결합된 형태다. (1ㄴ)의 ‘먹엿’이 과거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잇언게’의 ‘-어-’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데 쓰는 선어말 어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ㄹ)의 ‘들어오멍서라’는 ‘들어오면서 바로’ 하는 뜻이다.

(2) ㄱ. 반 발안 간 보난 밥 다 먹어십데다.

(반기 받아서 가서 보니 밥 다 먹었습니다.)

ㄴ. 잔치허은 멧 점 놔서라, 뭇 헤라 막 곧주.

(잔치하면 몇 점 놔더라, 뭇 했더라 마구 말하지.)

ㄷ. 초신 뒤쌍도 신어나서.

(짚신 뒤집어서도 신었었어.)

(2ㄱ)은 선어말 어미 ‘-데-’, (2ㄴ)은 선어말 어미 ‘-어-’, (2ㄷ)은 오래된 과거를 나타내는 ‘-어나다’가 쓰였다. (2ㄱ)의 ‘먹어십데다’는 ‘먹-+-어십(시+ㅅ)-+-데-+-다’로, (2ㄴ)의 ‘놔서라’는 ‘놔(놓아)-+-아시-+-어-+-라’, (2ㄷ)의 ‘신어나서’는 ‘신-+-어나-+-아스-+-어’로 분석된다.

나. 현재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시간이 말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 표현을 말한다. 현재는 관형사형 어미 ‘-는’ 또는 ‘-(으)ㄴ’이나 종결 어미 ‘-다’나 ‘-ㄴ다’로 표현된다.

(3) ㄱ. 걸궁힐 때 아이 가는 집도 잇곡.

(걸립할 때 아니 가는 집도 있고.)

ㄴ. 집의 오전 간 간 보난 막 쫄은 거라라.

(집에 가지고 가서 까서 보니 아주 좋은 거더라.)

ㄷ. 멋진 하르방이난 멋진 말만 골아.

(멋진 할아버지니까 멋진 말만 해.)

ㄹ. 이젠 허뽀 허민 다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이젠 조금 하면 다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ㅁ. 가원 가나오나 말썽인다.

(개는 가나오나 말썽이다.)

(3ㄱ)은 동사 ‘가다’ 어간 ‘가-’에 관형사형 어미 ‘-는’, (3ㄴ)은 형용사 ‘좋다’ 어간 ‘좋-’에 관형사형 어미 ‘-은’, (3ㄷ)은 형용사 ‘멋지다’ 어간 ‘멋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쓰인 경우다.

(3ㄹ)은 형용사 ‘아프다’의 어간 ‘아프-’에 종결 어미 ‘-다’가 연결되어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3ㅁ)의 ‘말썽인다’는 ‘말썽+이(서술격 조사)+-ㄴ다’로 분석되는데, 종결 어미 ‘-ㄴ다’가 쓰여 현재를 나타낸다.

표준어에서 동사와 형용사 구분은 관형사형 어미 ‘-는’의 연결 여부로 판단한다. ‘-는’이 연결되면 동사, ‘-는’이 연결될 수 없으면 형용사로 처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겠-’ 뒤에 붙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 ㄱ. 그 산디찍이 질긴 생이라.

(그 발뽕질이 질긴 모양이야.)

- ㄴ. 속췌가 질 폐랍는 생이라.
(참소가 젤 폐로운 모양이야.)

(4)는 ‘-는 생이다’ 구성의 문장이다. (4ㄱ)에서는 형용사 ‘질기다’의 어간 ‘질기-’에 현재의 시간을 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된 경우고, (4ㄴ)에서도 형용사 ‘폐랍다’의 어간 ‘폐랍-’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된 경우다. (4)의 문장 구조에서 의존 명사 ‘생’은 한자어 ‘상’(相)에서 온 어휘로, 표준어 ‘모양’(의존 명사)에 대응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용례들로 보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 어간에만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미래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난 시간이 말할 때보다 나중에 벌어질 시간을 표현한다. 미래는 어말 어미 ‘-오’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로 표현된다.

- (5) ㄱ. 갈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일 도웁미여.
(갈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일 도움이야.)
ㄴ. 개역 급히 먹당 고진다.
(미숫가루 급히 먹다가 갑신다.)

(5ㄱ)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4ㄴ)은 어말 어미 ‘-오’에 의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의 일반적인 사실 또는 장차 할 동작을 나타낸다.

라. 어휘에 따른 시간 표현

어휘에 따른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접미사 등 어휘로 표시된다.

(6) ㄱ. 모녀 온 사람부럼 반을 받는 게 차례우다.

(먼저 온 사람부터 반기를 받는 게 차례입니다.)

ㄴ. 인척 온 사람이나 느직이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느직이 온 사람이나.)

ㄷ. 말 맙서. 덩덴 후멍 여름내냥 벗언 살아수다.

(말 마십시오. 덩다고 하면서 여름내 벗고 살았습니다.)

ㄹ. 굴은 대로 물 거려 놓아십주. 글지후젠 꿈에 시꾸지 아녜덴 후여 마썸.

(말한 대로 물 떠 놓았습쥬. 그 후에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ㅁ. 그직아시날 오란 가실 거라.

(그꼬저께 왔다가 갔을 거야.)

(6ㄱ)과 (6ㄴ)은 ‘무녀, 인척, 느직이’ 시간 부사로, (6ㄷ)은 접미사 ‘-내낭’으로, (6ㄹ)은 ‘글지후제’라는 특이한 구조의 어휘로, (6ㅁ)은 ‘그직아시’라는 어휘를 붙여 순서를 나타냄으로써 시간 표현을 하고 있다. (6ㄷ)의 ‘-내낭’은 표준어 ‘-내’로,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더하거나, 때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연결되어서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6ㄹ)의 ‘글지후제’는 ‘글르후제, 그르후제’ 등으로 나타나 ‘그+(ㄹ)+지+후(後)+제[時]’ 구성을 보여준다. (6ㅁ)의 ‘그직아시날’은 ‘어제 전전 날’인 ‘그꼬저께’를 말한다. 오늘부터 사흘 전의 날이다. (6ㄹ)에서 ‘물 거러 놓다’는 ‘물 떠 놓다’의 뜻으로, ‘제사하다’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다.

〈표 19〉 날 이름

제주어	표준어
그꼬직아시날, 그직아시날또아시날	-
그직아시날, 그꼬지께	그꼬저께
그지께	그저께
어제, 어저께, 아시날	어제, 어제께
오늘, 오닐	오늘
닐, 넬, 네일	내일
모리	모레
글피	글피
글피뒗날, 제녁날, 주낙날, 저녁날	그글피

4.5. 상 표현

상(相)이란 시간 표현 가운데 동사가 지니는 동작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동작의 모습은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으며, 상 표현은 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 완료상

완료상은 어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끝난 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를 말한다.

(1) ㄱ. -어+시-

ㄴ. -어시-

ㄷ. -어ㅓ-

ㄹ. -었-

(1ㄱ)은 완료상의 구성으로,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어휘 ‘시다’[有]의 어간으로 짜여 있음을 보인 것이다. (1ㄴ), (1ㄷ), (1ㄹ)은 어미와 어휘가 결합해서 문법적 형태소로 변화된 형태들이다. (1ㄴ)은 완료상의 본래 형태, (1ㄷ)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된 경우, (1ㄹ)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의 형태를 말한다. 물론 모음 조화에 따라 ‘-아시-, -아ㅓ-, -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ㄱ. 나신디 다덜 와시냐 들어.

(나한테 다들 왔느냐 물어.)

ㄴ. 언니 때문에 그때 잘도 호강 받아수다.

(언니 때문에 그때 잘도 호강 받았습니다.)

ㄷ. 냉기지도 아년에 잘도 먹엇저.

(남기지도 않고서 잘도 먹었다.)

(2ㄱ)의 ‘와시냐’는 ‘오-+-아시-+-냐’, (2ㄴ)의 ‘받아수다’는 ‘받-+-아스-+-우-+-다’, (2ㄷ)의 ‘먹엇저’는 ‘먹-+-엇-+-저’ 구성이다. 각각 완료상의 ‘-아시-, -아스-, -엇-’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진행상

진행상은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특정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를 말한다. 진행상은 (3)유형과 (4)유형으로 나타난다.

(3) ㄱ. -어+-□

ㄴ. -엄-

(4) ㄱ. -어+-□ 시-

ㄴ. -엄시-

ㄷ. -엄ㅅ-

(3)과 (4)는 진행상의 구성이다. (3ㄱ)은 보조적 연결 어미 ‘-어’에 지속의 뜻이 들어 있는 어말 어미 ‘-ㅁ’이 결합된 구성을 보인 것이며, (3ㄴ)은 진행상의 형태이다.

(4ㄱ)은 진행상이 보조적 연결 어미, 지속의 뜻을 지닌 어말 어미 ‘-ㅁ’ 그리고 어휘 ‘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4ㄴ)과 (4ㄷ)은 어미와 어휘가 결합하여 문법소가 된 형태다. (4ㄷ)의 ‘-엄ㅅ-’을 ‘-엎-’으로 적기도 하나 어미 ‘-ㅁ’이 앞 음절의 끝소리로 올라가 ‘엄’으로 완성된 음절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ㅅ’이 앞 음절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

(3ㄴ)의 ‘-엄-’과 (4ㄴ), (4ㄷ)의 ‘-엄ㅅ-, -엄ㅅ-’은 모음 조화에 따라 각각 ‘-암-, -암ㅅ-, -암ㅅ-’으로 나타난다.

(5) ㄱ. 어디 감이니?

(어디 가니?)

ㄴ. 무사 집의만 박아점디?

(왜 집에만 박혀 있니?)

ㄷ. 무신거 먹엄디?

(무엇 먹니?)

(5)는 진행상 ‘-엄-’이 쓰인 경우다. (5ㄱ)의 ‘감이니’는 ‘가-+-암-+-이니’, (5ㄴ)의 ‘박아점디’는 ‘박아지-+-엄-+-디’, (5ㄷ)의 ‘먹엄디’는 ‘먹-+-엄-+-디’로 분석된다.

(6) ㄱ. 계난 이제사 밥 먹엄서.

(그러니까 이제야 밥 먹고 있어.)

ㄴ. 몰줄쌍 물 보레 감쩌.

(‘몰줄싸서’ 말 보러 가고 있다.)

ㄷ. 강 보민 물이 넘엄시민 또 들러다가 강 빙고 헤난.

(가서 보면 물이 넘치면 또 들어다가 가서 붓고 했었어.)

ㄹ. 수돗물로, 지금도 그자 수돗물도 먹엄수다.

(수돗물로, 지금도 그저 수돗물도 먹고 있습니다.)

ㅁ. 문 알앙 텅기멍 시방 들엄수다예.

(몽땅 알고 다니면서 시방 묻고 있습니다.)

(6)은 진행상 ‘-엄시-’ 또는 ‘-엄ㅅ-’이 쓰인 경우다. (6ㄱ)의 ‘먹엄서’는 ‘먹--+엄ㅅ--+어’, (6ㄴ)의 ‘감쩌’는 ‘가--+암ㅅ--+저’, (6ㄷ)의 ‘넘엄시민’은 ‘넘--+엄ㅅ--+민’, (6ㄹ)의 ‘먹엄수다’는 ‘먹--+엄ㅅ--+우--+다’, (6ㅁ)의 ‘들엄수다’는 ‘들--+엄ㅅ--+우--+다’ 구성이다.

이 ‘-엄ㅅ-’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6ㄱ), (6ㄹ), (6ㅁ)처럼 어미의 첫소리로 적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6ㄴ)처럼 어미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6ㄴ)에서 ‘몰줄싸다’는 ‘말이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말을 굶고 긴 줄에 걸려 단단하게 박힌 말뚝에 매어 두다.’는 뜻을 지닌 어휘이며, (6ㅁ)의 ‘들다’는 ‘묻다’[問]의 의미로 쓰인 어휘다.

진행상은 용례 (5), (6)에서 알 수 있듯 ‘가다, 박아지다, 먹다, 넘다, 듣다’ 등 모두 동사인 경우다. 그러나 (7)에서는 진행상의 선어말 어미 ‘-암시-’가 형용사 ‘족다, 좋다’에 연결되었다. 진행상 선어말 어미가 형용사에 연결될 때는 진행으로 해석되지 않고, ‘작다’, ‘좋다’ 등 기본형으로 이해된다.

(7) ㄱ. 젓 얻어먹지 못헐 **족암젠**.

(젓 얻어먹지 못해서 작다고.)

ㄴ. 어떻게 하신지 니 잡앙 놓으민 **줄암젠** 골아난.

(어떻게야 했는지 이 잡아서 놓으면 좋다고 말했었어.)

(7ㄱ)의 ‘족암젠’은 ‘족-+-암ㅅ-+-젠’ 구성으로, ‘작고 있다’로 해석되지 않는다. (7ㄴ)의 ‘줄암젠’도 마찬가지로 ‘줄-+-암ㅅ-+-젠’ 구성인데 ‘좋고 있다’로 해석되지 않는다. (7ㄱ)과 (7ㄴ) 각각은 ‘작다’, ‘좋다’로 해석된다.

(7ㄱ)은 새끼 돼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 마리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젓을 얻어먹지 못해서 제일 작다고 하는 내용이고, (7ㄴ)은 까치눈에 대한 민간요법이다. 발살이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릿니를 놓으면 좋다고 한다는 뜻이다.

4.6.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가. 사동 표현

사동은 주동과 짝이 된다. 주동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면, 사동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동 표현은 사동 접미사 ‘-리-, -이-, -지-, -기-, -우-’ 등을 연결하거나 ‘-게 하다’ 구성으로 표현된다.

(1) ㄱ. 저 오래 삼촌이 물에 빠졌 죽는 거 살렸젠 한다.

(저 오래 삼촌이 물에 빠져 죽는 거 살렸다고 한다.)

ㄴ. 속 얼마나 씩인 중 알았디야?

(속 얼마나 썩힌 줄 아니?)

ㄷ. 물에 젖은 옷 벗기젠 허난 벗겨질 거라.

(물에 젖은 옷 벗기려고 하니 벗겨질 거야.)

ㄹ. 자는 아이 깨우지 말라.

(자는 아이 깨우지 마라.)

ㅁ. 서방 얻지젠 노력한 거 잘 물을 거우다.

(서방 얻게 하려고 노력한 거 잘 모를 겁니다.)

ㅂ. 산에 올랐 풀 뜯어먹게 허여 텅 오노렌.

(산에 올라 풀 뜯어먹게 해 두고 온다고.)

(1)은 사동문의 용례들이다. (1ㄱ)에서 (1ㅌ)까지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다. (1ㄱ)의 ‘살리다’, (1ㄴ)의 ‘썩이다’, (1ㄷ)의 ‘벧기다’, (1ㄹ)의 ‘깨우다’, (1ㅍ)의 ‘얻지다’ 등은 각각 ‘살다, 썩다, 벧다, 깨다, 얻다’는 주동사의 사동사들이다. (1ㅍ) ‘-지-’의 연결은 많은 어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동 접미사다. ‘눅다-눅지다, 웃다-웃지다, 신다-신지다, 입다-입지다, 굶다-굶지다’ 등이 짝을 이룬다. (1ㅂ)은 ‘-게 하다’라는 보조 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다.

나. 피동 표현

피동은 능동과 짝이 된다. 능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이라면, 피동은 남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동은 피동사에 의한 것과 ‘-어지다, -게 되다’ 구성으로만 들어진다.



〈그림 16〉 귀창 터지게 들리는 건 ‘수박삽서’

(2) ㄱ. 잘못 허연 문트멍에 손이 끼얏제 골아라.

(잘못 해서 문틈에 손이 끼었다고 말하더라.)

ㄴ. 귀청 터지게 들리는 건 수박 삼서 허는 소리라.

(귀청 터지게 들리는 건 수박 사십시오 하는 소리야.)

ㄷ. 뽕뽕 허는 구급차에 실려 갓젠 헤라.

(앵앵 하는 구급차에 실려서 갔다고 하더라.)

ㄹ. 질레서라도 만나게 뒤통랑 집더레 보네줍서.

(길에서라도 만나게 되거든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2ㄱ~ㄷ)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다. 각각 ‘끼다-끼이다, 듣다-들리다, 신다-실리다’로 서로 짝을 이룬다. (2ㄹ)은 ‘-게 뒤통’ 구성에 의한 피동문이다.

4.7.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이란 말이나 문장으로써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표현을 말한다. 대개 부정 부사인 ‘안, 아니, 못’이나 보조 동사 구성인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로 표현된다. 행동의 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 말다’ 구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 ㄱ. 이젠이 오월 나도 귀살이 옴지 아냐.

(이젠 오월 되도 성계가 여물지 않아.)

ㄴ. 대소상칩의 떡 허레덜 가민 쨌기떡 허나 아니 준 게 큰 송이라.

(대소상 집에 떡 하러들 가면 쨌기떡 하나 아니 준 게 큰 흥이야.)

ㄷ. 비료 나난 부제가 낫지, 비료 안 난 땀 다 가난행 얻어먹으레 덩겨서.

(비료 나니까 부자가 낫지, 비료 안 난 땀 다 가난해서 얻어먹으러 다녔어.)

ㄹ. 조밥도 엇언에 못 먹어서.

(조밥도 없어서 못 먹었어.)

ㅁ. 보리 비 맞아 불민 다 물 들엉 타작하지 못허주게.

(보리 비 맞아 버리면 다 물 들어서 타작하지 못하지.)

ㅂ. 동네 아으그라도 심장 후꿈 뭐 할 때는 지픈 디 가지 말라, 경 글아져.

(동네 아이더라도 심장 조금 뭐 할 때는 깊은 데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게 돼.)

(1)은 부정 표현의 용례들이다. (1ㄱ)의 ‘옴지 아녀’, (1ㄴ)의 ‘아니’, (1ㄷ)의 ‘안’ 등은 ‘안’ 부정에 속하며, (1ㄹ)의 ‘못’과 (1ㅁ)의 ‘타작하지 못허다’는 ‘못’ 부정, 그리고 (1ㅂ)의 ‘-지 말라’는 금지를 뜻하는 ‘말다’ 부정이다.

가. ‘안’ 부정

‘안’ 부정은 부정 부사 ‘아니’나 ‘아이’, ‘안’ 또는 ‘-지 아니하다’에 의해 표현되는 부정이다.

(2) ㄱ. 피 고고리 발로 보비니 이 발이 아니 남아. 다 벗겨져.

(피 이삭 발로 비비니 이 발이 아니 남아. 다 벗겨져.)

ㄴ. 우린 남평날은 아이 들어봐서.

(우린 남평은 아니 들어봤어.)

ㄷ. 막떡은 젊은 사름덜은 안 먹는 거난 안 줘.)

(‘막떡’은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 거니 안 줘.)

ㄹ. 한 사름이 조름에서 이끄고 두의서 훼초리로 따리곡 해도 원 건
지 아니허는 쉼가 이서마씨.

(한 사람이 꿈무니에서 이끌고 뒤에서 훼초리로 때리고 해도 원
건지 않는 소가 있어요.)

ㅁ. 도래떡 하나에 술 한잔. 술도 무음대로 먹도록 주지 아니셔.

(도래떡 하나에 술 한잔. 술도 마음대로 먹도록 주지 않았어.)

(2ㄱ)에서는 ‘아니’, (2ㄴ)에서는 ‘아이’, (2ㄷ)에서는 ‘안’, (2ㄹ)과 (2ㅁ)에서는 ‘-지 아니허다’로 부정 표현을 하고 있다. ‘아니’와 ‘아이’는 부정 부사이고, (2ㄷ)의 ‘안’은 부정 부사 ‘아니’의 준말이다. ‘-지 아니허다’가 쓰인 (2ㄹ)과 (2ㅁ)은 조금 차이가 있다. 곧 (2ㄹ)이

단순 부정이라고 한다면 (2ㄱ)은 의지 부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ㄴ)에서 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2ㄱ)의 ‘아니 남아’는 ‘남지 아녀’로, (2ㄴ)의 ‘아이 들어봐서’는 ‘들어보지 아녀서’, (2ㄷ)의 ‘안 먹는’은 ‘먹지 아녀는’, ‘안 쥐’는 ‘주지 아녀’로, (2ㄷ)의 ‘걷지 아니허는’은 ‘아니 걷는’ 또는 ‘안 걷는’, (2ㄱ)의 ‘주지 아녀서’는 ‘아니 주어서’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나. ‘못’ 부정

‘못’ 부정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 부사 ‘못’과 ‘-지 못허다’ 구성으로 나타난다.

(3) ㄱ. 애기가 심웁이 굶이면은 더운 국물 훈 사발도 못 얻어먹넨 헤나 수다.

(아기가 심보가 굶으면 더운 국물 한 사발도 못 얻어먹는다고 했었습니다.)

ㄴ. 주병이보린 방에 못 지어도 솔보리는 방에 지언 밥헤연 먹었 수게.

(맥주보린 방아 못 찢어도 쌀보리는 방아에 찢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ㄷ. 놈 곱져 불민 거 춌지 못허영도 못허곡.

(남 숨겨 버리면 거 찾지 못해서도 못하고.)

(3ㄱ)과 (3ㄴ)은 부정 부사 ‘못’에 의한 부정 표현이며, (3ㄷ)은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 표현이다. (3ㄱ)의 ‘못 얻어먹넌’은 ‘얻어먹지 못헌넌’, (3ㄴ)의 ‘못 지어도’는 ‘지지 못해도’, (3ㄷ)의 ‘찾지 못허영도’는 ‘못 찾앙도’로 바꿀 수 있다.

다. ‘말다’ 부정

‘말다’ 부정은 행동을 금지하는 표현으로, 보조 동사 ‘말다’에 의해서 표현된다. ‘-지 말다’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다’ 부정은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쓸 수 있다.

(4) ㄱ. 옛날도 송년에 밭 폴지 말렌 해서. 대신 혼 입 덜렌 헛주.

(옛날도 흥년에 밭 팔지 말라고 했어. 대신 혼 입 덜라고 했지.)

ㄴ. 메주 굿게 뜨는 수도 잇고 허니까 몸 굿인 사름일랑 보지 말렌 허여.

(메주 굿게 뜨는 수도 잇고 하니까 몸 굿은 사름은 보지 말라고 해.)

ㄷ. 늬어 부난 날궂라 묵도 허지 맙서, 둠비 사당 허쿠다, 경.

(늬었으니 날더러 묵도 하지 마세요, 두부 사다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4)는 ‘-지 말다’가 명령문에 쓰인 경우다. (4ㄱ) ‘폴지 말렌’의 ‘말렌’은 명령형 어미 ‘-라’에 인용격 조사 ‘엔’이 결합되어 ‘폴지 말렌’이 된 것이고, (4ㄴ)의 ‘보지 말렌’도 (4ㄱ)과 같이 명령형 어미 ‘-라’에 인용격 조사 ‘엔’이 결합되어 ‘보지 말렌’이 된 것이다. (4ㄷ)의 ‘히지 맏서’의 ‘-ㅁ서’는 상대 존대의 명령형 어미이다.

(5) ㄱ. 우리 보리 해근에 보리밥 헝 먹어근에 못 구웁 먹지 말게.

(우리 보리 해서 보리밥 해 먹어서 무릇 구워서 먹지 말자.)

ㄴ. 요번이랑 우리 가지 말겐 해도 보문 무안헝질 거 님안에 가와수 다게.

(요번에는 우리 가지 말자고 해도 보면 무안할 거 같아서 다녀왔 습니다.)

ㄷ. 우리 각시신디랑 곤지 말주이.

(우리 각시한테랑 말하지 말지.)

(5)는 청유문인 경우다. (5ㄱ)의 ‘먹지 말게’의 ‘-게’가 청유형 어미이며, (5ㄴ)의 ‘가지 말겐’의 ‘겐’은 청유형 어미 ‘-게’에 인용격 조사 ‘엔’의 축약형 ‘ㄴ’이 결합된 형태다. (5ㄷ)의 ‘곤지 말주이’에서는 ‘-주’가 청유형 어미다. ‘말다’ 부정은 동사인 경우에 한한다.

또 부정 표현은 어휘 ‘아니다’, ‘웃다, 엇다’(없다)에 의해서 표현되 기도 한다.

(6) ㄱ. 떡 하나 못 얻어먹엇젠 곧는 말이 아니여.

(떡 하나 못 얻어먹었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야.)

ㄴ. 물릇 하나토 엇어. 약 허젠 해도 웃어.

(무릇 하나도 없어. 약 하려고 해도 없어.)

(6ㄱ) ‘말이 아니여’의 ‘아니여’는 ‘아니다’의 활용으로, ‘이다’의 부정어이고, (6ㄴ)의 ‘엇어’나 ‘웃어’는 ‘잊지 아녀’로 대신 표현할 수 있어서 부정 표현으로 본다.

4.8. 추측·짐작 표현

추측이나 짐작 표현은 미루어 생각하거나 어림잡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ㄴ/-는/-ㄴ 생이다’, ‘-ㄴ/-ㄴ 거 닮다’, ‘-ㄴ직ㅎ-, -음직ㅎ-, -엄직ㅎ-’, ‘-크-’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ㄴ/-는/-ㄴ 생이다’는 의존 명사, ‘-ㄴ/-ㄴ 거 닮다’는 형용사, ‘-ㄴ직ㅎ-, -음직ㅎ-, -엄직ㅎ-’는 중첩된 접미사, ‘-크-’는 선어말어미에 의한 표현들이다.

가. -ㄴ(-는/-ㄴ) 생이다

의존 명사 ‘생’에 따른 추측 표현이다.

- (1) ㄱ. 떡 안 돼가만 아이고, 송본 쟁이여, 떡 칠 때 그처럼.
 (떡 안 되어가면 아이고, 흥본 모양이야, 떡 찌릴 때 그처럼.)
 ㄴ. 비만 오면 비 오는 영등 들어온 쟁이여.
 (비만 오면 비 오는 ‘영등’ 들어온 모양이야.)
- (2) ㄱ. 꿩은 가족은 안 먹는 쟁이랍니다.
 (꿩은 가족은 안 먹는 모양입니다.)
 ㄴ. 쉼하고 물이 감저꿀을 잘 먹어. 막 부드럽는 쟁이라.
 (소하고 말이 고무마줄기를 잘 먹어. 아주 부드러운 모양이야.)
- (3) ㄱ. 급전이 필요허난 막 싸게 팔 쟁이라마씨.
 (급전이 필요하니 아주 싸게 팔 모양이에요.)
 ㄴ. 바당알이 거멍허영 비 하영 올 쟁이여.
 (‘바당알’이 거멍에서 비 많이 올 모양이야.)

(1), (2), (3)은 각각 ‘-ㄴ 쟁이다’, ‘-는 쟁이다’, ‘-ㄴ 쟁이다’ 구성이다. 이 구성은 ‘관형사형 어미+의존 명사+서술격 조사’ 구성이다. 곧 ‘-ㄴ, -는, -ㄴ’은 관형사형 어미로, 각각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표시한다. 의존 명사 ‘쟁’은 한자어 ‘상’(相)에서 온 말로, 표준어 또한 의존 명사 ‘모양’에 대응하는 단어다.

(1)은 과거의 추측이나 짐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담당하고 있다. (1ㄱ), (1ㄴ)은 각각 어간 ‘송보-’, ‘들어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연결되어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다. (1ㄴ)에서 ‘영등’은 영등신으로, 음력 2월 1일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

로 들어와서 2월 15일 우도(牛島)를 거쳐 제주를 떠난다고 한다.

(2)는 현재의 추측이나 짐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2ㄱ)은 동사 어간의 ‘먹-’에, (2ㄴ)은 형용사 어간 ‘부드럽-’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된 경우다. 특히 (2ㄴ)의 ‘부드럽다’는 형용사인데도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된 특이한 경우다. 여기서 ‘감저꿀’은 ‘고구마줄기’를 말하는데, 달리 ‘감저줄, 감저출, 감젯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말려서 소나 말의 식량으로 쓴다.

(3)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다. (3ㄱ)의 ‘폴’은 ‘폴다’의 어간 ‘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연결된 형태이며, (3ㄴ)의 ‘올’은 ‘오다’의 어간 ‘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연결된 형태다. 여기서 ‘바당알’은 ‘바다 아래’ 즉, 바닷속을 의미한다.

나. -ㄴ(-ㄴ) 거 닳다

형용사 ‘닳다’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

(4) ㄱ. 베엠이 그딴 사는 거 닳아. 이 집직이로.

(뱀이 거기 사는 거 같아. 이 집지킴으로.)

ㄴ. 성복이 똥인디 몰라. 이젠 구신이 다 똥다 하느 거 닳아.

(성복이 똥지 몰라. 이젠 귀신이 다 똥다 하는 거 같아.)

(5) ㄱ. 술 손가락으로 영 반양 어른덜 맛보는 거 영 허민이 그냥 불부들

거 닦아, 독해.

(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른들 맛보는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불붙을 거 같아, 독해.)

ㄴ. 갯누물, 건 메왕도 못 먹을 거 닦아.

(갯, 건 매워서도 못 먹을 거 같아.)

(4ㄱ)의 ‘사는 거 닦아’는 현재 사실에 기반을 둔 추측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연결되어 표현되었다. ‘집직이’는 집안을 지켜주는 칠성신인 뱀을 뜻한다. 제주 민속에서 칠성은 집안에 따라서 고방에 모시기도 하고, 장독대가 있는 집 뒤 공간에 모시기도 한다. 안에 모시면 ‘안칠성’, 밖에 모시면 ‘밭칠성’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는데, (4ㄱ)은 ‘밭칠성’에 해당한다. (4ㄴ)은 성복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는’이 결합되어 있다.

(5ㄱ)은 소줏고리에 고는 술에 관한 내용으로, 술이 독해서 불붙을 것 같다는 말이다. 앞으로 올 일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었다. (5ㄴ)에서도 미래를 나타내기 위하여 관형사형 어미 ‘-ㄴ’이 연결되었다.

(4)와 (5)의 ‘닦다’는 (6)의 동사 ‘닳다’와는 다른 단어이다.

(6) 아방 닳은 아덜 었나.

(아버지 닳은 아들 없다.)

다. -ㄹ직ㅎ-, -음직ㅎ-, -엄직ㅎ-

접미사 ‘-ㄹ직-, -음직-, -엄직-’과 접미사 ‘-ㅎ-’가 중첩된 ‘-ㄹ직ㅎ-, -음직ㅎ-, -엄직ㅎ-’ 형태도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118~119쪽 참조)

(7) ㄱ. 밤은 왁왁 어둡지, 차도 그땐 엇엇고. 밤질, 참 귀신이나 남직헌 때 걸언 와난 기억이 이제도 잊어불지 못허여.

(밤은 캄캄 어둡지, 차도 그땐 없엇고. 밤길, 참 귀신이나 남직할 때 걸어서 왔던 기억이 이제도 잊어버리지 못해.)

ㄴ. 중진허젠 허민 새각시 싯젠 헌 그 집의 친헌 사름으로, 그 사름 말 들엄직헌 사름이 내왕허멍 허는 거주게.

(중신하려고 하면 새색시 있다고 한 그 집과 친한 사름으로, 그 사름 말 들음직한 사름이 내왕하며 하는 거지.)

ㄷ. 비 오람직허믈 지직 헛당 창문 앞의 세우믈 비 아니 들이빠주.

(비 오믹하면 기직 헛다가 창문 앞에 세우면 비 아니 들이치지.)

ㄹ. 주춧돌은 허염직헌 거 봉가당 밑에다 놓고.

(주춧돌은 하염직한 거 주워다가 밑에다 놓고.)

(7ㄱ)의 ‘남직헌’은 ‘날 거 같은’의 뜻이며, (7ㄴ)의 ‘들엄직헌’은 ‘들을 거 같은’, (7ㄷ)의 ‘오람직허믈’은 ‘올 거 같은’, (7ㄹ)의 ‘허염직헌’은 ‘할 거 같은’의 뜻으로 쓰였다. 표준어에 ‘먹음직하다, 보암직하

다, 하염직하다’ 등의 단어가 있어서 표준어 대역도 ‘남직한, 들음직한, 움직한, 하염직한’으로 하였다.

접미사 ‘-음직ㅎ-, -엄직ㅎ-’ 등은 용언이나 상황에 따라 ‘~할 만하다.’ 하는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8) ㄱ. 상제덜 이녁 짝만씩 멕인다. 고기도 아정 가고 기자 먹음직한 걸로 해근에.

(상제들 이녁 뭇만씩 먹인다. 고기도 가지고 가고 그저 먹음직한 걸로 해서.)

ㄴ. 말도 들엄직허게 곱아. 말쌈이 좋으난게.

(말도 들음직하게 말해. 말쌈이 좋으니까.)

(8ㄱ)은 동사 ‘먹다’에 따른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8ㄴ)은 상황에 따른 가치를 뜻하는 경우다. (8ㄱ)의 ‘먹음직허다’는 ‘먹을 만하다’는 뜻이고, (8ㄴ)의 ‘들엄직허다’는 ‘들을 만하다’는 의미다. 특히 (8ㄴ)의 ‘들엄직허다’는 앞 (7ㄴ)의 ‘들엄직허다’와는 뜻하는 바가 다른데, 상황에 따라 (7ㄴ)은 ‘들을 거 같은’, (8ㄴ)은 ‘들을 만한’으로 갈린 것이다.

라. -크-

선어말 어미 ‘-크-’에 의해서도 추측을 나타낸다. (9)의 용례가 그것들이다.

(9) ㄱ. 비 한 시간만, 아니 한 십 분만 더 오민 조물크라렌.

(비 한 시간만, 아니 한 십 분만 더 오면 잠기겠더라고.)

ㄴ. 큰일나크라 헨에 동지에 방서로 꾀죽 쑤어서 먹는 거라.

(큰일나겠어 해서 동지에 방사로 팔죽 쑤어서 먹는 거야.)

ㄷ. 장갑 아이 쩡 하간 일 해 보라. 이디 거심 안 일크냐게? 손가락
마다게.

(장갑 안 껴서 온갖 일 해 봐라. 여기 거스러미 안 일겠니? 손가락
락마다.)

(9ㄱ)의 ‘조물크라렌’의 ‘-크-’는 ‘잠기겠더라고’의 ‘-겠-’에 대응하
며, (9ㄴ)의 ‘큰일나크라’의 ‘-크-’와 (9ㄷ)의 ‘일크냐게’의 ‘-크-’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9ㄴ)에서 ‘방서’는 한자어 ‘방사’(防邪) 곧 사
악함을 막는 일을 말한다.

또 ‘-크-’는 (10)처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10) 그때가 한 열대엿 뉼 때난 난 잘 모르크라.

(그때가 한 열대엿 된 때니 난 잘 모르겠어.)

(10)의 선어말 어미 ‘-크-’는 1인칭인 ‘나’와 관련 있을 때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9)의 추측을 담당하는 ‘-크-’와는 그 기능
이 다르다.

5. 메친은 어께끈게 어께끈 어휘

- 5.1. '제주바당'을 건너온 문헌어
- 5.2. 선비 따라온 한자어
- 5.3. 국경을 넘어온 몽골어
- 5.4. 특이 어휘
- 5.5. 반복어와 흥내말
- 5.6. 잊히는 부분 명칭

제주어
길라잡이

“메친은 어깨끈게, 어깨끈.” 이 말은 “‘메친’은 어깨끈, 어깨끈.” 하는 뜻이다. 예전에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물옷의 왼쪽 어깨끈도 ‘메친’이라고 한다. ‘메-’로 시작하는 ‘메다, 메어붙이다, 메어치다, 메어꽃다’ 등이 ‘어깨’ 또는 ‘어깨 너머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메’가 어깨임을 짐작하게 한다.

5. 메친은 어깨끈계 어깨끈 어휘

“메친은 어깨끈계, 어깨끈.” 이 말은 “‘메친’은 어깨끈, 어깨끈.” 하는 뜻이다. 예전에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물옷의 왼쪽 어깨끈도 ‘메친’이라고 한다. ‘메-’로 시작하는 ‘메다, 메어붙이다, 메어치다, 메어꽃다’ 등이 ‘어깨’ 또는 ‘어깨 너머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메’가 어깨임을 짐작하게 한다.

상례 때 상제가 입관 전에 입었던 복장을 보면, ‘메’가 어깨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사진 16〉은 입관 전 상제 복장으로, 한쪽 어깨를 벗고 있다. 이를 옛말에서는 ‘메뺏다’라 한다. ‘메뺏다’는 ‘메’(어깨)와 ‘뺏다’(벗다)의 합성어로, ‘어깨를 벗다’는 뜻이다.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1992:5055)은 ‘메뺏다’를 “공경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한쪽 어깨를 벗어 메다.”라 풀이하고 있다.

또 《예기》(4권, 〈단궁〉 하, 22항)에서는, “옷을 벗어 어깨를 드



〈사진 16〉 입관 전 상제의 복장. 왼쪽 어깨를 벗은 ‘건옷’을 입고, ‘건두건’을 쓰고 있다. ‘건두건’은 ‘통두건’이라고도 한다.(사진 강영봉)

러낸다.”를 “슬픔이 심할 경우에는 소매를 벗고, 슬픔이 줄어들면 옷을 입는다.”라 풀이하고 있다.

《고려사절요》(권19, 원종 순효대왕 2년-1273년)에는, “김통정은 그 무리 70여 명을 거느리고 산중으로 도망하여 들어가고, 적장 이순공(李順恭)·조시적(曹時適) 등은 한쪽 어깨를 벗고 나와서 항복하였다.”는 구절도 있다.

이런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어깨 벗는 일’은 ‘예를 표하기 위하여, 슬픔이 심할 경우, 항복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 무가인 <세경본풀이>에는, “인간 살아 바쁠 때, 부모 죽어 초상 만난 때가 바쁜 때가 돼니, 부모 죽어 성복 전의 통두건 쓰기 마련히고 두루막(두루마기)은 한 독지(어깨)에 걸치는 법을 마련히고, 여상제는 머리 풀어 찹깍(짚대)으로 머리 무끄기(뭍기) 마련히여 법지법(법) 서련흠데다(마련합디다).”라는 구전 내용이 전하기도 한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359).

5.1. ‘제주바당’을 건너온 문헌어

제주도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는 ‘언어의 섬’이다.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제주바당’은 언어 이동의 장애물이 된다. 이 장애물이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들어온 말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니 어쩔 수 없이 예전 말을 쓸 수밖에 없다.

(1) ㄱ. 사름은 괘는 뿔로 간다.

(사람은 괴는 대로 간다.)

ㄴ. 골레기가 연년생보담은 키우기 좋다.

(쌍둥이가 연년생보다는 키우기 좋다.)

ㄷ. 칼 보미언 못 씨키여게.

(칼 녹슬어서 못 쓰겠어.)

ㄹ. 느쟁이론게 느쟁이떡 행 먹곡게.

(나깨로는 나깨떡 해서 먹고.)

ㅁ. 한복엔 돌마기 돌안에 입어.

(한복엔 매듭단추 달아서 입어.)

(1ㄱ)의 ‘괘다’는 옛말 ‘괴다’에서 온 말로,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의 뜻이다. (1ㄴ)의 ‘골레기’는 ‘쌍둥이’ 뜻으로, 옛말 ‘굶다’에서 온 말이다. ‘굶다’는 ‘나란하다’의 뜻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굴른오름’도 ‘굶다’에서 연유한 오름 이름이다. 한자로 병악(並岳)이라 표기한 것에서 확인된다. (1ㄷ) ‘보미다’는 《훈몽자회》의 “銚 쇠 보밀 생”, “鏤 쇠 보밀 수” 등의 ‘보미다’가 제주어 ‘보미다’로 쓰이고 있다. (1ㄹ) ‘느쟁이’는 《동의보감》의 “모밀 느쟁이”에서 ‘느쟁이’가 ‘느쟁이’ 또는 ‘느쟁이’로, (1ㅁ) ‘돌마기’는 《박통사언해》의 “돌마기를 너모 크게 말고”(매듭단추를 너무 크게 말고)의 ‘돌마기’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1ㄴ) ‘연년생’의 ‘쟁’을 ‘쟁’으로 쓴 것은 한자 ‘生’의 옛날 발음이 [싱]이기 때문이다.

제주어에 고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래아’[ㄹ], ‘ㅣ’와 ‘아래아’의 합음인 ‘쌍아래아’[ㄹ]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ㄱ. 이사허믄 ㅍ 낱 ㅍ밥을 허영 논놔.

(이사하면 팔 놔서 팔밥을 해서 나누어.)

ㄴ. ㅇ둑 솔 안 톨 때 학교에 부쳐실 거라.

(여덟 살 안 되었을 때 학교에 붙였을 거야.)

(2ㄱ)의 ‘ㅍ’은 15세기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 나오는 어휘이며, (2ㄴ)의 ‘ㅇ 둑’은 18세기 《훈민정음운해》의 ‘ㅇ 둑’에서 온 어휘이다.

방언형은 가끔 옛말과는 형태를 달리하여 쓰이기도 한다.

(3) ㄱ. 빙에기 깨왕 내불민 ㅇ영에도 뎡기멍 주녕이고 벌거지고 봐지민
쫓어 먹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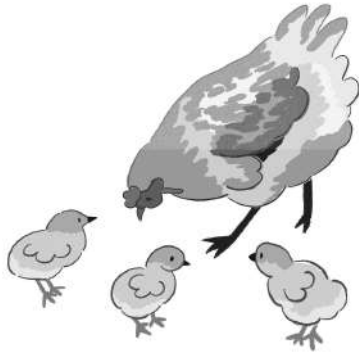
(병아리 깨어서 내버리면 터알에도 다니며 지네고 벌거지고 보이면 주워 먹고.)

ㄴ. 여름 나믄 그 밀 해서 시벌강허게 상웨떡이렌 해서 제물떡 행 오고.

(여름 되면 그 밀 해서 시벌겅게 ‘상웨떡’이라고 해서 제떡 해서 오고.)

(3ㄱ)의 ‘우영’은 달리 ‘우연, 위연’이라 하는데, 옛말 ‘위안’에서 온

말이다. 《훈몽자회》에서 한자 ‘원’(園)을 “위안 원”이라 한다든가 《두시언해》의 “위안해 토란과 바물 거두워드릴시”(위안에 토란과 밤을 거두어들이므로) 등에서 ‘위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암탉과 병애기

(3ㄴ)의 ‘상웨떡’은 인용이기 때문에 표준어로 대역하는 괄호 속도 ‘상웨떡’이라고 하였지만 대응 표준어는 ‘상화떡’이다.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찢음식’을 말한다. “쌍화점에 쌍화 사라 가고신딘 회회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로 시작하는 고려가요의 하나인 〈쌍화점〉의 ‘쌍화’가 제주로 건너와서 ‘상웨떡’이 된 것이다.

(3ㄴ)의 ‘제물떡’은 ‘친척 집에 제사가 있거나 상이 났을 때 제물로 만들어 가는 떡’을 말한다. 곧 ‘제떡’이다.

(4) 옛말 몇 어휘

옛말

제주어

표준어

곶

고장

곶

구송	구송	꾸중, 꾸지람
구시	구시	구유
귀머리	귀마리	발목
궂궂다	궂므꼬다	삐다
궂기다	궂끼다	갑시다
궂애	궂세	가위
나시	난시	냉이
누리	놀	가리
누리다	놀다	가리다
동숫	동숫	옹달술, 옹술
덜다	짚다	때다
딤동	짚뎡이	짚동
마다	말다	싫다
멀더구니	멀터거니	멀떠구니, 모이주머니
보수	보시	보시기
불지	불치	재
빙다	삐다	뿌리다
뽕	뽕	뽕
삭다리	삭다리	삭정이
산태	산태	(들 것)
수망	수망	사망(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솟	솟	새끼

얼멍이	얼멍이	어레미
жат	жат	성
집업슨돌팡이	집웃인돌벙이	민달팽이
하외욜	하우염	하품

(4)의 어휘 가운데 ‘딛다’와 ‘딛동’은 구개음화되어 ‘짚다, 짚동’으로 쓰인다. ‘딛동>짚동’은 ‘짚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을 뜻하나, 방언형 ‘짚뎡이’는 ‘상이 낫을 때 상제 앞에 놓는, 상장 길이만큼 길고 굽직하게 묶은 짚단’으로, 의미에 차이가 있다. ‘짚뎡이’는 달리 ‘북세미, 북시미, 북침, 짹동, 짹다불, 짹동’이라 한다.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만들어 앞뒤로 들게 된 기구’인데, 사다리로 쓰기도 한다.

‘수망’은 ‘장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 재수’ 또는 ‘좋은 일이 있을 운수’로, ‘수망일다’로 쓰인다. ‘집업슨돌팡이’는 17세기 초 《동의보감》에 나오는 어휘로, ‘집’ 대신에 ‘웃’, ‘봣’이 연결되어 ‘웃벗은돌벙이’, ‘봣벗은돌벙이’라고도 한다.

5.2. 선비 따라온 한자어

국어와 마찬가지로 제주어에도 한자 어휘가 많다. 많은 선비가 유배나 제주에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미루어 짐작하는

바지만, 이는 제주어에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ㄱ. 빼달이 소곰에 화제(和劑)를 내어 놓안 이신 거라.

(서랍 속의 화제를 내어 놓아서 있는 거야.)

ㄴ. 이 미선(尾扇)으로 푸끔시라.

(이 미선으로 부치고 있어라.)

ㄷ. 밧 값 너미 호리(豪釐)보안 풀지 아녀수다게.

(밭 값 너무 ‘호리보아서’ 팔지 않았습니다.)

ㄹ. 죽은상제(喪制) 좇아보라게, 손님 왔저.

(‘작은상제’ 찾아보라, 손님 왔다.)

ㅁ. 배 소(鱸) 먹으믄 못 써.

(배 소 먹으면 못 써.)

ㅂ. 아이렌 하시(下視)보지 맙서예.

(아이라고 하시하지 마세요.)

ㅅ. 맛도 그릇에 달라. 보시에 놓은 것광 시접(匙牒)에 놓은 것이.

(맛도 그릇에 달라. 보시기에 놓은 것과 시접에 놓은 것이.)

(1ㄱ)은 월계 진좌수에 대한 이야기다. 진좌수는 정말로 신통한 명
의였으니 죽은 다음에도 찾아올 손님을 위하여 ‘화제’(和劑)를 내어
서 서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화제’는 ‘한약 처방’ 곧 요
즘의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1ㄴ)의 ‘미선’(尾扇)은 방구부채의 한

종류로, 대오리 한끝을 가늘게 쪼개어 둥글게 펴고 실로 엮은 뒤, 종
이로 앞뒤를 바른 둥그스름한 모양의 부채를 말한다. 주로 불을 부
칠 때나 다리미질을 할 때, 약을 달일 때 숯불의 재를 부쳐서 날리는
데 사용하므로 ‘불부채’ 또는 ‘다림부채’라고도 한다. (1ㄷ)의 ‘호리’
는 자나 저울눈의 ‘호’(毫)와 ‘이’(釐)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적은 분
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뺏 값 호리보다’는 결국 ‘뺏
값을 제대로 쳐 주지 아니하다.’는 뜻이다.

(1ㄹ)의 ‘상제’(喪制)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상중에 있
는 사람’을 말한다. 상제 가운데 주가 되는 상제를 ‘상주’라고 하는
데, 대개는 큰아들이나 큰손자가 된다. 제사 모실 사람이 상주다. ‘죽
은상제’는 ‘상중에 있는 막내아들’을 말한다.

(1ㅁ)의 ‘소’(蝸)는 ‘나무배의 바닥을 쏘는 좀’을 말한다. 이 ‘소’는
최남선(崔南善)의 《신자전》(권4) ‘조선속자부’에 “蝸[쇼] 穴舟虫배
좀”이라 하였다. “배에 구멍을 내는 벌레는 배좀”이라는 것이다. 한
편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2) ‘우리나라에는 자전에도 없는 글
자가 많다’ 항에서도 “물건이 오래되어 벌레가 쏜 것을 ‘소 먹었다’
라 한다. 음은 [쇼]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라는
것이다. (1ㄴ)의 ‘하시보다’는 한자어 ‘하시’(下視)의 ‘시’(視)와 고유
어 ‘보다’가 겹쳐 쓰인 경우로, ‘남을 낮추어 보다.’는 뜻
이고, (1ㄷ)의 ‘시접’(匙楫)은 ‘수저를 담아 놓는 그릇’을 말한다.

한자어는 조금 굴절되어 쓰이기도 한다.

(2) ㄱ. 소분허는 사름 엇이믄 골충 뉘는 겁주.

(별초하는 사람 없으면 고충 되는 거지요.)

ㄴ. 경헤 베도 구눕은 지각헌 사름이우다.

(그래 보여도 궁핍은 그득한 사람입니다.)

ㄷ. 헤여 뎡기는 게 꼭 숭시 남직헤라게.

(해 다니는 게 꼭 흉사 남직하더라.)

ㄹ. 어떻사 숭악헌지.

(어찌나 흉악한지.)

ㅁ. 이 빙떡이라도 먹읍서.

(이 ‘빙떡’이라도 드십시오.)

ㅂ. 웨가에 식게 먹으레 갓다와수다.

(외가에 제사 참례하러 다녀왔습니다.)

ㅅ. 어떻 허당 보난 허멩이문세 뉘어 불언게.

(어찌 하다 보니 쓸모없는 문서 되어 버렸어.)

(2ㄱ)의 ‘골충’은 ‘묘지를 찾을 수 없거나 대가 끊기어 별초를 못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무덤’을 말하는데, 한자어 ‘고충’(古塚)에서 온 말이다. 여기서 ‘소분허다’의 ‘소분’은 한자어 ‘소분’(掃墳)으로,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뜻하나 ‘별초’(伐草)의 의미로도 쓰인다.

(2ㄴ)의 ‘구눕’은 ‘궁핍’(窮凶), (2ㄷ)의 ‘숭시’는 ‘흉사’(凶事)에서 온 말이다. (2ㄹ)의 ‘숭악’은 ‘흉악’(凶惡)에서 온 말이고, (2ㅁ) ‘빙떡’의

‘빙’은 떡을 뜻하는 한자어 ‘병’(餅)에서 온 말이다. ‘빙떡’은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어휘다.

(2b)의 ‘식게’는 한자어 ‘식가’(式暇)에서 온 말이다. ‘식가’는 “관원에게 주던 정기 휴가. 집안의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가 좋은 참고가 된다. ‘식가’에서 온 ‘식게’는 ‘먹다’와 연결되어 ‘식게 먹다’로 쓰인다. ‘식게 먹다’와 같은 구성으로 ‘명질 먹다’, ‘잔치 먹다’, ‘영장 먹다’를 들 수 있다. 특히 ‘영장’은 ‘송장’의 뜻이니, 송장을 먹을 수 없는 일이매 이들 구성은 관용 표현으로 처리한다. ‘식게 먹다’는 ‘집안의 기제사에 참여하여 예를 표하고 음복하다.’, ‘명질 먹다’는 ‘명질 때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다.’, ‘잔치 먹다’는 ‘잔치에 참여하여 축하하고 차린 음식을 먹다.’, ‘영장 먹다’는 ‘초상났을 때 조문하고 차린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2c)의 ‘허맹이문세’는 ‘쓸모없는 문서’의 뜻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목사 허명(許溟)과 관련이 깊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권 4, 갑술 14년)에 따르면, “이 해(1814년) 목사 허명은 잠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하고 자신의 돈 900량을 공용으로 보충하니 허명의 치정을 백성들이 청백의 덕이라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허명 목사가 어려운 잠녀들을 대신해서 수세를 대납했으니 세금을 내라는 납세고지서는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그 이후부터 ‘필요 없는 증서’나 ‘쓸모없는 문서’를 ‘허맹이문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 ‘허맹이문세’가 ‘쓸모없는 문서’나 ‘필요 없는 문서’



〈사진 17〉 ‘허명 목사 청정비’. 앞면에 ‘목사허공명흠민청정비(牧使許公溟恤民淸政碑)’, 뒷면 ‘가경 을해 도노(嘉慶 乙亥 道老)’라 새겨 있다. ‘가경 을해’는 1815년이다.(사진 강영봉)

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뜻을 지닌 ‘문세’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만일 ‘문세’가 없으면 다른 뜻이 되고 만다. 곧 ‘허명이문세’에서 ‘문세’를 삭제해 버리면 ‘허명이’가 되고, 그 결과 ‘허멍이’는 ‘허수아비’라는 의미로 그 뜻이 바뀌어 버리고 만다. ‘허명이문세’를 허명목사와 관련한 설명은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방언집》(1947:187~188)과 이기문(李基文)의 《속담사전》

(1962:523)에도 보인다.

5.3. 국경을 넘어온 몽골어

제주도와 몽골은 사신을 파견할 때 제주 성주를 동행하게 한 1266년부터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100년 동안 관계를 맺는다. 3대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몽골어가 제주어의 한 켠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몽골을 축소하면 제주도요, 제주도를 확대하면 몽골’이라는 표현이 있다. 몽골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이곳의 자연에 그만 탄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철책이 되고, 목초는 마치 계단처럼 봄에는 해안에서부터 산 쪽으로 자라고, 겨울이 들면서부터는 중산간에서 해안으로 말라 내려오니 마소들을 그냥 내버려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종의 종년목장이다. 제주도 목장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원 나라가 설치한 열네 개의 목장 가운데 제주도 목장을 제일로 쳤을까. 그래서 1276년 말 160필을 가지고 수산평에 와서 방목하고, 1288년 ‘마축자장별감’을 두고, 1300년 궁중용 마필을 방목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때 말이나 목장에 관련된 목축 어휘가 주축이 되어 국경을 넘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이다.

국어의 몽골 차용어는 말 문화와 매 사냥에 대한 어휘가 많다. 말 문화와 관련해서는 털 색깔에 따른 말의 이름과 도구 등이 있고, 매 이름과 관련해서는 ‘갈지개, 꺾진(늙은 매), 나친(난추니), 도롱태, 보라매, 송골매, 익더귀’ 등을 들 수 있다.

말 관련 어휘를 보자.

(1) ㄱ. 가라(말): 가라말. 털빛이 까만 말.

ㄴ. 가달석: 말 위에 타 앉았을 때 말을 부리기 위하여 양끝은 입에 물리는 재갈에 잡아매고, 두 가닥의 길이가 같게 꼬부려 접은 고

삐.

ㄷ. 간전이 · 간전물: 간자말. 이마와 뺨이 흰 말.

ㄹ. 고들게: 쟁거리. 길마를 엮을 때에,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된 물건.

ㅁ. 고들게친: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ㅂ. 고들겻낭: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ㅅ. 고라(물): 고라말. 털빛이 누런 말.

ㅇ. 구렁(물): 구렁말. 털빛이 밤색인 말.

ㅈ. 녹대: 굴레.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

ㅊ. 부루(물): 부루말. 털빛이 하얀 말.

ㅋ. 오랑: 뱃대끈. 마소의 안장이나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ㅌ. 적다(물) · 적대물: 절



〈사진 18〉 말 탄 몽골 사람. 말 탄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이 가달이다.(㉠ 가달 ㉡ 오랑 ㉢ 녹대)(사진 서재철)

따말. 털빛이 붉은 말.

이들 가운데 (1ㄱ)의 ‘가라’, (1ㄷ)의 ‘간전이’, (1ㅅ)의 ‘고라’, (1ㅇ)의 ‘구렁’, (1ㅈ)의 ‘부루’, (1ㅌ)의 ‘적다’ 등은 털 색깔에 따른 말의 명칭이며, (1ㄴ)의 ‘가달석’, (1ㄹ)의 ‘고들게’, (1ㅊ)의 ‘녹대’, (1ㅋ)의 ‘오랑’ 등은 말에 따른 도구 이름이다.

(2) ㄱ. 질메나 안장이나 도곤 잇어서 좋아.

(길마나 안장이나 띠치 있어야 좋아.)

ㄴ. 두 설이른 다간.

(두 살이면 이듬.)

ㄷ. 만, 이 떡이라도 마탕 먹으라게.

(옌다, 이 떡이라도 받아서 먹어라.)

ㄹ. 구들에 들어와시메 복닥 벗으라게.

(방에 들어왔으니 ‘복닥’ 벗어라.)

ㅁ. 멜 소록 다니다근에 통에 들어왔당 물싸 불민 가두와져.

(멀치 떼 다니다가 통에 들어왔다가 물싸 버리면 가두어져.)

ㅂ. 이거 보라, 우룩맞춘 거.

(이거 보라, ‘우룩맞춘’ 거.)

ㅅ. 물은 지달싸주.

(말은 ‘지달싸지’.)

(2-1)의 ‘도곰’은 ‘말 잔등과 안장 사이에 엮어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끼는 물건’으로, 표준어 ‘땀치’ 또는 ‘언치’에 해당한다. 《몽어유해》의 “馬韁 ㄷ래○토홈(toqum)에서 제주어 ‘도곰’이 몽골어 ‘토홈’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도곰’은 ‘도곰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곰수견’은 ‘잠녀들이 물질하러 바다에 들 때 살을 가리기 위하여 입는 속속곳’을 말한다.

(2ㄴ)의 ‘다간’은 ‘소의 두 살’을 뜻하는 말로, 《몽어유해》의 “小馬 9 月 〇 다가”(dag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말에서 소로 바뀌었을 뿐이다.

(2ㄷ)의 ‘마’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건넬 때 하는 말’로, 몽골어 ‘마’(ma)에서 온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몽골에서는 손윗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쓴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마”,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마”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항상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다. 표준어 ‘옛다’에 해당한다.

(2ㄷ)의 ‘복닥’은 ‘물건에 씌워진 겹겹질’ 또는 ‘물건 위에 얹어진 짐이나 모자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 ‘복닥’은 기혼 여성이 쓰는 모자 종류인 ‘복툇’(bogtog)에서 온 어휘다. “병자 정축 난리시에 훈련원대 건너 붉은 복닥이 쓴 놈 간다”로 시작되는 사설시조에서도 ‘복닥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병자 정축 난리’는 병자년인 1636년에 일어나서 이듬해 정축년인 1637년에 끝난 병자호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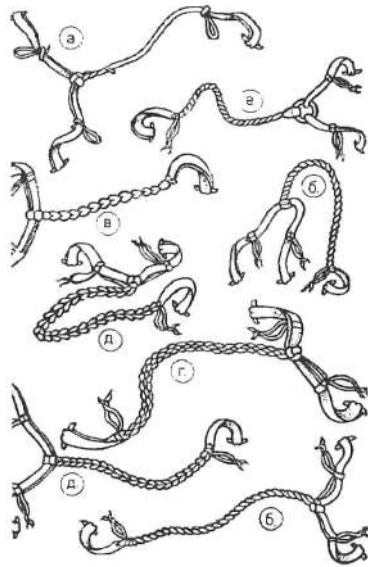
(2口)의 ‘수룩’은 ‘떼, 무리’를 뜻하는데, 《몽어유해》의 “群 무리○

수룩”(sürü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룩’은 ‘수룩짓다’ 또는 ‘수룩춌다’라는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는데,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다.’ 또는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2ㄴ)의 ‘우룩’은 ‘맞추다’가 연결되어서 쓰이는데, ‘날짐승 암수가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응하다.’ 하는 뜻을 지닌다. 이 ‘우룩’은 《몽어유해》의 “親 어버이 ○우룩”(u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ㄴ)은 집 밖에 있는 아이가 집 안에 있는 아이한테 ‘빨리 나오라고’ 하는 약속된 신호를 알아챈 부모가 하는 말이다.

(2ㄷ)의 ‘지달’은 ‘말이 함부로 뛰지 못하게 앞다리 양쪽과 뒷다리 한쪽을 동여 묶는 도구’를 말하는데, 몽골 문어 ‘지도르’(čidör)에서 온 어휘이다. 이 ‘지달’은 ‘지달쑈다’라는 합성어로도 쓰이는데, ‘말이 함부로 뛰지 못하게 앞다리 양쪽과 뒷다리 한쪽을 동여 묶다.’는 의미다.



〈사진 19〉 여러 가지 지달.
잠발도르지(Жамбалдорж)의 《모린 예르덴》
(Морин эрдэнэ) 215면에서 인용.

5.4. 특이 어휘

‘제주바당’은 언어 이동의 장애가 된다. 이 장애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말이 들어오지 못하니 예전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새로운 말만 아는 사람에게는 예전 말인 제주어가 ‘어렵게’ 느끼게 된다. 아래 어휘들이 그런 예들이다.

① 감저, 지실

‘감저’는 표준어 ‘고구마’, ‘지실’은 표준어 ‘감자’에 대응한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1) ㄱ. 하지에 그 절기에 맞추와근에 감저를 놓고.

(하지에 그 절기에 맞추어서 고구마를 놓고.)

ㄴ. 범벅은 밀가루에도 감저 곱든 거도 좋고 지슬도 좋고.

(범벅은 밀가루에도 고구마 같은 거도 좋고 감자도 좋고.)

(1ㄱ)의 ‘감저’는 달리 ‘감제, 감조’라 하는데, 고구마에 해당하고, (1ㄴ)의 ‘지슬’은 달리 ‘지실’이라 하는데, 감자에 대응한다. 특히 (1ㄴ)에 ‘감저’와 ‘지슬’이 함께 쓰이고 있어서 그 구분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구마와 감자는 우선 메꽃과와 가짓과로, 서로 분류하는 과가 다르다. 또 들어온 경로도 남쪽이나 북쪽이나에 따라 ‘남감저’,

‘북감저’로 구분되니 이 또한 다르다.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엄(趙曦)의 《해사일기》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영조 때인 1765년이고, 감자는 그보다 6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북저변증설’에 따르면, 감자는 순조 갑신년(1824)이나 을유년(1825)년 사이에 관북 지방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마와 관련 있는 ‘고금아’라는 어휘가 등장한 것은 1820년대의 《물명고》가 처음이다. 이로 보면 ‘북저’인 ‘감자’가 들어오면서 ‘감저’라는 어휘가 ‘고구마’와 ‘감자’로 분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감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자 어휘 ‘감저’(甘藷)가 ‘고구마’의 뜻으로 쓰이다가 ‘감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고구마’라는 어휘로 대체된 것이다. 한편, ‘감저’는 ‘감자’로 변하여 새로 들어온 ‘감자’를 지칭하는 어휘로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감저’는 감자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구마’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반면, 새로 들어온 ‘감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휘인 ‘지실’ 또는 ‘지슬’이라 이름하여 ‘고구마’와 구분하여 쓰고 있다.

② 고냉이, 식

‘고냉이’와 ‘식’은 각각 표준어 ‘고양이’와 ‘삶, 살팽이’에 해당한다. ‘고양이’와 ‘삶’은 다같이 ‘고양잇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

(2) ㄱ. 창곰을 내민이 고녕이라도 들어오카 부덴이 살을 박아.

(‘창곰’을 내면 고양이라도 들어올까 봐서 살을 박아.)

ㄴ. 이고녕이, 저레 가.

(이괴, 저리 가.)

ㄷ. 고녕이 늠으른 싹 된다.

(고양이 늠으면 싹 된다.)

ㄹ. 식고녕이 독 잘 물어 가.

(살쟁이 닭 잘 물어 가.)

(2ㄱ)은 ‘고녕이’, (2ㄴ)은 감탄사 ‘이고녕이’, (2ㄷ)은 ‘고녕이’와 ‘싹’, (2ㄹ)은 ‘식+고녕이’ 구조로 된 합성어가 쓰인 용례다. 특히 (2ㄴ)의 ‘이고녕이’는 ‘이+고녕이’ 구성으로, ‘고양이나 도둑을 쫓을 때 지르는 소리’다. 표준어 대역에서 알 수 있듯 ‘이괴’의 ‘괴’는 고양이 를 뜻하는 옛말이다. ‘괴발개발, 괴발디딤, 도둑괴’ 따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발개발’은 ‘고양이 발과 개[犬]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괴발디딤’은 ‘고양이가 아주 조용하게 발을 디디듯이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레 발을 디디는 것’을, ‘도둑괴’는 ‘도둑고양이’라는 뜻이다. (2ㄷ)은 ‘시간이 지나면 본 색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는 뜻을 지닌 속담이다. ‘식’은 ‘숙, 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삶’의 옛말 ‘슌’이 ‘슌>숙>습, 식’의 변화 과정을 거친 어휘다. ‘고양이는 살쟁이를 길들인 것’이라는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2ㄹ)의 ‘식고녕이’는 표준어 ‘살쟁이’가 ‘삶+괴+-양이’ 구

성임을 보여준다.

(2ㄱ)에서 ‘창곰’은 창구멍의 뜻으로, ‘부엌이나 고방에 빛을 들이고 공기가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벽을 뚫어서 만든 작은 구멍’을 말한다.

그런데 (2ㄴ)의 ‘식’이나 ‘숙’이 ‘살팽이 무늬를 한’이라는 뜻의 접두사로 쓰이기도 한다.

(3) 신체 얼룩덜룩했 **호령**이 닳은 거 **식췌**.

(신체 얼룩덜룩해서 **호랑**이 닳은 거 **침소**.)

(3)은 ‘살팽이 무늬를 한 소’를 ‘식췌’라 한다는 것이다. 이 ‘식췌’는 달리 ‘숙췌, 속췌’로 나타나기도 한다. ‘살팽이 무늬를 한’ 돼지를 ‘식돏 · 숙돏 · 속돏’이라 하고, ‘살팽이 무늬를 한 얼룩소’를 ‘식어럭췌 · 숙어럭췌’라 한다.

③ **글쟁이**, **글쟁이**

‘글쟁이’는 표준어 ‘호미’, ‘글쟁이’는 표준어 ‘갈퀴’ 또는 ‘글쟁이’를 말한다.

(4) ㄱ. 돌 일령 **글쟁이**로 굵어 가민 **깁**이가 나와.

(돌 일으켜서 **호미**로 굵어 가면 **게**가 나와.)

ㄴ. 서툰바치덜은 솔입 글쟁이로 굶어다근에 그거 멩텅이에 담아근
에 저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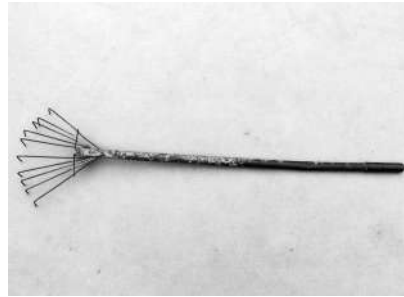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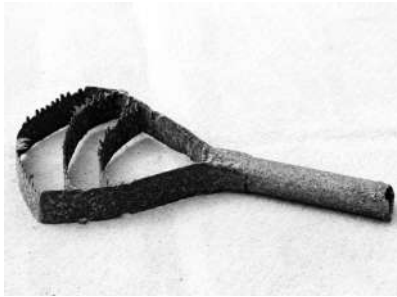
(풋내기들은 솔가리 갈퀴로 굶어다가 그거 망태기에 담아서 저
와.)

ㄷ. 글쟁이로 굶엿 그땐 나오는 털 모다 낫당 걸로 벌립 멘들아.
(글쟁이로 굶어서 그땐 나오는 털 모아 낫다가 걸로 병거지 만들어.)

(4ㄱ) ‘글쟁이’는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글쟁이’는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닥이나 거죽을 박박 문지르다’는 뜻을 지닌 ‘굶다’ 어간 ‘굶-’에 접미사 ‘-엿이’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이 ‘글쟁이’는 접미사 종류에 따라 ‘굶-+-악지>글각지’, ‘굶-+-에기>글게기’, ‘굶-+-에>글게’ 등으로도 나타난다.

‘글쟁이’는 제주도 동남부인 성산읍과 표선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며, ‘글각지’는 성산읍 수산리·신산리·온평리, 표선면 표선리·가시리, ‘글게기’는 성산읍 수산리와 표선면 표선리, ‘글게’는 서귀포시 보목리에 나타나 지역에 따라 접미사가 다를 수 있다.

(4ㄴ) ‘글쟁이’는 ‘검불이나 곡식 따위를 굶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하는데, 한쪽 끝이 우그러진 대쪽이나 철사를 부챗살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다. ‘글쟁이’는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는 뜻을 지닌 ‘굶다’의 어간 ‘굶-’에 접미사 ‘-엿이’



〈사진 20〉 글쟁이(글쟁이, 왼쪽)와 갈퀴(갈퀴, 오른쪽)(사진 김보향)

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로, 표준어 ‘갈퀴’에 해당한다. 한편 (4ㄷ)의 ‘글쟁이’는 ‘말이나 소 따위의 동물의 털을 빗기는 도구’를 말하는데, (4ㄴ)의 ‘글쟁이’처럼 ‘글-’의 어간에 접미사 ‘-engi’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글쟁이’는 대응 표준어 ‘글쟁이’와 비교할 때 형태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4ㄱ)의 ‘글쟁이’는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데, 이 ‘호미’와 동음 관계를 이루는 방언형에 ‘호미’가 있다.

(5) ㄱ. 콩도 호미로 꺼꺼.

(콩도 낫으로 꺾어.)

ㄴ. 호미론 비곡 낫으론 후려.

(낫으론 베고, 벌낫으론 후려.)

(5ㄱ)과 (5ㄴ)의 ‘호미’는 곡식이나 풀 따위를 베는 연장으로, ‘낫’에 해당한다. 앉아서 한 줌 쥐어서 베기 때문에 ‘죤호미’라고도 한다.

(5ㄴ)의 ‘낫’은 ‘서서 꼴 따위를 베는, 자루가 긴 연장’이다. 표준어 ‘별낫’에 대응한다. 꼴을 ‘호미’로 벨 때와 ‘낫’으로 벨 때 그 묶음에 차이가 있어서 ‘호미’로 벤 것은 40뭇을 한 바리로 하며, ‘낫’으로 벤 것은 30뭇을 한 바리로 친다. ‘낫’ 사용은 제주도 동쪽 지역에서가 흔하다.

④ 뉘삐, 무수

‘뉘삐’와 ‘무수’는 ‘무’에 해당한다. 무청과 뿌리를 함께 이르기기도 하고, 뿌리만을 뜻하기도 한다.

(6ㄱ) 여긴 뉘삐가 두 가지런 허는디 단지뉘삐허고 쉼뉘삐.

(여긴 무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조선무하고 왜무.)

ㄴ. 초메기도 뉘삐 들민 메와.

(열무도 무 들면 매워.)

(6ㄱ)의 ‘뉘삐’는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을 뜻하고, (6ㄴ)의 ‘뉘삐’는 ‘무의 뿌리’라는 의미로 쓰였다. ‘열무도 뿌리가 들면 매워.’ 하는 뜻이다. (6ㄴ)의 ‘단지뉘삐’는 무의 뿌리가 ‘단지처럼 생긴 무’인 조선무를 뜻하고, ‘쉼뉘삐’는 ‘소뿔처럼 길쭉하게 생긴 무’라는 말로 왜무를 말한다.

그런데 ‘무’의 뜻으로 ‘무수’가 쓰이기도 한다.

(7) ㄱ. 무수 곶아 불민 못 먹어.

(무는 곶아 버리면 못 먹어.)

ㄴ. 솔래기국은 주로 제사 때 무수 낱근에 갱국으로.

(옥돔국은 주로 제사 때 무 낱서 갡으로.)

(7ㄱ)의 ‘무수’는 옛말 ‘무수’가 ‘무수>무수’의 변화 과정을 거친 어휘로, 표준어에서 ‘무수>무우>무’의 변화 과정과는 다르다. 이처럼 ‘△>ㅅ’으로의 변화는 ‘구ㅅ이>구시’(구유), ‘나ㅅ이>난시’(냉이) 등에서도 확인된다. (7ㄴ)의 ‘갱국’을 ‘갱’으로 쓴 것은 한자 ‘羹’(갱)의 발음이 [깡]이었기 때문이다.

⑤ 도

‘도’는 ‘입구’ 또는 ‘출입구’를 뜻하는 어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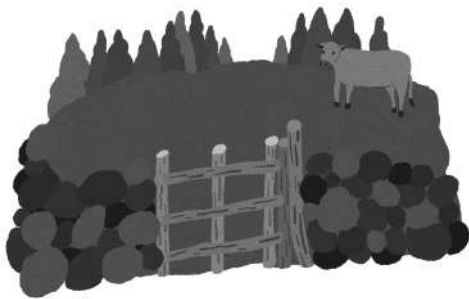
(8) ㄱ. 도 막은 밭 작제 엇나.

(입구 막은 밭 작자 없다.)

ㄴ. 문도에 얹는 거 아니여.

(‘문도’에 얹는 거 아니야.)

(8ㄱ)은 ‘입구 막은 밭은 작자가 없다.’는 말이며, (8ㄴ)은 ‘도’가 합성어를 이룬 경우로, ‘문도’에 얹지 말라는 뜻이다. ‘문도’는 ‘문 입구’



〈그림 18〉 살체깃도

로, 거기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도’는 한자어 ‘梁’(양)과 관련이 있다. 《삼국사기》(권44, 〈사다함〉)의 ‘전단량’(旃檀梁) 주석에, “성

문 이름이다. 가라어(가야국의 언어)로 ‘문’을 ‘도’[梁]라 한다.”라 한 내용과 《삼국유사》(권1 〈진한〉)의 “신라방언에 ‘탁’(涿)의 음은 ‘도’라 하였으므로 지금도 ‘사량’(沙梁)이라 쓰고 ‘양’(梁)을 ‘도’라 읽는다.”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도’는 ‘술도’(애월읍 봉성리 지경 이름으로, ‘드래오름’을 오르내리는 입구가 됨), ‘정도’(‘정’이 놓인 입구. ‘정’은 보통 ‘정낭’이라 함), ‘상жат도’(‘상жат’을 드나드는 입구. ‘상жат’은 한라산 쪽에 두른 목장의 경계담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중жат’, ‘하жат’이 있음), ‘밧도’(밭의 출입구) 등 그 쓰임이 많다.

⑥ 무낭, 넓메역

‘무낭’은 ‘흑산호’ 또는 ‘산호’에 대응하는 어휘로, 산호층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넓메역’은 ‘넓미역’이다.

(9) 태풍 불면 모낭 올라와. 걸로 물부리 멘들곡 도장도 파고, 경.

(태풍 불면 흑산호 올라와. 걸로 물부리 만들고 도장도 파고, 그렇게.)

(9)의 ‘무낭’은 흑산호로, 이를 이용하여 물부리, 목걸이, 브로치, 지팡이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기도 한다. 물부리나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길이와 굵기가 있어야 한다. 기념품 제조업자의 말에 따르면 잠수부가 톱을 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흑산호를 베어 온다고 한다. 《한국동식물도감》(제39권, 동물편, 산호충류, 2004:529)의 ‘해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도감에서는 ‘해송’에 대해서, “제주도 해역의 수심 20~100m에 살고 있으며, 보통 높이는 50cm 내외이지만 3m까지 자란다. 고대에 이 골축 조각을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 준다고 믿었으며, 상업적으로 보석, 지팡이 등으로 가공되고 있어 양식의 가치가 크다. 제주도 현지에서는 ‘무낭’이라고 불린다.”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ㄱ. 육지 양식 메역 나옴 시작허난 넓메역을 안 사 먹는 거라.

(육지 양식 미역 나오기 시작하니까 넓미역을 안 사 먹는 거야.)

나. 넓메역 조물레 가는 사람이 상군이우다게.

(넓미역 ‘조물레’ 가는 사람이 ‘상군’입니다.)

다. 시기 놓쳐 불은 넓메역이라는 게 바당에서 삭아져 불어.

(시기 놓쳐 버리면 넓미역이라는 게 바다에서 삭아 버려.)

(10)은 ‘넓미역’에 대한 이야기다. (10ㄴ)의 ‘상군’은 물질 기량이 아주 뛰어난 잠녀를 말하고, ‘즈물다’는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내는 것을 뜻한다. 넓미역은 깊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군’이 아니면 캐지 못한다. 남성들은 배를 타고 나가 기다란 ‘깔쿠리’라는 도구로 채취하는데, 채취 작업은 7월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10ㄷ)처럼 바닷속에서 삭아 버리고 만다. ‘넓미역’은 《한국동식물도감》(제8권, 식물편, 해조류, 1968:153)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우도 등지에 분포한다.”는 설명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의 “한국 제주의 우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는 설명에서 우도가 넓미역의 주산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0)의 ‘무낭’은 달리 ‘무의낭, 무히낭’이라 하는데, 이를 한자어 ‘무회목’(無灰木)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무회목’은 《동국여지승람》 38권 〈제주목 토산〉에 나오는데, “무회목. 우도에서 난다. 바다가운데서는 부드럽고 연하며, 물결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이내 굳고 단단해진다.”라 하였다.

또 이 ‘무회목’에 대하여, 국어사전의 “미역의 오래 묵은 뿌리. 바탕은 흑산호와 비슷하며, 쉼 불에는 타지만 재는 남지 않는다. 쫄린 물부리나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쓴다.”라는 ‘무회’의 사전적 설명으로 ‘무회목’의 주석을 대신하기도 한다.

(11) 우리나라 탐라 우도 바다 속에 무회목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나무와 비슷하나 나무가 아니며, 불과 비슷하나 불도 아니다. 또 돌과 같

으나 돌도 아니다. 바닷속에 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파도에 오르락내리락하다 물 밖으로 나오면 단단해진다. 혹 그물에 걸려 올라오기도 한다. 내가 몇 번 자세히 보았는데 고목의 가장귀와 같고 색깔은 무소불과 같은 담흑색이다. 다 자란 가지는 언뜻 보면 사슴불 같으나 무겁기는 돌과 같다. 그 이(理)는 불처럼 단단하고, 성질은 단단하나 조금은 무르고, 묶어 불사르면 잘 탄다. 마르면 불과 같고 불붙이면 타는데 재가 없다. 그러므로 무회라 이른다. 혹 해대의 부리를 말하기도 한다. 해대 밑동에 단단한 열매가 있고, 마르면 작은 칼의 자루로 쓴다고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데 이름을 무회라 하므로 탐라의 무회목과 서로 혼동한다.

(11)은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만물편 초목류 수목) 중 ‘무회목변증설’ 내용의 일부분이다. ‘무회목’은 제주도 우도에 서만 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어느 바다에나 나는 ‘무회’(미역)와 서로 혼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무회’는 미역(미역의 오래 묵은 뿌리)이고, ‘무회목’은 우도에서만 나는 넓미역이라는 말과도 같다. ‘무회’가 사전 풀이처럼 “미역의 오랜 뿌리”라고 한다면 미역은 서해, 남해, 동해 및 제주도 해안 어느 곳에서나 자라는 바닷말이다. ‘무회목’이 유독 ‘우도’에서만 난다고 했으니 우도에서만 나는 미역이라면 곧 ‘넓미역’이다. 《한국동식물도감》(제8권)의 ‘우도에 분포한다.’는 등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동국여지승람》의 ‘무회목’은 ‘넓메역’인 썸이다.

또 ‘넓미역’은 우도에서도 서광리 앞바다에서만 나는데, 흰색의 굽은 알갱이를 ‘산호모래’ 혹은 ‘산호사’(珊瑚沙)라 하여 산호와 연관된 ‘서빈백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이 알갱이가 홍조류 바닷말의 퇴적물임이 밝혀진 2004년부터는 ‘홍조단괴해빈’(紅藻團塊海濱)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홍조단괴해빈’은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되었다.

⑦ 비바리

‘비바리’는 ‘처녀’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2) 비바린 물 똥만 꺾어도 웃나.

(처녀는 말 방귀만 꺾어도 웃는다.)

(12)는 속담으로, 처녀는 아무 일이나 잘 웃는다는 뜻이다. ‘비바리’는 ‘비+-바리’ 구성의 어휘다. 접미사 ‘-바리’는 ‘악바리, 꺾바리, 하바리’ 등의 ‘-바리’와 같은,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사람’의 뜻과 얹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이다. 그러면 ‘비’는 무엇일까.

12세기 초 고려 어휘를 모아 놓은 《계림유사》에는 전복에 대해서 “복알필”(鰾曰必)이라 하였다. “고려 사람들은 전복을 ‘필’(必)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한자어 ‘필’은 ‘빚’ 또는 ‘비’로 읽을 수 있다.

(13) ㄱ. 고튼 값이든 난 암빚 먹으크라.

(같은 값이면 난 암전복 먹겠어.)

ㄴ. 수빚은 좀팍 모양 움탕허주. 암빚은 베짜허곡게.

(수전복은 ‘좀팍’ 모양 움팍하지. 암전복은 ‘베짜하고’.)

ㄷ. 비창은 영 두의 찻당 점복 봐지민 앓아내영 점복 트는 거.

(‘비창’은 이렇게 뒤에 찻다가 전복 보이면 꺼내서 전복 떼는 거.)

(13ㄱ)의 ‘암빚’은 ‘암ㅎ+빚’,
(13ㄴ)의 ‘수빚’은 ‘수ㅎ+빚’, (13
ㄷ)의 ‘비창’은 ‘비+창’으로 분석
된다. ‘암빚’, ‘수빚’은 ‘암ㅎ+닭’
암닭, ‘수ㅎ+닭’수닭’이 됨과 같
다. (13ㄷ)의 ‘비창’은 달리 ‘빗창’
이라 한다. ‘비창’ 또는 ‘빗창’은



〈사진 21〉 비창(사진 김순자)

‘전복 따는 데 쓰는, 쇠로 나부죽하게 만든 연장’을 말한다. 머리에
동그란 고리가 있고, 고무줄로 된 손목 끈이 달려 있다.

(13)의 용례를 통하여 ‘빚’ 또는 ‘비’가 전복임을 알 수 있으며, ‘비
바리’는 ‘전복 따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이다. ‘비바리’의 원래
뜻이 차츰 그 의미가 변하여 ‘처녀’의 뜻으로 옮겨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복은 암수판몸이다. ‘암전복’과 ‘수전복’ 구분은 (13ㄴ)처럼 전복
의 외형을 가지고 구분된다. 즉 전복잡의 형태가 “움탕허면” 수전복



〈사진 22〉 수펏(왼쪽)과 암펏(사진 강영봉)

이고, 그 반대로 “베짜허면” 암전복이라는 말이다. ‘베짜허다’는 ‘가운데가 들어간 데 없이 야트막하고 바라지다.’는 뜻이다. 암수 구별의 또 다른 방법은 〈사진 22〉처럼 생식소가 초록색이면 ‘암전복’, 유백색이면 ‘수전복’이

다. (13ㄴ)에서 ‘좁박’은 달리 ‘솔박’이라 하는데, ‘나무를 납죽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13ㄱ)의 전복의 맛과 관련하여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어명고〉에서도, “(전복은) 살이 희고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 수놈이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암놈이다. 암놈이 맛이 더 좋다.”고 하였다.

‘비바리’의 ‘-바리’는 접미사로, ‘다금바리’, ‘불바리’의 ‘바리’와는 다르다. ‘다금바리’와 ‘불바리’의 ‘바리’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명칭이다. ‘다금바리’는 ‘다금바리아과’의 물고기이고, ‘불바리’는 ‘황줄바리 · 우럭바리 · 닻줄바리 · 불바리 · 도도바리 · 자바리 · 홍바리 · 날바리 · 무늬바리’ 등과 더불어 ‘능성어아과’에 속하는 물고기다.

⑧ 상뽀

‘상뽀’는 행주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다.

(14) ㄱ. 떡에 붙치 부트민 영 헤영 종이나 상빔로라도 썰어 불민 벗어져.

(떡에 재 붙으면 이렇게 해서 종이나 행주로나도 쓸어 버리면 벗겨져.)

ㄴ. 제통은 살레 바위에 돌아메영 상빔도 널곡 허주. 게문 상빔도 몰르곡 제통에 묻지도 안 들어강 좋고.

(수저통은 찬장 가장자리에 달아매어서 행주도 널고 하지. 그러면 행주도 마르고 수저통에 묻지도 안 들어가서 좋고.)

(14)의 ‘상빔’은 ‘상(床)+비[帚(추)]’ 구성의 말로, 직역하면 ‘상을 쓰는 비’가 된다. 빗자루로 상을 쓸 수 없는 일이니 그 일은 행주가 담당한다. 행주와 빗자루의 차이는 닦고 쓸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은 같다.

⑨ 신사라

‘신사라’는 달리 ‘신사락’이라 하는데, ‘뉴질랜드삼’을 말한다.

(15) 째신은 고급. 다른 건 신사라 그런 거 막 서트멍 만들아서.

(째신은 고급. 다른 건 뉴질랜드삼 그런 거 막 섞으며 만들었어.)

‘신사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을 말한다. 식물도감에는 올라 있지 않다. 맨 처음 이희승(李熙昇, 1961)의 《국어대사전》에 ‘뉴우



〈사진 23〉 신사라(사진 강영봉)

지일란드삼'이란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모여 자라는데 긴 칼 모양이며 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다. 7~8월에 어두운 붉은색 또는 노란색의 꽃이 두세 개의 꽃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온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유일한 경질 섬유 원료 식물로 끈, 밧줄, 직물, 제지의 원료로 쓰인다. 뉴질랜드 늪지대가 원산지이다.”라는 설명에서 뉴질랜드에서 온 식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신사라’는 뉴질랜드의 음역어인 ‘신서란’(新西蘭)에서 온 말이다. ‘음역어’란 ‘한자음을 가지고 외국어의 음을 나타낸 말’을 의미한다. 그 예로 ‘그리스-희랍, 네덜란드-화란, 라틴-나전, 로스앤젤레스-나성, 베를린-백림, 베트남-월남, 러시아-아라사, 아시아-아세아, 유럽-구라파, 이집트-애급, 이탈리아-이태리, 터키-토이키, 프랑스-불란서’ 등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집집이 ‘신사라’를 심었고, 이를 이용하여 밧줄을 만들거나 바를 드려서 썼다. 조무래기들은 팽이채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신사라’는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원하는 구로시오해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⑩ 정지, 공식간, 부섭

‘정지’는 부엌, ‘공식간’은 별채로 지은 부엌, ‘부섭’은 ‘마루방이나 부엌에 따로 박아서 불을 피우게 된 돌화로’를 말한다.

(16) ㄱ. 물항은 정지에 놔.

(물독은 부엌에 놔.)

ㄴ. 공식간은 정지계. 밥하는 데가 공식간이주.

(‘공식간’은 부엌. 밥하는 데가 ‘공식간’이지.)

ㄷ. 부섭에 불접게 걸쳐근에 적갈 구워난.

(‘부섭’에 부젓가락 걸쳐서 적 구웠었어.)

(16ㄱ)의 ‘정지’는 한자어 ‘정류’[鼎廚]에서 온 어휘이며, (16ㄴ)의 ‘공식간’은 집채와 떨어져 마련한 독립된 부엌을 말한다. “모커리 짓 영 정지도 허곡계.(결채 지어서 부엌도 하고.)” 하는 말에서도 별채로 만든 부엌임을 알 수 있다. 이 ‘공식간’은 <청산별곡>의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의 ‘예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6ㄷ)의 ‘부섭’은 <훈민정음>의 “브섭爲竈”에서 온 말이다. 이 ‘브섭’은 표준어에서는 ‘브섭>브석>부엌’으로 변화하지만 제주어에서는 ‘브섭>부섭’으로 변화하고, 그 의미도 ‘마루나 부엌 바닥에 고정된 돌화로’로 바뀌었다.



〈사진 24〉 봉덕화리. 바닥의 네모난 돌화로가 '봉덕화리'이다. 봉덕(㉡) 위에 걸린 것은 고리(㉠)다. 봉덕은 불을 피워 고리에 넣은 곡식을 말릴 때도 사용하였다.(사진 김순자)

(17) 정지 가운데 닮듯하게 봉덕이렌 불살르는 봉덕화리 뉘.

(부엌 가운데 네모반듯하게 '봉덕'이라고 불사르는 '봉덕화리' 뉘.)

(17)의 '봉덕' 또는 '봉덕화리'는 〈사진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엌 바닥에 고정해서 박은 돌화로'이다. 이 '봉덕'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을 뜻하는 '봉당'과는 다르다.

⑪ 줯다, 봉그다

‘좇다’는 표준어 ‘좇다’, ‘봉그다’는 ‘① 물건을 뜻밖에 거저^ㄱ좇다. ② 물건을 구하거나 찾아내다. ③ 자식을 얻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8) ㄱ. 췌똥 좇어다근에 굴묵도도 막곡.

(소똥 주워다가 ‘굴묵도’도 막고.)

ㄴ. 살레 아래서 족박을 봉그주.

(찬장 아래서 쪽박을 거저^ㄱ좇지.)

ㄷ. 곱은도린 이 풀쳐록 휘와진 거난 봉그기가 어려와.

(총랑은 이 팔처럼 휘어진 거니까 구하기가 어려워.)

ㄹ. 췌에 봉근 아덜이우다.

(췌에 얻은 아들입니다.)

(18ㄱ)의 ‘좇다’는 ‘좇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집다.’는 뜻이다. 이는 옛말 ‘좇다’에서 온 어휘로, ‘좇어, 좇이난’처럼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어간 끝소리 ‘ㅅ’을 유지한다.

(18ㄴ)의 ‘봉그다’는 ‘물건을 뜻밖에 거저^ㄱ좇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다. ‘살레 아래서 족박을 봉그주.’는 ‘살강 밑에서 숟가락 얻었다.’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남이 빠뜨린 물건을 얻어서 횡재했다고 좋

아하다 임자가 나타나 헛되이 좋아한 것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대단치 아니한 일을 하여 놓고 성공이나 한 듯이 자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곧 '쉽게 얻다.'는 의미다. (18ㄷ)의 '봉그다'는 '물건을 구하거나 찾아내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다. '곶은도리'는 '팔처럼 휘어진 것이니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곶은도리'는 '충량'(衝樑) 또는 '우미량'(牛尾樑-소꼬리 모양의 보)에 해당한다. (18ㄹ)의 '봉그다'는 '자식을 얻다'의 뜻으로 쓰인 경우로, 아들이 싹둥이라는 말이다. (18ㄱ)의 '굴묵도'는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입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좃다'와 '봉그다'가 '먹다'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는 그 의미가 같아진다. 곧 '좃어먹다'와 '봉가먹다'는 '흠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서 먹다.', '남이 넣어둔 음식물을 찾아서 먹다.'라는 같은 뜻을 지닌다.

(19) ㄱ. 암만 맛 좋은 거라도 땅에 떨어진 걸랑 봉가먹지 말라.

(아무리 맛 좋은 것이어도 땅에 떨어진 것은 주워먹지 마라.)

ㄴ. 놔 데껴 분 거 암만 배고파도 좃어먹지랑 말라.

(남 던져 버린 것 아무리 배고파도 주워먹지는 마라.)

여기서 (19ㄴ)의 '좃어먹다'를 '집어먹다'로 대역하지 않은 것은 '집어먹다'가 국어사전에 따라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5. 반복어와 흥내말

제주4·3사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난 살앗주.’라든가 ‘넘으난 넘엇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살다 보니까 살 수 있더라.’, ‘넘었으니까 넘었지.’라는 한숨과 회한의 말들이다. 이처럼 같은 말을 거듭 표현함으로써 묘한 여운과 함께 야릇한 말맛을 느끼게 하는 어휘들이 있다.

반복어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반복어가 있고, ‘사난 살앗주.’나 ‘넘으난 넘엇주.’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표현도 있다.

(1) ㄱ. 그 고단에 가든 고사리가 한한허여.

(그 고장에 가면 고사리가 하고하.)

ㄴ. 좋으믄 좋다 곤고, 긋이믄 긋다 곱습네께.

(좋으면 좋다 말하고, 긋으면 긋다 말합니다.)

ㄷ. 꽤걸음 걸언에 가십주게.

(‘꽤걸음’ 걸어서 갔습죠.)

ㄹ. 놀음 놀단 보난 재산 다 녹여 먹고게.

(놀음 놀다 보니 재산 다 탕진하고)

ㅁ. 꿈에 시꾸암직이 출렸저이.

(꿈에 나타남직이 차렸다.)

ㅂ. 아의, 남도 낫저게.

(얘, 나기도 낫다.)

ㅅ. 메께라. 햐도 햐저.

(어머, 하기도 햐다.)

(1ㄱ)의 ‘한한햐다’는 ‘햐다’[多]가 중복되어 쓰인 경우다. 이를 대역한 표준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햐다+햐다’가 연결되어 ‘햐고햐다’가 된 것과 같다. (1ㄴ)은 어구 반복으로, ‘햐다-햐다’, ‘햐다-햐다’가 연결되어 나타난 경우고, (1ㄷ)은 ‘햐걸음’의 ‘걸음’과 ‘걸언에’의 ‘걸다’가 반복된 경우, (1ㄹ)은 ‘햐다’와 ‘햐다’가 반복된 경우다. (1ㄷ)의 ‘햐걸음’은 ‘햐개치며 바삐 걷는 걸음’을 말하고, (1ㄹ)의 ‘햐다’는 ‘햐다’의 옛말 ‘햐다’에서 온 어휘이고, ‘시 햐다’는 ‘햐다’의 옛말 ‘햐다’에서 온 말로, ‘햐다’가 반복되어 나타난 경우다. (1ㅂ)과 (1ㅅ)도 각각 ‘햐다’와 ‘햐다’, ‘햐다’와 ‘햐다’가 반복되었다.

반복 표현은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의성어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말하며, 의태어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2) ㄱ. 이젠 식 설이난 햐랑햐랑 돌아햐기고.

(이젠 세 살이니까 햐랑햐랑 돌아햐다니고.)

ㄴ. 조금 시난 열이 햐랑햐랑 나햐 햐소리도 햐는 거라.

(조금 있으니 열이 햐랑햐랑 나햐 햐소리도 햐는 거야.)

- ㄷ. 구멍뿔은 거 구멍물이 와랑와랑 솟이민 물 가득 차는 밧이주.
 (‘구멍뿔’은 거 ‘구멍물’이 와랑와랑 솟으면 물 가득 차는 밧이지.)
- ㄹ. 집덜 불케와 부난 수뭇 불꽃이 와랑와랑.
 (집들 불태워 버리니까 사뭇 불꽃이 와랑와랑.)

(2)는 ‘와랑와랑’이 쓰인 경우다. (2ㄱ)의 ‘와랑와랑’은 ‘사람이 세차게 뛰어다니는 모양’, (2ㄴ)의 ‘와랑와랑’은 ‘열이 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2ㄷ)의 ‘와랑와랑’은 ‘물이 세차게 솟아오르는 모양’, (2ㄹ)의 ‘와랑와랑’은 ‘불기운이 세차게 일어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2ㄷ)의 ‘구멍뿔’은 ‘많은 비가 온 다음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구멍이 있는 밧’을 말한다.

이렇게 말맛이 다르기 때문에 의성어와 의태어는 표준어 대역에 있어서 그냥 실제 구술발화에서의 형태를 살리는 것이 좋다.

(3)과 (4)는 각각 ‘팡팡’과 ‘박박’이 쓰인 발화다.

- (3) ㄱ. 미녕 조사 오난 집 그스새 누리치는 덕 탁 낱 그스새 팡팡 누리
 차 부난 넘어간.
 (무명 조사 오니 집 썩은새 내리치는 덕 탁 낱서 썩은새 팡팡 내
 리쳐 버리니 지나갔어.)
- ㄴ. 새 보리냥에 불을 쏴아가난 연기가 팡팡 나.
 (새 보릿집에 불을 때어가니 연기가 팡팡 나.)
- ㄷ. 지금이사 돈이 농협으로 팡팡 나오곡.

(지금이야 돈이 농협으로 팡팡 나오고.)

ㄹ. 총소리가 팡팡 나난 우리 아버진 아이고 이젠 큰일났젠.

(총소리가 팡팡 나니 우리 아버진 아이고 이젠 큰일났다고.)

ㄴ. 졸졸 나는 물이니까 그냥 물이 경 팡팡 하지 아녜주.

(졸졸 나는 물이니까 그냥 물이 그렇게 팡팡 많지 않았지.)

ㄷ. 바당의서 베덜 폭발로 팡팡 배 부술 때 겁난.

(바다에서 배들 폭발로 팡팡 배 부술 때 겁났었어.)

ㄹ. 도망가는 아일 심언에 팡팡 두드려.

(도망가는 아일 잡아서 팡팡 두드려.)

ㅇ. 눈 팡팡 허는디 일허레 갓덴 욱만 막 허는 거라.

(눈 팡팡 하는데 일하러 갔다고 욱만 막 하는 거야.)

ㅈ. 어멍 봐지난 어멍신의 가지도 안허연 질레에 뉵 팡팡 막 울언.

(어머니 보이니 어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길에 누워서 팡팡 마구 울었어.)

ㅊ. 이만씩 헛 돌을 확 들러내 부난 그 물이 광광 돌아가난 물구르마
가 팡팡 돌더라고.

(이만큼씩 한 돌을 확 들어내 버리니까 그 물이 광광 돌아가니
물레방아가 팡팡 돌더라고.)

ㅋ. 확 하게 나간 보난 집은 팡팡 불리난 확 걷어져 불어.

(확 하게 나가서 보니 집은 팡팡 불리니까 확 걷어져 버려.)

‘팡팡’은 《표준국어대사전》에 11개의 뜻이 제시되어 있다. ① 풍

선이나 폭탄 따위가 갑자기 잇따라 터지는 소리. ② 작은 구멍이 잇따라 뚫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③ 공 따위를 잇따라 세게 차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④ 탄력 있는 물건을 잇따라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⑤ 물건이 갑자기 잇따라 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⑥ 작은 물건이 얇은 물에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⑦ 액체 따위가 좁은 구멍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⑧ 눈이나 물 따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리거나 솟는 모양. ⑨ 돈이나 물 따위를 헤뜨게 쓰는 모양. ⑩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모양. ⑪ 밥 따위를 하릴없이 굽는 모양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감안하며 위의 용례를 찬찬하게 읽거나 ‘팡팡’을 ‘펑펑’으로 바꾸어 보면 말맛이 다름을 느끼게 된다. (3ㄴ)에서 ‘베’로 적은 것은 ‘배’[船]의 옛말이 ‘비’이기 때문이다.

‘박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ㄱ. 난 어디 강은에 천구백삼십일년생이렌 허민 아니엔덜 **박박** 우겨.

(난 어디 가서 천구백삼십일년생이라고 하면 아니라고들 **박박** 우겨.)

ㄴ. 그자 지성기에 똥싸민 검질로 **박박** 쓸어뒀은에 바싹 널엇당 그
되 또 녹지곡 녹지곡 헐.

(그저 기저귀에 똥싸면 검불로 **박박** 쓸어두고 바싹 널었다가 거
기 또 눅히고 눅히고 했어.)

ㄷ. 무거리피술은 저 물박에 낵 **박박** 허게 씻엿 물 돌랑 그걸로 국을

끌려.

(‘무거리핍쌀’은 저 물바가지에 놔서 박박 하게 씻어서 물 따라서
그걸로 국을 끓여.)

- ㄹ. 애기 낳 사을 뒤편 짝 치우곡 허영 속 삶아근에 속물 해당 그 속
으로 박박 몽기멍 모욕시경 베로 만든 붓디창옷 입져.

(아기 낳아서 사흘 되면 짝 치우고 해서 쑥 삶아서 쑥물 해다가
그 쑥으로 박박 몽개며 목욕시켜서 베로 만든 깃저고리 입혀.)

- ㄹ. 바짝 얼린 거 보리도 문 난 거 박박 뜯으멍 손으로 그걸 베는 거라.
(바짝 얼린 거 보리도 몽땅 난 거 박박 뜯으며 손으로 그걸 뿌리
는 거야.)

- ㄴ. 여섯 살 난 거 독무름에 녹전 허곰 자난 무슴은 솜죽 죽게 무스
우난 박박 털어.

(여섯 살 된 거 무릎에 눕혀서 조금 자니 무섭기는 사뭇 죽게 무
서우니 박박 떨어.)

- ㄷ. 솔입은게 강 글갱이로 박박 건영 지어 아전 왓주.

(솔가리는 가서 갈퀴로 박박 건어서 지어 가지고 왔지.)

- ㅇ. 옛날은 이추록 미달이도 엉엉이 살창 해영 돌아 영 박박 열게시리.
(옛날은 이처럼 미달이도 없어서 살창 해서 달아서 이렇게 박박
열게끔.)

- ㅈ. 꼭 벌은 거 그 우로 박박 잡아댕겨 불어.

(칩 벌은 거 그 위로 박박 잡아당겨 버려.)

- ㅊ. 가시리 돌에 딱 부튼 거 메지 못 해연 꺼끄먹 껍데기 가전에 간

박박 긁어나서.

(풀가사리 돌에 딱 붙은 거 매지 못 해서 ‘꺼끄덕’ 전복갑 가지고
가서 박박 긁었어.)

ㄱ. 감저 허나 파다근에 테역에라도 박박 씹어근에 먹어났주게.
(고구마 하나 파다가 잔디에라도 박박 닦아서 먹었었지.)

‘박박’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0개의 뜻이 제시되어 있다. ① 야무지게 자꾸 긁거나 문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얇고 질긴 종이나 천 따위를 자꾸 찢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③ 반들반들해지도록 자꾸 닦거나 깎는 모양. ④ 머리털이나 수염 따위를 아주 짧게 깎은 모양. ⑤ 상기되어 자꾸 기를 쓰거나 우기는 모양. ⑥ 이 따위를 야무지게 자꾸 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⑦ 얼굴 따위가 몹시 얇은 모양. ⑧ 광대한 모양. ⑨ 수레가 빨리 달리는 소리. ⑩ 얇은 모양 등이다. ‘박박’을 찬찬하게 읽거나 ‘벽벽’ 또는 ‘북북’으로 바꾸어도 말맛이 다름을 느끼게 된다. (4ㄷ)의 ‘무거리피썰’은 ‘희고 온전한 알갱이의 찌꺼기’를 말하고, (4ㄷ)의 ‘꺼끄덕’은 어린 전복을 뜻한다.

5.6. 잊히는 부분 명칭

부분 명칭은 사물에 따른 부분 부분의 이름을 말한다. 기억에서 멀어져 이제는 잊히는 어휘들이라 조사, 정리가 시급하다.

가. 물소중의

‘물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물소중의’가 있고, ‘물수건’, ‘물적삼’이 있다. ‘물수건’은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하고, ‘물적삼’은 ‘물소중의’ 위에 입는 적삼이다.

물옷의 대표는 ‘물소중의’다. ‘물소중의’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속곳을 말한다. 달리 ‘소중기, 소중의’라 한다. 이 ‘물소중의’는 ‘메친, 허리, 처지, 밧, 굴, 돌마기, 쾌, 곶’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 25〉 물소중의(사진 김순자)

㉠ 메친

‘메친’은 왼쪽 어깨끈을 말한다. ‘메친’의 ‘친’이 표준어 ‘끈’에 대응하고, ‘메’는 ‘어깨’에 해당한다. 만일 어깨끈이 둘이면 ‘어깨말이’ 또는 ‘어깨말’이라 한다. 이 ‘메친’은 지역에 따라 ‘메끈, 메큰, 미친’이라 한다. ‘메친’의 ‘친’은 옛말 ‘썸’이 ‘썸>친’의 변화 결과이다.

㉡ 허리

‘허리’는 윗옷[上衣]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슴과 배를 가린다. 여기서 ‘허리’는 물옷의 가운데라는 뜻이다.

㉢ 처지

‘처지’는 아랫배를 가리는 부분이다. 겹으로 되어 있다. 앞처지, 뒤처지가 있다.

㉣ 밧

‘밧’은 ‘물옷’의 아랫부분으로, 가랑이가 좌우로 갈리는 곳이다. 살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밧’은 원래 가랑이가 좌우로 갈리는 곳에 덧대는 형꺾 조각을 말한다. 겹으로 되어 있다. ‘밧’은 ‘밧’에 대응한다.

㉤ 굴

‘굴’은 가랑이에 해당하는데, 왼쪽과 오른쪽 이름이 다르다. 곧 오른쪽(사진의 왼쪽)은 옆이 트여 있어서 ‘암굴’이라 하고, 왼쪽(사진

의 오른쪽)은 ‘숫굴’이라 한다. ‘암굴’, ‘숫굴’의 ‘암’과 ‘숫’은 ‘암수’를 뜻한다.

㊤ 돌마기

‘돌마기’는 표준어 ‘매듭단추’에 해당하는데, 형꺾을 맺어서 만든 단추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돌메기, 별모작’이라고도 한다. ‘별모작’은 매듭을 별 모양으로 맺어서 만든 단추고, ‘모작’은 매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쾌

‘쾌’는 단춧구멍으로, ‘돌마기’와 한 쌍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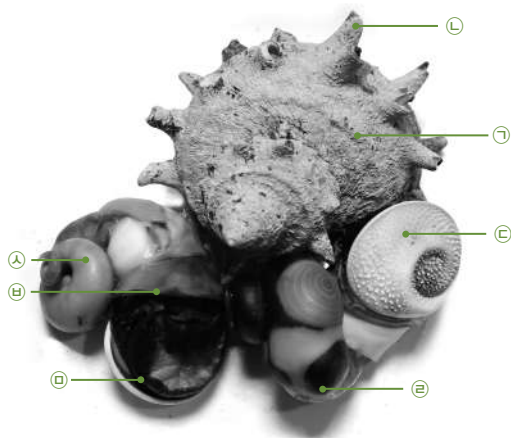
㊧ 곰

‘곰’은 옷고름을 말한다. 달리 ‘허릿곰’이라 하는데, 허리에 달린 옷고름이라는 뜻이다.

이 ‘물소중의’는 쉽게 갈아입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앉아서 왼쪽 다리를 끼우고 왼쪽 어깨에 ‘메친’을 걸고 일어서서 ‘돌마기’를 ‘쾌’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된다. ‘물소중의’는 강제로는 벗길 수 없다고 한다. 물웃은 1970년대 이후 까만 고무로 만든 ‘고무웃’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주황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만들고 있다.

나. 소라

제주에서는 소라를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이라 한다. 소라는 <사진 26>에서 보듯 ‘닥살, 쌀, 돈, 똥, 솔, 소중의, 깍’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닥살

<사진 26> 닥살과 삶아서 꺼낸 소라. (사진 김순자)

‘닥살’은 소라딱지, 즉 소라의 껍데기를 말한다. ‘닥살’은 달리 ‘구쟁기닥살 · 딱살 · 구쟁이닥살 · 구제기닥살’이라고 한다. 《한국동식물도감》(제33권, 연체동물, 1992:270)에 따르면 ‘닥살’은 7층의 나뿔으로 되어 있고, ‘쌀’(㉡)이라 부르는 돌기가 껍데기 군데군데 돌아 있다. 껍데기 안은 흰색이며 광택이 나기 때문에 단추나 자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껍데기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삶거나 구워 먹을 때는 “올앙 먹으라.”(열어 먹어라.)라고 말한다. 소라 살을 밖으로 꺼내는 것을 ‘올다’라 한다.

㉞ 쌀

‘쌀’은 소라의 뿔 모양의 돌기를 말한다. 이 ‘쌀’이 거칠고 싱싱하게 돌아 있으면 ‘쌀구제기·쌀구쟁기·쌀구쟁이’라 한다. 아주 건강한 소라다. 나이가 들고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바위에 부딪치면서 ‘쌀’이 닳아지면 ‘민둥구제기·민둥구쟁기·민둥구쟁이·문둥구제기·문둥구쟁기·문둥구쟁이’라 한다. 어린 소라는 ‘쟁쟁이, 쏘방구, 조쿠제기, 조쿠쟁이, 줍쓸구쟁기’라 부른다. 소라는 그 성장에 따라 ‘조쿠쟁이-쌀구쟁이-민둥구쟁이’ 순으로 말한다.

㉟ 돈

‘돈’은 소라의 살을 보호해 주는 뚜껑을 말한다. ‘돈’은 달리 ‘구쟁기닥지, 바둑, 바둑, 장군, 장귀, 툭베기’라 하는데, 석회질로 되어 있다. 소라 뚜껑은 아가리 모양과 같이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밖은 흰색 나선형 모양이 도드라진데 과립이 붙어 있어 까칠까칠한 반면, 그 안쪽은 갈색무늬가 있으며 편평하고 매끈하다. 제기를 만들 때 엽전 대신 쓰거나 땅뻐기를 할 때 말로 소용되기도 한다. 눈알고동의 뚜껑도 ‘돈·장귀 장군’이라 한다. 크기가 작은 눈알고동 또한 소라과에 속하는 고둥이다.

㊱ 똥

소라의 ‘똥’ 또는 ‘구제기똥·구쟁기똥·구쟁이똥’이라 한다. 먹지 않는다. 잘못해서 이 부분을 먹게 되면 모래가 씹히기도 한다. 먹을

때는 이 부분을 떼어 버리고 먹는다. 별 볼일 없는 것, 또는 하찮은 것을 빗대어 ‘눌구쟁이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눌구쟁이똥’은 ‘날 소라의 똥’이란 뜻이다. ‘눌구쟁이똥’은 쓸모없는 부분이어서 떼어 버려도 된다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 솔

‘솔’은 소라의 몸통으로, 먹는 부분이다. 날것으로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거나 구워 먹어도 좋다. 다만 구워 먹을 때는 물을 조금 부어서 구어야 한다. 물기가 없으면 굽는 도중에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몸통이 밖으로 튀어 나와 다치기도 한다. 몸통을 꺼내고 난 뒤 껍데기에 남아 있는 국물을 마시기도 한다.

㉡ 소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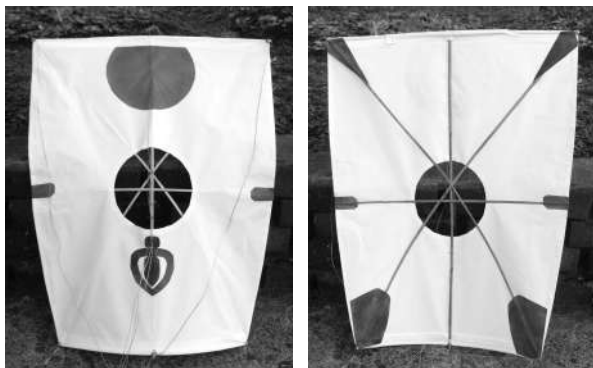
‘소중의’는 소라의 소화기관으로, 맹낭(盲囊)에 해당한다. 소라의 몸통 아래쪽에 속곳 모양으로 치맛자락처럼 얇게 뱅 둘러붙은,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 ‘소중의’는 달리 ‘속곳, 소중기, 수견’이라 한다. ‘속곳 · 소중의 · 소중기 · 수견’은 ‘여자들이 속곳으로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중의’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맹낭 모양이 ‘소중의’와 비슷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소화기관이라 쓸개즙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쓴맛이 난다. 먹을 때는 대체로 떼어 내고 먹는다.

㉠ 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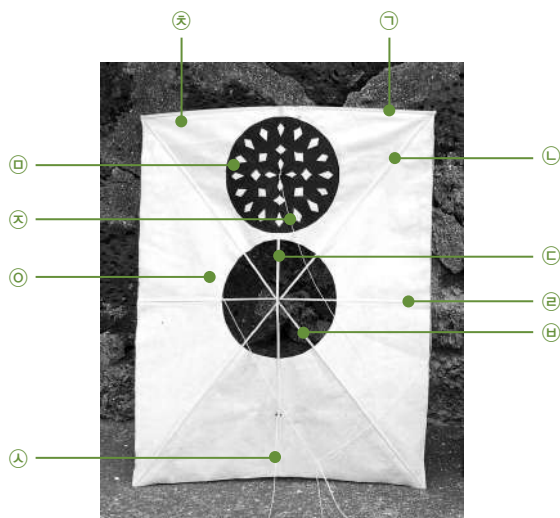
‘깍’은 ‘가장자리’ 또는 ‘꼬트머리’의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꼬트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생식기관의 꼬트머리라는 말이다. ‘깍’을 포함하여 같은 색깔을 띠는 부분까지가 소라의 생식기관이다. 소라는 전복처럼 암수딴몸으로, 〈사진 26〉에서와 같이 짙은 녹색을 띠기도 하고, 아니면 유백색을 띠기도 한다. 짙은 녹색이면 난소로 암컷 소라이며, 유백색이면 정소로 수컷 소라다. 전복의 암수 구별은 생식기관의 색깔[294쪽의 〈사진 22〉 참조]은 물론 전복갑을 보고도 알 수 있다. 곧 전복갑이 움푹하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 수컷, 바라지면 암컷이다. 그러나 소라의 암수 구분은 껍데기 모양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 오직 소라딱지에서 꺼낸 ‘깍’의 색깔로만 가능하다. ‘깍’은 삶은 소라일 때 가끔 먹기도 하고, 날것일 때는 주물주물해서 속의 내용물을 꺼내고 난 뒤 그 껍질로 젓갈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다. 연

연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가운데 하나다. 창호지에 잘 다듬은 땃개비를 가로세로로 붙이고 실을 맨 다음 공중에 높이 날리는 장난감이다. 연은 크게 가오리 모양을 한 가오리연과 방패 모양을 한 방패연이 있다. 가오리연 가운데는 꼬리가 마치 암탉의 꽁지깃을 닮은 ‘암퉁연’이 있고, 방패연 가운데는 〈사진 27〉과 같이 연



〈사진 27〉 토끼연 앞면(왼쪽)과 뒷면. 연의 뼈대를 이루는 연달의 끝부분은 다른 종이를 덧대어 붙이고, 연의 사방을 돌아가며 실을 넣고 종이를 고물쳐 단단하게 하였다.(사진 강영봉)



〈사진 28〉 쟁연(사진 강영봉)

의 가장자리에 실을 넣고 고불친 ‘토끼연’이 있다. ‘토끼연’은 가파도에서 조사된 이름이다.

연은 <사진 28>과 같이 ‘머릿대, 상대, 어질연대, 중대, 뒷별이, 귀별이, 가심별이, 조롭별이, 돌, 돌고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머릿대

‘머릿대’는 ‘머리 연달’의 뜻으로, 연의 머리에 붙이는 뗏개비를 말한다. 표준어 ‘머릿달’에 해당한다.

㉡ 어질연대

‘어질연대’는 연의 네 귀퉁이에 ‘x’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붙이는, 두 개의 뗏개비다. 달리 ‘긔대’라 하는데, 표준어 ‘긔달’에 해당한다. 천장이나 상여 위에 ‘x’자 모양으로 치는 휘장의 대도 ‘어질연대’라 한다.

㉢ 상대

‘상대’는 ‘큰 연달’의 뜻으로, 연의 가운데 세로로 붙이는 긴 뗏개비를 말한다. 표준어 ‘꽂숫달’에 해당한다.

㉣ 중대

‘중대’는 ‘가운데 연달’의 뜻으로, 연의 허리 부분에 가로로 붙이는 짧은 뗏개비를 말한다. 표준어 ‘허릿달’에 해당한다.

㊤ 돌

‘돌’은 ‘달’의 뜻으로, 연의 허리 위에 붙이는 둥그런 표를 말한다. 대개는 연의 한복판에 둥글게 방구멍을 오린 것을 쓴다. 표준어 ‘꼭지’에 해당한다.

㊥ 돌고망

‘달 구멍’의 뜻으로, 연의 허리에 둥글게 뚫은 구멍으로, 달리 ‘돌방’이라 한다. 표준어 ‘방구멍’에 해당한다.

㊦ 조롬별이

‘조롬별이’는 ‘꽂무니 별이’의 뜻으로,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맨 별이줄을 말한다. 달리 ‘깍별이, 조롬줄’이라 한다. 표준어 ‘꽂숫줄’에 해당한다. 이 ‘조롬별이’는 ‘가심별이’와 한군데로 모여 하나의 별이줄이 된다.

㊧ 귀별이

‘귀별이’는 ‘머릿대’ 양쪽 끝에 매는 별이줄이다. 달리 ‘귓줄’이라고 한다. 좌우에 하나씩 있어 하나의 별이줄이 된다. 표준어 ‘머릿줄’에 해당한다.

㊨ 가심별이

‘가심별이’는 연의 꼭지에 매는 별이줄이다. 달리 ‘상별이, 돌별이’

라 한다. 대응 표준어는 없다. 육지부 연에서는 방구멍에도 벌이줄을 매는데, 이를 ‘가운뎃줄’이라 한다.

㊤ 뒷벌이

‘뒷벌이’는 ‘머릿대’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을 말한다. 달리 ‘활’이라 한다. 표준어 ‘활벌이줄’에 해당한다. 쟁연의 좌우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종으로 자그마한 리본 모양으로 만든 ‘풍지’(갈개발)를 매달기도 한다.

연 띄우기는 열레를 이용한다. ‘서툰바치’는 ‘웨열레’(두모열레)를 사용하고, 차츰 ‘쌍열레’(네모열레)와 ‘통열레’로 나아간다. ‘통열레’는 ‘육모열레’나 ‘팔모열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어른이나 조금 큰 아이들이 사용했다. 연날리기는 주로 겨울철에 하는데, 정월 대보름 날에 연줄에 불을 붙여 연을 멀리멀리 날려 보낸다.

6. 가거들랑 흔저 읍서예 의미와 담화

6.1. 의미

6.2. 담화

세주에
길리잡이
를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떻 허렌 감수광

설룬 사람 보냄시메 가거들랑 혼저 읍서에

이는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사람이 마주해서 확인과 다짐을 받기 위하여 ‘가면 빨리 오십시오.’ 하는 뜻으로 “혼저 읍서에.”라고 말하는 것이다. 식당 출입문 등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뜻으로 써 있는 ‘혼저 읍서.’ 하고는 뜻하는 바가 다르다.

6. 가거들랑 혼저 읍서예 의미와 담화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떻 허렌 감수광

설론 사람 보냄시메 가거들랑 혼저 읍서예

위는 가수 혜은이가 부른 〈감수광〉의 후렴구로, 제주어가 쓰인 대표적인 노랫말이다. “가십니까? 가십니까? 날 어찌 하라고 가십니까? 서러운 사람 보내고 있으니 가거들랑 어서 오십시오.” 하는 뜻이다. 그런데 마지막 “혼저 읍서예.”에서 ‘예’가 표준어 대역에는 없다. 이는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사람이 마주해서 확인과 다짐을 받기 위하여 ‘가면 빨리 오십시오.’ 하는 뜻으로 “혼저 읍서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식당 출입문 등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뜻으로 써 있는 ‘혼저 읍서.’ 하고는 뜻하는 바가 다르다.

6.1. 의미

의미란 단어에 담긴 내용을 말한다. 단어 ‘사람’에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의미와 의미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를 의미 관계라 한다.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 · 동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구성 관계’, ‘동음 관계’, ‘다의 관계’, ‘비유 관계’ 등이 있다.

가. 유의 관계: 유의어, 비슷한말 / 동의 관계: 동의어, 같은 말

유의 관계란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비슷한 의미 관계를 말하고, 동의 관계란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같은 의미 관계를 뜻한다.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 또는 비슷한말이라 하고,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동의어 또는 같은 말이라 한다.

(1) ㄱ. 출레가 반찬이고, 반찬이 출레.

(‘출레’가 반찬이고, 반찬이 ‘출레’.)

ㄴ. 멍석이 덕석이고, 덕석이 멍석.

(멍석이 덕석이고, 덕석이 멍석.)

(1)은 다같이 ‘그게 그거다.’라는 뜻으로 인용되는 말이다. (1ㄱ)의 ‘출레’는 ‘밥에 팔리어 먹는 장이나 자리젓, 멸치젓 등 간이 들어간 반찬’이니 ‘반찬’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 ‘출레≒반찬’이라는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ㄴ)의 표준어 대역은 ‘멍석이 멍석이고, 멍석이 멍석.’이라 해야 하나, 육지처럼 “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을 뜻하는 ‘덕석’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그대로 살렸다. 물론 크기에 따라 멍석이 덕석보다 큰 것이긴 하지만 서로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1ㄱ)에서 ‘출레’는 ‘짜다’의 방언형 ‘츄다’에서 온 단어로, 자리젓, 멸치젓, 아감젓 등 젓갈류 반찬을 말하며, (1ㄴ)의 ‘덕석’은 표준어 ‘멍석’에 대응하는 말이다.

(2) ㄱ. 잔치 때 궤기 삶아난 국물에 뭍 썰어 넣 국을 끓이면 경 맛 좋아.

(잔치 때 고기 삶았던 국물에 모자반 썰어 넣서 국을 끓이면 그렇게 맛 좋아.)

ㄴ. 식게 때 멘 멧그릇에 거리국, 갠은 갡그릇에 거려.

(제사 때 멘 ‘멧그릇’에 뜨고, 갠은 ‘갡그릇’에 떠.)

(2ㄱ)의 ‘국’은 고유어, (2ㄴ)의 ‘갱’은 한자어에서 온 단어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서로 유의 관계를 이룬 경우다. (2ㄱ)의 ‘국’은 ‘고기, 생선, 채소 따위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이고, (2ㄴ)의 ‘갱’은 ‘제사나 명절 때에 끓여 신위 앞에 올리는 국’을 말한다. 밥과 짝이 되는 음식으로, ‘국’과 ‘갱’은 ‘국≡갱’이라는 유의 관계에 있다.

(2ㄴ)에서 ‘멧그릇’은 ‘뎌를 뜨는 그릇’, ‘갡그릇’은 ‘갱을 뜨는 그릇’을 말한다.

(3) ㄱ. 이젠 혼자도 어퍼졌다 갈라졌다 허여.

(이젠 혼자도 엎어졌다 뒤집혔다 해.)

ㄴ. 푸더졌다 우는 아이신디 땅 벌러졌덴 골은 울음 뚝 그쳐.

(넘어져서 우는 아이한테 땅 깨졌다고 말하면 울음 뚝 그쳐.)

ㄷ. 마리서 잘 놀단에 난간더레 박아진 거라.

(마루에서 잘 놀다가 틈마루로 고꾸라진 거야.)



〈그림 19〉 푸더졌다 우는 아이

(3ㄱ~ㄷ)의 ‘어퍼지다’, ‘푸더지다’, ‘박아지다’는 ‘몸이 바닥에 닿다.’는 뜻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한 어휘이다. (3ㄱ)의 ‘어퍼지다’는 ‘(배를 바닥으로 해서) 한쪽으로 넘어지다.’, (3ㄴ)의 ‘푸더지다’는 ‘(배를 바닥으로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3ㄷ)의 ‘박아지다’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부라져 쓰러지다.’는 뜻을 지녀, ‘어퍼지다≒푸더지다≒박아지다’는 서로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4) ㄱ. 문겐 상통일 뉘싸 불민 힘 못 써. 게문 들렁 오기도 좋고.

(문어는 몸통을 뒤집어 버리면 힘 못 써. 그러면 들어서 오기도

좋고.)

ㄴ. 모음이 풀어지믄 허는 일이 개부와.

(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벼워.)

ㄷ. 보려 오멍 용돈도 아저오주게.

(보려 오면서 용돈도 가져오지.)

(4ㄱ)의 ‘문게’는 ‘문어’를 말한다. ‘문게’를 달리 ‘물꾸력’이라 하는데, ‘문게’ 대신에 ‘물꾸력’으로 바뀌어 “물꾸력은 상투일 뉘싸 불민 힘 못 써. 게믄 들렁 오기도 좋고.”라 쓸 수 있다. 바뀌어 쓸 수 있는 것은 두 단어가 ‘문게=물꾸력’이라는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게’는 제주도 동쪽 마을에서 쓰는 말이며, 서쪽 마을에서는 ‘물꾸력·무꾸력’이라 한다. ‘상통이’는 ‘상투’에 대응하는 단어이나, 여기서는 ‘문어의 몸통’이란 의미로 쓰였다.

(4ㄴ)의 ‘모음’도 달리 ‘모슴, 모심’이라 하는데, ‘모음’ 대신에 ‘모슴’이나 ‘모심’으로 바뀌 말해도 뜻에는 변함이 없으니 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 (4ㄷ)의 ‘아저오다’는 ‘가저오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다른 형태인 ‘ㄱ저오다=거저오다=앗아오다=ㅇ저오다’ 등과 동의 관계를 이룬다. 결국 ‘문어: 문게, 무꾸력, 물꾸력’, ‘마음: 모음, 모슴, 모심’, ‘가저오다: 아저오다, ㄱ저오다, 거저오다, 앓아오다, ㅇ저오다’처럼 표준어에 대응하는 방언형들은 동의 관계에 있는 셈이다.

나. 반의 관계: 반의어, 반대말

반의 관계란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정반대의 뜻을 지니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런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반의어 또는 반대말이라고 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서로 짝이 되며, 하나의 의미 기준에서만 정반대가 되는 의미 관계이다. ‘어떻’은 [사람, 여성, 어른, 결혼]이라는 의미 속성을 지니는데, 이들 의미 속성 가운데 [사람, 어른, 결혼]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면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빠’가 된다. 곧 ‘어떻’의 반의어는 ‘아빠’이다.

(5) 죽음 삶이 맞서랴.

(죽음 삶이 맞서랴.)

(6) ㄱ. 싸 싼값이 싣나 허여.

(싸면 싣값이 있다 해.)

ㄴ. 물 싼 값 반이라. 경 쌔나.

(말뼌 말 값 반이야. 그렇게 비싸.)

(7) ㄱ. 조는 하나로 올르는디, ㄱ랫은 막 벌기명 올라.

(조는 하나로 오르는데, 가라지는 막 벌리면서 올라.)

ㄴ. 모물 벌 때도 눈비가 좌르륵좌르륵 노리곡 경허여.

(메밀 벨 때도 눈비가 좌르륵좌르륵 내리고 그래.)

(5)는 <차사본풀이>의 한 구절이다. ‘죽음’은 ‘죽다’, ‘삶’은 ‘살다’에서 파생한 단어로, 두 단어는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죽음’과 ‘삶’이라는 극과 극의 상태로, 그 중간인 ‘반죽음’과 ‘반 삶’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반죽음’이라는 단어는 있으나 ‘거의 죽게 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어릴 때 많이 듣던 “너 반 죽여 붙어.”라는 말은 ‘너 혼내줄 거야’, ‘너 때려줄 거야’ 하는 뜻이지, ‘반은 죽이고, 반은 살리고’ 하는 뜻은 아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이루는 반의 관계는 중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상보 반의어’라 한다. ‘남주(남자)↔여주(여자), 물↔불, 살다↔죽다, 익다↔설다, 참말(참말)↔그짓말(거짓말), 하늘↔땅’ 등은 ‘상보 반의어’다.

(6ㄱ)의 ‘싸다’와 (6ㄴ)의 ‘빋나다’도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각은 ‘저가’와 ‘고가’ 상품인 셈이다. 그런데 상품 가운데는 ‘중저가’도 있으니 ‘싸다’와 ‘빋나다’는 그 중간에 ‘중저가’라는 중간 영역이 있다. 이렇게 중간 영역이 있는 반의 관계의 반의어를 ‘등급 반의어’라 한다. ‘가깝다(가깝다)↔멀다, 둘다(달다)↔쓰다, 물들다(물밀다)↔물싸다(물써다), 베다(무겁다)↔개롭다(가볍다), 뽀르다(빠르다)↔느리다, 쉽다↔어렵다, 좋다↔나쁘다, 길다(길다)↔쪼르다(짧다), 열다(춥다)↔덥다, 크다↔작다(작다), 하다(많다)↔죽다(적다)’ 등이 있다.

(7ㄱ)의 ‘올르다’와 (7ㄴ)의 ‘느리다’도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올르다’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위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느리다’는 ‘아래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반의어를 ‘방향 반의

어'라 한다. '가다↔오다, 들어가다↔나오다, 사다↔팔다(팔다), 입다↔벗다, 주다↔받다, 시작↔끝(끝), 우(위)↔알(아래)' 등이 방향 반의어들이다.

다. 상하 관계: 상위어, 하위어

상하 관계는 두 단어가 서로 상대적이며,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 의미가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라 한다. 상하 관계는 단어들이 의미 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위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하위어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다.

(8) ㄱ. 부엌간이라고 하는데 것도 집 형태는 모커리라.

(부엌간이라고 하는데 것도 집 형태는 겹채야.)

ㄴ. 젤 작은 솥이 동솥.

(젤 작은 솥이 웅달솥.)

ㄷ. 떡은 무시거 허여 뭐. 저 정월명절엔 친떡하고 솔벤, 절벤.

(떡은 무엇 해 뭐. 저 정월명절엔 시루떡하고 '솔벤', 절편.)

ㄹ. 조팏 김질은 두벌, 보리밭 김질은 훈불, 산디밭 김질은 세벌.

(조밭 김은 두벌, 보리밭 김은 애벌, 밭벼밭 김은 세벌.)

(8ㄱ)의 '집'은 '부엌간/모커리→집→건물→건축물'로 계층을 이룬다. '부엌간'과 '모커리'는 '집'에 포함되며, '집'은 '부엌간'과 '모커리'

를 포함한다. 그러니 ‘집’은 ‘부엌간’과 ‘모커리’를 포함하는 상위어이고, ‘부엌간’과 ‘모커리’는 ‘집’에 포함되는 하위어이다. ‘집’과 ‘건물’에서는 ‘집’이 하위어, ‘건물’이 상위어가 되며, ‘건물’과 ‘건축물’에서는 ‘건물’이 하위어, ‘건축물’이 상위어가 된다. 여기서 ‘부엌간’은 부엌 전용의 별채를 뜻한다.

(8ㄴ)의 ‘숫’도 ‘동숫→숫→그릇→기구’의 계층을 이룬다. ‘숫’은 ‘동숫’을 포함하니 ‘숫’은 상위어, ‘동숫’은 하위어가 되고, (8ㄷ)의 ‘떡’은 ‘찐떡/솔벤/절벤→떡→음식’의 계층 관계로, ‘찐떡, 솔벤, 절벤’은 ‘떡’에 포함되니 ‘찐떡, 솔벤, 절벤’은 하위어, ‘떡’은 상위어가 된다. 여기서 ‘솔벤’은 ‘쌀가루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삶거나 찌낸 떡’을 말한다. 또 (8ㄹ)의 ‘조팻, 보리팻, 산디팻’은 상위어 ‘팻’에 따른 하위어들이다.

라. 구성 관계: 부분과 전체

구성 관계란 두 단어가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의 의미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 구성 관계에 있는 단어는 한쪽은 부분이 되고 다른 한쪽은 전체가 된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속담에서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어느 손가락을 물어도 아프다. ‘손’이 전체라고 하면 ‘손가락’은 부분이 된다.

- (9) 이디 뱅 돌르게 헤영 양지에 거 하영 나주. 거 도리버즘이렌 허여.
(여기 뱅 도리게 해서 얼굴에 거 많이 나지. 거 ‘도리버짐’이라고 해.)
- (10) ㄱ. 굴묵으로 들어가당 임뎡이 잘 조저.
(‘굴묵’으로 들어가다가 이마 잘 조저.)
- ㄴ. 곱은 다음에는 눈 터근에 좇는 거 그게 곱을락이라.
(숨은 다음에는 눈 떠서 찾는 거 그게 숨바꼭질이야.)
- ㄷ. 갓^ㄴ물집친 코가 씩 허게 막 메웁나.
(갓^ㄴ집친 코가 씩 하게 아주 맵다.)
- ㄹ. 좇덴 현 말은 아지방 입으로 곱은 말이우다양.
(좋다고 한 말은 아주버니 입으로 말한 말입니다요.)
- ㄹ. 물간 현 점 얻어먹젠 동동 허당 아래^ㄷ톡 빠지키여.
(‘말간’ 한 점 얻어먹으려고 동동 하다가 아래^ㄷ톡 빠지겠어.)

(9)의 ‘양지’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으로, ‘이마, 눈, 코, 입, 턱’ 등으로 구성된다. (10ㄱ~ㄹ)의 ‘임뎡이, 눈, 코, 입, 아래^ㄷ톡’ 등은 (9)의 ‘양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9)의 ‘양지’는 전체가 되며, (10ㄱ~ㄹ)의 ‘임뎡이, 눈, 코, 입, 아래^ㄷ톡’은 부분이 된다.

(9)에서 ‘도리버즘’을 대응 표준어 ‘진버짐’으로 대역하지 않은 것은 ‘도리버즘’이라 한다는 단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ㄱ)의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바깥 공간’을 말하며, (10ㄷ)의 ‘물간’은 ‘말의 간’을 말한다. (10ㄷ)에서 ‘맵다’는 옛말 ‘뵈다’에서 온 어휘이기 때문에 ‘맵다’로 적었다.

‘손’은 ‘손목, 손등, 손바닥, 손가락, 손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의 ‘손’은 전체를, (12ㄱ~ㄴ)의 ‘홀목, 손등어리, 손바닥, 손가락, 손굽’은 손의 구성 요소로, 부분에 해당한다.

(11) 불리는 거 손으로 형은 멘짝하게 잘 안 뒀주게.

(바르는 거 손으로 해서는 매끈하게 잘 안 되지.)

(12) ㄱ. 홀목 걷으멍 기십 좋게 돌려들어.

(손목 걷으며 담력 좋게 돌려들어.)

ㄴ. 손등어리에 만축 난 사름 하. 어느 순간 었어져. 었어지는 중 몰르게.

(손등에 무사마귀 난 사람 많아. 어느 순간 없어져. 없어지는 줄 몰르게.)

ㄷ. 웨할망 손바닥 우의서 키운 애기우다게.

(외할머니 손바닥 위에서 키운 아기입니다.)

ㄹ. 밥주리 포부뜨면은 잡젠. 잡은 거는 이 손가락에 다 점정.

(잠자리 맞붙으면 잡으려고. 잡은 거는 이 손가락에 다 끼워서.)

ㅁ. 바농을 하도 사용하니까 손굽이 아파.

(바늘을 하도 사용하니까 손부리가 아파.)

손가락과 발가락

손가락 이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주어	표준어
1	어금손가락·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대무지·무지
2	곤지손가락·아금지손가락· 아오계손가락·안주와기손가락· 안취왜기손가락·언주예기손가락	집계손가락·검지·식지
3	상손가락·장가락	가운뎃손가락·중지·장지
4	노네기손가락·노넬왜기손가락· 노니예기손가락·노니와기손가락	약손가락·무명지·약지
5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계지·소지

집계손가락에 해당하는 ‘안주와기, 안주왜기, 언주예기’ 등은 ‘안주다’, ‘언주다’에서 온 어휘로, ‘안쪽으로 당기다’는 뜻을 지닌다. ‘상손가락’의 ‘상’-은 ‘길이가 긴’의 뜻을 지닌 접두사이며, ‘노네기, 노넬왜기, 노니예기, 노니와기’ 등은 ‘노닐다’와 관련 있는 단어로, 다섯 개 손가락 가운데 담당하는 일이 가장 적어서 붙은 이름 같다.

한편 발가락 이름은 다섯 개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구분	제주어	표준어
1	엄지발가락·어금발가락	엄지발가락·엄지발·장지
2	상발가락	-(둘째 발가락)
3	상발가락	가운뎃발가락
4	-	-(넷째 발가락)
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새끼발·계지·소지

‘상발가락’은 지역에 따라 둘째 발가락 또는 가운뎃발가락을 말하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 지역은 아래와 같다.

- 2-상발가락: 성산을 삼달, 표선면 표선 · 성읍 · 세화, 남원읍 수망 · 태흥, 애월읍 봉성 · 구엄, 제주시 노형 · 외도
- 3-상발가락: 성산을 온평, 서귀포시 보목 · 토평, 안덕면 대평 · 덕수, 대정읍 인성 · 신도, 한림읍 옹포 · 월령, 제주시 도련

마. 동음 관계: 동음어 또는 동음이의어

동음 관계란 단어 형태는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런 동음 관계에 있는 단어를 동음어 또는 동음이의어라 한다. 사전에서는 ‘발¹, 발², 발³’ 처럼 단어 오른쪽에 1, 2, 3 등 어깨번호를 붙여서 구분한다.

(13) ㄱ. 아이 머리 위로 가달 냉기지 아냐다.

(아이 머리 위로 다리 넘기지 않는다.)

ㄴ. 가달 허품 좀저시든 줄키여.

(가랑이 조금 오므렸으면 좋겠어.)

ㄷ. 모새줍시엔 고사리도 영 세 가달로 벌린 거로만 놓렌 해수다.

(모샷그릇엔 고사리도 이렇게 세 갈래로 벌린 거로만 놓으라고 했습니다.)

ㄹ. 머리 다울 땀 세 가달로 헨 영 영 영 허멍 다와.

(머리 땀을 땀 세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땀아.)

ㅁ. 가달 손에 심엉 영 영 허든 물이 좌우로 움직움직허여.

(‘가달’ 손에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말이 좌우로 움직움직해.)

(13ㄱ)의 ‘가달’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그 몸을 받치거나 걷거나 달리는 일 등을 하는 몸의 일부분’을 뜻하며, (13ㄴ)의 ‘가달’은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떨어진 부분’을, (13ㄷ)의 ‘가달’은 ‘하나에서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알의 부분’을, (13ㄹ)의 ‘가달’은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낱알의 줄’을, (13ㅁ)의 ‘가달’은 ‘말 위에 타 앉았을 때 말을 부리기 위하여 양끝은 입에 물리는 재갈에 잡아매고, 두 가닥의 길이를 같게 꼬부려 접은 고삐’를 말한다. 말을 탔을 때 말의 방향을 조정하는 끈으로, 몽골어 ‘하자갈’(qajagar)에서 온 말이다. ‘가달’을 달리 ‘가달석’이라 한다.

(14) ㄱ. 이젠 눈 막 어둑어 붙어서.

(이제는 눈 아주 어두워 버렸어.)

ㄴ. 눈 묻곡 허민 노리가 눈에 딱딱 빠져.

(눈 쌓이고 하면 노루가 눈에 딱딱 빠져.)

ㄷ. 식 눈에 혼 눈.

(세 눈금에 한 눈금.)

ㄹ. 눈은 속으로 다까.

(물안경은 속으로 닦아.)

ㅁ. 눈이 하든 건 오분제기, 닢 개나 다섯 개든 점복.

(‘눈’이 많으면 건 오분자기, 네 개나 다섯 개면 전복.)

(14ㄱ)의 ‘눈’은 ‘사람이 나 동물의 몸에서 물건을 보는 기능을 맡은 감각 기관’이며, (14ㄴ)의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흰색의 결정체’,



〈그림 20〉 눈에 빠진 노리

(14ㄷ)의 ‘눈’은 ‘저울 따위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게 표시한 금’, (14ㄹ)의 ‘눈’은 ‘잠녀가 물질할 때에 쓰는 물안경’, (14ㅁ)의 ‘눈’은 ‘전복이나 오분자기에 있는 물구멍’을 말한다. 동물도감의 설명에 따르면, 전복이나 오분자기 ‘눈’은 물이 드나드는 구멍이라고 한다. 특히 전복갑의 왼쪽(입이 있는 쪽)의 제1, 2의 ‘눈’은 물이 들어오는 구멍, 제3, 4, 5의 ‘눈’은 물이 나가는 구멍이다. 물이 나갈 때 배설물도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한다.



〈사진 29〉 전복과 오분자기. 왼쪽의 전복은 숨구멍이 5개인데 오분자기는 7개이다.(사진 강영봉)

(15) ㄱ. 이젠 귀막안 잘 듣지 못하여.

(이젠 귀먹어서 잘 듣지 못해.)

ㄴ. 그런 건 나신의 듣지 말라.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라.)

(15ㄱ)의 ‘듣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는 청각 능력을 말하며, (15ㄴ)의 ‘듣다’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는 뜻이다. (15ㄱ)의 ‘듣다’와 (15ㄴ)의 ‘듣다’는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 관계에 있는 동음어다.

동음 관계는 방언과 표준어 사이에서도 일어나 언어생활에 재미와 혼란을 주기도 한다.

(16) ㄱ. 신 벗는 데가 난간 알이주게.

(신 벗는 데가 뒷마루 아래지.)

ㄴ. 보리 비젠 허민 호미, 호미 엇엇은 안 뉘주.

(보리 베려고 하면 낫, 낫 없어서는 안 되지.)

ㄷ. 각단밭딕 새 소리.

(‘각단밭’에 띠 소리.)

(16ㄱ)의 ‘난간’은 ‘뒷마루’에 대응하는 어휘로,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인 표준어 ‘난간’과 동음 관계를 이룬다. 표준어 ‘난간’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 구조물이며, 방언형 ‘난간’은 뒷간에 놓은 마루다. (16ㄴ)의 ‘호미’는 ‘곡식,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도구’로, ‘김

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도구'인 표준어 '호미'와 동음 관계에 있다. '매거나 캐는 도구'를 제주에서는 '굴쟁이, 굴각지, 굴게, 굴게기' 등으로 말한다.

(16ㄷ)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16ㄷ)의 '새'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을 말한다. 주로 지붕을 이거나 이엉이나 도롱이를 엮기도 하는데, 표준어 '띠'에 대응한다. '몸에 깃털이 있고, 다리가 둘이며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짐승을 통틀어 말'인 '새'와 동음 관계를 이루어 혼란을 일으킨다. (16ㄷ)의 '각단'과 '새'는 같은 종 내기다. '새왓'(띠밭)을 만들려고 하면 띠 뿌리를 밭에 심는데 이를 '새 드리다'라고 한다. '새를 드려서' 10여 년 이상 '새'를 수확할 수 있는데, 오래되면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짧은 '새'가 곧 '각단'이다. '각단'은 주로 '집줄'(초가지붕을 엮어매는 줄)을 만드는 데 쓴다. 그러니까 (16ㄷ)은 '각단밭'에 가서 "무사 새가 영 쫄라." (왜 띠가 이렇게 짧아.)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1〉 각단밭의 새 소리

바. 다의 관계: 다의어

다의 관계란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런 다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사전에는 가다 ① ② ③ 또는 먹다 1. 2. 3.처럼 표시한다. ‘가다’, ‘먹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각각 31개와 20개의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의어에 따른 의미들이다.

(17) ㄱ. 드는 중은 몰라도 나는 중은 안다.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

ㄴ. 나 무음에 안 들어도 아덜이 좋덴 허난 결혼시겜주마씨.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시켰지요.)

ㄷ. 감옷은 벋 맞추멍 헤사 물이 곱게 잘 들어.

(‘감옷’은 벋 맞히며 해야 물이 곱게 잘 들어.)

ㄹ. ㄱ실 들언 하늬부름 올르민 출 비엥 낫당 그거 멕이고.

(가을 들어서 하늬바람 오르면 꿀 베어 낫다가 그거 먹이고.)

ㅁ. 집 일젠 허믄 닌 사름을 들어샤.

(집 이려고 하면 네 사람은 들어야.)

ㅂ. 뭇 실렁 가는 것도 조합에 들지 못허민 운반을 못허여.

(뭇 실어 가는 것도 조합에 들지 못하면 운반을 못해.)

ㅅ. 감저 잘 들민 땅이 짹짹 갈라지주.

(고구마 잘 들면 땅이 짹짹 갈라지지.)

○. 나이 들었은 넘어지지 말렌덜 곱아.

(나이 들어서는 넘어지지 말라고들 말해.)

(17)은 ‘들다’가 쓰인 용례들이다. (17ㄱ)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17ㄴ)은 ‘어떤 물건이 사람이 좋게 받아 들여지다.’, (17ㄷ)은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17ㄹ)은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17ㅁ)은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17ㅂ)은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 (17ㅅ)은 ‘식물의 뿌리나 열매가 속이 단단한 상태가 되다.’, (17ㅇ)은 ‘나이가 많아지다.’ 등 무려 여덟 가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18) ㄱ. 지동에 메어 둠서 줄 잡앙 놀리는 연이 춤연.

(기동에 매어 두고서 줄 잡아서 날리는 연이 쟁연.)

ㄴ. 췌 두 바리 메어났젠 곱아.

(소 두 마리 매었었다고 해.)

ㄷ. 생맹진 메지 아년 것ᄁ라 생맹지엔.

(생명준 매지 않은 것보고 생맹주라고.)

ㄹ. 낭에 배 메엿 막 밀리곡 허멍 궁글 타고.

(나무에 바 매어서 막 밀고 하며 그네 타고.)

ㅁ. 눌은 뭐 곡석에 메존.

(가리는 뭐 곡석에 매지.)

(18)은 ‘메다’가 쓰인 용례다. (18ㄱ)의 ‘메다’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끈이나 줄 따위로 잇대어 묶다.’, (18ㄴ)의 ‘메다’는 ‘가축을 기르다.’, (18ㄷ)의 ‘메다’는 ‘옷감을 짜기 위하여 날아 놓은 날실에 풀을 먹이고 고루 다듬어 말리어 감다.’, (18ㄹ)의 ‘메다’는 ‘끈이나 줄 따위를 어떤 물체에 단단하게 묶어서 걸다.’, (18ㅁ)의 ‘메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정하다.’의 뜻이다. (18ㄱ)에서 ‘춤연’은 ‘참연’의 뜻으로, ‘쟁연을 꼬박연과 비교할 때 이르는 말’이다.

(18)에서 ‘메다’로 표기한 것은 ‘메다’가 옛말 ‘미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다의어는 그 뜻에 따라 대응하는 방언형이 달라지기도 한다.

(19) ㄱ. 고무줄은 이리 **잡곡** 저리 **잡곡** 헨 두 사람이 **잡앙** 가운데서 뛰주게.

(고무줄은 이리 잡고 저리 잡고 해서 두 사람이 잡고 가운데서 뛰지.)

ㄴ. 도세기 상 **잡앙** 고긴 풀고, 안침은 해단에 먹고.

(돼지 사서 잡아서 고긴 팔고, 안침은 해다가 먹고.)

(19ㄱ)의 ‘잡다’와 (19ㄴ)의 ‘잡다’는 표준어 ‘잡다’에 대응한다. (19ㄱ)의 ‘잡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는 뜻이니, ‘잡다’ 대신에 ‘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한편 (19ㄴ)의 ‘잡다’는 ‘동물을 죽이다.’는 뜻이기 때문에 ‘잡다’를 ‘심다’로 바꿀 수는 없다. 뜻에 따라 방

언형이 달라지는 경우다.

사. 비유 표현

비유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빗대거나 예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전에 따라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을 이르는 말’로 설명한다.

(20) ㄱ. 고팡문 올라져수다게.

(광문 열렸습니다.)

ㄴ. 돛가죽도 이런 돛가죽은 없어.

(‘돼지가죽’도 이런 ‘돼지가죽’은 없어.)

ㄷ. 발차명 와수다게.

(발차며 왔습니다.)

ㄹ. 밤고녕이 돌아멧기듯 어디 멧검시니게?

(밤고양이 돌아다니듯 어디 다니니?)

ㅁ. 웨바농 코타지기 쉽나.

(외바늘 잘못되기 쉽다.)

(20ㄱ)은 ‘광문 열렸습니다.’ 하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바지 지퍼 열렸습니다.’ 하는 의미다. 제주에서 ‘고팡’은 아주 중요한 곳이다. 큰방 가까이 마련하고, 마루문은 잠그지 않아도 ‘고팡문’만은 반드시

시 잠근다. 광에는 중요한 식량이 있기 때문이다.

(20ㄴ)의 ‘뚫가죽’은 돼지가죽의 뜻이지만, ‘성질이 다릅고 질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20ㄷ)의 ‘발차다’는 ‘돌부리를 차다.’, ‘발이 돌부리에 걸리다.’라는 뜻과 함께 ‘부리나케 걷거나 달다.’의 의미로 쓰인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하는 말이다.

(20ㄹ)의 ‘밤고녕이’는 ‘도둑고양이’로, ‘밤중에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20ㅁ)의 ‘코타지다’는 ‘귀때 떠다’의 뜻과 더불어 ‘잘못되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웨바농’(외바늘)도 ‘외아들’을 비유한다.

6.2. 담화

담화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의도를 표현한 말을 뜻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시간과 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 담화라면 문장보다는 큰 단위를 말한다.

(1) ㄱ. 베염!

(뱀!)

ㄴ. 초췌은게 막 필요한 때만 씹니께게.

(chap쌀은 아주 필요할 때만 씁니다.)

ㄷ. 그건 난 잘 모르고.

(그건 나는 잘 모르고.)

(1ㄱ)은 뱀이 나타난 사실을 알리고, 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이다. (1ㄴ)은 “chap쌀은 막 필요할 때만 씁니까.”해도 되는데 ‘강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게’가 들어가 있다. 이는 문장보다 큰 단위라 할 수 있다. (1ㄷ)의 ‘그건’은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무엇인지 모른다. “색깔에 따른 말[馬] 이름 알아져마씀?”이라는 조사자의 질문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답화는 문장을 포함하여 그보다 크거나 작은 단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답화는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답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답화 표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답화 표지는 (2)와 같다.

(2) ㄱ. 보조사: 게, 기, 이, 양, 예, 마씨 등

ㄴ. 대명사(지시): 이, 그, 저 등

ㄷ. 관형사: 무신 등

ㄹ. 부사: 게난, 아니, 아무튼 등

ㅁ. 감탄사: 게메, 뭐, 아, 참 등

(2ㄱ)의 보조사는 종결 보조사이며, (2ㄴ)의 대명사는 지시 기능을 지닌 지시 대명사가 여기에 속한다. (2ㄷ)의 관형사 ‘무신’은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며, (2ㄹ)의 ‘게난’은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아니’는 반대의 뜻이나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쓴다. (2ㅁ)의 ‘게메’는 남의 물음인 요구에 대해 갖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뭐’는 잊고 있던 어떤 사실을 떠올리거나 생각의 전환을, ‘아’와 ‘춤’은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쓰이는 담화 표지들이다.

(3) ㄱ. 게난 옛날은 반창이엔 헨 건 엇엇주께.

(그러니까 옛날은 반창이라고 한 건 없었지.)

ㄴ. 곱은제기 허멍 놀 속에 강 무사 안 놀 말이라께?

(숨바꼭질 하면서 가리 속에 가서 왜 안 놀 말인가?)

(3)은 담화 표지 ‘게’의 쓰임을 보인 것이다. 종결 보조사 ‘게’는 ‘강조, 확인, 촉구’를 나타내는 담화 기능을 담당한다. (3ㄱ)은 “게난 옛날은 반창이엔 헨 건 엇엇주.”와 비교할 때 ‘게’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담화 표지 ‘게’가 없으면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지만 ‘게’가 들어감으로써 조사자인 말 듣는 사람에게 ‘옛날에는 반창이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말 듣는 조사자가 없다면 굳이 ‘게’는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3ㄴ)의 ‘놀 속’은 ‘가리 속’을 말하는데, 숨바꼭질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놀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게’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다.

(4) ㄱ. 버른이엔 헌 건 쓸데가리엇이 일을 만들멍 땡긴덴 허는 말이주긴.

(‘버른’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이 일을 만들면서 다닌다고 하는 말이다.)

ㄴ. 여길 후곰 줄여사 보선 본이 뉘주긴.

(여길 조금 줄여야 버선 본이 되지.)

(4ㄱ, ㄴ)의 ‘기’도 종결 보조사로, ‘강조, 확인’의 뜻을 포함한다. (4ㄱ)의 ‘버른’은 ‘쓸데없이 만들어 내는 난잡한 행동이나 장난’의 뜻을 지닌 어휘다.

(5) ㄱ. 옛날은이 콤대산이가 없으니까 평마농을 뿌리로 파 오는 거라이.

(옛날은 마늘이 없으니까 달래를 뿌리로 파 오는 거야.)

ㄴ. 훈 대바지가 딱 석 뉘 들어인.

(한 ‘대바지’가 딱 석 되 들어.)

(6) ㄱ. 스물네 시간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 아니꽈? 경허난 음양이렌 잇 어얌.

(스물네 시간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있어요.)

ㄴ. 그다음 양씨, 고씨,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뉘서얌.

(그다음 양씨, 고씨,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되고 있어요.)

(7) ㄱ. 여기는 청명만 뒤편은 물은 나가는디 소는 한 이십일 간 늦어만
썸. 나가는 시간이.

(여기는 청명만 되면 말은 나가는데 소는 한 이십일 간 늦어요.
나가는 시간이.)

ㄴ. 그 옛날엔 그 돛가래 뉘넌 손으로 밥을 먹어만썸.

(그 옛날엔 그 돼지거름 냈던 손으로 밥을 먹어요.)

(5ㄱ, ㄴ)의 ‘이’는 ‘동의’나 ‘확인’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6ㄱ, ㄴ)의 ‘양’은 ‘동의, 재촉, 사정’을 나타내고, (7ㄱ, ㄴ)의 ‘마썸’과 ‘마썸’은 존대의 뜻으로 쓰인 경우다.

(5ㄴ)에서 ‘대배지’는 ‘아이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물동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대배기’라고도 한다.

(8) ㄱ. 쥘기떡이엔 허는디, 무신 저 육지서 ㄱ뜨민 개떡이엔 헐 건가?

(쥘기떡이라고 하는데, 무슨 저 육지서 같으면 개떡이라고 할 건가?)

ㄴ. 강이 잡으레 가곡 뉘 경 허는 거주, 무신.(웃음)

(게 잡으러 가고 뉘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웃음))

(8)은 관형사 ‘무신’의 쓰인 경우다. (8ㄱ)의 ‘무신’은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묻는 뜻’이며, (8ㄴ)의 ‘무신’은 ‘사물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르는 말’이다. 특히 (웃음)이라는 제보자의 웃음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9)와 (10)은 감탄사 ‘게메’의 용례다. 이 ‘게메’는 대체적으로 ‘남의 물음인 요구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쓴다.

(9) 아이, 결혼사진 찍어신디, 게메, 이사해연 땡기단 보난 어딤덜 다 가 불언 누시 좇질 못허여.

(아니, 결혼사진 찍었는데, 글썄, 이사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들 다 가 버려서 도무지 찾질 못해.)

(10) 조사자: 열곳은 무사 열곳이렌만 허는 겨우짜?

(‘열곳’은 왜 ‘열곳’이라고만 하는 겁니까?)

제보자: 게메, 모르쿠다. 어른덜 경 골으난. 무사 열곳산디 난 그것 ㄱ장은 몰라.

(글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그렇게 말하니까. 왜 ‘열곳’인지 난 그것까지는 몰라.)

(9)는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결혼 사진 한번 훑아봅서.”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이다. 결혼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음을 ‘게메’라는 감탄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10)에서도 ‘왜 열곳’이라고 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게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열곳’은 달리 ‘열곳떡’이라고도 하는데, ‘열 가지 떡’ 또는 ‘다 갖추어진 떡’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어휘다. 보통 ‘시루떡, 인절미, 절편, 솔벤, 중계, 약과, 강정, 요해, 과질, 웃기떡’ 등 열 가지 떡을 가리킨다.

(11) 제보자: 콩으론 메주허곡 국 끌령 먹고.

(콩으론 메주하고 국 끓여서 먹고.)

조사자: 음.(음.)

제보자: 그다음 뭐, 뭐냐? 그 저 강 돈 강 받아오고.

(그다음 뭐, 뭐냐, 그 저 가서 돈 가서 받아오고.)

조사자: 음, 둠비도 해 먹고?

(음, 두부도 해 먹고?)

제보자: 둠비도 해 먹고 그거주.

(두부도 해 먹고 그거지.)

(11)은 ‘콩’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다. 콩으로 ‘메주, 콩국’ 하고 나열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 ‘뭐, 뭐냐’ 하고 기억을 환기하려고 할 때 조사자(말 듣는 사람)가 ‘둠비’ 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때 ‘뭐’는 ‘환기, 생각의 전환’의 기능을 한다.

(12)의 ‘춤’도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하는 말’이다.

(12) 제보자 1: 패마농지시는 불리도 허곡 썸도 허는디 썸은 떼어 불어.

(쪽파장아찌는 뿌리도 하고 잎도 하는데 잎은 떼어 버려.)

제보자 2: 에이, 썸은 안 해여.

(에이, 잎은 아니 해.)

제보자 1: 불리로만 햄서.

(뿌리로만 하고 있어.)

제보자 2: 으, 뱃것딴서 후썰 시들왕은에 기냥 장물에 동가.

(으, 바깥에서 조금 시들려서 그냥 간장에 담가.)

조사자: 드룻마농짐치는마씨?

(달래김치는요?)

제보자 1: 드룻마농짐치도 마찬가지로. 것도 후썰 불리를 시들
뤄야 뉘어.

(달래장아찌도 마찬가지로. 것도 조금 뿌리를 시들려야 돼.)

조사자: 우에 썬은 안 하고 밑에 것만?

(위의 잎은 안 하고 밑의 것만?)

제보자 1: 밑에 것만. 초, 우에 거는 짐치 담양 먹주게.

(밑의 것만. 참, 위의 거는 김치 담가서 먹지.)

(12)는 쪽파장아찌에 이은 달래김치에 대한 이야기다. 제보자는 쪽파장아찌는 뿌리와 잎으로 장아찌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 달래김치도 뿌리로만 한다고 말을 이어가다가 그게 아님을 알아차리고는 ‘춤’이라는 감탄사를 써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나서 말할 내용을 바꾸고 있다.

찾아보기

〈ㄱ〉

-가 160, 213, 226
 가달 31, 42, 334
 가달석 275, 277, 334
 가라 42, 277
 가라(물) 275
 가린석 191
 가막창신 67
 가변어 130, 151
 가심벌이 317
 가을내낭 166
 가의 138, 140
 가잡다 327
 가프다 39
 각단 136, 337
 각단뱃 337
 간전이 276, 277
 갈- 114
 갈라지다 212
 갈산절산 128
 갈적삼 164
 갈중의 164
 감주 280
 감수광 321
 감옷 157
 감저 42, 280
 감저꿀 40, 256

감저줄 256
 감저출 256
 감제 280
 감젓줄 256
 감주 183
 감탄 종결 212
 감탄문 212, 225
 감탄사 130, 171, 209
 감탄형 어미 160, 212
 -강 160
 강알티진바지 125
 같은 말 322
 개- 114
 개굿 59
 개다 59
 개뿔다 327
 개판 59
 객체 높임 217, 232
 거리 133
 거슨브름 34
 거심손 122
 거저오다 325
 건두건 263
 건옷 263
 겹다 39
 겹름 103, 104
 겹- 114
 겹넙 72

겁덩 105
 겁술 41, 114
 게 104, 221, 343
 -게 160, 215, 216, 229, 230
 -게 하다 246
 -게 됐다 247
 게게 173
 게난 343
 게메 209, 343
 게무심 148
 갱 323
 갱국 287
 갱그릇 323
 격 조사 39, 175, 192
 경구개음 47, 73
 경음화 69, 77
 경허곡 208
 -고 160, 213, 226
 -고 시프다 156
 -고나 160, 212, 225
 고녕이 281
 고동 311
 고들게 276, 277
 고들게친 276
 고들갯낭 276
 고라 42, 277
 고라(몰) 276
 고모음 52
 고유 명사 131
 고장 267
 고지 31
 고팡 91
 고팡문 123, 341

-곡 160
 곤- 107
 곤죽 107
 곤지손가락 332
 골감주 181
 골충 42, 272
 곰 310
 곱은도리 300
 곱을내기 116
 공동격 조사 189
 공깃간 297
 꽃 31
 -과- 234
 과거 234
 관계언 130
 관덕청 132
 관형격 조사 185, 206
 관형사 130, 160
 관형사 합성 127
 관형사형 어미 40, 160, 206
 관형어 206
 광 176, 188, 189
 광목 197
 교체 69
 구개음화 39, 50, 69, 73
 구녕 272
 구령 42, 277
 구령(몰) 276
 구로시오[黑潮]해류 37
 구명뱃 303
 구성 관계 329
 구수 147
 구승 268

구시 268, 287
 구제기 311
 구제기닥살 311
 구제기똥 312
 구쟁기 311
 구쟁기닥살 311
 구쟁기닥지 312
 구쟁기똥 312
 구쟁이 311
 구쟁이닥살 311
 구쟁이똥 312
 구체스럽다 119
 국죽 75, 77
 굴 309
 굴레 31
 굴무기 109
 굴묵 330
 굴묵도 229, 300
 굽돌은접시 123
 궁둥저베기 179
 굶엄직하다 41, 119
 꿰다 265
 켜당 67
 귀마리 268
 귀막쉬 109
 귀막쟁이 115
 귀별이 317
 꿇대 316
 꿇줄 317
 그끄지게 240
 그끄직아시날 240
 그늘치다 90
 그딕 143

그레 167
 그르후제 240
 그슨새 94
 그신새 94
 그지게 240
 그직아시날 240
 그직아시날또아시날 240
 그짓칼 327
 근칭 143
 글쟁이 42, 116, 283
 글다 188
 글라 188
 글로 167
 글르후제 240
 글미 138, 140
 글지후제 240
 글피 240
 글피뵈날 240
 금승 147
 -기 120, 160
 기 343
 기본형 정하기 152
 기신새 94
 기여 173
 기영하다 156
 깍 314
 깍별이 317
 꺼끄다 39
 꺼끄떡 307
 꺼장 193
 꺼지 193
 -껏 120
 -파 160

광볼른궤기 125
 궤 328
 궤내 166
 궤끼다 268
 궤늘다 57
 궤라 176, 187
 궤레 116
 궤롭다 63
 궤르 187
 궤만읏자 172
 궤므궤다 268
 궤새 42, 57, 116
 궤슬내낭 166
 궤장 166
 궤쳐오다 325
 궤찌 39, 74
 궤치 39, 74, 176, 188, 189
 궤트다 155, 189
 궤다 151
 궤각지 41, 116, 284, 337
 궤게 41, 284, 337
 궤게기 41, 284, 337
 궤쟁이 17, 39, 41, 42, 116, 190,
 283, 337
 궤레기 265
 궤른오름 265
 궤 32
 궤읏이 32, 169
 궤쫓다 32
 궤사 166, 208
 궤세 166
 궤장 193, 197
 궤지 193

〈ㄴ〉

ㄴ 190
 -ㄴ 160, 234
 -ㄴ(-는/-ㄹ) 생이다 254
 -ㄴ(-ㄹ) 거 닳다 256
 -ㄴ가 213, 226
 -ㄴ게 220
 -ㄴ고 213, 226
 -ㄴ다 160, 220, 234
 -ㄴ디 226
 -ㄴ디야 226
 -나 211, 220
 나릅 147
 나뵤서 209
 나야더리 174
 나얹직ㅎ다 41, 119
 난- 114
 -난 160
 난간 42, 336
 난시 268, 287
 날르- 104
 남주 327
 남신 110
 남직ㅎ다 41, 119
 낫 136
 낭 133
 낭도고리 58
 내 59
 내기 116
 -내낭 110, 120, 240
 내닐다 121
 내다부쪼다 39

내다부치다 39
 내밀심 76
 내움살 58, 59
 내치다 76
 너물 147
 넓메역 288
 녇- 112, 114
 녇손지 112
 녇하르방 112, 114
 녇할망 112
 -네 115, 120, 160, 211, 212, 220
 네 59
 네외 59
 네일 240
 넬 240
 냉국 231
 냉수 59
 -네 220
 노네기손가락 332
 노넬왜기손가락 332
 노니에기손가락 332
 노니와기손가락 332
 녹대 31, 42, 276, 277
 놀래 62
 놀레 62
 눅 17
 눅임 표현 217
 눈 335
 눌 268
 눌 속 344
 눌다 268
 느쟁이 151, 265
 느직이 240

느쟁이 42, 265
 늑신네 84
 능동 247
 닐 240
 님 133
 누리다 327
 누물 57
 누시 166
 누잡다 118
 놀구쟁이퐁 313
 놀냥 73
 눅삐 26, 42, 286

〈ㄷ〉

-다 160, 211, 220, 234
 다간 147, 278
 다도테기 135
 다섯물 147
 다습 147
 다의 관계 338
 다의어 338
 닥살 311
 -단 234
 단뿔 124
 단모음 53, 62
 단모음 체계 53
 단수 표준어 27
 단어 105
 단위성 의존 명사 132, 133
 단일어 109
 단지눅삐 286

담화 342
 담화 표지 343
 대 59
 대등적 연결 어미 160
 대명사 130, 138
 대바지 346
 대방언권 20
 대배기 346
 더레 176, 186, 187
 덕석 323
 덜- 114
 -덜 137
 -데- 234
 -데기 116
 데답 59
 도 42, 287
 도- 114
 도곰 42, 278
 도끈 169
 도록 169
 도리버즘 330
 도세기 57
 독립어 209
 독립언 130
 독집 56
 돈 312
 돌감 90
 돌팡에 98
 둠비 209
 돛- 112
 돛가죽 342
 돛자라 112
 돛못인거 125

동고랭이 169
 동사 130, 149, 205
 동사 파생 116
 동사 파생 접미사 117
 동솥 268, 329
 동음 관계 333
 동음어 333
 동음이의어 333
 동의 관계 322
 동의어 322
 동지집치 91
 된소리 77
 된소리되기 77
 두루막 264
 두말치 135
 두물 147
 독지 264
 둠비 57, 348
 뒤- 114
 뒤 133
 뒤다 150
 뒤쳐지 309
 뒤별이 318
 드레 186, 187
 드리다 194
 듣다 42, 244
 들다 339
 들엄직허다 259
 등급 반의어 327
 딴 39, 103, 104, 176, 186
 -디 213
 딱살 311
 때 59

떠바 174
 떼 59
 또봐 174
 똥 312
 두리 54
 독집 56
 돈다 151
 돌 56, 317
 돌고망 317
 돌다 155, 327
 돌마기 42, 265, 310
 돌메기 310
 돌방 317
 돌별이 317
 뚝뚝 166
 뽕뽕하다 107
 푼 161

〈ㄹ〉

-ㄹ 160, 234
 -ㄹ레 226
 -ㄹ로고 226
 ㄹ 첨가 89, 93
 ㄹ 탈락 83, 85
 라 176
 -라 160, 215, 220, 226, 229
 -라- 234
 란 192
 -랍- 120
 랑 192, 193
 러레 187

레 39, 176, 186
 레레 176, 186
 르레 187

〈ㅁ〉

-ㅁ 160, 234
 -ㅁ직후- 258
 마 42, 172, 278
 마농 39
 마슴 232
 마시 232
 마심 232
 마쑈 231
 마씨 232, 343
 마썸 232
 마찰음 48
 막 166
 막물 148
 만이 166, 176
 만히 166
 말 133
 말가웃 135
 말다 173, 268
 말다 부정 252
 말젓돌 124
 말지기 133, 135, 136
 말치 135
 매기독닥 174
 머릿대 316
 먹- 114
 먹엄직허다 118

먹음직하다 259	모음 교체 80
먼먼흔 161	모음 조화 80, 81
멀터거니 268	모음 축약 96, 98
-명 160	모음 체계 38
명석떡 29	모음 탈락 88
메 174	모커리 297, 328
-메 220	목적격 조사 180, 203
메계 174	목적어 203
메계라 174	문밖 166
메끈 309	문짝 166
메다 340	물록 169
메다부찌다 39	못 248
메다부치다 39	못 부정 251
메딱 166	몽니 17
메룩 173	무거리피술 307
메운대 122	무꾸럭 325
메친 263, 309	무낭 288
메큰 309	무사 166
-멘 226	무수 26, 286
멘딱 166	무신 343
멘작 166	무신거 227
멜컷 39, 91, 105	무의낭 290
멧그릇 323	무히낭 290
명령 종결 215	문계 50, 325
명령문 210, 215, 228	문도 287
명령형 어미 160, 215	문둥구제기 312
명사 130, 131	문둥구쟁기 312
명사 파생 115	문둥구쟁이 312
명사 합성 122	문밖 166
명사형 어미 160	문법 형태소 73, 103
모리 240	문우제 179
모살 109	문장 부사 165, 170
모음 51	문장 종결 210

문장 성분 202
 문전제 179
 문제 179
 문짝 166
 물꾸럭 325
 물들다 327
 물떡 51
 물소중의 308
 물수건 308
 물싸다 327
 물옷 308
 물자리 27
 물젤 27
 물적삼 308
 미녕 197
 미래 238
 미션 42, 270
 미친 309
 민둥구제기 312
 민둥구쟁기 312
 민둥구쟁이 312
 밋 309
 무녀 166, 240
 무네 166
 무슴 325
 무실카다 39
 무심 325
 무음 325
 무작 310
 문 166
 문딱 166
 문저 166
 문짝 166

문처 166
 문침 166
 물- 114
 물간 330
 물줄싸다 244
 뭍 56
 뭍국 39

〈ㅁ〉

ㅁ 불규칙 동사 153
 -ㅁ네까 213, 226
 -ㅁ네다 211, 220
 -ㅁ니께 211, 220
 -ㅁ데가 228
 -ㅁ데강 228
 -ㅁ데다 220
 -ㅁ디가 213, 226, 228
 -ㅁ서 160, 215, 229
 -ㅁ주 160, 216, 230
 ㅁ 불규칙 형용사 156
 ㅁ 첨가 89, 91
 바농 39
 바당 39, 94, 109
 바당알 256
 바둑 312
 바둑 312
 바령 198
 바리 133, 135
 -바리 116, 292
 바씩 166
 -바치 116

박박 303
 박아지다 324
 반대말 326
 반모음 62, 81
 반모음 첨가 95
 반모음화 80
 반복어 301
 반의 관계 326
 반의어 326
 반치 189
 받흠대 97
 발눈 73
 발랑발랑 166
 발화시 233
 밤고냉이 342
 밤부리 27
 밥주리 27
 밥주어리 27
 밋 103, 104
 밋도 288
 밋칠성 257
 망서 260
 망언 구획 20
 망엿귀 204
 망향 반의어 327
 버데 169
 버른 345
 별ㅁ작 310
 베 59, 133, 197
 베다 327
 배우다 59
 베작허다 294
 벨아벨 161

보 173
 보격 조사 181, 204
 보담 176, 188, 189
 보리밭 329
 보릿놀 121
 보미다 42, 265
 보시 268
 보어 204
 보조 동사 149, 150, 155
 보조 형용사 155
 보조사 103, 192, 203
 보조사 일람 192
 보조적 연결 어미 160, 241
 보통 명사 131
 복닥 278
 복수 표준어 27
 복수화 접미사 137
 본동사 149
 뵙서 172
 붓벗은돌벥이 269
 봉가먹다 300
 봉그다 299
 봉덕 298
 봉덕화리 298
 부날 148
 부떠 193
 부땀 193
 부루 42, 277
 부루(물) 276
 부사 130, 165
 부사 파생 119
 부사 파생 접미사 120
 부사 합성 128

부사격 조사 186, 207
 부사어 207
 부섭 42, 143, 195, 297
 부수 166
 부정 부사 165, 248
 부정 표현 248
 부찌다 75
 부치다 39
 부텨 193, 197
 북세미 269
 북시미 269
 북침 269
 불- 114
 불다 150
 불변어 130
 불치 268
 불바리 84
 불깍신 75
 불임표 104
 비교격 조사 188
 비다 150
 비바리 42, 116, 292
 비슷한말 322
 비유 표현 341
 비음 48
 비음화 69, 71
 비창 293
 빈 29
 빈떡 29
 빗 293
 빗창 293
 빙 29
 빙떡 29, 42, 80, 272

빙에기 116
 빵칩 91
 빼벗다 107
 뽐 268
 삐다 268
 볼써 166
 뽕르다 327

〈人〉

스 불규칙 용언 39, 154
 사건시 233
 사데 65
 사동 246
 사동 접미사 246
 사동사 247
 사름 104
 사름답다 119
 사름 147
 사잇소리 121
 삭다리 268
 산담 136
 산디밧 329
 산태 27, 268, 269
 산태비 28
 살락 169
 살레 299
 살암직후다 41, 119
 살체깃도 288
 삼수 147
 삼수세기 227
 상- 112

상 표현 241
 상(相) 234
 상군 290
 상대 316
 상대 높임 40, 217, 219
 상발가락 332
 상방 112
 상별이 317
 상보 반의어 327
 상빚 112
 상삔 294
 상손가락 112, 332
 상승적 이중 모음 64
 상아덜 41
 상웨떡 267
 상위어 328
 상갓도 288
 상제 271
 상통이 325
 상하 관계 328
 새 42, 59, 337
 새백 59
 새서방 123
 새왓 337
 새움ㅎ다 59
 생이 39
 서나 31
 서도테기 135
 서물 147
 서수사 146
 서술격 조사 183, 205
 서술어 205
 서툰바치 318
 선모눈썹 184
 선몽허다 76
 선어말 어미 157, 159, 233
 설다 327
 설론 162
 설명 의문문 40, 213
 섬비질 116
 성님 76, 107
 성분 부사 165
 성상 관형사 160, 161
 성상 부사 165, 166
 성상 형용사 154
 세미떡 51
 셋돌 124
 생 255
 생깁이 312
 소 271
 소미 140
 소분 42
 소분허다 272
 소중기 308, 313
 소중의 308, 313
 속곳 313
 속다 42
 손당 54
 손콥데기 116
 술도 288
 술박 194, 294
 술벤 329
 -수- 160
 수 관형사 132, 160, 161, 162
 -수가 228
 -수강 228

수견 313
 -수과 228
 -수까 213, 226, 228
 -수팡 228
 -수다 211, 220, 223
 수록 42, 278
 수록초다 279
 수록짓다 279
 수사 130, 144
 수식언 130
 수핏 293
 -순 160, 213, 226, 228
 숫굴 310
 숫문다 78
 숫하르방 141
 승시 42, 272
 승악 272
 쉼뿔뿔뿔 286
 쉼짐 115
 -쉬 115
 선다리 205
 숙 283
 숙돗 283
 숙췌 57, 283
 숙어럭췌 283
 시간 표현 233
 시꾸다 302
 시다 241
 시리 187
 시접 271
 식 42, 281, 283
 식계 273
 식돗 283

식췌 283
 식어럭췌 283
 신터레 176, 187
 신딛 39, 176, 187
 신사라 42, 295
 신사락 295
 실질 형태소 103
 -심 160, 216, 230
 십다 340
 심방말축 181
 십수 147
 쌀 312
 쌀구제기 312
 쌀구쟁기 312
 쌀구쟁이 312
 쌍아래 38
 쌍아래아 63, 64
 쌍얼레 318
 써나라 174
 쑤어나라 174
 췌딱지 222
 씨와치 116
 씨집살이 17
 수망 268, 269
 수망일다 269
 수수 147
 숙돗 283
 숙췌 40, 283
 술 313
 술우다 232
 솟 268
 찰방구 312
 3인칭 대명사 138

〈ㅇ〉

-ㅇ 234

ㅇ첨가 89, 94

-아 160

아가기여 173

아금지손가락 332

아끈- 113

아끈드랑쉬 113

아끈다랑쉬 113

아끈쥬기 113, 148

아끈천 113

아녀다 150

아니 248

아니ㅎ다 150

아따 174

아래툑 330

아래아 38, 53, 54

아마넉덜라 174

아마넉들라 174

아마떠리 174

아마뎡어리 174

아모 161

아방 39, 94, 191

-아스- 241

아시 195

-아시- 241

아시날 240

아오계손가락 332

아울라 39, 193, 194

아이몰른눈 123

아저오다 325

아픽 39, 176, 187

아홉물 147

-악지 116

안 248

안 부정 250

안ㅎ다 150

안네다 232

안주와기손가락 332

안쥐왜기손가락 332

안진방석 28

안칠성 257

안택 151

안틱 39, 176, 187

처격 조사 39

알 328

알드랑쉬 113

알아점직ㅎ다 41

알암직ㅎ다 119

-암- 243

암톡연 314

암굴 309

-암스- 243

-암시- 243

암핏 293

-압- 120

-앗- 241

앗아오다 325

앞처지 309

애틡 225

야의 138, 140

양 343

양성 모음 67

양수사 145

양순음 46

양에 132
 양지 330
 양태 부사 170
 -어 104, 160, 211, 215, 216, 220,
 226, 229, 230
 -어- 234, 160
 어간 108, 157
 어근 106, 108
 어금발가락 332
 어금손가락 332
 어깨말 309
 어깨말이 309
 -어나다 233, 234, 235
 어두 자음군 92
 어떻 하다 156
 어릿곰 310
 어마넉털라 174
 어마넉들라 174
 어마평어리 174
 어말 어미 157
 어명 39
 어미 157
 어미 일람 160
 -어스- 241
 -어시- 241
 -어시/아시- 160
 어저피 240
 -어지다 247
 어질연대 316
 어치나 175
 어취나 175
 어퍼지다 324
 -언 160, 213, 226

언주에기손가락 332
 얼다 327
 얼뭉이 269
 -엄- 243
 -엄스- 243
 -엄시- 243
 -엄시/암시- 160
 -엄직후- 258
 -엇- 241
 엇다 39, 253
 -엥 160
 에 176
 -에기 116
 에무현 161
 엔 176, 190
 -앵이 116
 -여 215, 229
 여 불규칙 동사 153
 여주 327
 여격 조사 39
 여 불규칙 형용사 156
 연결 어미 157, 159
 연구개음 47
 열훈물 147
 열굿떡 347
 열두물 148
 열물 147
 영 176, 189, 197
 영등 255
 영빈 29
 예 343
 예사소리 77
 예슬곱 162

예실곱 162
 오골오골 68
 오닐 240
 오람직후다 41, 119
 오랑 276, 277
 오름 31
 오막떡 82
 오막오막 82
 오수 147
 오쟁이자리 28
 오중에 28
 올래 62
 올레 62
 올르다 327
 옷벗은돌벥이 269
 옹조리 135
 와랑와랑 303
 -와치 116
 완료상 41, 241
 왕- 114
 왕 176
 왕놈 28
 요레 167
 용언 130, 157
 우 328
 -우 120
 -우- 160
 -우강 228
 -우과 228
 우글우글 68
 우기다 65
 -우까 213, 226, 228
 -우파 228

-우짱 228
 -우다 211, 220, 223
 우룩 42, 279
 우막우막 82
 우연 266
 우영 266
 옷드랑쉬 113
 옷드르 231
 원순 모음 52
 원칭 143
 웨담 136
 웨바농 342
 웨엘레 318
 위연 266
 유음 48
 유음화 69, 72
 유의 관계 322
 유의어 322
 육수 147
 으까 174
 음매 175
 음성 모음 67
 음운 변화 69
 음절 끝소리 규칙 69
 -음직후- 258
 웃다 39, 253
 의 39, 176, 186
 의문 종결 213
 의문문 210, 213
 의문사 213
 의문형 어미 160, 213
 의미 321
 의서 176

의성어 81, 166, 302
 의존 명사 131, 132
 의존 형태소 104
 의태어 81, 166, 302
 이 227, 343
 -이 120
 이고녕이 282
 이녁 138, 141
 이딴 143
 이랑마랑 39, 193, 195, 196
 이사 39, 193, 195
 이수 147
 이영 176, 189, 197
 -이우- 160
 이중 모음 62
 인용격 조사 190
 인척 240
 인칭 대명사 138
 일고으답 123
 일곱물 147
 일로 167
 일미 138, 140
 임행이 39, 330
 잇다 155
 으따 174
 으져오다 325
 으끄다 63
 으남은 63, 162
 으답 147
 으드레 63
 으든 63
 으답 63, 266
 으답물 147

으라 63
 으름 63
 으망지다 63
 으물 63
 으보록수보록 63
 으습 147
 으춧 63
 으춧물 147
 옥다 63
 옥삭다 63
 옥은뜰 124
 옥옥하다 63
 올다 63, 311
 옴다 63
 옴은임행이 64
 옴의 63
 옴치웃다 63
 옴통 63
 옷세 63
 율가슴 63
 1인칭 대명사 138
 2인칭 대명사 138
 j계 이중 모음 62
 w계 이중 모음 62
 ㅏ 불규칙 동사 153
 ㅑ(ㄲ) 66
 ㅓ 64

〈ㅈ〉

-자 160, 216, 230
 자동사 149

자락 169
 자리 133
 자리젓 105
 자립 명사 131
 자립 형태소 104
 자음 46
 자음 교체 69
 자음 첨가 89
 자음 체계 49
 자음 축약 96
 자음 탈락 83
 자음군 단순화 83
 자의 138, 140
 작산 162, 163
 잘 28
 잠자리 28
 잣 269
 장- 112
 장독 112
 장가락 332
 장군 312
 장귀 312
 장평 41, 112
 장비에기 112
 장애음 69
 장통빔 210
 재기 120, 166
 -저 160, 211, 220
 저녁날 240
 저딤 143
 저레 167
 저모음 52
 저슬 110

적다 42, 277
 적다(몰) 276
 전기 29, 80
 전기떡 29, 80
 전설 모음 51
 전성 어미 157, 159
 절로 167
 절미 138, 140
 절벤 329
 접담 136
 접두 파생법 110
 접두사 106, 109, 110
 접미 파생법 114
 접미사 41, 106, 109, 110
 접사 106, 109, 110
 접속 부사 208
 접속 조사 197
 정도 288
 정지 297
 제 59
 제녁날 240
 제라흔 162, 164
 제마 75
 제물떡 267
 켜통이 127
 -쟁이 115, 120
 조눌 121
 조랍다 41, 118
 조롬별이 317
 조롬줄 317
 조름 194
 조사 130, 175
 조음 위치 동화 69, 79

조쿠제기 312
 조쿠쟁이 162, 312
 조팍 39, 90
 조팻 329
 족다 57, 207, 327
 족딛 151
 족암직하다 41, 119
 족은뿔 124
 족은말젖뿔 124
 족은족은뿔 125
 족헌 162, 164
 줄락 169
 줍팍 294
 줍호미 136, 285
 줍쓸구쟁기 312
 종결 어미 40, 157, 158, 210
 종속적 연결 어미 160
 좇암직하다 118
 잘관다리 175
 -주 160, 211, 216, 220, 230
 주격 조사 39, 176, 203
 주동 246
 주동사 247
 주어 202
 주왓 169
 주체 높임 217
 좇다 299
 좇어먹다 300
 중대 316
 중모음 52
 중칭 143
 -지 160, 226
 -지 말다 248

-지 못하다 248
 -지 아녀다 156
 -지 아니하다 248
 지깍 169
 지넉 138, 141
 지달 42, 279
 지배적 접사 120
 지슬 280
 지시 관형사 160
 지시 대명사 142
 지시 부사 165
 지시 형용사 155
 지실 42, 280
 지치- 104
 지프다 39
 진술 종결 211
 진줄 71
 진진 161
 진행상 40, 41, 234, 242
 진다 268, 269
 진을켜 212
 질 133
 -질 116
 질다 39, 327
 짐승의 나이 147
 집업슨돌팡이 269
 집웃인돌벙이 269
 집줄 337
 집직이 257
 징끗 169
 짚동 269
 찌다 76
 찌동 269

째깍 264
 째다불 269
 째텨이 268, 269
 째둥 269
 주낙날 240
 주물다 290
 주조 166
 주주 120, 166
 준자리 28
 쪼른줄 71
 쪼르다 327

〈ㄹ〉

차이 보조사 193
 착 92
 찰리 187
 참 133
 창곰 82, 283
 창터진물 86
 처가칩 39
 처격 조사 39
 처지 309
 천상 166
 천성 166
 첨가 89
 청유 종결 215
 청유문 210, 215
 청유형 어미 160
 체다 93
 체소 59
 체언 130

체집 59
 초다 92
 출눌 121
 추록 176, 188, 189
 추측·짐작 표현 254
 축약 96
 치다 92
 치성메 40
 치조음 46, 73
 친 309
 친떡 329
 칠수 147
 침바치 116
 칫다 221
 츠다 93
 츠록 176
 춘춘이 166
 출- 114
 출레 322
 춤 343
 춤말 327
 춤연 340
 춤지름 76

〈ㅋ〉

-코 226
 코 175
 코타지다 342
 콥 31
 쿡국 171, 348
 콩눌 121

꽤 310
쿠 175
-크- 160, 259
큰똥 123
큰말젓똥 124
큰족은똥 124

〈ㅍ〉

타동사 149, 203
탈락 83
털다 92
테 92
토끼연 316
통두건 263
통얼레 318
트다 92
트레 187
튼다 92
툑 54
툑베기 312
툑싯은거 125
툑 161
툑깅신 75

〈ㅑ〉

파생법 110
파생어 107, 109, 110
파썩 166
파열음 47

파찰음 47
판정 의문문 40, 213
팔수 147
팡팡 166, 303
퍼- 112
퍼싸다 112
퍼씨다 112
평서문 210, 211, 220
평서형 어미 160, 211
평순 모음 52
폐랍다 41, 118, 238
푹냥 50
푸더지다 324
푸지게 86
풀닥풀닥하다 154
푹지 318
피썰 107
피둥 247
피력 198
필수 부사어 208
폴다 328
푹 54, 209, 266
푹밥 204

〈ㅎ〉

ㅎ 첨가 39, 89
ㅎ탈락 83, 87
하간 162
하강적 이중 모음 64
하근 162
하다 59, 155, 327

하따 174
 하르방 94
 하시보다 271
 하영 166
 하우염 269
 하위어 328
 한두랑쉬 113
 한다바리 28
 한정적 접사 120
 한제기 148
 한한허다 302
 할로산 132
 할망 94
 합성법 121
 합성어 107, 109, 121
 해 166
 허리 309
 허멩이문세 273
 허물 56
 허쑹언 174
 허썬 175
 험직허다 119
 헤 59
 행동 59
 현재 236

형용사 130, 154, 205
 형용사 파생 117
 형용사 합성 126
 형태소 102
 호격 조사 191, 209
 호리 271
 호미 285, 336
 호상똥 124
 홀목 331
 화륙 170
 화리 187
 화제 42, 270
 화걸음 156, 302
 후설 모음 51
 후음 47
 후풍도 35
 홀터 170
 흙지랑허다 119
 흥내말 301
 허라체(허라체) 212, 218
 허여체(허여체) 218
 혼곶 120
 혼물 147
 혼저 읍서예 321
 흡서체(흡서체) 218

〈부록 1〉 제주어 관련 문헌 목록

● 제주어 관련 저서 목록(단행본)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2), 제주문화.
강영봉(2007),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강영봉(2007),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09), 《제주 서귀 호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 김동운 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
강영봉(2011), 《제주 표선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15), 《제주어 · 제주 사람 · 제주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각.
강영봉(2016), 《제주 구좌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강영봉(2016), 《제주 서귀 색달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강영봉(2016), 《제주 가파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강영봉(2017), 《말하는 제주어》, 한그루.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고재환(2011), 《제주어개론》(상, 하), 보고서.
고재환(2017), 《제주어 나들이》, 보고서.
고재환 강영봉 고광민 문순덕 강정식 오창명 김순자(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김공철(1999), 《탐라어연구》, 한국문화사.
김공철(2011), 《제주방언통사론》, 백산출판사.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학교출판부.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김순자(2014), 《제주 수산물 방언자료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박이정.

- 김순자(2016),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 한그루.
- 김순자(202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 도서출판 각.
- 김지홍(2014), 《제주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경진출판.
- 김지홍(2020), 《제주 방언의 복합구문》(1·2), 경진출판.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세빛.
- 문순덕(2014), 《제주방언의 그 맛과 멋》, 보고서.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성낙수(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우창현(2003),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승녕(1957/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승철(1995), 《한국방언자료집》(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평효(1962/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1975),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아세아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 김종철 김영돈 강영봉 고팡민 오창명(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 현평효 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현평효 강영봉(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 홍종립(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제주학연구센터 발간 도서 목록

▲ 제주학총서

문순덕 오승훈(2012), 《제주어와 영어로 굳는 제주 이야기》(제주학총서 3), 제주발전연구원.

고동호 정승철 송상조 고영진 김지홍 오창명 문순덕(2014),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제주학총서 11), 제주발전연구원.

김지홍(2014), 《제주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 기본구문의 기능범주 분석》(제주학총서 12), 경진출판.

고재환 송상조 김지홍 오창명 오승훈 문순덕(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제주학총서 13), 제주발전연구원.

고동호 송상조 오창명 문순덕 오승훈(2015), 《제죽말의 이해》(제주학연구총서 1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오승훈 오창명 문순덕(2016), 《제주 사난 제죽사름》(제주학총서 2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연구보고서

오승훈 문순덕 김진영(2012), 《제2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양창용 양세정(2013),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존 방안〉(제주학연구 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오승훈 문순덕(2013),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제주학연구 7),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고재환 송상조 김지홍 고동호 오창명 문순덕 오승훈(2013), 《제주어 표기법》(제주학연구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오승훈 강세현(2014),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존 활동 실태 조사〉(제주학연구 10),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오승훈(2015),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제주학연구 13), 제

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오승훈 오창명(2015), 〈사용자 중심의 제춧말사전 발간 방안〉(제주학연구 1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문순덕 오창명 김원보 신우봉(2015),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제주학연구 2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
구센터.

문순덕 고동호 양창용(2015), 《제춧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제주학연구 2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김보향(2017), 〈재일제주인 1세 구술 생애사 연구〉(제주학연구 44), 제주특별자
치도 ·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강영봉 강세현 오창명 김보향(2018),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 계획〉(제
주학연구 4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오창명 김보향 신우봉(2019),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
획과 집필지침〉(제주학연구 6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강세현 양세정(2020),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제주학연구
7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학연구센터.

▲ 구술 자료집

김순자 김미진 김선희 김승연 허영선 김보향 최연미 김성용 신우봉 안민희
(2017),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0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김보향 허영선 최연미 김승연 김성용 신우봉 안민희(2018),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학연구
센터.

김순자 김미진 안민희 김승연 허영선 최연미 권미소 김보향 신우봉 김성용
(2019),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
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허영선 김보향 최연미 권미소 김성용 문덕찬 고창근(2020),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9~36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고창근 양성필 오경임(2020), 《옛날 집은 춤남으로 현 거난 멧 백년 가도 꼬딱 엇어》(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 보전 사업1-‘초집(초가) 구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김미진 부영심 김영란 오경임(2020) 《몰은 뚝나게 부리곡 췌는 세나게 부리라》(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 보전 사업2-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 기타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201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관련 연계 제주어 세미나 지원 사업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제주어보전회.

《나 초등학교만 탕겨나도 대통령해실 건디》(2018),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제주학연구센터·제이누리.

《굴뚝》(2019),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제주학연구센터·제이누리.

《빌레의 표준어는 무시겨우파》(2019),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봄서 상담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가시자왈 소곱으로 벤 짐 정 들어사는 일》(2020),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제주학연구센터·제이누리.

《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2020),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봄서 상담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를 놀다》(2020), 제주어, 소멸위기 언어 분류 10년 제주어 포럼 및 기억행사 지상중계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부록 2〉《제주어 길라잡이》 작은 사전

〈ㄱ〉

가달 ¹	다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 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	가막창신	인 양주머리까지 가 닿는, 두 가닥의 기다란 줄.
가달 ²	가닥.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날날의 줄.	가메	검정가죽신.
가달 ³	가랑이. 하나의 몸에서 끝 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 진 부분.	가시리	가마. 사람이 탈 수 있게 만 든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풀가사리. 풀가사리과에 딸 린 바닷말.
가달 ⁴	갈래. 하나에서 둘 이상으 로 갈라져 나간 날날의 부 분이나 계통.	가심벌이	종이 연의 꼭지에 매는 벌 이줄.
가달 ⁵	말을 땀을 때, 말 위에서 말 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두 개의 기다란 끈.	가오리연	꼬박연.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을 한 연.
가달석	말을 땀을 때, 말 위에서 말 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두 개의 기다란 끈.	가의	개. ‘그 아이’가 줄어든 말.
가라	가라말. 털색이 온통 검은 말.	가프다	값다.
가레기	가락.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을 감는 쇠코챙이.	각독	수노루.
가린석	소로 밭갈이할 때 좌우 뿔 에 잡아매어 쟁기의 손잡이	각단뱃	짧은 띠인 ‘각단’이 자라는 곳.
		각제기	전쟁이.
		간세허다	게으르다.
		간전이	간자말. 이마와 뺨이 흰 말.
		간허다	듯하다.
		갈독지	감물을 들인, 소매가 아주 짧은 적삼.
		갈라지다 ¹	거꾸러지다.
		갈라지다 ²	‘드러눅다’를 속되게 이르

	는 말.	거시다	건드린다.
갈물	갈물. 떡갈나무에서 얻은 검붉은 물감.	거심	거스러미. 손발톱 옆이나 뒤의 살 껍질이나 나무의 결 따위가 얇게 터져 일어 난 부분.
갈산절산	가리산지리산.		
갈적삼	감물을 들인 적삼.		
갈중의	감물을 들인 중의.	거심손	아이들이 서로 손으로 건드 리며 장난하는 짓.
감시룩허다	가무스름하다.		
감옷	감물을 들인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건옷	입관 전에 상제가 입는, 한 쪽 소매를 벗은 옷.
감저	고구마.	결궁하다	결립하다.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 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 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려 돈이나 곡식을 구하 다.
감저꿀	고구마의 줄기.		
감저떡	고구마떡.		
감추다	감치다.		
강알터진바지	개구멍바지. 오줌이나 똥을 누기에 편하도록 밑을 터서 만든 어린아이의 바지.	겉다 ¹	겉다.
개날	개날. 지지(地支)가 ‘술’(戌- 개)로 된 날.	겉다 ²	겉다[長].
개비눔	개비름. 비름의 한 종류.	겉름	거름.
개역	미숫가루.	겉	바닷속 돌무더기나 바위.
갯노물	갯. 십자화과의 두해살이 풀.	겉러지다	‘드러눅다’를 속되게 이르 는 말.
갯노물침치	갯김치.	겉터앉다	겉터앉다.
거꺼지다	꺼어지다.	겉질	김. 밭에 난 잡풀.
거꼬다	썩다.	겉녕	전복갑. 전복의 껍데기.
거려먹다	떠먹다.	겉덕	껍데기.
거리다 ¹	건지다. 물속에 들어 있거 나 떠 있는 것을 집어낸다.	겉덩	전복갑. 전복의 껍데기.
거리다 ²	뜨다. 어떤 곳에 담겨 있는 물건을 퍼내거나 털어 내 다.	겉똥	겉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갈기는 똥.
거리	채. 집을 세는 단위.	겉비	겉이 날 정도로 세차게 쏜 아지는 비.
거멍허다	거멍다.	겉술	빠르게 거푸 들이켜는 술.
		것보리	겉보리.
		게게	그럼.

게난	그러니까.	고무줄허다	고무줄놀이하다.
게메	글썸.	고장	꽃.
게민	그러면.	고지 ¹	꼬치. ① 꼬챙이에 꿰 음식 물. ② 가늘고 길면서 끝이 뾰족한 쇠나 나무 따위의 물건.
게우	전복의 생식기관과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갱	갱. 신위에게 올리는 국.	고지 ²	숲.
갱국	갱. 신위에게 올리는 국.	고팡	고방.
갱그릇	갱을 뜨는 그릇.	고팡문	팡문. 팡에 달린 문.
경허다	그러하다.	곡석	곡식.
고고리	이삭.	곤죽	흰죽.
고냉이	고양이.	곤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고단	고장. 어떤 물건이 특히 많 이 나거나 있는 곳.	골감주	감주.
고데	알매. 서까래 위 산자에 이 겨서 까는 흙.	골그르	옛기름가루.
고동	소라.	골총	고총. 묘지를 찾을 수 없거 나 대가 끊기어 별초를 못 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 진 무덤.
고들게	썰거리. 길마를 엮을 때, 소 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 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곰	웃고름.
		곰생이	곰팡이.
		곰다	숨다.
고들게친	썰거리끈. 썰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곰은데기	고팽이. 굵은 길의 모퉁이.
		곰은도리	총량. 우미량. 한쪽 끝은 기 둥머리에 짜이고 다른 쪽 끝은 들보의 중간에 걸친 보.
고들갯낭	썰거리막대. 썰거리끈에 매 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 는 막대.	곰은자	곰자. ‘ㄱ’자 모양의 자.
고등에	고등어.	곰은제기	숨바꼭질.
고라	고라말.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	곰을락	숨바꼭질.
		곰지다	숨기다.
고름풀	땅빈대. 대극과의 한해살이 풀.	곳다	곰다. 땅이나 무 따위에 찬 기운이 들어가 물기가 없어 지고 푸석푸석하다.
고망	구멍.		

공식간	집채와 떨어지게 마련한 독립된 부엌.	궁글	그네.
꽃	쑤.	궁둥저베기	반죽한 메밀가루를 끓는 물에 넣어서 주걱 따위로 덩성덤성 잘라 만든 수제비.
구농	궁흥.	괘기	고기.
구들	방.	괘다 ¹	괴다. 술, 간장, 식초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일다.
구령	구령말. 털색이 밤색인 말.	괘다 ²	괴다.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구리다	궁글다. 속이 비다.	괘당	권당.
구명бат	많은 비가 온 다음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구멍이 있는 밭.	귀마리	발목.
구물	그물.	귀막다	귀먹다.
구송	꾸중. 꾸지람.	귀막쉬	귀머저리.
구시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귀막쟁이	귀머저리.
구신	귀신.	귀벌이	머릿줄. 머릿달 양쪽 끝에 매는 벌이줄.
구제기	소라.	귀살	성계. 극피동물문 성계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구쟁기타지	소라의 살을 보호하는 뚜껑.	귀창	귀청. 귓구멍 안쪽에 있는 막.
구쟁기	소라.	귓줄	머릿줄. 머릿달 양쪽 끝에 매는 벌이줄.
구쟁이닥살	소라딱지. 소라의 껍데기.	그늘치다	그늘지다.
구쟁이	소라.	그되	거기.
구체스럽다	구차스럽다.	그레	그리. 그곳으로. 또는 그쪽으로.
국죽	갱죽.	그뭉	그믐.
군빳	군부. 군빳과의 연체동물.	그슨새	썩은새.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
굴	물웃의 가랑이.	그신새	썩은새.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
굴레	입.	그직아시날	그꼬저께. 오늘로부터 사흘전의 날.
굴무기(낭)	느티나무.		
굴묵도	‘굴묵’의 입구.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		
굴부리	분화구.		
굴돋은접시	굽달이. 굽이 달린 접시.		

그짓깔	거짓말.	그릇	금. 접거나 굿거나 한 자국.
글쟁이 ¹	갈퀴. 검불 따위를 굿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	그므끄다	빠다. 몸의 어느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나다.
글쟁이 ²	글쟁이. 말이나 소 따위의 털을 빗기는 도구.	그세	가위.
글다	‘가다’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찌	같이.
글미	그이. ‘그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말.	그치	같이.
글지후제	‘그 후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그트다	같다.
기	그래.	곤다	말하다.
기냥	그냥.	골각지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기신새	씩은새.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	골게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기십	담력.	골게기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기여	그래.	골쟁이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기자	그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골다 ¹	같다.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강이	게. 십각목의 갑각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골다 ²	같다.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그끼다	갑시다. 세찬 바람이나 물 따위가 갑자기 목구멍에 들어갈 때, 숨이 막히게 되다.	골레기	쌍둥이.
그늘다	가늘다.	골메들이다	갈마들이다. 서로 번갈아 나타나게 하다.
그딱	까딱.	굽엇이	분별없이.
그뜨다	같다.	굿	갓. 이제 막.
그랏	가라지. 벼과의 한해살이 풀.	굿사	방금.
그리치다	가리키다.		
그롭다	가렵다.		
그만이	가만히.		
그만잇자	가만있자.		

깍	가장자리.	〈L〉	
깍벌이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꺾어서 콩숫달에 잡아맨 벌 이줄.	나끄다	났다.
깍	총. 짚신이나 미투리 따위 의 앞쪽의 양편쪽으로 운두 를 이루는 날날의 신을.	나다	났다.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깍꾸리	넓미역을 채취할 때 쓰는 기다란 도구.	나뵈서	저봐요.
깍	값.	나사다	나서다.
꺼끄다	꺾다.	나야더리	제기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는 말.
꺼끄먹	어린 전복.	난간	뿔마루.
깡볼른게기	뼈뜰이. 뼈에서 뜯어낸 질 긴 고기.	난드르	난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 진 넓은 들.
깡마농	달래.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난시	냉이. 십자화과의 두해살이 풀.
꺨	피.	난케	난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 진 넓은 들.
꺨다	끓다.	날르다	나르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꺨다 ¹	꺨다. 방귀 따위를 몸 밖으 로 내어보내다.	날보다	택일하다.
꺨다 ²	이기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부어 반죽하다.	남	나무.
꼭	쥬. 콩과의 낙엽 활엽 덩굴 성 식물.	남두리	① 부출. 재래식 변소에서 뒤를 볼 때 앉아서 두 발을 디디게 된 널빤지. ② 나무 다리. 나무로 놓은 다리.
꺨리다	꺨이다.	남신	나막신. 비 올 때 신는, 나 무로 만든 신.
꺨	끝.	남팽날	납팽.
꺨나다	꺨나다.	낫	별낫. 자루가 길고 큰 낫.
꺨내다	꺨내다.	냥 ¹	나무.
꺨꺨	꼭꼭. 직신직신. 지그시 힘 을 주어 자꾸 누르는 모양.	냥 ²	장. 마른 미역을 세는 단위.
꺨다	꺨다.	냥도고리	나무로 만든 함지박.
		냥푼	양푼.
		낫도체비	낫도깨비.

내널다	빨래나 곡식 따위를 말리기 위하여 집안에서 밖으로 꺼내어 널다.	노니에기	약손가락.
내다부찌다	내불이다.	노니와기	약손가락.
내다부치다	내불이다.	노랑곰생이	노란곰팡이.
내미리다	나무라다.	노리	노루.
내밀심	내밀힘. 밖이나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	노프다	높다.
내불다	내버리다.	녹대	굴레.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엮어매는 줄.
내웁살	냄새.		갑자기 부는 모진 바람.
내창	내.	놀	노래.
내치다	내키다. 공간을 넓히려고 바깥쪽으로 물리어 내다.	놀래	누구.
내터지다	시위하다. 비가 많이 와서 내 위로 넘치다.	누게	누구.
냉기다	남기다.	녹지다	눅히다.
너나없이	너나없이.	눈 ¹	눈금.
널마리	널마루.	눈 ²	물안경. 잠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안경.
넓메역	넓미역.	놀	가리.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
넘어가다	지나가다.	놀다	가리다.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더미를 짓다.
넘어사다	넘어서다.	느쟁이	나깨. 메밀가루를 체에 치고 난 뒤 남은 찌꺼기.
넛손지	넛손자. 할아버지 사촌의 손자.	느쟁이	나깨. 메밀가루를 체에 치고 난 뒤 남은 찌꺼기.
넛하르방	넛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촌.	느쟁이떡	나깨떡.
넛할망	넛할머니. ① 할아버지 사촌의 아내. ② 할아버지의 사촌 누이나 누나.	늪신네	늪으신네.
네	내. 물건이 탈 때 일어나는 부엌고 매운 기운.	늪귀반듯하다	네모반듯하다.
넝국	냉국.	늪	네. 그 수량이 넷임을 나타내는 말.
넝기다	넛기다.	니	이. 척추동물의 입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노네기	약손가락.		

넙	넙. 초석을 세는 단위.		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넙람지	이영. 가리 따위를 두르기 위하여 따로 엮은 기다란 물건.	달루다	이르는 말.
넙려오다	내려오다.	닭다	이기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부어 반죽하다.
넙리다	내리다.		같다. (‘-ㄴ/ㄹ 거 닭다’ 구 성으로) 추측, 불확실한 단 정을 나타내는 말.
넙리우다	내리우다.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다.	담다	담그다.
넙리치다	내리치다. 위에서 아래로 힘껏 치다.	대문	마루문.
넙물	나물. 배추.	대바지	예전에 아이들이 물을 길어 나를 때 썼던 자그마한 물 동이.
넙시	① 끝내. ② 도저히. 아무리 하여도. ③ 기어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밭	대밭.
넙잡다	낮다.	대우리	귀리.
넙구쟁이똥	날소라의 생식기관과 내장 을 아울러 이르는 말.	더끄다	덮다.
넙낭	날나무.	더뜨다	덮다.
넙다	날다. 공중에 떠서 어떤 위 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 다.	덜생기다	데생기다. 생김새나 됃됨이 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여 못나다.
넙뻘	무.	덜숯다	데샬다. 충분히 삶지 아니 하고 살짝 익도록 잠깐 삶 다.
		덜익다	데익다. 폭 무르게 익지 않 고 설익다.
〈ㄷ〉		덜	덜.
다간	이듬. 소의 나이 두 살.	데미다	데미다. 겹쳐 올리어 더미 를 짓다.
다우다	땅다. 머리털이나 실 따위 를 둘 이상의 가닥으로 갈 라서 어긋나게 엮어 한 가 닥으로 하다.	덴기다	다니다.
닥살	소라딱지. 소라의 껍데기.	도	‘입구’ 또는 ‘출입구’ 뜻으로 쓰이는 말.
단지넙뻘	조선무. 둥글고 단단한 재	도곰	땀치. 말을 편하게 하기 위 하여, 말 잔등과 안장 사이 에 얹어 까는 물건.

도깨	도리깨.		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곤	주어진 한보다 많게. 가득.	돛거미	거미의 한 종류. 검은 빛깔의 거미.
도나다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		
도록	물방울이나 눈물 따위가 이따금씩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돛게기	돼지고기.
		돛자라	자라의 한 종류.
		동고렝이	빠짐없이 채비하여.
도리버짐	진버짐. 보통 둥근 모양을 하고 진물이 흐르는 특징이 있다.	동못인거	꽃땀이. 꽃이 진 뒤에 바로 맺히는 열매.
		동세	동서.
도비	도배.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	동숯	옹달숯. 작고 오목한 숯.
		동지짐치	배추나 무의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
도세기	돼지.		
도치다	찬밥이나 떡 따위를 도로 익히거나 데우다.	두	뒤.
		둘러리	들러리.
독무름	무름.	둠비	두부.
독집	주독. 신주를 모셔 두는 궤.	뉘살다	되살다. 죽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다.
돈	소라의 뚜껑.		
돌드리	돌다리.	뉘쓰다	뒤집다. 안과 겉을 뒤바꾸다.
돌래떡	도래떡.		
돌르다	도리다. 둥글게 빙 돌려서 베거나 파다.	뉘씨다	뒤집다. 안과 겉을 뒤바꾸다.
돌아엿기다	돌아다니다.	뉘장	되장.
돌쳐귀	돌쳐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뒤치기	뒤축.
		뉘벌이	활벌이줄.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 당기어 맨 벌이줄.
돌감	돌감. 돌감나무의 열매.		
돌팡에	① 돌방아. ② 연자방아.	드들팡	부춘돌. 부출 대신 놓아서 발로 디디고 앉아서 뒤를 볼 수 있게 놓은 돌.
돌포말	눈알고둥.		
둠비	둥부.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드뉘팡	부춘돌. 부출 대신 놓아서 발로 디디고 앉아서 뒤를 볼 수 있게 놓은 돌.
돛가레	돼지거름.		
돛가죽	‘돼지가죽’의 뜻으로, ‘성질이 다르고 질긴 사람’을 비	드러앉다	주저앉다.

드르	들.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	돌다 ¹	달다.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드룻마농	달래.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돌다 ²	달다.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드룻마농지시	달래장아찌.	돌려들다	달려들다.
든다	묻다.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돌마기	매듭단추.
들러가다	들어가다. 물건 따위를 몰래 훔치다.	돌메기	매듭단추.
들러내다	들어내다.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돌벌이	연의 꼭지에 매는 벌이줄.
들러데끼다	드던지다. 물건 따위를 마구 들어 내던지다.	돌아나다	달아나다.
들러키다	날뛰다.	돌아매다	달아매다.
들르다	들다.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둥기다	당기다.
들어보다	물어보다.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묻다.	딱살	소라딱지. 소라의 껍데기.
들엄직하다	들음직하다.	딸리다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들이삐다	들이치다. 비나 눈 따위가 안쪽으로 뿌리다.	떠바	어린아이가 불이나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하여 내는 소리.
되	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떼	때. 옷이나 몸 따위에 묻은 더러운 먼지 따위의 물질.
두리	다리.	또봐	어린아이가 말리는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에 못하게 하는 소리.
독날	닭날. 지지(地支)가 '유'(酉-닭)로 된 날.	똥	① 똥. ② 방귀.
독집	닭의장. 닭장.	뜨박뜨박	가루 따위가 일정한 크기로 엉키어 있는 모습.
돌 ¹	달. 지구의 위성.	뜨로	파로.
돌 ²	꼭지. 연의 허리 위에 붙이는 둥그런 표.	뜨르다	파르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돌고망	방구멍. 연의 허리에 둥글게 뚫은 구멍.	뜨리다	매리다.
		뚫르다	뚫다.
		뚫오다	파르다.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

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
뜻뜻하다 파뜻하다.

말지기
맞사다
매기독막

마지기. 밭 넓이의 단위.
맞사다. 서로 마주 서다.
어린이에게 빈 그릇 따위를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릴 때 쓰는 말.

〈ㄹ〉

머귀낭
머리

머귀나무.
마리.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마농데가리 마늘통. 마늘 밭. 마늘 쪽이 달린 부분.

머릿대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이는 뗏개비.

마농 마늘.

머을

돌.

마리 마루.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먹돌

아주 판판하고 미끈한 검은 돌.

마릿걸레 마룻걸레.

먹보리

보리의 한 종류.

마릿널 마루청. 마룻널. 마룻바닥에 깔아 놓은 널조각.

먹사옥이

사옥의 한 종류.

마 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먹술

먹줄.

마트다¹ 맡다. 코로 냄새를 느끼다.

먹엄직허다

먹음직하다.

마트다² 받다.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먹쿠실낭

멀구슬나무.

먼문간

문간채.

멀리

머루.

막 아주.

멀터거니

멀떠구니. 모이주머니.

막덩이 막대기.

멍석떡

빙떡.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등글 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팔소를 넣어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음식.

막떡 떡을 만들 때 남은 재료를 모아 맨 마지막으로 만든 떡.

메

어머.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만촉 무사마귀. 살가죽에 밥알만 하게 돋은 군살.

메께

어머.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말다¹ 싫다.

말다² 아니(감탄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말젓돌 ① 넷째 가운데 셋째 딸. ② 넷째 가운데 막내딸.

메꺼라	어머. 남이 하는 짓이나 말 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모냥	모양.
메끈	어깨끈.	모리	모레. 내일의 다음 날.
메누리	며느리.	모밀국수	메밀국수.
메다 ¹	매다. 밭에 난 잡풀을 뽑다.	모밀그를	메밀가루.
메다 ²	매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모살	모래.
메다부찌다	메다붙이다.	모새잡시	모삿그릇. 모사를 담는 그 릇.
메다부치다	메다붙이다.	모의다	메지다. 밥이나 떡, 반죽 따 위가 끈기가 적다.
메룩	메룻.	모커리	결채. 몸채 곁에 팔려 있는 집채.
메역	미역.	모현조	메조.
메운대	굳은대.	몬지	먼지.
메친	어깨끈.	몰록	회초리 따위를 힘차게 내리 치는 모양.
메칠	며칠.	몽니	몽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메큰	어깨끈.	무거리피술	히고 온전한 알갱이의 펴 쌀.
멕	떡. 짚으로 낱을 촘촘히 결 어서 만든 그릇의 하나.	무낭	산호. 흑산호.
멘들다	만들다.	무룩이	그득히.
멘발	맨발. 아무것도 신지 아니 한 발.	무사	왜.
멘찍허다	매끈하다.	무수	무.
멜락	털썩.	무시거	무엇.
멜척	멀치젓.	무신거	무엇.
맵다	맵다.	무신	무슨.
멧그릇	메를 뜯 때 사용하는 그릇.	문게	문어.
멧	멧.	문도	문의 입구.
멧절	명절.	문전제	제사나 명절 때 마루문 앞 쪽에서 문전신을 위해 지내 는 제.
멧지	명주.		
멧질	명질.		
멧질옷	명절옷.	문트멍	문틈.
멧탕이	망태기.	문다	쌓이다.

물떡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접고 그 안에 무채 따위를 넣고 크고 기름하게 집어서 삶은 떡.	미친	어깨끈.
물룻	무룻.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물룻	무룻.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밀고르	밀가루.
물박	물바가지.	밀촉	밀죽. 밀쌀로 쑨 죽.
물소중의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물옷.	밀크르죽	밀가루죽.
물수건	잠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	밋	밀. 물옷의 살 부분을 이르는 말.
물옷	물옷.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	무끄다	마치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물자리	잠자리.	무날	말날. 지지(地支)가 '오'(午-말)로 된 날.
물장	간장.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짠맛이 나는 흑갈색 액체.	무녀	먼저.
물절	잠자리.	무른낭	마른나무.
물적삼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	무멀크르	메밀가루.
물찌	무수기.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水位)의 차.	무쉬	마소. 말과 소를 함께 이르는 말.
물항	물독. 물을 담아두는 독.	무실카다	마을가다. 이웃 마을에 놀러나 볼일 보러 가다.
물	무룻.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무습다	무섭다.
물기다	물개다.	무을	마을.
미녕	무명.	무음	마음.
미선	미선. 대오리 한끝을 가늘게 꼬개어 둥글게 펴고 실로 엮은 뒤, 종이로 앞뒤를 바른 둥그스름한 모양의 부채. 주로 부엌에서 쓴다.	무작	마디. 매듭.
		문	몽땅.
		문이	만이.
		물	말. 말과에 딸린 집짐승의 하나.
		물간	말의 간.
		물개염지	왕개미. 개미의 한 종류.
		물날	말날. 지지(地支)가 '오'(午-말)로 된 날.
		물르다	마르다.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물리다	말리다.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	반치	파초.
물망	모자반. 갈조류 모자반과의 바닷말.	받흙대	흙받기. 흙손질할 때에, 이 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연장.
물빼	말빼. 말의 빼.	발눈	까치눈. 발가락 밑의 접힌 금에 살이 터지고 갈라진 자리.
물줄싸다	말이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말을 굶고 긴 줄에 걸려 단단하게 박힌 말뚝에 매어 두다.	발차다	‘부리나케 걷거나 단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कु실낭 몐	멀구슬나무. 모자반.	밤고냉이	‘밤중에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ㅂ〉		밤부리	잠자리.
		밤질	밤길.
		밥솥	밥술.
바농	바늘.	밥주리	잠자리.
바당	바다.	밥주어리	잠자리.
바당물	바닷물.	밥직	밥술.
바둑	소라의 뚜껑.	밭	밭.
바둑	소라의 뚜껑.	밭갈썰	주로 밭을 가는 데 부리는 황소.
바령	담을 두른 밭에 마소를 가두어 밤낮 톱을 싸게 하는 일.	방돌	구들장.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바리 ¹	마리. 짐승을 세는 단위.	방서	방사(防邪). 사악함을 막는 일.
바리 ²	마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 만한 무게의 분량.	방에	방아. 곡식 따위를 찧거나 뿜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바위	가장자리.	방엿귀	방앗공이. 방아환 속에 든 물건을 찧는 데 쓰도록 만든 길쭉한 몽둥이.
바투다	받치다.	방장대	상장. 상제가 상례 때 짚는
박아지다	고꾸라지다.		
반	반기. 잔치나 제사 후에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려고 목판이나 그릇에 뭍뭍이 담아 놓은 음식.		

	지팡이.	베염	땀.
버데	함께. 벗해서.	베염날	땀날. 지지(地支)가 '사'(巳-땀)로 된 날.
버레이	벌레.		
버른	쓸데없이 만들어 내는 난잡한 행동이나 장난.	베우다	배우다.
버버리	병어리.	베짜허다	가운데가 들어간 데 없이 야트막하고 바라지다.
버치다	부치다.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벨짓	별짓.
벌경허다	벌겔다.	벳	별.
벌기다	벌리다. 두 사이를 떼어서 넓히다.	보리밭	보리밭.
벌러지다	깨어지다.	보릿낱	보릿짚.
벌립	병거지. 모자의 한 종류.	보릿낱불	보릿짚으로 때는 불.
벌무작	벌매듭. 끈목을 벌 모양으로 매는 매듭.	보릿눌	보릿가리.
베 ¹	배.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보말	고등.
베 ²	배.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보미다	녹슬다.
베 ³	바. 삼이나 칩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보	복.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소리.
베 ⁴	컬레.	보비다	비비다.
베레이	벌레.	보선뒤치기	버선꿈치. 발꿈치에 닿는 버선 부분.
벼룩	벼룩.	보선	버선.
베부레기	배두렁이. 어린아이가 입는, 배만 겨우 가리는 좁고 짧은 두렁이.	보선코	버선코. 버선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
베볼르다	배부르다.	보시	보시기.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
		보암직허다	보암직하다.
		복닥	① 물건에 씌워진 겹겹질. ② 물건 위에 얹어진 짐이나 모자 따위.
		복복	박박.
		볼침었다	볼품없다.
		봅서	여보세요.
		봇디창옷	깃저고리. 배넛저고리. 깃

	과 셔을 달지 않은, 갓난아 이의 옷.	불치	재. 불에 타고 남은 가루 모 양의 물질.
보벗은돌벥이	민달팽이.	붉은흑	붉은흙. 석간주. 붉은 색깔 의 흙.
봉그다	① 물건을 뜻밖에 거저줍 다. ① 물건을 구하거나 찾 아내다. ③ 자식을 얻다.	불깁신	제총박이. 총을 따로 대지 아니하고 쥔으로 걸어 나가 면서 총을 꼬아 삼은 쥔신.
봉덕화리	부엌 바닥에 설치한 돌화 로.	비누팍	비눗갑.
부닥치다	부딪치다.	비다	베다. 날이 있는 연장 따위 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
부뜨다	불다.		
부루 ¹	상추.	비바리	①전복 따는 사람. ②처녀.
부루 ²	부루마. 털색이 흰 말.	비창	전복을 따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부루몰	부루마. 털색이 흰 말.		
부섭	마루방이나 부엌에 박아서 불을 피우게 된 돌화로.	빈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 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 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 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부수	마구. 몹시 세차게. 또는 아 주 심하게.	빈떡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 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 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 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부제	부자.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빌다	빌리다.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 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다.
부젓집	부잣집.	빃다	붓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부찌다	불이다.		
부치다	불이다.	빃나다	비싸다.
부트다	불다.	빗창	전복을 따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분시	분수. 사물을 분별하는 지 혜.		
불다	버리다.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 내는 말.		
불르다	부르다.		
불접게	부젓가락. 화로에 꽃아 두 고 불땀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빙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팥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人〉	
빙떡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팥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사농허다	사냥하다.
빙에기	병아리.	사다	서다.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부뜨다	발다. 길이가 매우 짧다.	사데	농촌에서 밭매할 때 부르는 노래.
부려지다	찢어지다.	사름답다	사람답다.
볼르다 ¹	바르다. ① 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문질러 묻히다. ② 풀칠한 종이나 형겔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	사름	사람.
볼르다 ²	밟다.	삭다리	삭정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볼써	벌써.	산담	무덤 주위를 에워서 두른 담.
붉다	밝다.	산디밧	발벼발.
빳지치기	딱지치기.	산디찍	발벗짚.
빵칩	빵집.	산태 ¹	잠자리.
빼달이	서랍.	산태 ²	긴 채 두 개의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만들어 앞뒤로 들게 된 기구.
빼벗다	좀이 쑤시어 가만히 있지 못하다.	산태비	잠자리.
뽀	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	살락	썩은 물건이 갑자기 사르르 쓰러지는 모양.
뽀리	부리.	살레	찬장.
삐다	부리다.	살체깃도	목장 등에 마소가 출입할 수 있도록 나무로 대강 문을 달아 만든 입구.
뽀리	빨리.	삼수세기	한삼덩굴.
		상대	콩숫달. 연의 가운데 세로로 붙이는 땃개비.
		상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상방	대청.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
상벌이	연의 꼭지에 매는 벌이줄.	세 ²	사이.	
상빔	가운데로 자른 직사각형의 시루떡.	세다	새다. 기체,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거나 나오다.	
상삐	행주. 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헝겊.	세미떡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민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펴서 그 속에 팥소를 넣어 삶거나 찐 떡.	
상손가락	가운뎃손가락.		둘째 딸.	
상아덜	만아들.	셋돌	생명주. 생사로 찐 명주.	
상웨떡	상화떡.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 둥근 모양 등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	소	소. 배의 줌.	
		소곰	소금.	
		소남	소나무.	
상통이	상투.	소낭	소나무.	
새	띠. 벗과의 여러해살이풀.	소분	① 소분(掃墳).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 ② 벌초. 무덤의 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함.	
새각시	새색시.		작살.	
새서방	새신랑.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물옷.	
새철	입춘.		맹낭.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생이	새. 몸에 깃털이 있고 다리가 둘이며,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살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물옷.	
		소중기 ¹	맹낭.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서끄다	섞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물옷.	
서트다	섞다.	소중기 ²	맹낭.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선모눈숫	웃가락이 ‘서면 모, 누우면 웃’으로 치는 셈법.		맹낭.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선몽허다	현몽하다.	소중의 ¹	쑈. 국화과에 딸린 식물.	
설러오다	걸어오다.			
설	살. 나이를 세는 단위.	소중의 ²		
성냥쌀	성냥개비.			
성님	형님.			
세 ¹	혀. 동물의 입안 아래쪽에	속		

속곳	맹냥.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수정	느낌이 들어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다. 수.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속다	속다.	수뿔	수전복. 전복의 수컷.
속물	속물.	순다리	신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
손굽	손부리.	술	① 줄. ② 낚싯줄.
손등어리	손등.	숯굴	물옷의 왼쪽 가랑이.
손지	손자.	숯문다	숯을 굽다.
손콰	손톱.	숯하르방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수룩한 할아버지.
술남	소나무.	송보다	흥보다.
술레기국	옥돔국. 옥돔을 넣어 끓인 국.	송시	흥사.
술박	나무를 나부죽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	송악하다	흥악하다.
술벤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에 반달 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경저레 위에서 찐 떡.	송악	흥악.
술입	술가리. 말라서 땅에 떨어져 쌓인 술잎.	송	흥.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숯	숯.	쉐	소. 솟과에 딸린 집짐승.
송에기	송아지.	쉐날	소날. 지지(地支)가 '축'(丑-소)으로 된 날.
송편	송편.	쉐똥	소똥.
수건	맹냥. 소라의 끝이 막힌 주머니 모양의 위창자관. 먹으면 맛이 쓰다.	쉐뿔놈뵈	왜무.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수룩	'떼'나 '무리'를 뜻하는 말.	쉐짐	소등에 실은 짐.
수룩짓다	사람이나 짐승이 떼를 이루다.	신다리	신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
수룩추다	사람이나 짐승이 서로를 거느리다.	속돛	털빛이 검고 누르스름한 돼지.
수시미악하다	무춤하다. 놀라거나 어색한	속쉐	침소. 온몸에 호랑이 같은 어룡어룡한 무늬가 있는 소.
		시기다	시키다.

시꾸다	꿈속에 나타나다.	솟	새끼. 짚으로 꼬아 줄처럼
시끄다	신다.		만든 것.
시다	있다.	송키	푸성귀.
시릿마개	시룻번. 시루를 솥에 안칠 때 그 틈에서 김이 새지 않 도록 바르는 반죽.	쌈깁	쌈깁.
		쌀	소라의 뿔 모양의 돌기를 이르는 말.
식	삶.	쌀문	살문. 살을 가로세로로 넣 어서 짤 문을 통틀어 이르 는 말.
식게	제사.	쌈다	싸우다.
식고병이	삶. 살팽이. 고양이과의 포 유동물.	쌈얼레	네모얼레. 모서리가 넷인 얼레.
식췌	취소. 온몸에 호랑이 같은 어룡어룡한 무늬가 있는 소.	써나라	굿할 때 심방이 악귀 따위 를 쫓아내려고 지르는 소 리.
신사라	뉴질랜드삼.		있.
심다	잡다.	썩	굿할 때 심방이 악귀 따위 를 쫓아내려고 지르는 소 리.
심웃	심보. 마음을 쓰는 속 바탕.	썩어나라	썩. '철'을 일상적으로 이르 는 말.
싯다	있다.		쇠처럼 딱딱한 껍데기.
수망	사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 이 얻는 운수.	췌	췌데가리엇이 췌데없이.
수뭇	사뭇.		쓰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 하다.
수미	소매.	췌딱지	췌쓰레하다.
숙췌	취소. 온몸에 호랑이 같은 어룡어룡한 무늬가 있는 소.	췌데가리엇이	시집가다.
		씨다	시집살이.
술	살.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짜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		시집. 시부모가 사는 집. 또 는 남편의 집안.
술우다	사뢰다.	씨우롱허다	썰다.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 내거나 한데 모아서
술우리	쌀보리.	씨집가다	
술지다 ¹	살찌다.	씨집살이	
술지다 ²	굶다.	씨집	
술치다	살찌다.	썰다	
숯다	삶다.		

	버리다.		가까운 쪽의 방바닥.
썰	썰.	안주와기	집계손가락.
썰밥	썰밥.	안주왜기	집계손가락.
		안진방석	잠자리.
		안칩	안찢. 소나 돼지의 내장.
〈ㅇ〉		안허다	않다.
		알	아래.
아가기여	아야. 갑자기 아픔을 느낄 때 나오는 소리.	암굴	물옷의 오른쪽 가랑이. 가랑이 옆이 트여 있다.
아녀다	않다.	암퉁연	가오리연의 꼬리를 암탉의 꼬지깃처럼 만든 연.
아래톡	아래턱.	암핏	암전복. 전복의 암컷.
아마넉들라	췌췌. 어린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위로하는 말.	앗다	갓다.
		앗다	았다.
아마떠리	일이 잘못되었을 때나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내는 소리.	앞쌌다	앞세우다.
		앞장사다	앞장서다.
아마뽕어리	일이 잘못되었을 때나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내는 소리.	애틡	버선꿈치 위의 턱진 곳.
		야게걸다	목메다.
아명	아무리.	야의	애. '이 아이'가 줄어든 말.
아방	아버지.	알루다	않다.
아시	아우.	양에	양하. 생강과의 여러해살이 풀.
아오게	집계손가락.	양지	얼굴.
아이다	아니다.	양활치다	활갯짓하다.
아이몰른눈	도둑눈.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	어금발가락	엄지발가락.
		어금손가락	엄지손가락.
아져오다	가져오다.	어깨말	옷에 달린 두개의 어깨끈. 또는 그런 옷.
아지다	가지다.	어깨말이	옷에 달린 두개의 어깨끈. 또는 그런 옷.
아지방	아주버니.	어둑다	어둡다.
안거리	안채.	어똥	어찌. 어찌.
안네다	드리다. '주다'의 높임말.	어마넉덜라	췌췌. 어린아이가 놀랐을
안자리	아랫목. 온돌방에서 아궁이		

	때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위로하는 말.	옛말	옛말.
어마넉들라	췌췌. 어린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위로하는 말.	영빈	기름 찐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 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 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 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어멍	어머니.	영	이렇게.
어반당허다	엇비슷하다.	영장날	장삿날. 장사를 지내는 날.
어욱빳	억새밭.	영장	장사. 죽은 사람을 땅에 묻 거나 화장하는 일.
어질연대	꿇달. 연의 x자 모양으로 어긋매끼어 붙이는 대오리.	오골오골	아이들이 앉아 있거나 자라 나는 모양.
어취나	개치네췌.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	오꼳	그만.
어치나	개치네췌.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	오널	오늘.
어퍼지다	엷어지다.	오라가다	오가다.
얼룩달룩허다	얼룩덜룩하다.	오라방	오라버니.
얼룩췌	얼룩소.	오랑	벧대곤. 마소의 안장이나 길마를 엮을 때 배에 걸쳐 서 줄라매는 줄.
얼멩이	어레미. 바닥의 구멍이 굵 은 체.	오름	오름. 산.
엷다	없다.	오막떡	새알심 비슷한 떡.
엷어지다	없어지다.	오막오막	오물오물.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아니하게 조금씩 자꾸 씹는 모양.
에무헌	에먼. 일의 결과가 다른 데 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 는.	오멍가멍	오면가면. 오면서 가면서.
여름내낭	여름내.	오분제기	오분자기. 전복 비슷하게 생긴 연체동물. 호홉 구멍 이 7~9개 있다.
여산허다	예산하다.	오쟁이자리	잠자리.
역쉬	약동이. 약고 푹푹한 사람.	오중에	잠자리.
연치다	엷하다. 먹은 음식이 잘 소 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	올래	오래. 거리에서 집으로 통 하는 좁은 골목.
열긋(떡)	열 가지나 되는 떡. 다 갖추 어진 떡.	옴탕허다	옴팍하다. 가운데가 오목하
옛날	옛날.		

	게 쪽 들어간 데가 있다.	웨얼레	두모얼레. 모서리가 둘인 얼레.
웃벗은돌뱅이	민달팽이.	윤노리낭	윤노리나무.
웃출림	웃차림.	으까	어린이아이에게 일어서라는 뜻으로 하는 말.
와랑와랑	우럭우럭. 불기운이 세차 게 일어나는 모양.	을큰허다	서운하다.
악악	캄캄.	음매	어린이아이에게 물 따위를 먹 어라 하는 뜻으로 하는 말.
악악허다	캄캄하다.	웃다	없다.
왕눔	잠자리.	이고냉이	이괴. 고양이나 도둑을 쫓 을 때 지르는 소리.
왕돌	큰돌.	이딴	여기.
왕재열	말매미. 매미의 한 종류.	이레	이리.
요레	요리. 요 곳으로. 또는 요쪽 으로.	익다	읽다.
요세	요새.	익숙다	익숙하다.
우	위. 어떤 기준보다 높은 쪽.	인척	일찍.
우글우글	우글우글.	일고요답	일고여덟.
우룩맞추다	날짐승 암수가 서로 소리를 질러 응하여 상대하다.	일곱물	일곱무날.
우룩	친척의 뜻으로 쓰이는 말.	일다	이다. 기와나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
우막우막	움쭈움쭈. 큰 것이나 많은 분량을 입에 넣고 자꾸 씹 는 모양.	일러불다	잃어버리다.
우영	터알. 집의 울안에 있는 작 은 발.	일레	이레. 일곱 날.
우жат	터알. 집의 울안에 있는 작 은 발.	일르다	일으키다.
울려주썹허다	여럿 가운데 유독 하나만 우뚝 솟아 있다.	일름	이름.
울르다	외치다.	일미	이이. ‘이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웃드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한라 산쪽의 들이나 마을.	일포	일포제. 조건. 발인 전날 영 결을 고하는 제.
웨담	홀담. 한 겹으로 쌓은 담.	임텅이	이마.
웨바눔	외바늘.	입낙	인낙. 인정하여 승낙함.
웨삼촌	외삼촌.	입지다	입히다.
		입춘날	입춘.
		잇다 ¹	잇다. 두 끝을 맞대어 붙이

다.
 있다² 있다.
 잊어불다 잊어버리다.
 으끄다 엮다.
 으남은 여남은.
 으드레 여드레.
 으든 여든.
 으둑 여덫.
 으라 여러.
 으름 여름.
 으망지다 아무지고 똑똑하다.
 으보룩스보룩 남상남상. 야금야금.
 으섯 여섯.
 옥다 어린아이가 지능적, 육체적
 으로 좀 자라다.
 옥삭다 약삭빠르다.
 옥은뿔 넷째 가운데 셋째 뿔.
 옥육허다 사람이 약고 미련하지 아니
 하다.
 율다 열다.
 읊다 여물다. 야물다.
 읊은임뎡이 난간이마.
 읊의 읊의.
 읊치웃다 읊치없다.
 읊통 읊통.
 웃세 엿새.
 율가슴 앙가슴의 양쪽 옆.

〈ㅈ〉

자돔 자리돔. 자리돔과의 바닷물
 고기.

자락 갑자기 힘 있게 미는 모양.
 자리¹ 자리돔. 자리돔과의 바닷물
 고기.
 자리² 장. 무덤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
 자의 재. '저 아이'가 줄어드는 말.
 작산 ① 나이가 많은. ② 수량이
 나 분량이 많은. ③ 짐작이
 나 생각보다 정도가 심한.
 작제 작자. 물건을 살 사람.
 잘 잠자리.
 잘판다리 잘코사니. 미운 사람의 불
 행을 고소하게 여길 때에
 내는 소리.
 잠지 볼기.
 잣 성. 흙이나 돌 따위로 높이
 쌓아 만든 담.
 장가락 가운데손가락.
 장군 소라의 뚜껑.
 장귀 소라의 뚜껑.
 장평 장끼. 평의 수컷.
 장독 수탉.
 장뻗 장지. 장사하여 시체를 묻
 는 땅.
 장비에기 수평아리.
 장시 장수. 장사하는 사람.
 장통뱃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잘 고이는 밭.
 재기 재우. 매우 재게.
 저디 저기.
 저레 저리. 저곳으로. 또는 저쪽
 으로.
 저슬 겨울.

저슬내낭	겨우내.	접지다	끼우다.
적	적. 산적. 쇠고기 따위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정연	쟁연. 방패연. 방패 모양으로 만든 연.
적갈	적. 산적. 쇠고기 따위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정지	부역.
적다	적. 산적. 쇠고기 따위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제라헌	① 정말의. ② 진짜의. ③ 온전한. ④ 제대로의.
적지다	적시다.	제마	제마. 한 편작 다리를 나란하게 옮기며 걷거나 달리는 말.
전기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제물떡	제떡. 제사 음식으로 마련한 떡.
전기떡	기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고 얇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팔소를 넣어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음식.	제벌히	자벌히. 남보다 특별한 친분으로.
절미	저이. '저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제주바당	제주바다. 제주해협.
절벤	절편.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끓는 물에 삶아낸 다음 잘 이기면서 반죽한 후 둥글게 만든 떡 두 개를 맞붙여 절편판이라는 떡살로 찍은 후 참기름을 바른 떡.	제통	수저통.
점복	전복.	젠통이	마소의 새끼 가운데 제일 작고 못난 것.
점담	겹담. 겹으로 맞대어 쌓은 담.	조눌	조를 더민 가리.
		조랍다	졸리다. 졸음이 와 자고 싶은 느낌이 있다.
		조랑말	조랑말. 달릴 때 네 발을 각기 움직여 내닫는, 체격이 자그마한 말.
		조롬벌이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맨 벌이줄.
		조롬줄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맨 벌이줄.
		조름 ¹	콩무니.
		조름 ²	'뒤'의 뜻으로 쓰이는 말.
		조케	조카.
		조팝	조팝.

조팏	조밭.		흩어져 있는 것을 집다.
족다	작다.	좇어담다	주워담다.
족덜	족제비 덜.	중대	허릿달. 연의 허리 부분에 가로로 붙이는 땃개비.
족박	쭈박.	중	줄.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
족은똥	① 작은똥. ② 막내똥. (똥 가운데) 마지막으로 태어난 똥.	중진하다	중신하다.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다.
족은상제	막내 상제.	지깅	짜인 물체나 담긴 물건이 뽕뽕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
줄락	오줌 따위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모양.	지다	쪼다. 곡식 따위를 잘게 만들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
줄바로	뚝바로.	지달	지달. 말이나 소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앞발 두 쪽과 뒷발 하나를 묶는 줄.
쭈지다	오므리다.	지달싸다	말이나 소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앞발과 뒷발을 지달로 묶다.
쭈팍	나무를 나부죽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	지들팡	부춘돌. 부출 대신 놓아서 발로 디디고 앉아서 뒤를 보게 한 돌.
쭈호미	낫. 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	지레	키. 사람이나 동물이 뚝바로 섰을 때에 발바닥에서 머리 끝에 이르는 몸의 길이.
쭈쌀	쭈쌀.	지성기	기저귀.
주낫술	주낙술.	지시	장아찌.
주넝이	지네.	지실	감자.
주넝이보리	맥주보리.	지직	기직. 띠나 벗짚 따위로 돛자리 모양으로 엮은 물건.
주왓	주먹이나 몸 따위를 갑자기 내미는 모양.		
주쟁기	주저리. 일정한 양의 띠의 끝을 모아 엮어서 무엇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든 물건.		
주쟁이	주저리. 일정한 양의 띠의 끝을 모아 엮어서 무엇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든 물건.		
쭈우리	맥주보리.		
쭈다	깎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좇다	쭈다. 바닥에 떨어지거나		

지프다	값다.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
직	술. 밥 따위의 음식물을 손 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 는 단위.	주물다 ¹	의 느낌.
진쉬	진딧물.	주물다 ²	잠기다.
진줄	'긴 줄'의 뜻으로, 짧은 띠인 '각단'으로 꼬아 만들어 초 가지봉을 단단하게 가로로 묶는 기다란 줄.	주작벧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낸다.
		주주	땡별.
		존자리	자주.
		존다	잠자리.
질다	때다.		결다. 벧짚 따위로 씨와 날 이 서로 어긋매끼게 엮어 짜다.
질을커	떨감.		
질 ¹	길.	졸다	잘다.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질 ²	길. 길이의 단위.		
질 ³	넓. 명석을 세는 단위.		
질다 ¹	긴다. 바가지 따위로 물을 떠내다.	좁	잠.
		좁자다	잠자다. ① 자는 상태에 있 다. ② 숨 따위가 눌러 가라 앉거나 자리가 잡히다.
질다 ²	길다.		
질루다	기르다.	좁아엥기다	잡아당기다.
질	젤. '제일'의 준말.	좁아둥기다	잡아당기다.
짐지	김치.	좁질다	짜다. 누르거나 비틀어서 물기 따위를 빼내다.
집가지	처마.		
집웃인돌뱅이	민달팽이.	찌다	끼다. 꺾거나 꽃아서 걸려 있게 하다.
집줄	초가지봉을 엮어매는 줄. 짧은 띠인 '각단'으로 꼬아 만든다.	찌	짚.
집직이	집지킴. 집을 지키는 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찢텡이	짚동.
		찢신	짚신.
짓다 ¹	깃다. 밭에 잡풀이 많이 나 다.	짜른줄	짧은 띠인 '각단'으로 꼬아 만들어 초가지봉을 단단하 게 세로로 묶는 짧은 줄.
짓다 ²	깃다.		
짓비	장목비. 꿩의 콩지깃을 묶 어 만든 비.	즌물	잔물.
징곳	줄 따위가 무엇에 걸리어		

〈ㄸ〉

착	작.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또는 그중의 하나.
창곰	'창 구멍'의 뜻으로, 부엌이나 고방에 빛을 들이고 바람이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벽을 뚫어서 낸 작은 구멍.
창신	가죽신.
창지	창자. 큰창자와 작은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처가칩	처갓집.
처지	물옷의 아랫배를 가리는 부분을 이르는 말.
천장만장	멀리멀리.
체다	쩌다. 물건을 찢거나 베어 가르다.
척하다	척하다.
챇술가락	챇술.
초나록솔	참쌀.
초다	찌다. 벌이나 불기운 따위를 몸에 받다.
초담	처음.
초신	짚신.
촛	꿀. 마소의 먹이가 되는 풀.
촛눌	꿀을 더민 가리.
촛단	꿀단.
촛	줄.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나타내는 말.
치다	찌다.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

치메
치성메

친

친떡

칠성

চিতা

춸다

춸례

춸리다

춸메기

춸춸이

춸떡

춸례

춸리다

춸다

춸대

춸말

춸연

춸지름

춸쌀

춸다

〈ㅋ〉

카다

치마.

삼신메. 삼신에게 빌 때 삼신상에 차려 놓는 쌀밥.

끈.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시루떡.

뱀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찢다.

짜다.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차례.

차리다.

열무.

천천히.

찰떡.

밥에 딸리어 먹는 장, 젓 따위의 간이 들어간 반찬.

차리다.

참다.

참대. 낱싹대.

참말.

쟁연. 쟁연을 꼬박연과 비교하여 이르는 말.

참기름.

참쌀.

춸다.

타다. 다량의 액체에 소량

	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 어 섞다.	털어지다	떨어지다.
컴직하다	قم직하다.	테	때.
케다	캐다.	테역	잔다.
케우다	태우다. 불타게 하다.	토끼연	쟁연을 가파도에서 부르는 이름. 연의 가장자리를 돌 아가면서 실을 넣고 고불친 다.
코	췌췌. 어린아이가 다쳐 아 파할 때 다친 자리에 입김 을 불어넣어 주는 소리.	톨	툏.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 조.
코타지다	귀때가 피이다. ‘잘못되다’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톱그르	톱가루.
콤포대산이	마늘.	톱밥	톱가루.
콩국	콩국. 콩가루에 파란 배추 또는 무를 썰어 넣어서 함 께 끓인 국.	통얼레	육모얼레나 팔모얼레를 통 틀어 이르는 말.
콩놀	콩을 더민 가리.	통치메	통치마.
콩나물콩	기름콩. 콩나물로 기르는 콩.	튀다	튀다.
괘	단춧구멍.	트다 ¹	뜨다. 물속이나 지면 따위 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위나 공중으로 솟아 오르다.
쿠	췌췌. 어린아이가 다쳐 아 파할 때 다친 자리에 입김 을 불어넣어 주는 소리.	트다 ²	뜨다. 감았던 눈을 벌리다.
큰똥	큰똥.	트다 ³	뜨다. 누룩이나 메주 따위 가 발효하다.
큰족은똥	넋째 가운데 셋째 딸.	튼봉수	눈뜯장님.
큰큰하다	커다랗다. 크나크다.	틀다	뜯다.
		틀	산딸나무의 열매.
		틀냥	산딸나무.
〈ㅌ〉		툏받이	툏받이.
		툏씻은거	툏찌꺼기. 먹고 남은 음식.
타다	따다. 붙어 있는 것을 잡아 떼다.	툏	툏. 사람의 입 아래에 있는 뾰족하게 나온 부분.
타앗다	탈것이나 짐승의 몸 위에 몸을 엮고 앓다.	툏깍신	판총박이. 충을 따로 대지 아니하고 짚으로 결어 나가 면서 충을 꼬아 삼은 짚신.
털다	떨다.		

툰다 뜯다.

분.
폴다 팔다.
풋 팔.
풋밥 팔밥.

〈ㅍ〉

퍼렁허다 퍼렁다.
퍼싸다 많이 싸다.
퍼씨다 마구 쓰다.
퍼자다 한껏 잠을 자다.
페랍다 페롭다.
포부뜨다 맞붙다.
폭남 팽나무.
폭낭 팽나무.
꾸끄다 부치다. 부채 따위를 흔들
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꾸더지다 넘어지다.
꾸린콩 푸르대콩. 콩의 한 품종.
꾸지게 ‘폴로 만든 지게’라는 뜻으
로, 돌 따위를 운반하기 위
하여 짚이나 띠로 등받이를
만들고 밑배만 단 지게.
품 샷.
풍지 갈개발. 연이 잘 날지 않을
때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활벌이줄에 매는 종이.
피력 한자어 ‘필역’(畢役)에서 온
말로, 장지에서 일을 끝내
고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누어주는 떡이나
물건.
피쌀 핏쌀. 피의 겉겨를 벗긴 쌀.
꾸래 파래. 바닷풀의 한 종류.
풀 팔. 어깨와 손목 사이의 부

〈ㅎ〉

하간 온갖.
하늬부름 하늬바람.
하다 많다.
하르바지 할아버지.
하르비군벗 털군부.
하시보다 하시하다. 남을 얹잡아 낮
추다.
하영 많이.
하우염 하품.
한걸허다 ① 한가하다. ② 가볍다. 마
음이 홀가분하고 가뿐하다.
한다바리 잠자리.
한한허다 하고하다.
할망 ① 할머니. ② 나이 든 사람
이 제 아내를 이르는 말.
할망상 삼신상. 아기를 낳은 뒤에
삼신에게 올리는 상.
할타먹다 할아먹다. 옳지 못한 수단
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다.
항 항아리.
해 많이.
허다 하다.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
루다.
허리 물ومت의 가운데 부분을 이르

는 말.
 허멍이문세 쓸모없는 문서.
 허물 종기.
 허송언 예끼.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허쉬 개치네췌.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
 허염직허다 하염직하다.
 험벽눈 함박눈.
 험데다 노닥이다. 되는 말 아니 되는 말을 마구 늘어놓다.
 해끔 조금.
 해 해. '태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험직허다 하염직하다.
 행상 상여.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장지까지 나르는 도구.
 호 호적.
 호리보다 물건을 제값보다 밑으로 보거나 낮게 평가하다.
 호미 낫. 곡식,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
 호박입 호박잎.
 호상돌 고명딸. 외동딸.
 혼차 혼자.
 홀목 손목.
 화룩 매우 급한 모양.
 확 얼른.

활 활벌이줄.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황새 황소.
 해걸음 활개치며 바삐 걷는 걸음.
 홀터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몹시 바빠.
 홀트다 훑다.
 훑다 굶다.
 훑지랑허다 굶다랑다.
 흐리다 차지다.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있다.
 흐린조 차조.
 흐린좁쌀 차좁쌀.
 흑 흙.
 흔들다 흔들다.
 희땃 희땃.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자빠지는 모양.
 후꿈 조금.
 후나 하나.
 후나후나 하나하나.
 후르 하루.
 후쌀 조금.
 훈끗 한껏.
 훈번 한번.
 훈입 한입.
 훈잔 한잔.
 훈집 한집. 같은 집.

• 연구진

• 공동 연구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연구보조

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서수빈, 현혜경(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교정 교열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사진

서재철(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 관장)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삽화

이강인(글씨와 그림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누리집 <http://www.jst.re.kr>

전화 064-726-5623 모사전송 064-747-614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어가 외국어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5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국여지승람》(1481)의 ‘이어간삽’(俚語艱澁), 곧 ‘촌백성의 말이
간삽하다’고 한 표현이 그걸 말해줍니다.

제주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제주어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언어 등
고어가 살아있고, 제주의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어휘들이 삶의 언어로
팔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에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학총서 19’로 《제주말의 이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발간한 책자가 부족하고, 책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와 함께 쉽게 쓴 제주어 안내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점차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책이 《제주어 길라잡이》입니다.

- ‘책을 내며’ 중에서

비매품



9 791197 484902

ISBN 979-11-974849-0-2